

경기도마을기록사업 ①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 아흔아홉 골과 논에 이름이 있는 마을

용뚝이 돌보는 생태마을 용강리

2011

大坡面

山安守

臺烽

古車面

洋車村面

奈車面

叱田面

奉城面

所領面

山麓月

月全車面

浦津面

文殊山城  
文殊寺

將別

大池

客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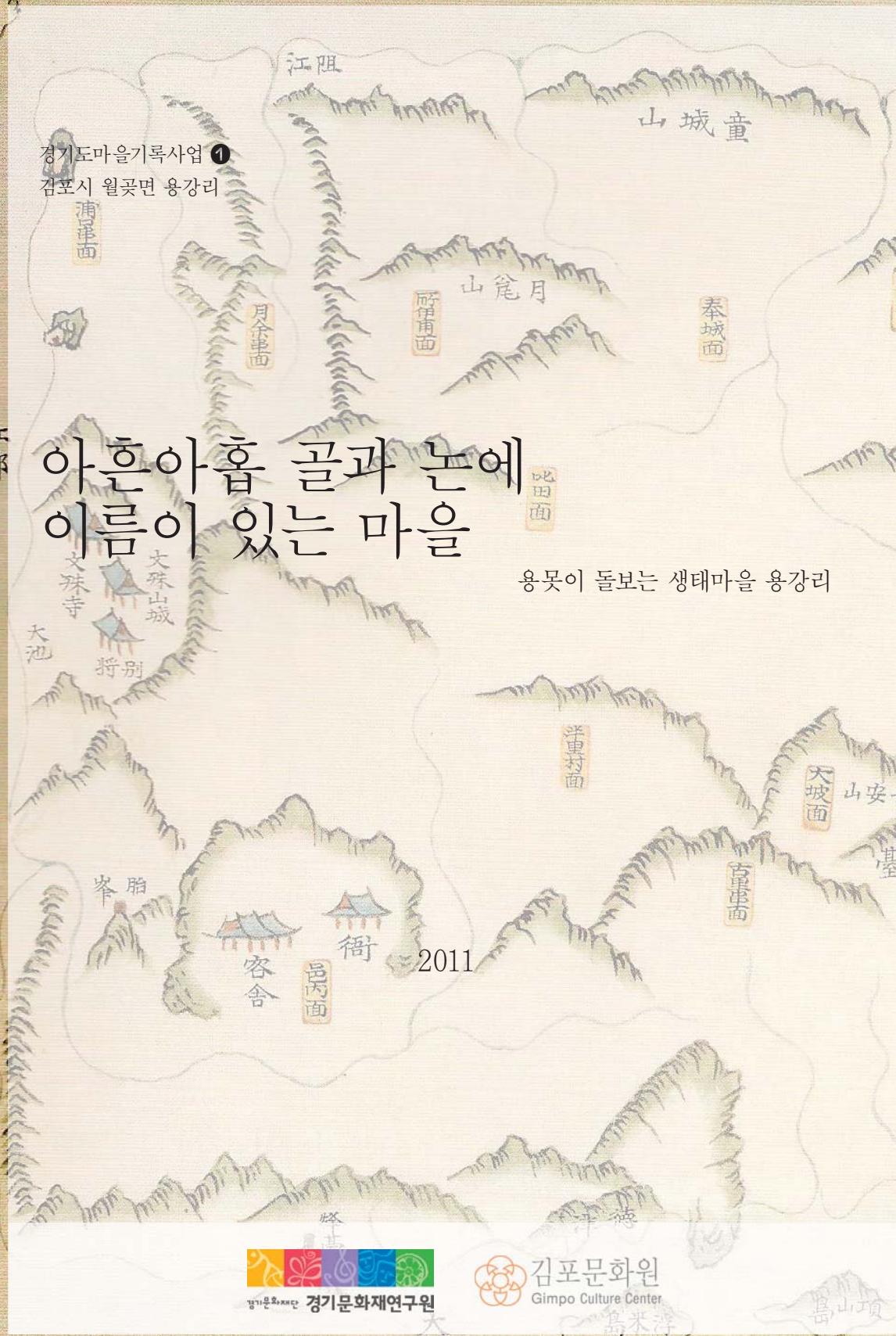
衙

邑丙面

峯胎

江都

甲串大洋





용강리 전경







이 마을지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실에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마을기록사업」의 일환으로 김포문화원과 함께 MOU사업으로 제작되었다. 용강리는 김포문화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마을지는 경기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과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기록, 제작되었음을 밝힌다.

#### **일러두기**

이 마을은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보자의 주소나 위치, 지도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지 않았다. 또한 제보자의 초상권, 개인신상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책에 실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제보자의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는 경기도에서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을 찾아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경기도 마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마을은 그 마을만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대를 걸쳐 살아오는 동안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삶의 방식과 문화의 향유도 달라져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전통의 모습을 현재 시점에서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자손들도 그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마을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오늘날 경기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대변하는 독특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성립배경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면 볼수록 실타래처럼 풀어져 나오는 이야기는 이 마을만이 간직한 역사일 것입니다.

이번 김포 용강리 마을 기록화사업은 그 의미는 물론 성과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분들의 사연은 물론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그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기록해 두어야 할 가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문화현창(文化顯彰)사업을 위한 콘텐츠개발에 있어서 원천 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어 더욱 조사의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아흔아홉 골짜기와 논마다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용강리 마을”의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김포문화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끝으로 이 기록화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은 용강리 마을 사람들과 김포시, 김포문화원, 월곶면사무소 여러분과 조사에 참여한 집필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2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 조 유 전



## 발간사

김포는 경기도 북서단에 위치한 반도지역으로 한국의 젖줄인 한강을 끼고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쌀 생산지로 자리매김 되어왔습니다. 또한 전통민요와 각종 설화가 많아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후손에게 보전 전승시키고 내고장의 역사를 남기고자 『용강리 마을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용강리 마을지』의 발간은 용강리의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용강리 마을지』는 용강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용강리의 기초적인 삶의 터전과 환경, 마을의 형성과 공동체, 주민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마을 유산과 전해오는 민속 및 자랑거리, 마을의 옛 추억과 미래 등을 다양한 글과 사진으로 함께 엮었습니다.

김포시 역사와 문화 발자취를 일관성 있게 바로 알리는 전문기관의 조사와 연구, 자료보전에 힘입어 자손들에게 다소나마 실상을 계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통적 생활문화 보존은 지방자치시대에 향기 풍기는 문화의 꽃으로 생각해 나가야 하겠으며, 앞서가는 김포시 도시생활의 전통적 상징으로 그 가치가 영속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용강리 마을 사람들의 추억과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일이 마을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주신 집필진과 『용강리 마을지』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향토사연구소 류지만 소장님, 그리고 윤상필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 2.

김포문화원 원장 강 보 희

江都

浦里面

文殊寺

大池

甲串大洋

奈里面

大海

大海

島米淳

島山頂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문화와 마을의 원형이 급속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되어가는 마을과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발굴하여 자랑스런 향토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독창적인 문화로 발돋움을 위한 마을지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을지는 한 마을의 무구한 역사의 흐름과 문화유적, 의식주 등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집합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을지를 통해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해 내는 일은 창조 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지역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용강리 마을지 발간을 계기로 지역역사 및 지역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 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완성된 지역사가 아니라 더욱 풍요로운 전통과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향토문화의 소중한 자료를 담은 용강리 마을지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모 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들에게 우리고장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워주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 임진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태내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기 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김포시장 유영록



# 목차

## 제1장 지도로 돌아보는 마을 구경 .....11

1. 장작물에 이팝 먹는 마을
2. 아흔아홉 골과 논 이름

## 제2장 역사 속 용강리와 현재 .....27

1. 역사적 변천사
2. 오랜 성씨와 인물
3. 마을의 현재 모습

## 제3장 마을을 이끌어 가는 모임들 .....51

1. 모든 주민들의 모임-대동회
2. 마을 원로들의 모임-노인회
3. 여성들의 모임-부녀회
4. 상례를 담당하는 모임-상포계
5.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4H클럽
6. 마을 최고의 일꾼들의 모임-진농회
7. 실향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임-강령포주민모임

## 제4장 마을의 생태환경 .....65

1. 가을걷이가 한창인 용강리
2. 뱃사람들의 마을, 강령포
3.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던 강과 바다
4. 삶에 보탬이 되는 산
5. 안들에서 가꾸어 온 쌀과 밭작물
6. 농기구와 생활도구

## 제5장 맨드라미 꽃을 보고 시간을 알던 시절 .....93

1. 그 시절의 세시풍속 : 봄·여름·가을·겨울



## 제6장 마을사람들의 기원 ..... 107

1. 용못고사
2. 강령포 당제
3. 가정고사

## 제7장 마을사람들의 생애의례 ..... 123

1. 시어머니가 산파 : 출산례
2. 선도 못 보고 온 시집 : 혼례
3. 다함께 대처한 죽음 : 상례·장례
4. 조상의 은덕에 감사 : 제례

## 제8장 마을사람들의 일상생활 ..... 163

1. 집집마다 술 익는 향기 : 식생활
2. 불 파마하고 오면 침을 뱉뱉뱌 : 의생활
3. 안방이 제일 중요한 곳 : 주생활

## 제9장 마을사람들의 여가생활 ..... 201

1.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들
2. “어디 넘쳐 어허요” : 노랫소리
3. “치군놀이” 구경 : 민속놀이

## 제10장 내 살아온 내력과 마을이야기 ..... 221

1. 내 살아온 내력
2. 내가 쓰는 우리 마을이야기 (정유현/신상숙)

## 제11장 용강리 마을의 문화자원 ..... 261

1. 용강리 마을의 이런저런 자원들
2. 농촌 전통 테마마을 - 매화미르마을
3. 용강리 마을의 문화콘텐츠 활용

## 부록 : 먼지락, 새마을, 용림말의 세 마을로 이루어진 용강리 ..... 287

江華界

交河界

金浦界

來浮









## 제1장 지도로 돌아보는 마을 구경

1. 장작불에 이팝 먹는 마을
2. 아흔아홉 골과 논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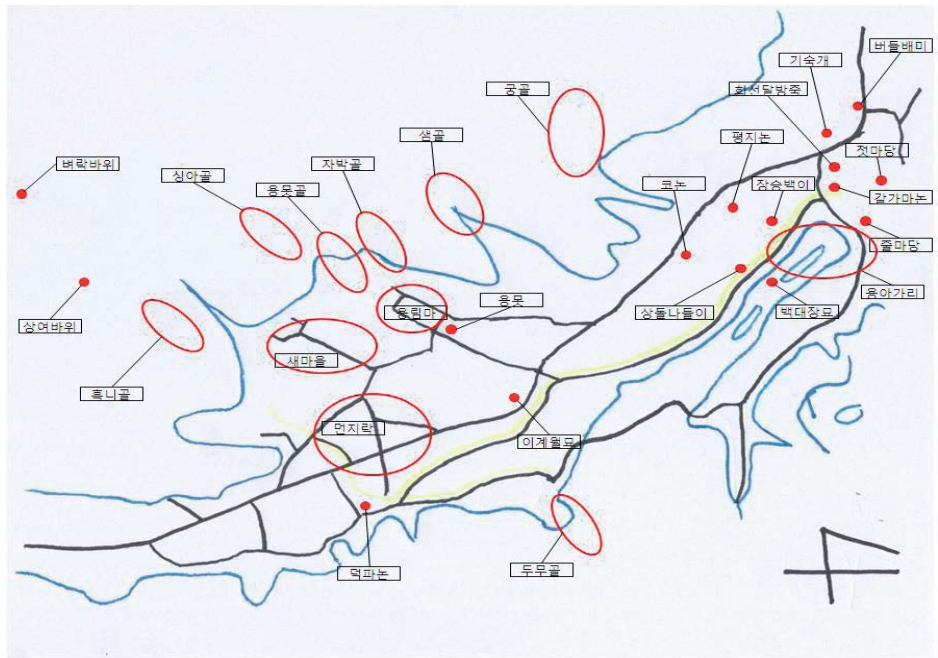




## 1. 장작불에 이팝 먹는 마을

용강리는 김포시의 북서쪽 끝에 있는 마을로 동쪽으로 조강리, 서쪽으로 보구곶리, 남쪽으로 성동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sup>1)</sup> 마을의 자연 환경은 서쪽에 문수산이 솟아 있으며 그 자락이 뻗어 용강리의 남쪽까지 감싸고 있다. 동쪽으로 멀리 애기봉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북쪽의 넓은 들 끝에는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이처럼 용강리는 넓은 들과 높은 산, 큰 강과 바다가 함께 있어 인근 지역에 비해 물산이 풍부하였다. 예전부터 김포 내에서 '장작불에 이팝 먹는 곳은 용강리 뿐이다'라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용강리로 시집 가는 사람을 '영전(榮轉)해 간다'라고 하였다. 현재는 용강리 앞 한강이 북한과의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으로 설정되어 있어 용강리는 민간인통제선(民間人統制線)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가기가 자유롭지 않다.

1) 용강리는 김포시청에서 북서 방향으로 약 19km, 월곶면 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김포시청에서 용강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김포시청 앞을 지나는 48번 국도를 따라 간다. 48번 국도 월곶(강화) 방향으로 약 17km정도 가다보면 갈산사거리가 나온다. 갈산사거리에 우회전하여 1km정도 지난 후 애기봉로 김포조각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한다. 그리고 약 500m 이동 후 용강로 김포조각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약 4km를 직진하면 용강리에 들어갈 수 있다.



골마다, 논마다 붉은 이름





1992년 용림말



1992년 새마을과 먼지락

과거 용강리는 '이기울'이라고 불렸다. 인근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용강리는 몰라도 '이기울'은 모두 알았다고 한다. 이기울이란 명칭은 예전 고려시대에 이계월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마을에는 '이계월의 묘'라고 알려진 곳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계월의 실제 묘인지에 대해서는 마을 내에서 논란이 있다.

그게 이계월이 묘가 아니라 예전에 어른들이 강령포 사는 어른 한 명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거를 강령포 사람들이 관리를 해준거야. 그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 했어. 이게 이계월의 묘가 아니라니까. 이계월의 묘는, 그게 옛날 어른들이 궁골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있겠어? 고려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그 묘가 아직까지 있겠냐고. 벌써 없어지고 지금은 못 찾지. 그런데 궁골 어디에 있다고 예전부터 그랬었어.<sup>2)</sup>

용강리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강령포와 아랫말, 용림말의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먼지락은 4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강령포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아랫말과 용림말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마을의 생업이 다른 만큼 마을 사이의 분명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났다. 강령포의 경우 어업을 중시하여 풍어를 벌고 바다에서 아무 사고가 없도록 당제를 중요하게 지냈다.



2) 정해균(남, 74세) 제보





또한 인근의 하천을 메워 공간을 확보하려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아 연안마을의 공간적 특징인 좁은 토지에 밀집된 주거형태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아랫말과 용림말의 경우 농촌마을의 전형적인 특징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을 뒤로 문수산이 있으며, 마을 앞으로 넓은 토지와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농업용수의 근원인 용못을 중요하게 여겨 용못고사를 지내왔다. 한 마을 안에서 어업문화권과 농업문화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이계월의 묘로 알려진 곳



용강리는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전국의 4351개 면을 2517개 면으로 줄일 때 김포군, 통진군, 양천군을 합해 확대 편제된 김포군에 편입시켜 김포군 월곶면이 되었다. 이때 보곶면에 속했던 흥룡리와 강령포를 서로 합치면서 마을 이름을 흥룡리의 용(龍)자와 강령포의 강(康)자를 합성하여 용강리(龍康里)라 하고 월곶면에 두어 오늘에 이른다.



**용림말** : 연기현감을 지낸 윤성이 입향한 이래 10대에 걸쳐 파평 윤씨가 세거해 오고 있다. 이곳에는 용못이 있다. 한문으로 용연(龍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365일, 사철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다. 이 용못이 얼마나 유명한가는 역사기록이 증명한 다. 1760년(영조 36)에 간행된 <여지도서>의 통진부편에 실린 통진부지도에 그림과 함께 표시되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후 1871년(고종 8)에 통진부에서 펴낸 <통진읍지>의 지도에도 보구곶면 유도 앞에 용연(龍淵)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용못에 얽힌 “이무기 전설”도 있지만 용은 곧 물을 상징한다. 오묘한 물의 조화가 용이다. 옛 농기(農旗)에는 용의 형상이나 물고

기를 꼭 그렸다. 용이 물을 가져와야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면 농민들은 용의 깃발을 앞세우고 두레놀이를 하고 고사를 지냈다. 용의 깃발 앞에 꿇어 앉아 비가 오기를 두 손 모아 빌고, 풍년이 들기를 축원했다. 이와 같이 용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존재요, 우주의 천공에 가득 찬 영기를 뿜어내어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불가사의한 존재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 용못에서도 용왕제를 지냈다. 용강리 주민들은 이 용연 덕에 물 걱정 없이 매년 풍년 농사를 짓고 있다. 용못, 용못말, 용림말 등으로 이 마을을 부르는 것은 모두 이 용연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령포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아랫말과 용림말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마을의 생업이 다른 만큼 마을 사이의 분명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났다. 강령포의 경우 어업을 중시하여 풍어를 빌고 바다에서 아무 사고가 없도록 당제를 중요하게 지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강령포와 아랫말 주민들이 소개(疏開)되면서 강령포와 아랫말은 폐동이 되었다. 아랫말 주민들은 대부분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 먼지락에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용강리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강령포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부 토지를 보유한 주민들 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이 민통선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특징이 공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새마을의 경우 민통선 내에 위치한 마을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은 1980년에 새롭게 조성된 마을로 주변지역보다 지대가 높아 북한의 시야에 보이는 '적 가시지역(敵可視地域)'이었다. 그래서 마을을 조성할 당시 건물들을 고급 양옥으로 지었으며, 한편으로는 포격에 대비한 방공호를 만들어두었다.



1942년 기준. 용강리 주민이 그린 마을지도  
(이익현 씨 보유)



웅림말과 새마을 지도



먼지락 지도



- |         |         |
|---------|---------|
| 1. 윤상필  | 17. 이우일 |
| 2. 빈집   | 18.     |
| 3. 서봉환  | 19.     |
| 4. 정기자  | 20. 김태순 |
| 5.      | 21. 김태봉 |
| 6. 정해근  | 22.     |
| 7. 정해근  | 23.     |
| 8. 이인희  | 24. 이양렬 |
| 9. 민규식  | 25. 김형만 |
| 10. 정기자 | 26.     |
| 11. 정해근 | 27. 정유현 |
| 12. 빈집  | 28.     |
| 13. 빈집  | 29. 묘적사 |
| 14. 이영례 | 30.     |
| 15.     | 31. 정면식 |
| 16. 권인준 |         |

- |         |         |
|---------|---------|
| 1. 빈집   | 27. 회관  |
| 2. 김영화  | 28. 조성준 |
| 3. 민옥년  | 29. 이정원 |
| 4. 정해은  | 30. 이응제 |
| 5. 빈집   | 31. 빈집  |
| 6. 김수진  | 32. 빈집  |
| 7. 빈집   | 33. 이제웅 |
| 8. 장성림  | 34. 빈집  |
| 9. 이재묵  | 35. 이남웅 |
| 10. 김옥희 | 36. 황형주 |
| 11. 강창순 | 37. 김제관 |
| 12. 이제웅 | 38. 정해일 |
| 13. 정해춘 | 39. 빈집  |
| 14. 채동순 | 40. 조인순 |
| 15. 최병욱 | 41. 권태원 |
| 16. 김상례 | 42. 임병구 |
| 17. 권태일 | 43. 정해언 |
| 18. 이선희 | 44.     |
| 19. 임병인 | 45.     |
| 20. 창고  | 46. 한춘자 |
| 21. 정연식 | 47. 김정웅 |
| 22. 윤자인 | 48. 강혜숙 |
| 23. 창고  | 49. 정욱현 |
| 24. 정대훈 | 50. 조광자 |
| 25. 빈집  | 51.     |
| 26. 이익현 |         |



## 2. 아흔아홉 골과 논 이름

### (1) 골 이름

용강리는 마을 뒤로 문수산이 있어 산자락 사이사이에 많은 골들이 있다. 예전부터 ‘용강리 아흔아홉 골’, ‘용강리 골 이름만 다 알아도 무당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골이 많고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골 명칭들과 유래를 기록한다.

- 샘골 - 샘골은 예전부터 좋은 물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용림말 서북쪽에 있는 골로 샘이 많이 나는 골, 생골이라 불러 오던 곳이 샘골로 음운이 변한 것이다.

- 용못골 - 용못이 있는 곳을 따라 형성된 골짜기라고 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샘골



- 부처골 - 부처골에는 예전에 돌부처가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들 어렸을 때까지 돌부처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돌부처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홍니골 - 배니골에는 삼국시대부터 절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홍룡사'였다. 홍룡사가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홍룡골로 불리다 점차 변음이 되어 홍니골이라고 부른다. 홍룡사는 빈대가 많아서 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현재 인근에 위치한 문수사가 홍룡사가 옮겨간 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도 홍니골에 가면 홍룡사 절터가 있으며 중들이 사용하던 디딜방아도 있다.



문수사



홍룡사 터에 남아있는 디딜방아

- 장자골 - 장자골은 배니골 아래에 있는 골로 예전에 장자부자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제보자는 장자부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자가 많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이 곳에 있던 우물을 장자우물이라고 하였다.

- 궁골 : 샘골 서북쪽에 있는 골로 골이 깊고 가파르다.

- 밭골 : 도둑굴 남쪽의 골로 용림말 바깥에 있다는 뜻.

이 외에 작은 궁골, 배니골(백운곡), 자박골, 해룡골, 싱아골, 통백골, 쇠지기골, 등목골, 소골 등의 명칭이 전하고 있으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 (2) 논 이름

용강리에는 ‘논마다 이름 없는 논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각 논에 붙은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논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논 이름과 유래를 기록한다.

- 줄마당 - 예전 강령포구에 드나들던 배를 밧줄로 묶어두던 곳이었다. 강령포구가 있을 때에는 줄마당 인근까지 배가 들어왔다. 포구가 없어지면서 논으로 변화하였는데도 그 논 이름을 줄마당이라고 부른다. 용강리 14번지.

- 젓마당 - 젓마당논은 새우젓 등 각종 젓갈을 저장하는 독을 쌓아두던 곳이 논으로 바뀌고도 그대로 불렸다. 용강리 15-1, 15-2, 15-3번지.

- 장승백이 - 장승백이는 예전에 장승이 서 있던 자리라고 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장승이 있었던 것은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다. 용강리 130번지 일대.

- 가위논 - 논 모양이 마치 가위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지금은 인근의 논과 농지 정리를 하여 그 모양이 달라져 있다. 용강리 271, 272번지.

- 기숫개(개숙개)논 : 한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개펄을 막아 논으로 만든 데서 연유한 이름 같다. 용강리 130번지 일대.

- 갈가마논 - 예전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은 칩쩍질을 벗겨서 나온 ‘노갈치’로 만들었다. 노갈치는 매우 길긴 편이지만 바닷물에 들어가면 잘 썩어 그물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갈나무의 껍질을 고아서 나온 물을 그물에 들이면 그물이 잘 썩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줄마당



젓마당



기숫개

큰 가마에 갈나무를 삶고 그물에 물을 들였다. 갈가마논은 큰 가마를 걸어두고 그물에 갈물을 들이던 곳이라고 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용강리 21-3번지.



하선달방죽

• 하선달방죽 - 하선달방죽은 예전에 선달 벼슬을 한 사람의 논이었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이다. 용강리 130-2번지.

예전에 벼슬이 선달벼슬이 있어 선달 벼슬이. 선달 벼슬이 어느 직위나면 공부해서 벼슬을 하려고, 요즘으로 치면 고시공부나 마찬가지야. 고시공부를 해가지고 고시에서 패스는 했어. 그런데 벼슬에는 못 나갔어. 그래 그게 선달이야. 그 벼슬을 한 게 선달이야. 그러니까 상놈이나 중인보다는 윗길이지. 고시에는 패스를 했으니까. 그래 하선달방죽이란 게 그 양반의 논이 되니까 하선달방죽이라고 하는거야. 그래 성이 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선달방죽이라고. 어쨌든 선달의 방죽이야. 선달벼슬 한 사람의 방죽이야.<sup>3)</sup>

• 버들배미논 - 예전 강령포에는 북쪽으로 큰 뚝이 있었다. 이 뚝에는 서해와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던 자리를 버들배미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모두 논이 만들어져 있다. 이 버들배미논을 유수논으로 부르기도 한다. 버드나무를 한문으로 유수(柳樹)로 표기한 것 같다. 용강리 140-1, 139번지.

• 성뚝나들이(상돌나들이) - 예전 조선시대에 성이 백씨인 장군이 있었는데, 그 묘가 현재 용강리에 있다. 주민들은 '백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백대장의 묘를 만들 때 눈에 큰 돌을 두고 백장군 묘에 치장할 상돌 등 석물을 깎았다고 한다. 그래서 상돌을 깎은 논이라고 하여 '상돌나들이'라고 불렀으나 점차 변음이 되어 '성뚝나들이'라고 불리고 있다. 용강리 228-1번지.



3) 이익현(남, 84세) 제보

이조시대에 장군 묘가 있어. 백가인데. 백대장. 그게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사는데. 그 대장의 산소에 석물을 했어. 그 제사지내고 할 때 하는 돌맹이 있잖아. 그거를 그 논에다 갖다놓고. 지금은 석재사가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가지만, 그전에는 석재사가 없으니까. 돌을 원돌을 큰 놈을 지고 그 논에





양마석

다가 갖다 놓고선 거기서 상돌이니, 거기 양마석이 있어. 다른 데는 사람 형상을 해서 세워놓고 하잖아. 벼슬한 사람. 그런데 장군 산소가 돼서 말을 만들었어. 그게 양마석이라는 거야. 말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다가 세웠지. 사람 형체는 없어도 산소에 세워 놓는 돌 있잖아. 그 돌을 그 논에서 깎아서 가지고 갔어. 그래서 상돌나들이야. 그런데 예전에는 상돌나들이였는데 이름이 자꾸 오래 되면서 억양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성뚝나들이가 됐어. 그런데 원래 상돌나들이야. 상돌나들이. 상돌놔서 거기서 깎아 가지고 가서.<sup>4)</sup>

- 코논 - 논이 코처럼 길게 생겼다고 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현재는 농지정리를 하여 논이 코 모양이 변하였다. 용강리 223-2번지.
- 평지논 - 논이 아주 평평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용강리 232-1번지.
- 돌목논 - 용강리 224-1, 용강리 224-2번지.
- 덕파논 - 용강리 273번지.
- 중외논 - 용강리 274-2번지.
- 벌집터논 - 백장군의 묘를 지키던 묘지기가 벌판에 묘막을 짓고 살던 집터로 후에 논이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강리 145-9번지.

4) 이익현(남, 84세) 제보

### (3) 마을 곳곳의 지명들

용강리에는 논 이름과 골 이름 외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명이 많다.

- 웃말 - 용림말의 위쪽(남쪽)에 있는 마을.
- 아랫말 - 용림말에서 아래쪽(북쪽)에 있는 마을.
- 건너말 - 웃말의 남쪽편에 있는 마을.
- 넘말 - 건너말 남쪽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
- 먼지락 - 용림말 동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
- 강녕개 - 용림말 북쪽 조강 가에 있던 예전 포구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민가는 하나도 없다. 1899년(고종 36)에 펴낸 <통진읍지>에 법정리로 등재되어 있던 강령포(康寧浦)가 바로 이 마을이었다. 강양개, 강령리, 강령포라 부르기도 한다. 강령포는 한자로 편안할 강(康)자와 편안할 영(寧)자를 쓴다. 경복궁에 왕이 거처하는 곳을 강령전(康寧殿)이라고 부르는데, 왕이 사는 곳처럼 살기가 좋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 용아가리 - 용아가리는 마을 앞 넓은 들판 맞은편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협곡을 부르는 명칭이다. 협곡의 모습이 마치 용의 입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부르는 것으로 마을



용아가리



에서 용아가리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 유도(留島) - 유도는 마을에서 유도섬이라고 주로 부른다. 유도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날 유도가 한강을 따라 흘러와 현재의 위치에 멈추었다는 전설이 있다. 유도에는 1996년 가을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 온 소가 살고 있었는데, 1997년 1월에 해병대가 구조를 한 일이 있다. 그 소를 '평화의 소'라고 부르며 남북한 통일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였다.

- 기숫개 - 기숫개는 원래는 계수개라고 불렸으나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부르는 명칭이 변했다고 한다. 계수개라는 명칭은 시내 계(溪)자에 물 수(水)자를 쓴 것으로 이곳의 물이 워낙 좋아 물이 들어간 한자를 두 개나 썼다고 한다. 겨울이면 이곳의 물을 얼려 석빙고에 보관 했다가 5월에 조기를 잡으러 가는 배들이 이곳의 얼음을 가지고 가서 잡은 조기를 보관했다.

여기는, 옛날에 여기 물을 가두어가지고 석빙고를 만드는데... 석빙고는 장승백이 있는데, 장승백이 눈에 있었어. 그래 여기다 만들면, 기숫개 여기를 물을 막아서 가둬놓으면 겨울내 물이 얼 거 아냐. 그걸 떠다가 여기 석빙고를 만들어. 그럼 5월 조기배가 그게 언제냐면, 백령도 연평도 조기배가 여기 그렇게 유명했었다고. 지금은 조기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꽃게 철에, 5월에 그거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백령도 연평도에 조기배가 최고였다고. 여기에 얼음을 가지고 가서 5월 달에 잡아가지고 다 쟁여가지고, 그걸로 잡아가지고 마포로 싣고 올라가는거야. 그런데 여기에 물을 떠가지고 가야 물이 안 변하지, 그냥 우물물이나 가지고 나가면은 다 변한데. 그만큼 시내 계자 물 수자, 계수계야. 그만큼 여기 물이 좋았다는 거야. 뱃사람들이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두 달씩 배에서 먹을 물을 가져가거든. 그런데 우물물을 가지고 나가면 얼흘도 안 돼서 이끼가 끼서 못 먹는데 여기 물은 한 달 두 달 먹어도 이끼가 안 끼.<sup>5)</sup>

- 선유재 - 배미골에 올라가면 넓고 평평한 자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예전의 선비들이 놀았다고 하여 선유재라고 부른다.

- 벼락바위 - 배니골을 따라 선유재를 넘어가면 큰 바위

5) 이영범(남, 49세),  
이익현(남, 84세) 제보



벼락바위



고래굴

가 나오는데 이것을 '벼락바위'라고 부른다. 벼락바위는 가운데가 크게 쪼개져 있는데 벼락을 맞은 흔적이라고 한다.

- 고래굴 - 배니골 인근에 작은 굴이 있는데 이것을 '고래굴'이라고 부른다. 호랑이가 이 굴에 살았다고 하여 '호랑이굴'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전쟁 당시 이 굴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 송대장과 백대장 묘 - 예전 용강리에 백대장과 송대장이 있었는데 두 대장이 서로의 능력을 겨루었다고 한다. 두 대장이 능력을 겨룰 때에 말 발굽소리와 말에 달린 요령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고 한다. 송대장이 있는 묘는 사라지고 없지만 송대장 묘가 있는 곳을 '송산'이라고 부른다. 백대장의 묘는 현재까지 자손들이 찾아와 묘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 백대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 위에는 송대장이 있었어. 송대장 산소가 있고 이쪽에는 백대장 산소가 있는데. 이게 옛날이야기라 정말인지 모르는데,



백대장묘



두 대장이 서로 능력을 겨누거지.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위에서 말이, 예전에는 말이 요령도 달고 그래서 소리가 나잖아. 거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백대장하고 서로 내기를 했다는 그런 전설은 있어. 송대장은 그런 게 다 없어져서 모르지. 그런데 그 송대장이 있는 곳이 송산이야. 송대장 자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백대장은 위답도 있고 그래서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러 와. 소골 1번지, 2번지가 백대장네 묘답이야.<sup>6)</sup>

- 도둑굴산 - 용림말 동북쪽 조강과 경계지점에 있는 산으로 해발 66.1m의 삼각점이 있다고 하나 군부대가 있어 확인 할 수가 없다. 이 산의 서편에 있는 골을 도둑굴이라고 부른다.

- 새다리목 - 용림말 북쪽 들을 흐르는 시내 위에 놓은 다리로 예전에는 이 다리 밑까지 조수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 광성넙두리 - 장승배기 안(남쪽)에 있는 들.

- 홍룡사 터 - 용림말 남쪽 문수산 계곡에 있었던 절터로 지금도 기와편이 호트러져 있다. 특히 요사채 터로 추정이 되는 곳에는 아주 작은 돌절구가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빈대가 많아서 중들이 절을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옛 홍룡리라는 법정리의 이름이 이 절에 연유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곡 아래 용못이 있어서 홍룡사, 홍룡리와 같은 용과 관련되는 지명과 사찰명이 생긴 것 같다.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통진부 불우(佛宇)편에 “문수사와 홍룡사가 모두 문수산에 있다. (文殊寺興龍寺俱在比兒山)”고 기록되어 있다. 그 계곡의 동쪽 골짜기인 배니골에는 용호사(龍虎寺)가 있었다고 한다.



홍룡사 터

- 당제산 : 강녕개에 있는 해발 30m 정도의 산으로, 지적도상에는 용강리 43번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조강 강가에 접하여 섬처럼 솟아 있다. 예전 강녕개가 홍청거리는 포구였던 시절 뱃길의 무사함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제(堂祭)를 지내던 산이다. 포구마을에서 지내는 당제는 용왕제(龍王祭)라 불렸다. 지금도 강령포에서 성장한 20여 명의 이주민들이 매년 음력 4월 8일 이곳 당제산에 모여 당제를 지내고 있다.

6) 이익현(남, 84세) 제보

당제산



• 노구여 : 주민들은 노군여 또는 노곤여라고도 불렀다. 강녕개 앞 한강에 있는 여로 이 여를 지나다 배들이 자주 좌초하여 뱃사람들이 ‘노구메’, 즉 산천신(山川神)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노구술(구리나 놋쇠로 만든 술)에 지은 밥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노고(老姑)가 노구가 된 것이다. 1842년(헌종 8)에 간행된 <통진읍지>에 노고여가 부(府)의 북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노구여 암초가 강령포구의 쇠퇴를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옛날 수많은 세곡선이 이곳에서 좌초했을 것이다. 16세에 강령포를 떠난 권오민 씨(75)는 어려서 곡식을 실은 배들이 좌초하여 침몰하면 썰물에 노구여에 걸쳐 있는 파손된 배에서 남은 곡식을 건져서 가져온 적이 있다고 했다. 주민 정해균 씨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해군 함정 중 척후선(斥候船)이 한강을 탐사하다 이곳 노구여에 부딪쳐 파손된 적이 있고, 그때 프랑스 척후선이 버린 철제 닻이 아직 그곳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선친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뱃길을 떠나기 전에 뱃길의 안녕을 빌고 의지할 당할머니, 당할아버지, 용신, 용궁신, 해룡신, 미륵신 등 수신계(水神系)의 신에게 고사(告祀)나 당제를 지냈다. 미루어보면 용강리의 옛 강령포, 홍룡리는 모두 한강과 용뭍에 뿌리를 둔 토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땅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제2장 역사 속 용강리와 현재

1. 역사적 변천사
2. 오랜 성씨와 인물
3. 마을의 현재 모습



## 1. 역사적 변천사

문수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는 한반도 중심부인 경기도의 북서부에서 서해로 뻗어 있는 김포반도의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는 문수산(376.1m)자락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祖江)과 유도(留島)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강 건너 북쪽으로는 북한 개풍군 임한면 하조강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 리계(里界)는 서쪽으로 보구곶리, 성동리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조강리, 남쪽으로는 고막리와 접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산맥이 백두대간의 큰 줄기를 따라 남으로 뻗어 이어져 있으나 문수산은 태백산맥의 북단에서부터 추가령 구조곡의 동쪽 연변을 따라 뻗어 나와 경기도의 광주지방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에서 북쪽으로 이어져 치솟아 올랐다. 그래서 문수산은 기(氣)가 넘치는 산이라고 한다. 그 기의 한 혈(穴)이 용강리로 뻗어 내려왔다고 한다.

좋은 기를 듬뿍 머금은 터전과 한강 하구의 퇴적층이 이루어 낸 기름진 농토, 그리고 용못에서 솟아나는 풍부한 물은 용강리 사람들의 삶을 살지게 했다. 한마디로 활기 넘



치는 부촌이었다. 옛 강령포나루 앞은 한강물과 임진강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기수지역(汽水地域)으로 숭어, 뱀장어 등 어자원이 풍부했다.

강령포나루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세곡선들과 각종화물을 실은 배들이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하여 거쳐 가던 나루터였다. 1850년경에는 개성과 서울을 잇는 물류의 요충지로 불야성을 이루어 경제활동이 왕성하였던 시절도 있었다. 이때에는 300여 가구가 살았

고 한다. 그러나 당제산에 있던 뱃길을 옮기고 나서 자주 사고가 잇따르자 마을 주민들이 인근의 조강리 등지로 살림을 옮겨 한국전쟁 이전에는 60여 가구만 살았다고 한다.

한편 강령포는 나루터이며 규모를 갖춘 한강하구의 어촌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변창했던 어항의 흔적들이 지금도 논 이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줄마당, 젓마당, 갈가마논 등이 당시 어항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강령포나루가 없어지면서 택지가 논이 된 것이다. 옛 마을은 유도 앞 보구곶리와와 경계지점에서 강변을 따라 당제산에 이르는 사이와 문수산 자락을 잇는 양지 바른 터전에 주택이 산재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현재 전답이 되어 있는데도 지적상에는 대지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많다. 유도 앞 강하구에 숨어 있는 노구여<sup>1)</sup>는 강령포나루를 드나드는 선박에게는 큰 장애물이었다. 이곳에서 많은 배들이 파손되어 침몰했다고 한다. 이것이 강령포나루의 쇠퇴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옆 마을 조강리에 조강나루가 생겨 조강나루를 이용하는 배가 많아지면서 조강나루의 규모가 커졌고 상대적으로 강령포나루의 기능은 축소되었다고 한다. 휴전 직후 한강하구 강령포마을에 군사시설인 진지와 철조망이 구축되고 난 후 이곳에서 누대를 살아온 이곳 50여 호 주민들은 정부의 소개령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모두 현재의 용강리 자리로 이주하게 됐다. 배가 닿던 곳은 개펄로 남아 있고 마을이 있던 자리는 논이 되어 옛 강령포 일대 나루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용강리의 역사적 변천사는 별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김포지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사적 개념의 김포역사를 개관하면서 연유하여 볼 수 있다.



강령포나루

1) 여는 파도가 치거나 썰물에 나타나는 돌섬-암초

## (1) 구석기시대

김포에서 처음 구석기 유물이 발굴된 것은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는 장기동에서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발굴조사를 통해 주먹찌르개, 긁개, 찌개 등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고촌읍 신곡리 산 36-3번지 일대에서 2006년 6월 인하대 박물관의 지표조사와 2007년, 2008년에 실시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를 통해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찌개, 긁개, 몸돌 등 600여 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어 한강하류의 구석기 문화를 가늠하게 됐다. 이렇게 구석기 유물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강하류 유역인 이곳 김포반도는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 있다.

## (2) 신석기시대

김포의 신석기시대 유적지로는 통진읍 가현리가 있다. 가현리 해란산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 이내의 이 일대 김포평야에는 니탄층(泥炭層)이 분포하고 있다. 니탄층을 일명 토탄이라고도 하는데 가현리 일대 토탄층을 서울대학교 박물관(당시 관장 임효재)이 1980년대부터 조사했는데 조사 중에 신석기유물이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파쇄용 원반형석기<sup>2)</sup>와 반월형돌칼<sup>3)</sup>, 조, 범씨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범씨로서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2010년경의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에 개최한 김포 고대 쌀 문화 학술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도작문화가 대륙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는 북로설보다 양자강 하류로부터 조류(潮流)의 이동 경로를 따라 경기만으로 유입되었다는 학설이 설득력을 지닌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보면 한강하구에 위치한 용강리에서도 일찍부터 벼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옆 동네 조강리 밀다리 논에서 생산된 「밀다리쌀」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가 되었고 1949년에도 「밀다리햅쌀」 3말을 대통령께 올린 적이 있다.

## (3) 청동기시대

2) 곡물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돌도구

3)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청동기시대 유물로는 지방기념물 91호로 지정된 통진읍 고정리 산15번지에 있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운양동 314-2번지, 운양동 78번지, 운양동 69번지, 운양동 58-2번



지, 운양동 58-4번지, 양촌읍 마산리 산8번지, 마산리 산27번지, 마산리 산87번지, 마산리 산90번지, 석모리 984번지, 하성면 시암리 130번지 등에 고인돌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는 농경의 최적지요, 물고기와 소금을 구하기 쉬운 김포반도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부족이 존재했음을 추정케 한다. 아직까지 용강리 일대에서 고인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하성면 시암리 한강하구 강변에 고인돌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 자연환경이 좋고, 물고기 등 먹을거리가 풍부한 용강리에 상당한 세력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철기시대

우리나라의 철기시대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김포지역에서 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굴 출토된 것은 아주 근래의 일이다.

최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양촌읍 학운리의 양촌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조사한 결과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 1기와 원삼국시대 주거지 1기, 원삼국시대 옹관(甕棺)가마 1기, 주구묘(周溝墓) 5기가 발굴되었다. 이어 (재)한강문화재연구원의 운양동 모담산 발굴조사에서도 철기시대의 주구묘, 주구목관묘, 철검, 철모, 철촉 등 100여 점의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특히 금제 귀거리 1쌍과 120cm짜리 철검은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뒤늦게나마 김포지역에서도 철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이 시기 김포반도에도 거대한 연맹체의 정치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농업생산력을 증진시켰을 것이고 이는 곧 부의 축적을 가져왔을 것이며 축적된 부와 철제 무기는 세력 간의 정복전쟁을 야기시켜 승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집단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는 삼한(三韓)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김포지역은 마한(馬韓)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한은 54개 소국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이 중 하나인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이 바로 김포·통진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는 설(說)에 의하면 용강리도 마한의 영토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5) 삼국 - 고려시대

삼국시대 김포반도는 백제의 영역으로 백제 초기의 도읍지인 한성에서 아주 가깝고 한강하류의 옥토지역이요, 한성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에 대한 특별한 문헌기록은 없다. 초기 백제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김포지역에 산재해

있는 성지(城址) 유적을 들 수 있다. 현재 김포시에서 조사된 삼국시대의 성지로는 대곶면 울생리 수안산성지와 대릉리성지, 그리고 하성면 원산리성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삼국시대 초·중기 백제가 한강유역을 점유할 때 축성되었고 고구려가 김포지역을 침입하여 백제가 김포지역을 상실할 때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포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되었던 시기는 396년(광개토대왕 6)부터 나제동맹군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한 551년(양원왕 7)까지인 150여 년에 달하는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지배하였을 때에는 김포반도에 검포현(옛 김포면), 수이홀(김포구읍 남쪽), 동자홀현(통진 고읍), 평회압현(월곶면), 재차파의현(서울 강서 지역)을 설치하였다.

김포지역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시기는 553년(진흥왕 14)이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한강하류지역을 점령하였는데 김포지역을 포함한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은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 외에 서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교역이 가능한 문호를 얻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신라가 남양만에 당항성(黨項城)<sup>4)</sup>을 쌓은 뒤 이를 거점으로 진흥왕 25년(564) 때부터 중국에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삼국통일의 커다란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만일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지 못했다면 서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통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은 신라 역사에 있어 대외정책의 중요 출입구를 개척한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통일 후 경덕왕은 전 국토를 9주 5소경으로 재편하면서 한주(漢州)에 속한 김포반도를 2군(郡) 5현(縣)으로 나누어 김포현, 수성현, 동성현, 분진현, 공암현으로 개칭하고 공암현은 울진군의 영현(領縣)으로, 그 외 나머지는 장제군(長提郡: 지금의 부평)의 영현으로 삼았다.

후삼국시대의 김포지역은 개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해상세력을 가지고 있던 왕건의 지배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리적으로 한강하류지역에 위치하여 해상활동을 펼치기에 용이하고, 식량자원이 풍부한 충적지로 조성된 넓은 김포평야를 끼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고려 이전에 조성된 산성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왕건에게 협조하여 고려 건국에 일조를 했던 호족세력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고려시대 940년(태조 23)에 분진을 통진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이들 5개 현을 모두 수주(樹州: 지금의 부평)의 영현으로 삼았고, 1172년(명종 2)에는 김포현을 분리하여 감무를 두었으며, 1198년(신종 1)에는 현령을 두었다. 1310년(충선왕 2)에는 공암현을 양천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수주에서 분리하여 감무를 두었으며, 1391년(공양왕 3)에는 통진현에 감무가 설치되었다. 당시 용강리 지역은 통진현에 속했다.

4)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32번지의 구봉산(九峰山)에 위치함. 사적 217호. 둘레 1200m, 면적 157,689㎡



## (6) 조선시대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에 통진현에 현감을 두고, 동성현과 수안현(수성현을 고려 초에 수안으로 개칭)을 통진현에 편입시켰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왜선이 이곳 강령포나루 앞을 지나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행주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강 건너인 지금의 고촌지역 싯골(薪洞) 마을사람들은 미리 산마루에서 남자들은 쏠나무를 준비하고 여자들은 돌을 마련하여 대기하다가 행주산성을 공격해오는 왜선을 향하여 불을 당긴 쏠나무와 돌을 던져서 왜선을 불태워 침몰시켰다고 한다. 이 전투로 인하여 이 마을이름이 싯골이 되었다고 한다.

1627년(인조 4)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는 김상응을 유도대장에 명하여 한성을 지키게 하고 강화도로 피신했다. 이때 도선준비가 안 되어 1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신료들과 함께 통진현 관아에 머무르면서 청군을 막을 계책을 논의한 후 강화도로 향했다. 통진현 관아자리인 현 월곶면사무소 자리는 이런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1627년(인조 5)에는 인조의 생부인 원종(元宗)의 능침 장릉(章陵)을 양주로부터 김포 북성산으로 이장했다. 이로 인하여 김포현이 1632년(인조 10)에는 군으로 승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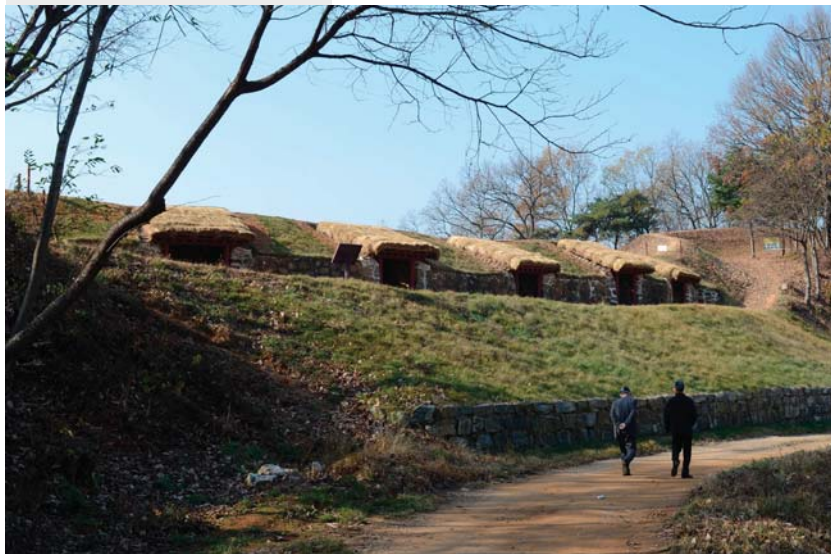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청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류의 집산지인 강령포도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이때 조정에서는 윤방(尹昉), 김상응(金尙容) 등이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세자빈과 봉림대군, 인평대군 등과 함께 통진을 거쳐 강화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청군은 문수산에 올라 강화성의 허실을 살핀 뒤 문수산 자락에 있는 성동리, 포내리 등지의 민가를 헐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단번에 강화해협인 염하를 건너 강화성을 함락시켰다. 이때 강화도 수비를 맡은 검찰사 김경정은 강화도가 섬이라는 지형만 믿고 수비를 소홀히 하다가 청군이 강화성에 육박하자 비로소 잘못을 깨달았다. 병자호란 이후 효종이 북벌계획을 세우고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도의 방비를 강화하였고, 1666



염하



문수산성



덕포진

년(현종 7)에는 강화도와 한성을 지키는 보루로 염하의 인후적인 손돌목에 덕포진을 설치했다.

이와 같이 강화도 방어책은 숙종조까지 계속되어 내성과 외성, 진보, 돈대 등이 축조, 설치되었고, 1694년(숙종 20)에는 강화도 수비 강화를 위해 문수산에 문수산성을 축조하였다. 문수산성이 축조되고 나서 통진현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것은 문수산이 강화도 수비에 그만큼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에는 문수산 전투가 있었다.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에 대한 항의와 보복으로 프랑스 해병대가 강화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내륙인

김포반도로 진격하여 문수산성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문수산성을 점령한 프랑스군은 단 하루 만에 철수했다. 그러나 이때 문수산성은 완전히 초토화 되었고, 프랑스군은 강화성 안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의궤를 약탈해 갔다. 그것을 145년 만에 돌려받은 것이다.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때에도 덕포진에서 전투가 있었다. 당시 미 해병대 척후선이 강령포 앞을 지나 양화진까지 시위를 하며 문호 개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처럼 수로로 한양의 관문인 강령포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침탈의 대상이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적의 약탈에 시달렸을 것이다.

1760년(영조 36)에 각 고을의 읍지를 모아 펴낸 <여지도서>에는 통진부의 부내면(府內面), 보구곶면(浦口串面), 월여곶면(月余串面), 검을전면(迭乙田面)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자연부락 단위의 방리는 기록에서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여지도서>에서는 용강리라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지만 보구곶면에 속했을 것이다.

1789년(정조 13)에 엮어낸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4개 면과 방리의 명칭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용강리 일대 마을이름을 흥룡리(興龍里)라 했다. 통진부 보구곶면 흥룡리인 것이다. 그 후 1842년(헌종 8)과 1871년(고종 8)에 통진부에서 두 차례 작성한 <통진부읍지通津府邑誌>에는 다시 4개 면만 기록되어 있고 방리의 명칭은 빠져 있다.

1899년(고종 36), 통진군에서 집필한 <통진읍지>에는 부에서 군으로 강등되고 나서면 이름이 군내면(郡內面), 보곶면(浦串面), 월여곶면(月餘串面), 질전면(迭田面)등으로면 이름이 변경되었고, 보곶면에는 성내리(城內里), 동막리(東幕里), 보곶리(浦串里), 흥룡리(興龍里)와 강령포(康寧浦)가 신설된 방리로 기록되어 있다.



## (7) 일제강점기

18세기 말부터 진행되어 온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침략은 1905년 11월 7일 〈을사늑약〉 체결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조선은 주권을 상실하여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0년 8월29일 ‘경술국치’라 불리는 한일합방 조약체결을 공포하고, 일본은 모든 집회와 언론을 통제하고 국권을 침탈하여 “대한제국”을 강점했다. 이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영역에 편입되었다.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나서 식민통치를 위한 첫 조치로 강행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영역 조정이었다. 1914년 3월, 일제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 개편하면서 김포, 통진, 양천군을 ‘김포군’으로 통합하였고, 전국의 4351개 면을 2517개로 줄였다. 이때 통진군의 4개 면이 합병되어 ‘월곶면’이 되었고 홍릉리와 강령포 2개의 법정리가 ‘용강리’ 한 개의 법정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05년, 국권이 탈취되자 구국을 위한 의병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다. 통진군과 김포군 일대에서도 의병들의 구국항쟁은 대단하였다. 특히 작전수행에 유리한 포구를 거점으로 신출귀몰했다고 한다. 당시 강령포구보다 조강포구의 세가 더 컸기 때문에 조강포구에서 의병들의 항전이 자주 있었다. 1908년 7월 21일에는 의병 5명이 군자금 조달을 위해 강령포에서 범선을 습격하여 현금 등을 탈취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1912년 2월24일, 조선총독부의 설치 허가로 통진군 군내면 읍내리(지금의 군하리)에 4년제 통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어 3월1일 개교했다. 용강리 지역 자녀들도 이곳에서 초등교육을 받게 되었다.

1918년 6월,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시작한 전국적인 국토조사사업을 끝내고 조선을 명실공히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전국토의 40%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본격적인 식민지 수탈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김포지역은 그 도를 넘었다. 김포는 한강하류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비옥한 넓은 평야와 농업용수가 풍부하여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나무가 많이 있어 미국의 운반이 편리한 곳이어서 일제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수탈대상 지역이었다. 일제는 조만개척주식회사나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회사를 앞세워 ‘홍도평’ 평야와 같이 간척사업을 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고, 농지 소유주를 압박하여 싼 값에 강제로 농지를 매입하여 일인들의 농지소유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아갔다. 그리고 농지를 소작으로 주고 소작료로 생산량의 50%를 빼앗아 가고, 본국에 있는 자국민의 식량과 군량미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출미(供出米)라는 명목으로 강탈해 갔다. 아마도 용강리 일대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때 농민들은 농사는 열심히 지었지만 굶는 날이 많았고 생계는 말이 아니었다. 이런 일제의 박해와 수탈 통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도를 더해 갔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기점으로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곳 월곶면 군하리에서도 1919년 3월 22일 ‘통진장날’ 400여 명의 면민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향교 앞과 보통학교, 면사무소, 일경주재소 등을 돌며 시위를 하였다. 이 만세운동은 군하리 백일환(농업), 이경덕(일명:이살늬, 신학교 학생), 고양리 성태영(농업), 박용희(측량기사) 등이 주도했고, 그 외 조강리 최우석(잡화상), 최복석(잡화상), 정인교(어업), 조남윤(음식점), 윤종근(점원), 민창식(농업), 개곡리 임용우(덕적도 명덕학교 교사), 윤영규, 민흥기, 고양리 조남선, 고정리 당인표 등이 이 만세운동의 핵심 주동 인물이었다. 이들은 1919년 3월 29일에도 갈산리(오리정)에서 400여 명의 면민과 함께 만세시위를 했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지역분포를 보면 조강포구처럼 소문이 빠른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기록에 나타난 것은 재판기록뿐이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강령포구가 있는 용강리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을 리 없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육로의 교통수단이 나아지고 상대적으로 뱃길의 중요성과 나루의 기능도 미미하게 되기 시작하여 강령포구도 서서히 쇠퇴기를 맞아 고기 잡는 어항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8) 광복이후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란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한지 35년에서 1주일이 모자란 1945년 8월15일 12시에 일왕의 항복으로 용강리 주민들도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제통치기간 동안 남은 것은 극심한 가난뿐이었다. 일제강점기 30여 년 사이 우리나라 농가의 70% 이상이 사실상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약탈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서울과 가깝고 강령포나루가 있고 옆에 조강나루가 있어 쌀을 운반하는 데 적지인 용강리는 더더욱 일제의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광복은 맞았지만 폐허가 되어 버린 이 땅은 상처뿐이었다. 민족자본은 그 씨가 말랐고 산업시설도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시설이 있다 해도 기술 인력이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곧 경제적 혼란을 가져 왔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1945년 9월 4일, 김포군 양서면 김포비행장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미군정은 그 해 10월15일, 식량배급제를 철폐하고 미곡자유시장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는 큰 혼란을 가져왔고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 해방이 되던 해 8월부터 12월 사이 물가는 전년대비 25.4배나 폭등했다. 김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46년 1월에 쌀값이 크게 폭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광복 후 한국경제는 아주 취약했으나 미군정은 한국경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1945년 7월 25일, 포츠담 회담에서 밀약한대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할 점령하고, 미소공동위원회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5년간 신탁통치 할 것을 결정했다. 한반도에 독립된 정부의 수립을 갈망하던 시민



들은 반탁운동에 나섰다.

1946년 1월 3일, 김포에서도 군경직원이 총사직을 단행하며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3000여 군민이 모여 신탁통치 배격 강연회를 범 군민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때 김포군에서는 정준(鄭濬)이 초대 제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제정하여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그러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공산주의 좌익세력들의 준동으로 정국은 어수선했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수립 후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유권자들은 1950년 5월 30일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에 패배를 안겨 주었다.

이런 혼란 속에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소련제 중화기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13만여 명의 병력으로 38선 전역을 남침했다. 이때 개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북한군 제6보병사단은 김포반도로 진격해 들어 왔다. 북한군은 조강을 건너 강령포와 조강포, 시암리 등에 공격을 가하여 이를 발판으로 김포반도에 상륙했다. 이와 같이 용강리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국군과 북한군 모두에게 서울의 서북 관문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기간 중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아군과 북한군의 전투가 끊이지 않는 전장(戰場)이었다. 용강리 용림마을 뒷산에 있는 묘지에 가보면 묘표나 묘갈에 전쟁의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김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38선과 가깝고 임진강과 한강하류에 위치하여 서울의 길목이면서 김포비행장을 빨리 점령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투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끔직한 한국전쟁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구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아픔은 또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이 김포를 점령했을 때나 서울수복을 위한 인천상륙작전을 할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하할 때, 1. 4 후퇴 등의 전화를 거치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될 때까지 김포지역은 아군(해병대)과 북한군이 번갈아가면서 점령했다. 이런 특이한 전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김포주민들이 이념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 원인은 한국전쟁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피난 갈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정보가 어두워 피난 갈 준비도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가까운 곳에 피난을 갔다 곧 고향 집으로 되돌아 왔다. 주민들은 고향집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큰 화근이 되었다.

북한군이 김포를 점령했을 때에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공무원, 경찰, 지역 유지, 지주 등을 좌익분자들이 고변하여 ‘부르주아’ 반동으로 몰아 감금, 폭행을 했고 총살형에 처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났다. 반대로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복이 되고 나서는 북한군 점령시 인민위원회의 강요에 의하여 하부 활동을 하거나 부역을 한 좌익분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우익단체 대원들과 좌익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바 있는 사람들의 고발로 빨갱이로 몰려 집단적으로 억울하게 처형됐다. 점령군

이 밤낮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때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 한국전쟁 중 김포지역에서만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용강리에서도 8명의 주민이 무고하게 학살되었고 그 후손들은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요시찰인으로 분류되어 공직에 나가는 데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았다. 그 연좌제의 후유증이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나 마찬가지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민족적인 비극인가. 그리고 그 양금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전쟁 이후 김포군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1963년 1월 1일, 양서면과 양동면이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부천군의 오정면과 계양면이 김포군에 편입되었다가 1975년 7월 1일 오정면이 다시 부천시로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김포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 15일, 월곶면, 양촌면, 대곶면의 일부 지역을 합하여 통진면을 신설했다. 1989년 1월 1일 계양면이 인천시로 편입되고,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됐다. 1998년 4월 1일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었고, 현재 김포시는 3읍(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3면(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4동(①김포1동-걸포동, 북변동, 감정동 ②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③사우동 ④풍무동)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용강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그 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현재 행정구역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이다. 그러나 용강리의 취락은 반쪽짜리가 됐다. 1953년 휴전이 되고나서 김포지역은 해병 2여단이 주둔했다. 강령포를 비롯한 한강 하구언에는 북한군을 방어하는 진지를 구축하고 철조망을 가설하여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다. 그리고 강령포구 마을 사람들에게 퇴거하라는 소개 명령을 내렸다. 강령포구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정든 고향을 떠났다. 일부 용림마을 등 용강리 안으로 이주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 인천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이때부터 용강리는 군사시설보호지역이 되어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심지어 영농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반면 되살아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으로 최근 마을 앞에 '생명의 숲'·'잉글랜드촌' 같이 고급 휴양촌으로 각광을 받는 생태테마마을이 생겨나고 있다.



생명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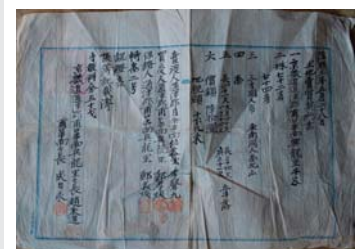




잉글랜드촌

### 용강리의 옛 기록문서

- '농지대가 연도별 수납부' :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분배면적, 총지가상환, 수납량 등 기록. 월곶면사무소 서고
- '분배농지상환대장' : 1950년도, 문서번호 1141, 용강리 분량은 약 90쪽, 문서번호 제40호, 용강리 분량은 약 100쪽. 월곶면사무소 서고
- 기타 농지보상에 대한 서류 등 농지개혁과 관련된 문서가 월곶면사무소 서고에 보관 중.
- '조선시대 토지매매계약서' : 용강리 주민 정해균 씨 소장



조선시대  
토지매매 계약서

## 2. 오랜 성씨와 인물

### (1) 입향조(入鄕祖)와 오래된 성씨들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통진지역에는 석(席)씨, 강(康)씨, 양(梁)씨, 길(吉)씨, 종(宗)씨, 위(位)씨, 이(李)씨 등이 살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을뿐 홍릉리 일대에 어떤 성씨가 살아 왔는지 상세한 기록은 없다. 1760년(영조 36)에 각 고을의 읍지를 모아 펴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통진부 방리 편에 따르면 성내리, 동막리, 보구곶리, 홍릉리 등 4개 리를 관할하던 보구곶면의 호적에 편성되어 있는 가구 수는 193호이고, 인구는 남자 293명, 여자 23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가구 수를 살펴봐도 50가구를 넘지 못하는 작은 마을들이었다. 그러나 용강리 일대는 어업과 수상교통의 중심지로 성내리, 동막리, 보구곶리보다 가구 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용강리에 세거하는 문중들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입향조이다.

#### ① 파평 윤씨(坡平尹氏)

파평 윤씨 판도공파(版圖公派)로 연기현감을 지낸 23세손인 윤성(尹誠)이 숙종조에 통진 용강리로 입향하여 후손이 30여 세대로 번성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 ② 경주 정씨(慶州鄭氏)

경주정씨 문헌공파(文獻公派)로 65세손인 정광국(鄭光國)이 현종조에 강화에서 통진 용강리로 이주하여 그 후손들이 약 200여 년 간 세거하고 있다.

#### ③ 전주 이씨(全州李氏)

전주이씨 덕흥대원군파(德興大院君派)로 양산수령과 부정을 지낸 32세손인 이인경(李仁慶)이 영조 조에 통진 용강리로 입향하여 후손이 번성하여 70여 호가 경향각지에 출향하여 살고 있고 현재 용강리에는 10여 호가 세거하고 있다.

#### ④ 오래된 성씨

용강리에서 터를 잡고 가장 오래 살아온 씨족은 파평 윤씨가 300여 년을 세거해오고 있다. 현재 6가구가 살고 있다. 다음은 경주 정씨로 200여 년을 세거하고 있고 현재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2) 용강리 마을의 인물

### 가. 선현

용강리 태생과 유택(幽宅)이 용강리에 있는 역사 인물을 간단히 사전적으로 수록했다.

백사근(白師謹 1732~1804.12.4) :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경부(敬夫), 호는 졸헌(拙軒)으로 별좌공파(別坐公派) 23세손이다. 1776년(영조 52), 병신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가의대부(嘉義大夫), 형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좌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다. 묘는 용강리 산 33-3번지 중중묘역에 있다. 이 묘를 마을사람들은 백장군 묘라 부른다.

윤성(尹誠 1634~1698) : 본관은 파평(坡平), 판도공파 23세손으로 연기현감을 지냈다. 묘는 용강리 산 68-4번지 파평 윤씨 판도공파 중중묘역에 있다.

윤사상(尹師商 1660~1710) : 본관은 파평, 판도공파 24세손으로 선천군수와 판관을 지냈으며 통덕랑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용강리 파평 윤씨 판도공파 중중묘역에 있다.

윤심(尹審 1684~1750) : 본관은 파평, 판도공파 25세손으로 자강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주부를 지냈다. 묘는 용강리 중중묘역에 있다.

윤재일(尹在一) : 본관은 파평, 판도공파 26세손으로 성균진사시에 합격했다. 묘는 용강리 중중묘역에 있다.

윤재익(尹在益) : 본관은 파평, 판도공파 26세손으로 찰방(察訪)을 지냈다. 묘는 용강리 중중묘역에 있다. 부인 의인(宜人) 경주 이씨에게는 열녀 정려가 내려졌다.

이인경(李仁慶) : 본관은 전주(全州), 덕흥대원군파 32세손으로 양산수령과 부정을 지냈다. 묘지는 용강리에 있다.

이서한(李緒漢) : 본관은 전주, 덕흥대원군파 33세손으로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용강리에 있다.

이하영(李夏榮) : 본관은 전주, 덕흥대원군파 34세손으로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용강리에 있다.

이세복(李世複) : 본관은 전주, 덕흥대원군파 35세손으로 통덕랑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용강리에 있다.

이세유(李世裕) : 본관은 전주, 덕흥대원군파 35세손으로 통덕랑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용강리에 있다.

이명희(李明曦) : 본관은 전주, 덕흥대원군파 36세손으로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용강리에 있다.

홍서주(洪敍疇) : 본관은 홍주(洪州), 18세손으로 1429년(세종 11) 진사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감찰, 세자시강원설서, 전라도도사, 예문관시교(藝文館侍敎), 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 등을 지냈다. 단종 조에는 진천현 감무를 지낸 바 있다. 묘는 용강리 산 68-3번지에 있다.

#### 나. 근·현대인물

윤형진(尹亨鎭 1899~1984) : 본관은 파평(坡平), 판도공파 30세손으로 체신부 밀양우체국장을 역임했다. 묘는 용강리 산 68-4번지 종중묘역에 있다.

윤자춘(尹滋春 1926~1973) : 본관은 파평, 판도공파 31세손으로 해군사관학교를 1기로 졸업하였으며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을 거부하였고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후 군 비상식량을 생산하는 동립산업주식회사의 감독관을 지냈다. 묘는 용강리 종중 묘역에 있다.

윤자순(尹滋舜 1928.8.20~1988.8.18) : 본관은 파평, 판도공파 31세손으로 육군 중령 예편 후 경기도 평택군수, 용인군수, 연천군수, 용진군수, 광주군수, 고양군수, 파주군수, 경기도 기획관리관을 역임했다. 묘는 용강리 종중묘역에 있다.

윤자선(尹滋善 1941~) : 본관은 파평, 판도공파 31세손으로 오양선박주식회사 사장과 여수선박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자인(尹滋仁 1935.5.1~) : 본관은 파평, 판도공과 31세손으로 김포시 양촌면장, 월곶면장, 통진면장을 역임했다.

윤세왕(尹世旺 1949~) : 본관은 파평, 판도공과 32세손으로 화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제당주식회사 중앙연구소 소장과 부사장을 역임했다.

정유현(鄭裕鉉 1943.4.8~) : 본관은 경주(慶州), 문헌공과 70세손으로 베트남 파병에 참전하여 두 번에 걸쳐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정해철(鄭海喆 1932.1.1~2011.12.10) : 본관은 경주, 문헌공과 71세손으로 경찰공무원(경위)으로 봉직했으며 녹조훈장을 받았다.

정해순(鄭海淳 1932.9.25~) : 본관은 경주, 문헌공과 71세손으로 강화군 재무과장, 시흥군 재무과장,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정해동(鄭海東 1961.2.16~) : 본관은 경주, 문헌공과 71세손으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을 역임했다.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와 사범학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해명(鄭海明 1966.6.29~) : 본관은 경주, 문헌공과 71세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물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용주(鄭用柱 1973~) : 본관은 경주, 문헌공과 72세손으로 충북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영화감독으로 2005년, 「처용의 다도」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제6회 대한민국 영상대전에서 아마추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비평가주간에 한국단편의 선택 상영작으로 상영되어 신인 명감독의 영예를 안았다. 2001년에는 영화 「네버 엔딩 스토리」를 부산에서 촬영하였고, 2012년 1월 19일 개봉, 전국적으로 상영한다.

김재윤(102세) : 1950년대를 전후하여 용강치군패와 조강치군패가 두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두레패의 두레놀이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였다고 한다. 이 용강치군패의 상쇠로 배뱅이굿과 꼭두각시놀이의 권위자였다. 어려운 시절 용강리의 무형문화자산을 보존하고자 노력한 사람이다.

#### 다. 한국전쟁(6.25) 전사자

정완익(鄭完益 1937~1951) : 본관은 경주, 부 정지홍(鄭芝泓), 계급은 상병으로 1951년 6월2일 강원도 원주지구에서 전사했다. 당시 주소지는 용강리 249번지이다.

조중근(趙重根 1938~1951) : 본관은 양주, 부 조희성(趙熙成), 계급은 상병으로 1951년 2월 11일 연천지구에서 전사했다. 당시 주소지는 용강리 249번지이다

#### 라. 한국전쟁(6.25) 참전용사 생존자

정해춘(鄭海春 1926.5.20~) : 현재 용강리 243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제 지구전투에 참전했다.

이제응(李濟應 1926.11.28~) : 현재 용강리 249-1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제 원통지구전투에 참전했다.

이익현(李益鉉 1928.4.1~) : 현재 용강리 327-4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병으로 장단지구전투에 참전했다.

권태원(權泰遠(1932.3.1~) : 현재 용강리 200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평전투에 참전했다.

#### 마. 강령포마을을 떠난 사람들

강령포마을에 살던 30여 가구의 마을사람들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이곳을 떠나 경향각지와 김포지역에 살고 있다. 당시 가구주였던 사람들은 다 고인이 됐고 그 사람들의 2세들이 매년 음력 4월 8일 모여 자기들만의 강령포축제를 연다. 이 축제를 통해 옛 고향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강령포를 떠난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당제를 지낸다. 당제는 옛 강령포에 있는 당제산 정상에서 조강을 향해 지낸다. 강령포회 회원은 20여 명으로 평균 연령이 70대다. 용강리에 남아 있는 회원은 황형주, 김영화, 이상희 등이고 기타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은 권오민, 권오필, 권오균, 권경분, 박용진, 고상출, 황영주, 황명숙 등이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은 임근규, 지은님, 김남숙 등이고 인천지역에 사는 회원은 이남수, 김종안, 김영순, 고상분, 이동수 등이며 기타 경기지역에 사는 회원은 이승기, 이인석, 이인철 등이다.

### 3. 마을의 현재 모습

#### (1) 용강리의 인문환경

##### ① 마을 행정

마을 행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2년 임기의 이장이 집행한다. 사무 처리는 주로 마을 회관에서 이루어지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영농지도자 등과 협의하고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토론을 거쳐 결의를 받아 집행한다. 월곶면의 행정지도를 받아 김포시가 시달하는 제반 시책을 시행하고,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는 일도 이장의 몫이다.

역대 용강리 이장 명단

취임연도	1945	1946	1948	1951	1952	1953	1956	1957
성명	이철응	정갑현	이춘응	윤자철	이자현	이관응	윤자철	이재은
비고	구장							
취임연도	1958	1963	1968	1970	1973	1979	1981	1983
성명	윤자봉	이재은	정해극	정해언	정해균	정해언	이재웅	정해근
비고								
취임연도	1985	1987	1989	1990	1994	1998	2002	2006
성명	이재문	정육현	이재묵	정해근	정연식	이재묵	이영범	김중환
비고								

※ 현재 윤상필(尹相弼)<sup>5)</sup> 이장은 2010년부터 재직 중

##### ② 인구

2006년 6월30일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용강리 총 인구는 252명, 총 세대수는 122호로 월곶면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136명, 여자 116명으로 남자가 20명 더 많다. 그로부터



5) 윤상필(남, 59)



5년이 지난 2011년 12월 12일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용강리 총인구는 263명으로 인구의 구성비는 남자 146명, 여자 117명으로 남자가 29명 더 많고 2006년 보다 인구가 11명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큰 변동 폭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용강리 마을의 세대수 및 인구수(2011.12.12 기준)

구분	세대수(호)	인구수(명)	남자수(명)	여자수(명)
월곶면	2,885	5,884	3,211	2,673
용강리	118	263	146	117
비율	4.09%	4.46%	4.50%	4.37%

※ 비율은 월곶면 대 용강리의 비율임.

용강리 마을주민 연령별 현황(2011.12.12 기준)

구분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10세 이하		영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명수	4	10	18	18	28	24	43	27	20	16	12	8	14	10	5	3	2	0	0	0
%	1.5	3.8	6.8	6.8	10.6	9.1	16.3	10.2	7.6	6	4.5	3	5.3	3.8	1.9	1.1	0.7	0	0	0

※ % 는 용강리 주민 263명에 대한 비율임.

### ③ 경제

용강리는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취락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마을의 농가 호수는 24가구이고, 나머지는 마을입구에 있는 잉글랜드 주택지나 생명의 숲 주택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 같이 비농가 약 9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직접 영농 활동을 하는 농가호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마을의 토지구성비는 농지가 약 40ha이고 임야가 약 70ha로 마을토지의 70%는 마을주민의 소유이고, 나머지 30%는 외지인의 소유다. 김포의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이 내 고장 향토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 〈용강리 마을주민 연령별 현황〉에서 보았듯이 영농인력의 고령화로 영농에 어려움이 많으나 마을사람들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소득작물은 쌀이 대표적인 작물로 생산량도 가장 많고 그 외에 고추와 콩, 깨 등이 있다. 과수작물로는 4,000여 평의 과수원에서 배가 재배되고 있다. 이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배는 당도가 높아 전량 대만 등지로 수출이 될 정도로 인기 품목이라고 한다.

용강리는 김포시에서 네 번째로 친환경 쌀 생산지로 인증 받은 곳이다. 벼는 거의 농약 없이 재배를 하고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적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 쌀이 주민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자체 정미소를 보유하고 있다. 농산물의 판매는 쌀과 고추의 경우 약 30%이상이 소비자와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용강리의 고추 재배면적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한강하구에 철조망이 가설되고 '민통선마을'이 되기 이전에는 강령포를 어업기지로 하여 어업이 마을주민의 소득원이 된 적도 있었다. 강령포 앞 조강에서는 숭어, 뱀장어, 황복어, 게 등이 많이 잡혔다고 한다. 1970년대에는 개성과 가까운 이곳 용강리에서 인삼재배를 하여 주민들이 큰 소득을 올렸으나 인삼재배의 특성상 한 번 채굴한 경작지에는 다시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재배농가가 없는 상태다.

2006년부터 용강리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 문화적 교류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김포시농업기술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준비하고 있다. 민통선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이 마을의 생명수인 '용못'과 용강리 130번지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매화마름'을 테마로 "매화미르마을"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꾸며 가고 있다.

첫 사업으로 용강리 267번지 상에 있는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다용도실, 침실, 휴게실, 주방 등을 갖추어 단체나 가족이 방문하여 불편함이 없이 휴식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가고 있다. "매화미르마을"의 사업계획을 보면 계절별로 봄에는 전통농법체험(모내기, 쪄레질), 야생화관찰, 매화마름관찰, 생태수로탐방, 연향주담그기, 미르열차타기, 북녘땅 조망, 유도 철새관찰 등이고 여름철에는 삼림욕체험, 감자수확체험과 매실음식체험 외에는 봄철 프로그램과 같다.

가을철에는 농사체험(벼베기, 탈곡), 수확체험(배, 연근, 고추, 콩), 메뚜기잡기 등이 있다. 겨울철에는 논썰매체험, 짚풀공예품 만들기, 서예체험, 용연날리기를 계절 프로그램으로 추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 학습체험사업과 '홈스테이' 사업이 성공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주민이 대동단결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 협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공공시설

용강리 마을주민의 공동소유시설은 용강로 437번길 47에 있는 마을회관(약 30평)과 용강로 437번길 9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관(25평)이 있다. 그리고 용못 옆에 있는 간이정미소와 농기계창고가 있다. 용강로 437번길 47에 있는 마을회관은 해양문화관과 교회로 사용 중이며 용강로 437번길 9에 있는 마을회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월곶면 분회 용강리 경로당 및 마을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도 이곳에서 개최한다. 용못 옆 마을회관 및 창고(연건평 150평)는 용도를 변경하여 체험테마마을 ‘홈스테이’ 시설로 되었다.

#### ⑤ 주거환경

용강리는 김포반도의 최북단 한강하구로, 연간 강우량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온도가 높은 편이어서 주거 공간으로 대청마루를 배치한 경우가 많고 ‘ㄱ’자형이나 ‘ㄱ’‘ㄴ’자형, 또는 ‘ㄷ’자형의 주택이 섞여 있다. 지난날 수로교통의 요지인 강령포의 길목이어서 다른 고장보다 주택규모가 큰 편이다. 용강리의 주택은 1970년대에 전통적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한 집이 더러 있고 부분적으로 개량한 집과 완전히 현대식 양옥으로 새로 지은 집이 섞여있다. 부엌은 입식부엌으로 개량이 되었고 취



마을회관





생명의 숲



잉글랜드촌

사용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거의 아궁이가 사라졌다.

주민들은 대부분 주택 난방에도 심야전기 보일러나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 현재 보급률은 90% 이상이며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다행히 용강리 마을에는 축사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어 지하수의 물맛이 좋다고 한다. 이 지하수로 빚은 농주가 독특한 맛을 내고 있다고 용강리 주민들은 자랑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민통선마을'이라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보다 일찍 되었다.



용강교회



예지원



마을버스



용강리 도로

1969년부터 시작된 전력공급은 현재 100%에 달한다. 또한 전화의 보급률도 100%다. 특히 용강로 437번길 마을 입구에 좌우로 있는 '생명의 숲'이나 '잉글랜드' 주택지의 주택은 최우량 고급주택이다. 농촌지역으로서는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 편이다.

#### ⑥ 종교시설과 기타

**민통선평화교회** : 용강로 437번길 47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인과 아동 선교기관으로 '김포월곶아동들의 쉼터(김포시 제1호)'와 '민통선아동센터', '민통선공부방', '해양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강교회** : 용강로 337에 예배당이 있다.

**예지원** : 용강로 377에 소재하고 있으며 삼보장애인복지선교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 ⑦ 도로 및 교통

용강리마을 도로는 진입로를 포함하여 모두 포장되어 있으나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도로의 폭은 차량이 상호 교행하기엔 좁은 편이다. 그러나 문수산을 중심으로 다른 마을과 모두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간선도로도 모두 포장된 상태로 전반적으로 마을의 도로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용강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문수산을 돌아 월곶면 전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가 있다. 배차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편함은 있으나 마을에서 문수산 주변 마을과 월곶면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편리하다. 용강리에서 고막리 마을회관 앞까지 오면 서울, 인천 등지로 편하게 왕래할 수 있다.







마을은 지리적 경계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회조직들이 구성되어 마을을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용강리 안에도 여러 사회조직들이 있으며, 마을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모든 주민들의 모임-대동회

대동회는 마을의 전체 주민이 모이는 마을 총회로서 마을 주민들 가운데 언제부터 대동회를 시작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전통이 오래되었다. 마을의 전체 주민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다. 대동회는 양력 12월말경에 이장이 날짜를 정해서 개최한다. 대동회에서는 한 해 마을에 있었던 행사와 대동회 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다. 그리고 다음해에 있을 마을의 큰일이나 행사를 논의한다. 용못 고사를 지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때 하게 된다. 이는 용못고사를 잘 지내지 않게 된 1990년대 중반부터의 일이다. 이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이장선거도 이날 실시한다.

대동회의 임원은 이장과 반장,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임원을 맡을 사람이 적어 한 번 임원을 맡으면 여러 해 동안 임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장 선출은 원칙상 투표를 해야 하지만 한 명의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다른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이장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장 외에 다른 임원은 이장이 직접 선정한다. 현재 이장은 윤상필<sup>1)</sup> 씨이며 1반 반장은 김기환 씨, 2반 반장은 이정원 씨, 새마을지도자는 이재묵 씨가 맡고 있다.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장은 마을 내에서 그 임무가 막중하다.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처리하고 마을에 필요한 사안을 면에 요청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특히 용강리는 지금도 각 가정마다 술을 담가 먹는데, 밀주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을 당시 마을에 검열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장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장하고 나면 땅 팔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주민들은 대동회에서 1년 동안 마을을 위해 고생한 이장에게 쌀이나 돈을 모아 준다. 이를 '이세'라고 한다. 1990년대까지는 이세로 쌀을 냈다. 쌀은 보통 한 가구에 1말을 냈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각 가구에서 2만 원씩 건어서 이장에게 준다. 돈을 낼 때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이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도 한다. 이세를 받은 이장은 함께 일한 반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이세의 일부를 나누어 준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대동회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대동회가 열리는 날 주민들을 대접한다.



1) 윤상필(남, 59)

## 2. 마을 원로들의 모임-노인회

용강리에는 예전부터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으나 이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없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마을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노인회가 조직되었다. 노인회의 가입조건은 용강리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노인회에 가입시키기도 한다. 60세 미만의 주민을 노인회에 가입시키는 것은 노인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여러 잡무를 보게 하거나, 이를 통해 노인회 운영과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을에 계속 살아온 사람이 노인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금이 없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비를 낸다. 가입비는 노인회 전체 자금에서 노인회 전체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다. 가입비는 납부한 사람이 외지로 이사를 가거나 사망한 경우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회 임원은 노인회장, 총무, 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노인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지만 대부분 추천을 받은 사람이 맡는다. 임원들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1990년 노인회 총회사진

1990년 노인회 총회사진



임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임원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계속 연임한다.

노인회에서는 짝수 달마다 월례회를 열고, 12월에는 연말 총회를 개최한다. 월례회에서는 다음 월례회까지 시행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연말 총회에서는 1년간의 노인회 운영 내용과 결산 보고를 실시한다. 노인회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도 연말 총회에서 하는 일이다. 노인회 회비는 월례회 때마다 5,000원을 낸다. 월례회는 1년에 6번 열기 때문에 1년 회비가 30,000원인 셈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회비를 내지 않는데, 대신 그 자식들이 노인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회는 마을을 위해 애쓰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마을에 쓰레기가 많이 있을 경우에 노인회원들이 모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기도 한다. 이것은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려는 목적이면서 노인들이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노인회에서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 관광을 간다. 이때에는 상포계와 부녀회에서 지원금을 낸다. 관광을 가지 못할 때는 보양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주로 강화도에 있는 장어 식당을 애용한다.

노인회에서는 겨울에 혼자 살거나 혼자서 밥을 해먹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을 함께 해먹는다. 이렇게 노인들이 함께 점심을 해먹는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며 김포관내에서 용강리가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다. 보통 12월 중순부터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함께 점심을 해먹는데, 각자 겨울에 먹을 만큼의 양식



복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노인회 어른들을 위해 삼계탕을 대접한다. 복날이 다가오면 인근 갈산리에서 도계장(屠鷄場)을 운영하고 있는 홍철호 씨가 월곶면 전체 마을의 노인들을 위해 닭을 준다. 이 닭으로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노인회원들에게 삼계탕을 끓여 대접한다.

부녀회는 마을 여성들의 모임으로 마을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뒷받침한다. 이 마을의 부녀회는 1972년 10월에 조직하였다는 기록 장부가 있다.<sup>2)</sup> 처음 부녀회를 결성할 때 부녀회원들이 쌀을 한 되씩 내어 당시 7,000원이란 자금을 바탕으로 부녀회를 설립하였다. 마을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쌀 한 되 씩을 모아 시작한 부녀회가 여전히 운영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녀회 임원으로 부녀회장이 있는데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대부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부녀회장을 하면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에는 부녀회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1년 동안의 결산보고를 하고, 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임원 선출을 한다.

[illegible]용강리 부녀회 회의록



1991년 마포 우성아파트  
부녀회와 용강리의 자매결연 모습



마포 우성아파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녀회의 모습

팔아 수익을 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부녀회 가게'를 운영하였다. 용강리에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하리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직접 부녀회 가게를 운영하여 생필품을 팔았다. 1980년 중반에는 부녀회 가게가 사라지고 '새마을 가게'를 운영하였다. 새마을 가게는 부녀회와 농협이 연계가 되어 운영하였다. 새마을 가게는 부녀회장이 마을의 생필품을 조사하여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차로 신청한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러나 마을의 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에 새마을 가게는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새마을 가게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부녀회와 농협이 연계되어 물건을 파는 일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을에서 생필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특정 상품을 내놓으면 부녀회장이 구입을 원하는 주민의 수를 파악하여 농협에 신청한다. 그럼 농협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부녀회에서 농협의 물건을 팔아주면 농협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부녀회 통장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모인 부녀회 자금은 부녀회 총회 때에 다과를 준비하거나 부녀회 운영에 사용한다. 농협에서 주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는 멸치, 새우젓, 사과, 소금 등이다.

1991년에는 용강리와 마포의 우성아파트 부녀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을 싸게 판매하거나 마포의 주민들이 용강리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때 부녀회에서는 마포의 우성아파트로 직접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농사일을 도와준 마포 주민에게는 농산물을 무료로 주기도 하였다.

부녀회에서는 자금이 모이면 관광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양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한다. 부녀회 자금의 가장 큰 수익은 상을 치르는 데 도움을 주고 상포계로부터 일부 수익을 얻는 것인데, 현재 상포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녀회 자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부녀회에서 관광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 4. 상례를 담당하는 모임-상포계

상포계는 마을에 상이 나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상을 치루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조직한 자치조직이다. 상포계는 언제 처음 조직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몇 주민이 조직한 모임이었다. 그러나 상포계원들이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포계는 의미가 없다고 하여 모든 주민들이 상포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마을에서 연세가 많으신 이익현<sup>3)</sup>(남, 84세) 씨의 부모님이 상포계가 마을 단위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했었다는 제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상포계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30~1940년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전에는 양식이 없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상포계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상포계에서는 연말에 총회를 연다. 예전에는 상포계 총회를 따로 개최하였으나 요즘에는 대동회나 노인회를 할 때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대동회의 경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노인회 총회에서 상포계 총회를 함께 여는 경우가 많다. 총회에서는 주로 1년 동안의 결산보고를 하고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임원을 선출한다. 상포계의 임원은 상포계장, 총무, 유사(有司)로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연임이 가능하여 대부분 여러 해 동안 상포계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상포계장은 권태일 씨이며, 총무는 이영범 씨이다.

마을에서 상이 나면 상포계원들은 각자 쌀 한 되 썩을 가지고 상갓집을 갔다. 이는 상을 치루는 동안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상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고인을 염하는 것도 대부분 상포계에서 담당하였으며, 부고장(訃告狀)도 상포계에서 인근 마을로 보낸다. 부고장을 보낼 때는 2~3명이 조를 이루어 인근 마을로 간다. 부고장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들은 상포계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조를 이룬다. 자신의 순서에 부고장을 전달하는 임무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음 초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부고장을 전달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상포계에서는 상여를 메어주는데 보통 10~12명이 멘다. 상포계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상여를 사용하는 비용을 상포계에 내야 한다.



3) 이익현(남, 8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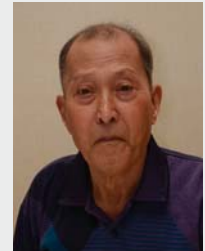
- 용강리 상포계 계칙(2009) -

- 제 1조. (명칭) 본 계의 명칭은 용강리 상포계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계는 우리의 전통인 두레정신을 이어받아 굿은 일에 상호 협조하고 계원이 상을 당했을 시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제 3조. (자격) 본 계는 본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단 부모가 모두 유고시 타 지역에 거주해도 자식은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제 4조. (의무) 계원 중 상시에는 계원 모두 참여해야 한다(참석치 못할 시는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 5조. (사무소) 본 계의 사무소는 용강리에 둔다.
- 제 6조. (임원 구성) 본 계의 임원 구성은 계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운영위원 3인을 둔다.
- 제 7조. (임원의 의무) 계장은 본 계를 대표하고 계무를 총괄한다.  
총무는 계무를 관장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상시 계원에게 연락을 하며, 연도말 결산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본 계의 계무와 자금관리 운영 상태를 감사하며 연말 총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은 계장을 보좌하고, 조직 관리 및 상시 업무를 돕는다.
- 제 8조. (임원의 임기) 본계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9조. (임원선출) 본계의 임원선출은 총회 때 하되, 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 10조. (해택) 본 상포계의 의무처리는 만 20세 이상으로 계원의 직계 존, 비속으로 한다.  
화장할 시 운구비용을 지불한다(영구차 비용).  
매장할 시 포크레인 비용을 지불한다(하루 사용 비용).
- 제 11조. (벌칙 및 자격상실) 본 계에 상이 이유없이 3회 불참한 자는 연말총회 시 제명한다.  
계원으로 거주지를 이전 완전 이사 할 경우 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제명한다(단 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자격상실 시 계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 제 12조. (결산) 본 계의 결산은 매년 12월말경에 한다.
- 제 13조. (회비) 가입회비: 총회비 200,000원과 총자산 ÷ 계원수 중 많은 것으로 한다.  
회비: 상시 10,000원

부칙: 본 계의 계칙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제음 씨와 황용애 씨



4) 이제음(남, 86)

상이 호상(好喪)인 경우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는 동안 장난을 치기도 한다. 특히 다리를 건너야 하거나 돌부리가 있으면 상여꾼들이 노자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며 장난을 친다. 상주는 이때 노잣돈을 상여꾼들에게 주며, 이렇게 모인 돈은 상포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상주가 이러한 장난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상여가 장지로 떠나기 전날 노잣돈을 미리 상여꾼들에게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액상(厄喪)일 경우에는 이러한 장난을 치지 않는다.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는 동안 상여소리도 하는데 이제음<sup>4)</sup> 씨가 주로 하였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상주는 상포계에서 장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례를 한다. 이때 내는 사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가정형편에 맞게 낸다. 그러나 가정형편에 비해 돈을 적게 냈을 때 간혹 마을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액수의 돈을 낸다. 상포계에서는 이 돈을 함께 수고한 부녀회에게 일부를 주고, 마을 대동회의 자금으로도 일부 낸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포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상포계에서는 이 자금으로 상여를 교체하거나 상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도구를 새롭게 마련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공사를 하거나 방송기기가 고장 났을 때 도움을 주는 데 사용하기도 하며, 노인회에서 관광을 가면 일부 찬



용강리 곳집



용강리 곳집 내부1



용강리 곳집 내부2

조를 하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 상례를 집에서 치르지 않고 병원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용강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지는 주로 마을 인근이었기 때문에 상여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상포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을 인근에 미리 장지로 등록해 두지 않은 곳은 장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후 마을에서 장례를 치루기 어려워졌으며 화장을 주로 하게 되었다.

지금도 상포계는 있는거지. 상여도 지금 다 있고, 지금도 그렇게(상여를 메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상이 나도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할라고 하면 할 수 있어.<sup>5)</sup>

용강리의 상포계는 활동이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인근에 장지를 둘 수 없는 법 시행으로 인해 마을 인근에 장지를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을 많이 하면서 상여를 사용하는 경우도 줄어들었으며, 상포계의 역할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5) 이영범(남, 49세) 제보



## 5.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4H클럽

4H클럽은 농업구조와 농촌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용강리에서는 1968년 4월에 조직되었다. 1967년 정해곤 씨가 농민학원에서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마을들이 운영하는 4H활동을 보았다. 그리고 용강리에서도 4H클럽을 운영하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해곤 씨가 중심이 되어 4H클럽을 조직하게 되었다.

4H클럽은 청소년의 모임으로 13~24세까지 가입하였다. 임원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었으며, 이외에 서기, 오락부장, 체육부장 등 각 역할에 맞는 다양한 임원들로 구성되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4H클럽에서는 마을의 생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청소년을 교육하였다. 4H클럽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저녁이면 4H클럽에서 운영하는 야학에서 공부하고, 아침에는 클럽원들이 단체로 체조를 하였다. 야학에서는 주로 새로운 경작법을 비롯한 농업기술을 가르쳤다. 야학은 농촌지도소에서 나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마을에 새로



1990년 김포군 4H클럽 야영교육

운 농법을 잘 아는 사람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기도 하였다. 4H클럽을 조직한 1968년에는 김포 4H클럽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벼 다수확 등 몇몇 분야에서 3명이 수상하기도 하였다.

4H클럽에서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연말총회, 연초에는 연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월례회는 매월 하루를 정해 개최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4H클럽원들은 1인당 1가지 작물을 키우고 농업일지를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월례회에서는 이 농업일지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다수확을 할 수 있을지 회의를 하였다. 월례회를 통해 직접 재배하지 않는 작물의 재배방법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연말총회는 12월에 개최하며, 1년 동안의 결산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임원을 선출한다. 1월에는 연시총회를 개최하여, 연중사업계획을 정한다. 그리고 선진지견학계획, 농업일지를 쓸 작물선정, 월례회계획 등을 정한다.

4H클럽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 마을 청년들은 선진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마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월례회가) 회의록도 작성하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거라도 회의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운거예요. 이게 정통 미국 의회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배우는거야. 그래서 4H출신이 이장도 많이 하고, 4H출신 중에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하는 사람이 많아요.<sup>6)</sup>

6) 정해곤(남, 63세) 제보



4H클럽은 1981년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이 시행되면서 점차 마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후 1980년대 중·후반에 마을 단위의 4H클럽은 사라지고 시군 단위의 4H클럽으로 변환되면서 용강리의 4H클럽도 사라지게 되었다.

1991년 김포군 4H클럽 야영교육

## 6. 마을 최고의 일꾼들의 모임-진농회



제주도로 관광을 함께 간  
진농회원

진농회는 농사일을 서로 돕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1970년대 중반에 조직되었다. 진농회를 처음 조직할 당시 마을의 비슷한 또래 청년들로 회원을 구성하였는데, 마을에서 농사일도 잘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진농회에는 약 13명이 가입하였다.<sup>7)</sup>

진농회에는 회장, 부회장과 같은 임원이 있었으나 서로 친한 사람들이 하는 모임이라 임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진농회원들은 다들 농사일을 잘 하는 사람들로, 농번기에 품앗이를 할 때 진농회원들의 일을 먼저 해주었다. 특히 논매기를 할 때 진농회원들의 논매기를 먼저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논매기를 도와주었다. 농한기에는 함께 회포를 풀거나 관광을 같이 다니기도 하였다.

진농회에서는 자금을 미리 모으는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을 갈 때는 각자 돈을 내고 갔다. 진농회가 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것은 1990년대로 보인다. 진농회원들의 연세가 많아져 일을 하기 어려워졌으며, 농기계가 도입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주로 관광을 가게 되면서 진농회가 활동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때문이다.

7) 파악된 진농회원은 정해언, 황형주, 정완형, 이우일, 정해균, 임병인, 정해은, 정해근, 윤상필, 정도현, 임종수, 정해곤 씨이다. 진농회원이 더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 7. 실향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임-강령포주민모임



강령포주민모임 초대 총무인  
황형주 씨

강령포주민모임은 용강리 강령포를 떠나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한 모임이다. 1990년대 중반에 권오민 씨가 황형주 씨에게 먼저 강령포 주민들이 모임을 조직하고 당제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황형주 씨가 동의하여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강령포에 살았던 주민들을 수소문하고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강령포주민모임의 임원으로 회장과 총무가 있다. 초대 회장은 권오민 씨이며, 총무는 황형주 씨가 담당하였다. 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원이 더이상 임원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현재는 이남수 씨가 회장, 권오필 씨가 총무

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용강리를 떠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처음 강령포주민모임을 개최하였을 때 연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첫 모임에는 10여 명 안팎의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모임을 개최하면서 점차 연락이 되지 않던 주민들의 소문을 듣게 되고 수소문하였다. 그래서 모임을 개최할수록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현재는 20명이 강령포주민모임에 가입하였다.<sup>8)</sup>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최근에는 10여 명이 고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강령포주민모임은 1년에 한 번 모임을 가지는데, 날짜를 4월 첫째 주 일요일로 정해두었다. 모임을 하는 날에는 함께 당제를 지내고, 권오민 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사와 환담을 나눈다. 과거 강령포에 살던 주민들은 강령포주민모임을 통해 고향을 잊지 않고, 분단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있다.

8) 현재 강령포주민모임에 가입한 사람은 권오민, 권오필, 권오균, 권경분, 고상출, 김남숙, 박용진, 김영주, 김영순, 김영운, 김재도, 김재윤, 이남수, 황영두, 황명숙, 황형주, 고상분, 김정숙, 지은님 씨 등이다.



## 제4장 마을의 생태환경

1. 가을걷이가 한창인 용강리
2. 뱃사람들의 마을, 강령포
3.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던 강과 바다
4. 삶에 보탬이 되는 산
5. 안들에서 가꾸어 온 쌀과 밭작물
6. 농기구와 생활도구





현재 용강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은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평생을 용강리에서 살아온 사람부터 20~3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지금의 용강리가 황금빛 들판으로 대표되는 농업이 연상되는 마을이라면 그 이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용강리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 1. 가을걷이가 한창인 용강리



용강리의 논(10월 중순)



콤바인으로 추수하는 모습

10월 중순, 용강리의 들은 가을걷이로 분주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금빛 물결이 가득하던 용강리의 들은 대부분 추수를 마친 상태이다. 이른 벼(조, 중생종)를 심은 논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차츰 벼베기를 마치고, 알곡을 잃은 벼단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다. 아직까지 잘 익은 벼가 남아 있는 논은 늦은 벼(만생종)를 심은 논으로, 늦은 벼라도 10월 중으로는 벼베기가 마무리된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잘 익은 벼가 콤바인 속으로 들어가 벼베기와 탈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계가 없던 예전의 용강리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가 하루종일 벼를 베었다. 그 시절에는 마을 사람 전부가 품앗이로 추수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콤바인이 나와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던 일을 몇 시간 안에 모두 끝낼 수가 있다.

기계로 손쉽게 벼베기를 마칠 수 있는 시절이지만, 용강리에서는 서로 돕는 풍습이 변함없이 남아있다. 용강리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도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 일손을 돕는다. 또 수확한 벼를 자루에 담아서 건조장까지 옮기는 작업과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낫으로 베어야 하기 때문에 3~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가을걷이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태양이 벼이삭에 맺힌 이슬





콤바인을 운전하는 이장 윤상필 씨



낮으로 추수하는 모습

을 증발시켜주는 아침에 추수를 할 들판으로 나왔다. 습기가 있는 채로 추수를 하면 건조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쌀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추수할 논의 주인과 그의 아들, 콤바인을 다루어 줄 마을 이장을 포함해서 전부 5명이 동참하였다.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윤상필 씨가 콤바인을 운전하여 벼이삭을 거두어들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콤바인의 뒤를 따라다니며 콤바인이 놓치거나 흘린 벼이삭을 갈무리하여 콤바인에 넣는다. 쌀 한 톨이라도 버리지 않으려는 농사꾼의 모습이다. 콤바인에 탈곡된 벼가 쌓이면 트럭에 실린 커다란 자루에 옮겨 담고, 이렇게 옮겨 담긴 벼는 마을 내에 위치한 건조장으로 옮겨져 건조를 기다린다. 수확한 벼가 건조장으로 이동되는 순간에도 콤바인은 쉬지 않고 가을걷이를 한다.

오전 11시가 넘으면 출출해지는 시간이다. 이때를 맞춰서 먼지락에 있는 집에서 부인들이 새참을 가지고 나왔다. 김밥, 전, 집에서 만든 두부와 김치가 방금 전까지도 벼이삭



새참 먹는 모습



새참 음식

이 있던 논바닥에 깔리고, 휴대용 가스렌지로 우동국물을 끓이기 시작한다. 따끈한 우동과 참이슬 소주가 가을걷이에 한창인 농사꾼의 허기와 고단함을 달래준다. 순찰 중이던 경찰과도 함께 새참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용강리의 논이 집중되어 있는 들에서는 이날 하루에 3대의 콤파인이 가을걷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추수는 오후 3시가 되어 수확한 벼를 건조기계가 있는 장소로 전부 옮기고 나서야 끝이 났다.

용강리의 가을 풍경은 언제나 황금빛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서 그 모습이 점차 변하였지만, 일 년 동안의 땀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풍성함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처럼 용강리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업을 이끌었다. 벼농사 이외에도 고추, 콩, 가지, 깨 등을 키우지만 금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벼농사와 고추농사 정도이다. 나머지 작물은 대부분 가정에서 소비하거나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낸다.

## 2. 뱃사람들의 마을, 강령포

용강리에서 바다에 접해있는 곳에는 조선시대에 중요한 포구로 인식되어 있던 강령포(康寧浦)가 있었다. 포촌(浦村)인 강령포는 휴전 이후 마을이 강제 소개(疏開)되어 현재는 해병대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순조 29년(1829)에 ‘강령포 사는 임민석’과 ‘본리(本里)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기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또한 1908년 경무국이 발행한 ‘폭도에 관한 편책(경기도)’에 통진군 보구곶면 강령포 이장(通津郡 甫口串面 康寧浦 里長)인 손충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sup>2)</sup>으로도 강령포에 행정구역상의 마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령포는 한강 하구에 속하는 포구로서 상당히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국의 물자를 실은 배가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포구였다.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강령포전도에 따르면 ‘삼남선박 운항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럭 올랐다’는 해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중요한 지역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따라서 예전부터 강령포에 뱃사람들을 위한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었다.

1) 『순조실록』 29년 10월 8일.

2) 『폭도에 관한 편책(경기도)』, 경무국, 1908.

3)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강령포전도(康寧浦全圖)

오히려 군하리에서 장보려 이쪽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육상교통이 별

로 없잖아요. 군하리, 지금 시내에서. 면소재지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술 먹으려  
면 여기 와 술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선도 사고, 술집도 오히려 더 많  
았고, 인제 배 부리는 분들, 물 밀 때까지 우선 쉬어야 되니까 안 내리고 쉬어  
야 되니까.<sup>4)</sup>

또한 포촌(浦村)인 강령포는 당연히 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강령포는 바닷물  
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인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어종을 포획할 수 있는 지역  
이며, 또한 먼 바다로 나가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강령포가 한창 번성했을 때는 300여 호가 살고 있었다. 이 중에서 2~3집  
을 제외하고는 전부 배를 부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집은 적어도 배 한  
척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한창인 시절에 강령포 앞바다는 정박해 있는 배로 가득했다.

당시 강령포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대대로 강령포를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들은 근해에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먼 바다에 나가 어업을 행하였다. 연평도 쪽으로  
나가 조기를 잡기도 하였고, 꽃게, 새우 등도 주로 잡는 어종이었다. 이들이 잡은 고기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강령포에서 판매해서 주변 지역에서  
구입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였다. 강령포에는 뱃사람들을 상대하는 술집이 여럿 있었고,  
정기적인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다. 단지 국수와 술 등을 팔면서 좁쌀, 수수쌀 등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이렇게 북적이던 강령포는 한국전쟁 이후 소개되어 사라졌다. 강령포 쪽에 거주하였  
어도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먼지락으로 건너와 계속 살았으나, 배를 부리던 어민들  
은 인천과 같이 계속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지금은 없어. 다 돌아갔어. 그리고 전부 다 갔지. 여기서 못살게하니 배 하던 사  
람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인천, 서울로 다 나갔지. 인천 나가서 고기잡고 그  
랬겠지.<sup>5)</sup>



4) 윤상필(남, 59) 제보



5) 정해균(남, 74) 제보



### 3.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던 강과 바다

용강리의 사람들은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 간단한 어류 채취를 하기도 하였다. 용강리에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덕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이름을 사람들이 그렇게 지은거야. 원래가 이름이 아니고,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물질을 하는데, 눈이 펄펄떨 날리고 그래야 가세기(농어새끼)가 잡히거든. 그때 가면 가세기가 많이 잡혀. 근데 가세기를 잡으러 덕촌이라는 사람이 나갔어. 근데 영 소식이 없지 뭐야. 물은 다 썼는데도. 그래 동네사람이 찾아간거야.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물이 다 썼는데 이 사람이 그물질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이상하다고. 그래 동네사람들이 횃불을 켜가지고서 가보니까. 갯바닥에 서서 죽은거야. 가세기는 자꾸 잡히지. 그게 아까우니까 나오기가 억울하니까 그냥 그것만 자꾸 잡아서 갯바닥에 하얗게 던져놔대. 근데 거기서 얼어 죽었어. 그래 덕촌이 얼어 죽은 자리라고 그래서. 거기가 덕촌이라. 용강리야. 소골이라고 있어. 거기.<sup>6)</sup>

이 이야기는 덕촌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지명유래로, 바다와 강에 접한 용강리의 생태적 환경과 농업 이외에 어류를 채취하기도 하던 당시의 생업적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용강리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한강 하류 지역으로 바닷고기와 민물고기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 당시 이곳에서 주로 잡히던 어종은 뱀장어, 숭어, 새우, 메기, 농어, 동아(숭어새끼) 등이었다. 또한 용강리에서는 게(참게, 꽃게)와 조개(조개, 가무락, 상합)의 종류도 잡혔다.

고기를 잡는 시기는 양력 9월 중순부터였다. 추석이 지나면서 어류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를 맞춰서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것이다. 양력 9월부터 시작된 고기잡이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절정에 달하다가 한강 상류로부터 얼음이 얼어 내려오면 마치게 된다.



6) 이제웅(남, 86) 제보

팔월 추석 지나면 음력, 추석 지나면 추석살이부터 먹는거야. 수시로 잡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야 고기가 쏴져 내려. 일기를 안 해도 때가 되고 추석이 지나면 고기가 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거든. 그때 그물을 대면 심심치 않을 만큼 잡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뇌성을 하면 그냥 퍼낼 정도로 잡히지.<sup>7)</sup>

용강리 내에서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다. 즉, 물이 다 밀었다가 썰기 시작했을 때, 물이 올라오지는 않고 내려가기만 하는 지역이다. 이런 곳이 고기 잡기에도 편하고, 어류도 많이 든다고 한다. 조강리에서부터 용강리까지 이런 터가 3군데 정도가 되었는데, 조강리, 한두막, 소골 등이 그곳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은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닌 마을 앞 갯벌에서 사도그물로 잡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썰물 때를 기다려 삼각형 모양의 사도그물을 갯벌의 갯향아리에 담가 놓는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깊은 바다로 내려가려던 어류가 사도그물에 잡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고기를 잡는 것이다. 게와 조개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채취를 하였다.

바다에서 조개도 잡고, 꽃게도 잡고. 이 꽃게는 사람이 잡으려면 손으로 세상 얻어도 못 잡아. 이 물이 써나갈 때 자갈에 나가면 이 꽃게는 항상 몸을 두 다리를 들고 가거든. 잡으러가는 사람은 우리는 항상 발로 잡는 거야. 잔등을 이렇게 가면 잔등을 이렇게 꼭 눌러야 잡지.<sup>8)</sup>

용강리 사람들은 업으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벼농사를 주로 하다가 틈틈이 고기를 잡는 정도로, 주로 반찬으로 먹기 위해 잡는 경우가 많았다. 심심풀이삼아 고기를 잡는 경우도 있었다. 장어나 송어와 같은 어류는 주로 굽거나 무와 간장 등을 넣어서 조림을 해서 먹었다. 조개 같은 경우는 주로 국을 끓여서 먹었고, 간혹 젓을 담가서 먹기도 하였다.

고기가 많이 잡혀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고기가 잡히는 터에 막과 아궁이를 지어놓고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일제시대 당시 뱀장어 열 마리에 소고기 한 근 가격이었다고 한다.

그래 잡고 있으면 왜놈들이 일본놈들이 거루를 타고 내려가면서는 ‘우나기 좀 잡혀요?’ 그러면 잡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가는 거야. 그때 뱀장어 열 마리

7) 이제웅(남, 86) 제보



8) 이영례(여, 87) 제보

에 소고기 한 근 값. 그래, 벌이삼아 하는 사람도 있었지.<sup>9)</sup>

용림마을에도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도 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거룻배(작은 목선)로 앞바다에 나가 놀이삼아 낚시를 하는 용도로 쓰거나, 강화나 강 건너 지역으로 갈 때 이동용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그냥 건너 왔다갔다하고, 유도섬 이 자락에서 낚시질 하고 그러는 목선 자그마한 것이 있었어. 주종으로 한 배가 아니고 놀이배 삼아서. 또, 인제 우리 외가가 저 이북 풍덕이라는 곳인데. 할아버지가 며느리 태워서 친정에 데려다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sup>10)</sup>

## 4. 삶에 보탬이 되는 산

용강리는 문수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용강리의 마을 사람들은 강과 바다의 혜택뿐 아니라 산의 혜택을 입고 살아왔다. 용강리가 산이 있어 좋은 점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물이 흔하다는 사실이다. 용강리는 문수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개천으로 인해 농업에서 중요한 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르지 않았다. 용강리는 가뭄의 피해를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또한 문수산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 먹을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용강리의 아낙네들은 때때로 산에 올라서 산나물을 채취했다. 문수산은 나물이 흔해서 올라가기만 해도 산나물을 한가득 가져올 수 있었다. 용강리의 아낙네들이 문수산에서 캐온 산나물은 고사리, 취나물, 마타리, 도라지, 사출사, 원추리 등 매우 다양하였다. 이렇게 문수산에서 채취해온 산나물에 양념을 해서 반찬으로 먹었다. 지금은 나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땃감용으로 나무를 하지 않아 산나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하지만 예전에는 나무를 해서 땃감으로 사용하였다. 문수산은 용강리 사람들에게 난방과 연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였다. 과거 강령포가 있었을 때는 나무를 해서 강령포에서 팔기도 했다고하니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듯 용강리 마을 사람들은 강, 바다, 산, 들이라는 환경적 요소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최대한 활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가꾸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9) 이제웅(남, 86) 제보

10) 윤상필(남, 59) 제보



## 5. 안들에서 가꾸어온 쌀과 밭작물

용강리의 생업의 중심은 농업이다. 한국전쟁 이후 강령포가 소개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명백해졌다. 용강리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역시 벼농사이다. 마을 내 농경지의 대부분은 논이다. 강령포의 포구마을이 있던 곳은 현재 대부분 논으로 바뀌어 벼가 경작되고 있다. 또한 문수산 자락에 위치하여 물이 끊임없이 흐르며, 마르지 않는 용못이 있다는 점도 벼농사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였다.

농사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강리에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농사일에 익숙해야 했다. 용강리에서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이 15~20세경에 이르면 보통 농사일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그전까지는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차츰 배워나가는 단계였다.

어려서부터 여기서 농사지었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가지고 13살 때부터 농사를 지었지. 품앗이 하면은 농사짓고 하는거지. 나이가 적어도 잘하면 ‘품앗이를 할 만하다’ 하고 인정되면 남하고 품앗이를 하는거지.<sup>11)</sup>



11) 이제웅(남, 86) 제보

한여름의 논



초가을의 논

용강리에서 농사일은 품앗이로 서로 도왔다. 품앗이는 서로 노동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농사일에 능숙해야 가능하였다. 용강리에서 품앗이로 한 농사일은 모내기, 김매기, 추수, 타작 등 벼농사일이 대부분이었다. 과거 두레패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50~60년 전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용강리의 공동노동은 최근까지도 품앗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벼농사는 크게 못자리 내기, 논갈이, 논물대기, 씨레질하기, 모내기, 김매기, 추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용강리에서 대대로 지어온 벼농사의 과거 모습을 그려본다.

## (1) 벼농사

### 가. 못자리 내기

못자리 내기는 음력으로 4월 20일경에 실시하였다. 못자리를 내기 위한 법씨는 일주일 전부터 미리 물에 담가두어서 불렸다. 불린 법씨는 미리 갈아놓아 준비된 못자리용 논에 뿌려지고, 모내기 전까지 40일 정도 못자리에서 성장하게 된다.

### 나. 논갈이



문수산에서 흐르는 물

못자리가 준비되면 다음에는 논을 갈 차례이다. 미리 준비된 거름을 넣고 총 두 번을 소를 이용하여 간다. 처음으로 가는 것을 초경이라 부르고, 다음에 가는 것을 재경이라고 한다. 초경은 못자리를 낸 바로 직후인 4월 20일경에 하였다. 재경은 초경을 하고 거의 직후에 실시한다. 소에 쟁기를 걸어서 밀고나가 논을 가는 것이다.

과거 농사일에서는 소가 농우(農牛)라고 해서 중시되었다. 소는 논 뿐만 아니라 밭을 가는 역할도 하고 추수 후에 거두어들인 벼단을 집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다. '소가 일을 잘 해야 농사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소가 하던 일을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 다. 논물대기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논에 물을 대야 한다. 용강리는 물이 흔한 마을이라서 논에 물을 대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인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해서, 용강리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용못의 물로 인해서 항상 제때 모내기를 할 수가 있었다.

물이 흔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수리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높은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비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용두레를 이용하여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 논에 물을 대었다.

## 라. 썩레질하기

모내기에 앞서 논을 평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가 물에 잠기는 높이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논을 평편하게 하는 것을 '썩레질(쓰레질)'이라고 한다. 쟁기질과 마찬가지로 썩레를 단 소를 이용한다. 썩레를 단 소가 지나간 곳은 평편해진다. 썩레질까지 마치면 이제 모낼 준비가 끝난 것이다.

## 마. 모내기

모내기는 6월 1일을 전후로 일주일 안으로 하였다. 이 시기를 지나면 수확량이 적어진다고 하여 대부분 이 시기를 맞추려고 한다. 모내기는 하루종일 허리를 펴기가 힘든 고된 농사일이다. 용강리에서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품앗이를 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내기를 마쳤다. 품앗이를 할 경우에 모내기를 하는 순서는 서로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였다. 모를 내는 순서로 다투지는 않았다고 한다.

기계가 없던 시절의 모내기는 전부 손으로 하였다. 이때 모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못줄을 이용하였다. 양쪽에서 못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 호흡을 맞춰서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모내기 할 때 손으로 냈지. 줄로 해서. 양쪽에서 줄을 잡지. 잡으면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다 내면 넘기고 쪽 해서 냈지. 호흡이 잘 맞아야지. 농사꾼이 그것도 못맞춰?<sup>12)</sup>

12) 정해균(남, 74) 제보



## 바. 김매기

김매기는 한 해의 농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제때 김을 매주지 않으면 벼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김매기는 모를 내고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실시하였다. 이렇게 처음 김을 매는 것을 '초벌매'라고 하였다. 초벌을 맨 뒤에 김이 자라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두벌매는 시기를 결정한다. 김매기는 호미를 이용해서 김이 있는 땅을 파서 넘기는 방법을 사용한다. 두벌매기를 마치고도 김이 많을 때는 세벌까지 매기도 하는데, 이때는 손으로 뽑는 방법을 사용한다.

김매기는 가장 더운 시기인 한여름에 하는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내기와 마찬가지로 마을 전체가 품앗이를 하여 힘든 농사일을 나누었다. 김매기가 끝나면 벼를 벨 때까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

## 사. 추수

추수는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들이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벼가 익기를 기다렸다가 10월이 접어들면 가을걷이를 시작한다. 추수도 품앗이로 마을 전체가 함께 한다. 익은 벼를 2~3포기 정도 잡고 낫을 이용하여 베는다. 이렇게 베어진 벼단은 20~30포기씩 묶어서 세워둔다. 묶인 벼단은 일정기간 논에 세워두어 햇볕으로 말린다. 이후 소를 이용하여 벼단을 집 앞으로 옮긴 후 타작을 하였다. 타작은 발들을 밟아 탈곡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하였다. 타작한 쌀은 마을에 널어두어 건조시켰다.



과거에 쓰던 탈곡기



참쌀 건조시키는 모습

## (2) 밭작물

용강리는 평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평지의 일부와 산자락의 경우에서만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재배되는 작물은 주로 고추, 들깨, 콩, 배추, 무, 순무, 파 등이다. 고추를 제외하고는 많은 양을 경작하지 않아 수익성보다는 자가 소비와 자녀에게 보내주는 용도로 재배하고 있다.



고추밭



들깨 말리는 모습

### 가. 김장 채소

용강리에서는 집집마다 배추, 무, 알타리무, 순무 등의 김장 채소를 기르고 있다. 재배하는 김장 채소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몫도 포함한 것이다. 각각 기른 김장 채소는 매년 11월경에 자녀들과 함께 김장을 하여 서로 나누어 먹는다.



김장채소

## 나. 보리

지금은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밭에 가장 많이 심은 작물로는 보리와 인삼이 있다. 보리는 과거 끼니를 이어나가기 곤란했던 시기에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로 심었던 작물이다. 보리는 벼의 추수가 끝날 시점인 늦가을에 심고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수확한다. 보리를 심은 직후와 보리가 일정 기간 성장한 겨울에 거름을 준다. 거름은 변소에 모인 인분과 나무를 때고 남은 재를 섞어서 만든다.

## 다. 인삼

20~30년 전 용강리 밭의 대부분은 다 삼포(인삼)밭이었다. 인삼의 경우 국가에서 전량 전매해 가기 때문에 환전이 용이하여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하였다. 인삼은 인분을 주지 않는 밭이어야 하므로 재배 1년 전부터 밭을 묵혀야 한다. 인삼은 20cm 간격으로 일렬로 밭에 심는다. 이후 5~6년을 키우면 인삼을 캐서 판매를 한다. 인삼은 나무 말장에 차양막을 씌어주어야 하고, 한 번 채취하면 밭을 옮겨야 하므로 번거로운 농사이다. 한 곳에서 오래 재배를 하면 병이 나기 때문에 인삼농사를 하는 농가는 20여 년 전에 사라졌다.



## 6. 농기구와 생업도구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많은 도구를 이용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 생활양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문화적 전통까지 엿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사용하던 농기구나 생활도구들은 농기계의 도입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발달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재 용강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기록한다.

### (1) 농기구

#### ① 소스랑

용강리 주민들은 쇠스랑을 보통 ‘소스랑’이라고 부르는데 흙덩어리를 깨어 밭을 고르거나 마늘, 감자, 고구마를 캐는 데 사용하였다. 이제응 씨가 소장하고 있는 소스랑은 주로 마늘이나 감자를 캐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땅을 깊게 파기 어려워 마늘을 캐는 데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김옥희 씨가 소장한 잔발소스랑은 보통 소스랑에 비해 날의 길이가 짧



마늘 캐는 소스랑 - 이제응 소장



소스랑 - 이제응 소장



잔발소스랑 - 김옥희 소장

고 날의 개수가 많아 잔발소스랑이라고 부른다. 잔발소스랑은 발의 흠덩어리를 깨고 땅을 평평하게 고를 때 많이 사용한다. 흠덩어리를 깰 때는 날의 뒷부분으로 치고 날의 앞부분으로 땅을 고른다. 마늘 캐는 소스랑은 날의 길이가 길어 땅을 깊게 파는 데 유리하여 황용애 씨가 마늘을 캐는 데 주로 사용한다. 소스랑은 현재도 밭농사에 쓰이고 있다.

## ② 호미

호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사진의 호미가 가장 일반적인 호미의 형태이다. 두 번째 사진의 호미는 특별한 명칭 없이 호미라고 부르지만 주로 밭작물의 모종을 심을 때 사용한다. 끝이 뾰족하지 않아 땅을 찔 때 모종을 심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데 편리하다. 논호미는 논에서 김매기를 할 때 사용하는 호미이다. 논호미는 땅이 무른 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호미날이 커도 힘이 많이 들지 않으며, 한 번에 많



호미 - 이제응 소장



호미 - 이제응 소장



논호미 - 이제응 소장



굽는 호미 - 이제응 소장



은 양의 김을 땔 수 있다. 논호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굽는 호미는 밭의 풀을 긁어서 없앨 때 사용한다. 이제응 씨의 아내인 황용애 씨가 밭일을 하면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풀이 많이 자랐을 때는 긁어서 풀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이 적게 자랐을 때 주로 사용한다.

### ③ 갈퀴

갈퀴는 나뭇잎을 긁어내거나 콩을 털고 난 다음 콩깍지를 긁어내는 데 주로 사용한다. 김옥희 씨가 소장하고 있는 갈퀴는 많은 양의 콩깍지를 긁을 때 사용하며, 이제응 씨가 소장하고 있는 갈퀴는 적은 양의 콩깍지를 긁어낼 때 사용한다. 특히 이 갈퀴는 고추를 말릴 때 사용한다. 고추를 고루 펴거나 다시 모을 때, 고추를 뒤집어 줄 때도 사용한다.



갈퀴 - 김옥희 소장



갈퀴 - 이제응 소장

### ④ 가래

가래는 논두렁을 만들 때 사용한다. 보통 3명이 함께 사용하는데, 한 사람이 긴 자루를 잡고 가래의 날 부분을 땅에 꽂으면, 두 사람이 삽날 양쪽에 연결한 줄을 당겨서 땅을 판다. 가래의 날 부분을 넓게 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용강리에서는 한국전쟁 직후 피난 온 사람들이 당고개 인근의 땅을 개간 할 때 큰 가래를 사용하였다. 이때 하나의 가래에 10여 명이 붙어 가래를 사용하였다. 현재 가래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래 - 이제응 소장



### ⑤ 도리깨



도리깨 - 김옥희 소장

도리깨는 주로 수확한 콩을 두드리서 알곡을 터는 데 사용한다. 콩을 두드리는 부분은 두 개의 나무를 매어서 사용한다. 도리깨는 만들기 쉬운 농기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⑥ 고무래



고무래 - 김옥희 소장

고무래는 수확한 곡식을 말리기 위해 곡식을 널고 넓게 펴는 데 사용한다. 곡식을 말릴 때는 넓게 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의 덜 마른 곡식을 위로 올리기 위해 뒤집어 주어야 한다. 이때도 고무래를 이용해 곡식을 뒤집고 다시 넓게 편다.

### ⑦ 연자방아

용강리에 연자방아는 강령포에 1개, 아랫말에 1개, 용림말에 2개, 총 4개가 있었다고 한다. 연자방아의 운영은 마을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이익현 씨의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자방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리 한 가마를 찧으면 한 되를



연자방아

샅으로 받았다. 연자방아를 사용하기 위한 소는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연자방아를 운영하던 시기에 정맥기도 있었으나 보리를 뿔 때 연자방아를 주로 이용하였다. 용강리의 연자방아는 한국전쟁 이후로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 용못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자리의 용도로 만들어 두었다.

마을에 있는 연자방아는 크기가 대부분 비슷했는데 김영춘 씨가 운영하던 연자의 돌이 가장 컸다고 한다. 연자돌이 크다고해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찧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곡식을 좀 더 쉽게 찧을 수 있다. 보통 연자방아는 새벽 3~4시경에 이용한다. 보리 한 가마를 찧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보통 한 번 연자방아를 이용할 때 보리 두 가마를 찧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연자돌을 소가 돌리면 곡식이 비틀리면서 껍질이 벗겨지는데, 안에 있는 곡식이 점차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 밀려나온 곡식을 사람이 다시 넣는데 이것을 ‘깨껴 넣는다’라고 한다. 한 번 밀려 나온 곡식과 두 번 밀려나온 곡식을 잘 보고 다시 깨껴 넣어야 하는데 이것이 연자방아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미 껍질이 벗겨진 곡식을 계속 깨껴 넣으면 알곡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연자방아를 이용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다.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사람은 보통 절구에 곡식을 찧어 먹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잣집의 경우 연자방아를 이용해 미리 곡식을 찧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쌀벌레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일 년 먹은 쌀벌레 먹으면 소 반짝 먹는다’라고 하였다.



## ⑧ 절구

절구는 곡식을 찧어 껍질을 벗기거나 알곡을 뺄 때 사용한다. 많은 양의 곡식을 찧을 때는 연자방아를 사용하며, 적은 양의 곡식을 찧을 때는 절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떡을 만들 때도 절구에서 알곡을 뺄고 다시 체에 쳐서 만들었다. 용강리에서는 보통 나무 절구를 사용하였으나 시멘트가 나온 이후로 시멘트로 절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김옥희 씨가 소장한 시멘트로 만든 절구도 남편 이덕원 씨가 직접 제작했다고 한다. 시멘트로



시멘트로 만든 절구 - 김옥희 소장



나무절구 - 이제응 소장



나무 절구공이 - 김옥희 소장



돌 절구공이 - 이제응 소장

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서 절구모양의 틀을 만든다. 시멘트를 물에 개어 틀에 붓고 적당한 크기의 항아리를 시멘트 속에 넣어 곡식을 찧을 공간을 만든다. 이때 시멘트가 달라붙지 않도록 항아리에 종이를 붙인다. 시멘트가 굳으면 틀을 제거하여 절구



를 만들었다. 현재 절구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절구공이는 보통 나무로 만든 절구공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리는 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돌로 만든 절구공이로 쪼개 보리의 껍질을 벗겼다.

### ⑨ 메



메 - 김옥희 소장



큰 메와 작은 메 - 이제응 소장

메는 주로 말뚝을 박거나 떡을 해 먹을 때 떡메로 사용하였다. 용강리에서는 주로 나무로 만든 메를 사용하였다. 보통 고추대를 박는 데 사용한다.

### ⑩ 작은 괭이

작은 괭이는 일반 괭이와 모양이 비슷하나 크기가 작다. 주로 도라지를 캐 때 많이 사용한다.



작은 괭이 - 이제응 소장



용두레

#### ⑪ 용두레

용두레는 샘이나 개울의 물을 퍼서 논에 대는 데 사용한다. 용두레의 사용법은 권태 일 씨의 제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용강리는 물이 많아 땅을 파면 물이 올라오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물을 대기 어려운 곳에 샘 구덩이를 넓게 파다. 샘 구덩이는 논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에 있는 주변을 판다. 샘 구덩이에 물이 고이면 용두레를 설치한다. 용두레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샘 구덩이 위에 삼발이를 설치하고 용두레의 양 옆에 있는 구멍에 끈을 달아 삼발이에 매단다. 그리고 용두레의 뒷부분을 잡고 앞뒤로 왕복하면서 물을 퍼서 논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에 붓는다. 그럼 물이 자연스럽게 물길을 타고 논으로 흘러들어간다. 샘 구덩이의 물을 용두레로 물길에 올리는 것을 '물을 짚어 올린다'고 한다. 현재 마을의 논 대부분에 물을 대는 것이 쉽고 물을 펴야 할 곳은 양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두레는 사용하지 않는다.



키 - 김옥희 소장

#### ⑫ 키

키는 곡식을 까불러서 껍질이나 쭉정자들을 없애는 도구이다. 키는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없고 장에서 사서 사용한다. 키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⑬ 지게와 바소구리

지게는 보통 짐을 짊어질 때 사용한다. 용강리에 사는 1990년대까지도 지게를 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 지게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레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바소구리는 풀이나 작은 물품과 같이 지게에 쌓아 올리기 어려운 짐을 실을 때 지게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지게와 바소구리 - 김옥희 소장

### ⑭ 트랙터

용강리에서 농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처음 도입된 기계는 경운기로, 소 대신에 논을 갈고 썬레질을 하였다. 경운기 이후로 이앙기와 트랙터가 마을에 도입되었다. 마을에 처음으로 트랙터를 도입한 것은 이익현 씨였다. 이익현 씨는 1983년에 트랙터를 도입하였다. 초창기 마을에 도입된 대부분의 농기계는 대부분 새것으로 교체되었으나 이익현 씨는 아직도 마을에 처음 들여 온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다.



용강리에 처음 들여 온  
이익현 씨의 트랙터-  
이익현 소장



## 7) 생활도구



맷돌 - 김옥희 소장

### ① 맷돌

맷돌은 주로 곡식을 가는 데 사용하였다. 김옥희 씨는 맷돌로 주로 콩을 갈아 두부나 콩국수를 해 먹었다. 메밀이나 녹두, 밀을 갈아서 부침개를 해 먹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는 믹서기를 사용하거나 방앗간에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는다.

### ② 체

체는 곡식이나 곡식의 가루를 굻기에 따라 선별하는 도구이다. 김옥희 씨는 망의 굻기가 각기 다른 체를 소장하고 있는데, 각각의 쓰임새와 명칭이 다르다. 사진에서 우측에 있는 체가 망의 굻기가 가장 굵은 것으로 '얼게미'라고 한다. 얼게미는 깨나 들깨를 털고 껍데기를 걸러내는 데 사용한다. 얼게미 왼쪽에 있는 것은 '도두미'라고 한다. 도두미는 얼게미



체 - 김옥희 소장

보다 망의 굵기가 가는 것으로 수수나 메밀, 녹두 등으로 떡을 만들기 위해 가루를 만들 때 사용한다. 도두미 왼쪽에 있는 것을 '떡가루체'라고 한다. 떡가루체는 도두미보다 망의 굵기가 가는 것으로 쌀로 떡을 만들기 위해 가루를 만들 때 사용한다. 쌀로 떡을 만들 때는 쌀가루의 입자가 잘아야 하기 때문에 도두미보다 떡가루체를 사용한다. 위의 사진에서 가장 왼편에 있는 체는 '김체' 혹은 '반치는 체'라고 부른다. 김체는 망의 굵기가 가장 고운 것으로 술을 빻거나 목을 만드는데 등 가루의 입자가 고운 것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 ③ 채반과 채광주리



채광주리 - 김옥희 소장



채반 - 김옥희 소장



김옥희 씨는 채반과 채광주리를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채반은 크기가 여러 종류인데, 제사나 명절에 부침개를 구워 올려 두는 데 사용한다. 고구마나 호박과 같은 것을 말릴 때도 채반에 올려두고 말린다. 채광주리는 채반보다 오목하여 여러 물건을 담을 때 쓴다. 빨래를 하러 갈 때 빨랫감을 담아가기도 하고 김장철에는 배추나 채소를 씻어서 두기도 한다. 채반과 채광주리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④ 방비



방비 - 김옥희 소장

방비는 방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창고나 마당을 청소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방비는 빗자루 찌꺼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다. 그래서 주로 들에서 나는 피를 뽑아 말려서 방비를 만든다.



## ⑤ 뜰채

뜰채는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뜰채는 한강이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기보다 논이나 냇가의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특히 장마철이면 논이나 냇가에 물이 모여 떨어지는 곳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어로 도구 없이 뜰채로 고기를 떠서 잡는다. 장마철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잡은 물고기를 먹고 하루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



뜰채 - 이제응 소장

## ⑥ 톱



톱1 - 이제응 소장



톱2 - 이제응 소장

이제응 씨는 예전에 집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목공일을 할 때 사용하는 톱을 소장하고 있다. 왼쪽 사진에 있는 톱은 크기가 1미터가 넘는 것으로 기둥으로 사용할 큰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한다. 톱의 크기가 커서 혼자서 사용할 수 없고 두 명이 함께 장단을 맞추어 사용한다. 오른쪽 사진의 톱은 약 70cm 정도의 중간 크기의 톱으로 굵지 않은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한다. 손잡이가 양쪽으로 있어 두 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혼자서 사용할 수도 있다.





## 제5장 맨드라미 꽃을 보고 시간을 알던 시절

1. 그 시절의 세시풍속 : 봄·여름·가을·겨울





## 1. 그 시절의 세시풍속 : 봄·여름·가을·겨울

용강리 사람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자연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이를 하는 등의 삶을 이어온 것이다.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부모세대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맨드라미라는 꽃이 있어. 근데 맨드라미가 무슨 꽃이냐하면. 맨드라미는 시간을 잘 맞춰 꽃이. 그전에는 시계가 없었어. 근데 맨드라미라는 게 저녁 때는 꽃이 져. 아침에는 피어. 꽃이 벌어지고 오무라지는 걸로 시간을 알아. 그전에는 시계가 어딴어? 그거 보고 농사짓고, 밥 짓고 하는거지. 6월, 7월에만 피어. 다른 때는 그냥 짐작하는거지.<sup>1)</sup>

시계가 흔하지 않던 시절, 용강리 사람들은 맨드라미를 보고 시간을 알았다. 한창 농사일에 바쁘더라도 논두렁에 피어있는 맨드라미가 오므리는 것을 보고 저녁밥을 지으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강리에서 대대로 내려온 삶의 지혜이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삶의 지혜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용강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한 생활경험들이 남아있다.

### (1) 봄

#### 가. 설

설 아침에는 새로 장만한 옷을 입고 선달그름 내내 준비한 설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린다. 차례는 보통 7~8시경에 시작되며 차례상에는 떡국, 삼색 과일, 누르미(녹두부침개), 각



1) 이영례(여, 87) 제보

종 부침개 및 나물, 소고기 적, 떡, 부꾸미, 다식, 산자 등이 올라간다.

설날 때 설날에 그전엔 바느질해서 옷 해 입고. 그럼 바느질 했지. 우리네는 그냥 손으로 해 입었지만. 필목이야 필목. 저 다 필목점이 있잖아. 시장에 있는 거. 마송, 강화 그런 데가 다 있지.<sup>2)</sup>

차레는 정해지진 않고. 차려지는대로 했지. 정해진 건 없고 조반상 같이 차려서 해요. 8시나 7시에 해요.<sup>3)</sup>

예전에 저렇게해서 차례 잡숴고. 제사 잡숴고. 떡국 끓여 먹고. 예전에 방아 있어 가지고. 떡국 인제 방아 찰는 데서 해 와요. 저기 가서 해와 쌀 가지고 가서 그러다가 썰어서 낫다가 떡국 끓이지 뭐. 방앗간 그전 처음에는 동네에서 저기 허는 것도 있었구. 인제 방앗간 있었는데 안 해서. 떡은 군하리가서 많이 해왔지. 시장 가서. 다섯 되씩 열 되씩 해 와서 먹고 그러지.<sup>4)</sup>

만두도 해요. 만두는 그냥 밀가루에 해서 집에서 배추김치, 두부, 두부는 여기서 집에서들 했어요. 많이들 했어. 지금은 안 하지. 그전에는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것도 다 했는지 지금은 안 해. 두부 넣고 숙주나물 넣고. 잡채도 넣고. 계란 같은 것도 넣고. 고기는 돼지고기. 꿩고기 같은 건 어렵지. 돼지고기는 돼지들 키워서 많이들 잡아먹었지. 그래서 먹지.<sup>5)</sup>

아침에 해요. 떡국 끓이는 건 아침에 해요. 제상에 사과, 배, 누르미, 두부 그런 거 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다 올려놓지. 선달그믐에 미리미리 해두는 거지. 다른 집하고 다 다르지만 나물도 해놓고, 부침개도 해 놓고, 과일 사과. 삼색 과일로 해 놓고 여러 가지 해 놓지. 그리고 떡국.<sup>6)</sup>

예전엔 다식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 다식. 옛도 많이 고아가지고 강냉이도 묻히고 여러 가지 묻혀가지고선. 그렇게해서. 제상에 산자. 쌀 튀겨가지고 그 것도 해서 이렇게 피어놓고 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말아들이 하는거지. 작은 아들들은 제사나 지내러 오는거지. 자신이 생각한 거 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오는거지. 대개 음식은 큰 아들이 많이 했지.<sup>7)</sup>

2) 이영례(여, 87) 제보



3) 이종휘(여, 74) 제보

4) 이종휘(여, 74) 제보

5) 이종휘(여, 74) 제보

6) 이종휘(여, 74) 제보

7) 이종휘(여, 74) 제보

세배는 차례를 지낸 연후에 하였다. 과거에는 마을 내에 있는 집안 어른들에게 전부 세배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세배를 받은 사람은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라는 등의 덕담을 배풀었다.

그리고 나서 새배하지. 새배는 부모들한테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하는거지. 마을 돌아다니면서. 친척 어른들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안 해. 그저 복 많이 받아라 소리들 많이 하지.<sup>8)</sup>

차례와 세배를 마친 후에는 집안, 마을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윷놀이와 화투를 즐겼다.

윷놀이. 저 그거 여기서 그전에 윷놀이 화투들도 10원짜리 하고 그렇지. 오락으로 하고 그랬지. 윷은 나무떼기 윷 파는 게 있어서 그걸로 했지. 파는 게 있어가지고 여럿이 어떤 땐 부녀회에서도 하고. 동네에서 마을에서도 청년들도 하고. 그럼 인제 가서 어느날 날 정해가지고 하지.<sup>9)</sup>

뭐해? 저기 고스톱이나 치고, 윷놀이도 하는 사람은 하고. 근데 심겨워. 재미가 없어. 그건 옛날부터 했잖아. 돈내기도 안 하고. 그건 안 하고. 여기서 해박야 끌전내기지 뭐. 십 원짜리들. 그것도 안되면 골을 내. 골을 자꾸 나면 지랄한다고. 성질을 화투하면 알아본대. 그럼.<sup>10)</sup>

#### 나. 정월보름

대보름 하루 전인 열나흘 날에 오곡밥과 함께 각종 나물을 해서 먹었다. 나물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래기나물, 콩나물, 도라지, 취나물 등 집에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하였다. 오곡밥을 나눠먹으면 한 해가 좋다고 하여 이웃집과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8) 이종휘(여, 74) 제보

9) 이종휘(여, 74) 제보

10) 이종휘(여, 74)제보



보름 명절 쇠는 거 하고, 오곡밥 열나흘날 하고, 나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이제 씨라기 나물, 콩나물. 이제 자기네 집에 있는 거 산나물 했죠. 도라지 나물, 산나물. 오곡밥 훑쳐먹진 않았어. 오곡밥 많이 먹으면 좋다매? 그래서 나눠들 먹고, 그냥 오곡밥 해서 남자가 많이 먹으면 그 해 일꾼이 많다고 했어. 그래서 많이들 먹고 그랬어.<sup>11)</sup>

대보름 놀이는 옛날에는 대여섯씩 애날고 그럴 때는 집집마다 식구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아닌게 아니라 쥐불놀이 삼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혼자 사는 집이 반은 되고 빈집도 있고, 나물이나 오곡밥은 해 먹는데, 이웃이 서로 많이 노뇌먹는 풍습은 다 먹어지는거고, 옛날에는 애들끼리 서로 배고프니까 너그 집에 가서도 먹고 누구 집에 가서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풍습이 다 없어졌지 뭐.<sup>12)</sup>

보름날 저녁, 달이 뜨면 마당이나 근처 언덕에 올라가 달을 보면서 그 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을 빌었다. 다림절이라고 하여 매어 묶은 짚단에 불을 붙이고 달을 향해 절하며 가족의 건강을 빌기도 하였다.

달은 집에서 그냥 바라보면 여기 뜨잖아. 그냥 보는거지. 어디 올라가진 않았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지. 보름날은 다림절 한다고 그랬지. 다림절이라고 이제 보름날 저기 이렇게 짚에다 불 붙여가지고 절하는 게 있어. 예방이라고. 그냥 짚에다 불들어 매가지고 저 들고 ‘다림절합니다. 다림절합니다’라면서 달에다 절했지. 예방이라고 해요. 좋으라고 운 좋으라고. 건강 좋고, 운수도 좋으라고.<sup>13)</sup>

논에서 쥐불놀이를 하며 놀이와 함께 농사의 풍년을 빌기도 하였다.

쥐불놀이 한 사람도 있죠. 예방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논 두랑에 무슨 저기 그전에 지금은 약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거로다가 예방한다고 그런거 같애. 벌레 같은 거 예방한다고 그런다고. 쥐도 있겠고.<sup>14)</sup>

11) 이종휘(여, 74) 제보



12) 윤상필(남, 59) 제보

13) 이종휘(여, 74) 제보

14) 이종휘(여, 74) 제보

#### 다. 정월 홍수막이

정월에 군하리에 있는 만신에게 가서 홍수막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신을 믿는 사람이나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쌀, 과일 등을 구입해서 가면 만신이 굿을 해줬다.

만신집에 가는 사람은 만신집에 가고 그래. 난 그전에 조금 땡기다가 정월 보름날만도 가기 힘든데. 돈이 드니까. 돈이 있어야 저거 하나까. 정월에 한 번 하는 거지. 절이 아니라 군하리 만신집에 가는거지.

정성드리는거지. 쌀 과일 사가지고 가서 밥도 해서 지어놓고. 가져가면 만신집에서 알아서 해요. 그걸 홍수막이 한다고 해. 그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고 집안 편안하라고. 일 년에 한 번 하지. 그 전에는 칠석날에도 갔었고. 인제는 짐가지고 다니기 어려워서 못가요. 인젠 땡기기도 힘들어. 며느리가 하면 하고. 근데 인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 안 믿는데. 우리 아이들도 아프고 이러면 땡기는거야.<sup>15)</sup>

#### 라. 입춘

입춘이 되면 대문이나 기둥, 방문 위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등의 입춘축을 써서 붙인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써서 붙이고, 다른 집의 것을 써주기도 하였다. 절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절에서 받아다 붙이기도 한다.

#### 마. 장담그기

2월 중으로 날이 좋은 날을 골라서 간장, 된장을 담갔다.

2월에 음력 2월에. 나쁜 날 담그면 안 돼. 인제 좋은 날이 있어. 날을 보



입춘축

15) 이종휘(여, 74) 제보

면 알아. 그전에는 그걸 다 가렸지만 지금은 뭐 가려? <sup>16)</sup>

## (2) 여름

### 가. 단오

단오에는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등 각종 놀이를 즐겼다. 편평하고 넓은 공터에 널과 그네를 설치해두고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즐겼다. 용강리에는 큰 나무가 없어 기둥 두 개를 세우고 그네 줄을 달았다. 단오 때 맨 그네는 단오가 지나면 풀었다.

단오 때는 널뛰고, 그네뛰고, 마을에 해 났지. 저기 너른데. 그네 매고. 여기다 양 쪽에다 해 놓고 매는거야. 근데 큰 나무 집에서 맨들어. 기둥을 양쪽에다가. 거기서 했지. 재미나마나 몰라. 어떻게 지나갔는지. 양쪽에 기둥을 세워두고 하지. 남자들도 그네뛰고 그랬지. 남자들은 씨름도 하고 그랬지. 여기서. 씨름 잘 하고 노래 잘 부르고 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 요새는 그네도 안하고, 씨름도 안 하고. 5월이 단오면은 5월 초닷새가 단오야. 그때는 다 그네를 매지. 마을마다 다. 매어서 하는거야. 매서. 때가 지나면, 때만 지나면 그네 없애고, 그 다음 단오 때 다시 매는거지.<sup>17)</sup>

단오 때 먹는 특별한 음식은 없었다. 5월에 쉽게 나오는 마타리, 사출사 등으로 나물을 해서 먹는 것이 단오 때의 음식이다.

그전에는 없어서 특별하게 먹는 것도 없어. 돈이 있어야 떡도 해 먹지. 밥 먹을 것도 없어서. 그때 산나물, 산나물 5월 단오에 나오는 것은 마타리, 사출사 그런거지. 그걸로 나물 해 먹는거지. 뭐.<sup>18)</sup>

갱구래(줄나무)의 잎을 삶아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자들이 주로 미용을 위해서 갱구래 잎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다.

16) 이영례(여, 87) 제보

17) 이영례(여, 87) 제보

18) 이영례(여, 87) 제보



여기 갱구래가 부채모양으로 낭구가 있어. 그걸로 머리 감지. 단오 때. 그걸 삶아서. 머리가 부드럽고 그렇게 된대. 몰라 어떻게 했는지. 부드러워진단니까 하는 거지. 갱구래. 줄나무라고 하지.<sup>19)</sup>

#### 나. 봉숭아꽃 물들이기

봉숭아꽃이 한창 필 무렵 봉숭아꽃을 따서 손톱과 발톱에 봉숭아물을 들인다. 봉숭아꽃잎과 잎을 찢은 뒤 손톱과 발톱에 올려놓고 도꼬마리나 아주까리(피마자) 잎 등으로 손가락을 싸서 실로 묶는다. 이렇게 하면 손톱에 분홍색물이 들어서 주로 여자들이 하였다. 또한 봉숭아물이 뱀을 쫓는다고 하여 봉숭아물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 지금 저기 얼마나 나는데. 그럼 봉숭아 그거. 무슨 잎사구로 하나면, 이름이 도꼬마리야. 도꼬마리로 봉숭아를 짓이겨서 바르는거야. 풀이 있어. 이름이 도꼬마리야. 그걸로 감싸는거야. 봉숭아는 6월, 7월에 하는거야. 근데 여기는 잎사구가 있어서 도꼬마리로 해. 또 아주까리라고. 피마자 잎이 아주까리야. 그걸로도 해. 꽃만 짓이기지. 잎사구도 하기도 하고. 이쁘라고 해. 근데 그거는 왜 들이나 하면. 그 전에는 나물을 많이 뜯으러 다니면은 뱀이 무섭게 많은데, 근데 봉숭아를 뱀이 제일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발에도 손톱에도 들이면, 그래서 뱀이 아주 봉숭아를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봉숭아를 들이는거야. 그때는 뱀이 좀 많았나? 지금은 없지. 이쁘라고도 하고, 뱀도 쫓는거야. 뱀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봉숭아물 들이고. 발꼬락에 다 들이고 동산에 가면 뱀이 오다가 다 달아나. 오다가 도망가. 여기 봉숭아 아주 많아. 내 년에도 무지 날거야.<sup>20)</sup>

#### 다. 삼복

복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서로 음식을 차려 나무 그늘이나 시냇가에 모여 삼계탕이나 개국을 끓여 먹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해 먹는 것을 용강리 주민들은 ‘도리개’라고 한다. 삼복은 최근에도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서 즐기는 풍습이다.

19) 이영례(여, 87) 제보

20) 이영례(여, 87) 제보

복날에 있는 집들은 저거하고 그랬지만. 그냥 닭을 잡아서 먹고, 개고기도 먹고. 동네에서 그런거 할 적에는 모가지 잡아. 그때 복이니까 먹고 싶잖아. 그래서 하더라고 잡더라고. 저기서 사다가도 잡고, 집것도 잡고. ‘도리개’라고 그러나? 이렇게 여럿이서 해 먹는 걸 도리개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그렇고. 지금은 인제 노인회를 하면 저기 나와. 저기 사는 사람이 닭을 가지고 와요. 갖다 줘. 마을마다 다 갖다 준대. 공짜로. 가져온 거 다 먹지들 못해서. 한 번 해 먹고 못해 먹고 그래서 냉장고에 있어. 한 20마리 췌다나봐. 농사일이 바쁘니까 다시 못해 먹어. 이제 먹겠지.<sup>21)</sup>

## 라. 칠석

칠석날에는 밀떡을 부쳐서 제석, 터주가리 및 집 안 곳곳에 자식들을 위해 고사를 지낸 뒤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칠월 칠석에 부치는거야. 그것도 고사마냥 농대. 저기 저런 데다가 다 봐. 9, 10월 상달하는 것처럼. 하면 좋다고 해. 하는 집만 해. 시루떡이 밀떡이 된거지. 인제 부쳐 먹고 싶은데 저거 하니까. 그날 부쳐 먹는거지. 나눠 먹진 않고 오는 사람만 주고 그래.<sup>22)</sup>

## 마. 물놀이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아이들과 남자들은 마을의 개천이나 논에 나가 물놀이를 즐겼다. 붕어, 참게 등을 잡으면 탕이나 조림을 해서 먹었다.

그럼 고기 잡고 갯고랑에서 먹감고 애들 할 게 뭐있어? 텔레비전이 있어 전기가 있어? 그냥 등잔불이나 키고서 해떨어지면 캄캄하니까 자는거고 뭐 겨우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들으면 다행이지. 그때는 붕어도 많았지. 붕어, 참게, 뭐 그냥 참게 같은 거 지금 시절 같으면 논에 기어 다니는 참게 주워 담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연공해 뭐 이래가지고 고기가 없어 그렇지. 옛날에는 미꾸라지 잡히

21) 이종휘(여, 74) 제보

22) 이종휘(여, 74) 제보

면 버렸어. 먹을 줄도 모르고. 붕어는 넓적한 붕어는 그거 해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고추 풋고추 넣고 무 썰어 넣고 조림 그거해서 먹었지. 미꾸라지는 먹도 않았어 그때는 잡히면 그냥 버렸어. 먹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붕어 잡히면 붕어 버리고 미꾸라지 잡고 그럴텐데.<sup>23)</sup>

### (3) 가을

#### 가. 추석

추석 차례상은 설 차례상과 올리는 음식이 거의 동일하나 떡국 대신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을 올린다. 송편에는 팔고물을 넣어서 먹었다. 추석 차례를 8시경에 올리고나면 근처에 있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고 벌초를 하였다. 최근에는 추석 전에 미리 성묘와 벌초를 마치기도 한다.

#### 나. 상달고사

각 집마다 음력 10월이 되면 좋은 날, 즉 손 없는 날을 정하여 상달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하는 날은 집집마다 다르다. 3일과 7일이 좋다고 하기도 하며, 그믐날이 무엇을 해도 손이 없다고 하여 이 날 지내기도 한다. 자녀들이 오기 좋은 날에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백설기, 시루떡, 통북어, 술, 정한수 등이 제물로 이용된다.

9, 10월 상달이라고 9월이나 10월에 드리지. 아무 부정 없고 그런 날. 들안 같은 그런 데가 한구석 해놓고 있죠. 우리도 고사 지내거든. 날 잡아서. 좋은 날 잡아서 지내는거지. 인제 거시기한 날들. 날 좋은 날로. 날 잡는 거는 모르는데. 삼일 날이나 칠일 날이나 그런 날이 좋은거래.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믐날이나 손 없는 날. 아무 날 해도 손 없는 날. 그런 날 잡아서 인제 하는거라고. 우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오기 좋은 날로 하고 그래.

23) 윤상필(남, 59) 제보



떡. 시루떡만 해 놓는거야. 고사 지내는건 시루떡만 하는거야. 술 갖다가 한 잔 부어놓고 터주가리에다가. 북에(북어). 제사지내면 찌진 거로 하잖아요? 거기는 통 북에를 해. 시루떡이랑 북에랑 백설기라고 백설기 찌다가 놔요. 해 달라고 그래 그럼 해 줘요. 요렇게 백설기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걸 떠서 방에다 따라 백설기를 해 놓지. 방에다만. 그러고선 냉수, 정한수 떠다놓고. 그렇게 하더라고.<sup>24)</sup>

우선 방앗간에서 해 온 백설기와 시루떡을 통북어와 술과 함께 마루에 상에 차리고 마음속으로 빈다. 그리고 백설기와 정한수를 안방의 제석 밑에 둔다. 그 다음에는 시루떡을 잘라, 집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순서대로 집안 구석구석(부엌, 뒷간, 광, 외양간, 터주자리, 장독대 등)에 시루떡을 놓아둔다.

집을 지을 적에 있는거지. 그걸 하잖아. 옛날에 지경 다지고 하잖아. 그럼 제석 해 놓는거야. 집 새로 지을 적에 해 놓는거야. 처음 지을적에.

백설기는 창호지 이렇게 하얀거 시루떡 안에다 거기서 찢적에 놔서 찢 줘. 그걸 창호지째 바짝 들었다가 방에 오봉 같은 데다 해서. 안방, 제석 밑에 거기 있어 제석이. 제석 놓는 집들은 제석 놓는 게 있다고. 우리는 없어. 있었더랬는데. 요렇게 매달아 놓는거야. 종이에다 해서. 그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도 뭘 한다 그러면 갈아놓는거야.

떡을 갖다가. 제석인가 인제 앞에 있거든. 시골에는 누구든지 있잖아. 제석. 그 게 집 질 때 거기다가 다는 게 있어. 먼저 떡을 띠어다가 마루에다가 갖다 놓고 상 갖다 놓구서 시루를 거기다가 놓지. 시루를 띠어다가 상을 마루에 놓잖아. 거기다가 술을 놓고 거긴 술을 넣고 안주라고 북에를 놓고, 시루 위에다가 그러고선 인제. 그거를 갖다 놓구선. 안에는 거기서 백설기 우에다 찢은 거 갖다 띠어다가 오봉 같은 데 갖다 놓구선 물. 그걸. 정한수를 해 놓고. 그러고선 잘 되라고 밭고나서. 그거를 쏘아가지고선 잘라요. 시루에서 해도 되고, 시루에서 칼로 반듯이 자르면 그걸 그릇에다가 한 조각이고 두 조각이고 떠다가 안방서부터 모조리 다 놓는거야. 다 안에서부터 나가면서 놓는거라고. 안방. 문 열고 나오는 데. 마루, 부엌 다 놓는다고.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아무튼 있는대로 다 놔. 광에도 놓고. 짚가리에도 놓고. 예전에는 소 앞에도 외양간에도 놓고. 순서는 없고 그냥 놓는대로 놔야지. 마루에 어디고, 건너방, 안방, 사랑방 모조리 다. 떡 가지고 다니면서 갖다 놓고. 놓는 데는 큰 데만 갖다 놓고. 금방 고대로 갖다 쏘아 놔다가 동네 사람들 돌려주고 먹고.<sup>25)</sup>

24) 이종휘(여, 74) 제보

상달고사에 쓰인 떡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누가 고사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이 되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상달고사를 지내는 집이 많이 줄어들었다.

난 시집오면서 할머니가 하라고, 시어머니가 하라고하니깐 했지. 올해만 못하고, 지금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야. 힘들어서. 김장 끝나고 그래야 하지. 나도 챔피언해서 우리 아이들도 있는 거 싫은데? 난 그냥 마음으로 빌어.

좋은 건데 지금 세상에 교회들 많이 믿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습다고 한다고. 그래도 난 시집와서도 시어머니가 그걸 하고, 친정에서도 했으니까. 그냥 하는거야. 하는 사람 있었는데 작년엔 없었어. 떡들을 하면은 서로 갖다 주고 그러잖아. 근데 작년에는 없어졌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안 했는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가 안 해.

근데 작년에 못했어.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차나 있으면 가지만 차가 없어서 못갔어. 못가고 말았지. 터주가리도 하고 집안에 한 군데는 다 갖다 놓는 거야. 사람 사는 데.<sup>25)</sup>

#### 다. 싸리비 만들기

가을에 산기슭에 있는 싸리나무가 노랑게 물들면 다음해에 쓸 빗자루를 만든다. 단풍이 든 싸리나무를 베어 말려두었다가 일정 크기로 묶으면 싸리비가 된다.

저거 노란 나무 있잖아. 빗자루 만드는거야. 노란나무로. 지금쯤해서 빗자루 만드는거야. 지금들 다 빗자루 사다 쓰지. 우리넌 다 저렇게 만든거야. 저 노란나무가 싸리야. 싸리야. 빗자루 이름이. 그럼 빗자루 만드는거야. 그냥 한 짐씩 베다가 만들어놓으면 겨우내 쓰는거야. 쓰다가 닳면 버리나? 때야지. 또, 때고 그런 거. 하나나 내버리나? 이렇게 묶어두고 마르면 빗자루가 되지. 아이구 빗자루 하나 딱 됐네. 이게 싸리야. 싸리비. 이렇게 놔두면 마르면 매야지. 단풍이 이렇게 이쁘게 지었어. 인제 여기다 두면 마르겠다.<sup>26)</sup>

25) 이종휘(여, 74) 제보

26) 이종휘(여, 74) 제보



싸리비 만드는 모습



만들어진 싸리비

#### (4) 겨울

##### 가. 김장하기

김장은 보통 입동이 지나고 11월 중순경에 한다. 용강리에서는 김장을 위해서 집집마다 배추, 무, 파, 순무 등을 밭에서 직접 기른다.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몫도 있기 때문에 직접 재배하는 김장 채소의 양은 상당하다. 각 가정마다 날을 정하면 자녀들이 와서 함께 김장을 한다. 김장에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순무김치, 나박김치를 담그고, 순무는 따로 김치를 담그기도 하지만 배추김치나 총각김치에는 반드시 넣는다.

아들 며느리들이 와서 김장을 하지. 김장은 못 해도, 십오 일, 11월 15일이면 하지. 직접 지은 배추, 무, 순무로다가 해. 나갔던 아이들이 와서 같이하니까 많이 심지.<sup>28)</sup>

27) 이영례(여, 87) 제보

28) 이영례(여, 87) 제보



## 나. 동지

동지날에는 묵은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동지팥죽을 먹는다.

그렇지 동지, 옛날에 역사 아냐? 아이구 동지라는 거. 올해 해는 다 가는 날이야. 가는 해야. 해가. 올해는 동지팥죽 먹었나 하는데. 동지 팥죽 먹으면 벌써 새해를 맞는거야. 묵은해가 지나가. 동지면. 그러니까 묵은해를 지나간다는 거. 팥죽을 먹는거야. 동지는 올해는 다 갔다. 그래서 팥죽을 쑤는 건데.<sup>29)</sup>

## 다. 설날 그믐

설날 그믐에는 설에 쓰일 차례음식을 장만했다.

설날 음식 만들고, 부름미 부치고, 부침개 하는 거. 녹두로다가 부치는거지. 밀떡은 접지. 그거는 그냥 동그랗게 부쳐서 너저분하면 도려내지. 잘라서.<sup>30)</sup>

## 라. 겨울놀이

아이들은 겨울이면 논이나 개천이 얼어 있는 곳에 가서 얼음을 지치면서 놀았다. 썰매를 타기도 하고 '진도리'라는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그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자랐을 때는 그저 얼음판에서 얼음을 재쳐. 밤이면 거기서 얼음 지친다고 많이 나가서들 많이 했어. 눈오고 그러면은 그 얼음판에서 '진도리'라고 그걸 갖다 진도리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 있고 저기 사람 있고, 있으면 나와서 치고. 그러고 자랐다고 어려서 자랐다고. 얼음에서 놀고, 다 비슷 비슷해. 썰매 만들어서 타고 거기에 매달려서도 가고. 재밌지. 그냥 뒹굴어져서. 그래도 머리는 안 깨져. 넘어지고.<sup>31)</sup>

29) 이영례(여, 87) 제보

30) 이종휘(여, 74) 제보

31) 이종휘(여, 74) 제보



## 제6장 마을사람들의 기원

1. 용못고사
2. 강령포 당제
3. 가정고사



## 1. 용못고사

용못은 용강리 주민들에게 젓줄과 같은 것이다. 마을 앞으로 한강이 흐르지만 한강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용못의 물로 용강리 일대의 농지에 물을 대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매년 용못에 고사를 올려 용못에 감사를 표하고 마을의 안녕과 한 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였다.

### (1) 용못고사의 영험

용강리 주민들은 용못에 올리는 고사를 '용못고사'라고 부르며, 마을 공동으로 제를 지내기 때문에 '마을고사', '용못제'라고도 부른다. 대부분 주민들은 용못고사를 '용못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하여 특별한 신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



용못 전경



으로 보이지만 용못의 용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하는 주민도 있다.

용못의 신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용못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도 보인다. 용못고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영험담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용못고사를 잘못 지내서 벌을 받은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지고 있다.

내 종조부 되시는 분이 고사지낼 때 그 양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신체 장애자가 되었어. 그분이 실제 장애자돼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직접 봐서 아는데, 고사 지낼 때 아이들한테 말을 막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용못고사를 지낼 때는 그렇게 엄숙했다.<sup>1)</sup>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 용못

## (2) 고사준비와 제물 장만

용못고사는 매년 음력 3월에 지내왔으나 한국전쟁으로 한동안 고사를 올리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용못고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1957~1958년경에 다시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도 용강리 일대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여건 때문에 매년 용못고사를 지내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더욱이 1990년에 교회를 다니던 정해곤 씨가 이장으로 선출되면서 용못고사를 잘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용못고사를 지내면서 그 풍습을 조금씩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의 용못고사는 약 3년 전에 지낸 것이 마지막이었다.

용못고사는 음력 3월 중 택일을 하여 지낸다. 용못고사를 지내고 용못과 수로를 정비하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는 시기를 고려하여 3월에 용못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날짜는 마을의 어른들이 직접 길일을 골라 정한다.

용못고사는 용못의 북서쪽 방면에 상을 차리고 고사를 올렸다. 지금은 용못 주변이 정비가 되어 나무가 없으나 예전에는 주변에 미루나무가 많아 나무들 사이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용못고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제관을 선출한다. 용못고사를 지내는 제관은 3명으로 1명이 고사를 모시는 제관이 되고, 나머지는 축을 읽는 축관과 제를 진행하는 집



1) 정해균(남, 74세) 제보

사가 된다. 제관은 마을의 연장자 가운데 인품을 갖춘 사람을 선출한다. 주로 마을의 대표가 인품을 갖춘 어른에게 제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을 어른이 이를 허락하면 제관이 된다. 집안에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마을 대표가 알아서 제관을 부탁하지 않는다.

용못에서 용이 올라갔다는 전설 때문에 고사를 지낼 때 용을 그려놓고 제를 올렸다. 그래서 제를 올리기 전에 미리 용을 그려두었다. 예전에 권인준 씨가 용을 똑같이 그렸었다고 한다. 용못고사를 지내기 위한 제비(祭費)는 마을 대표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출을 하였다. 예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쌀을 걷었다. 아랫마을이 소개(疏開)되어 사라지기 전까지 먼지락, 용림마을, 아랫마을에서 거출을 하였다.

용못고사를 앞두고 인근의 장에서 제수를 구입한다. 제수 준비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 대표가 마련한다. 음식은 마을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준비를 한다. 예전에는 월경을 하거나 임신한 여성은 음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녀회가 조직된 이후로 부녀회에서 주로 준비한다.

용못고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을 마을 주민 모두가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제물을 준비한다. 과일은 밤, 대추, 감, 사과, 배 등을 올리며 각 과일마다 홀수로 준비한다. 떡은 팔시루떡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3~4말 정도를 한다. 떡을 올릴 때는 자르지 않고 시루째 올린다. 고기는 돼지고기를 쓰며 돼지머리를 삶아서 올린다. 돼지머리를 올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마을에서 돼지를 직접 잡기도 하였다. 돼지를 잡을 때는 음식을 마련하는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잡았다. 포는 북어포를 올리는 데 배를 가르지 않고 머리가 달려있는 통북어를 사용하였다. 북어는 흰 한지를 접은 것에 싸서 올린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하는데 용못고사를 위해서 술을 따로 빚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집집마다 담근 막걸리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 일반 제사에 올리는 메, 국, 탕은 올리지 않았다. 나물과 전은 제보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용못고사의 절차와 내용

용못고사를 지내는 날이 되면 제관은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용못고사는 엄숙하게 치러지지만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리는 것은 하지 않았다. 미리 그려둔 용의 그림을 제상 뒤에 펼쳐두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는 보통 아침 9~10시 경에 지낸다. 제를 올릴 때에는 제관들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여 제를 지내는 것을 구경하였다. 예전에는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여성들도 참석하여 제를 지내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다른 마을의 사람들이 구경오기도 하였으며, 만신들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제물진설이 끝나면 제관은 분향을 하고 집사에게 술을 받아 올린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있으면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관이 축을 읽고 나면 축을 태우고 제관이 절을 두 번 한다. 그리고 잔을 내리고 상을 치운다. 상을 치우면서 북어를 한지와 함께 못 주변에 있는 미루나무에 걸어둔다. 나무에 묶어 둔 북어는 며칠이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술 안주를 하기 위해 몰래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의 용못고사를 기억하는 제보자의 경우 술을 단잔만 올리는 것으로 기억하는 반면 최근의 용못고사를 기억하는 제보자의 경우 술을 석 잔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원래는 단잔을 올리던 것을 용못고사를 자주 지내지 않게 되면서 절차가 조금씩 바뀐 것으로 보인다.

용못고사가 끝나고나면 참석한 주민들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때를 주민들은 마을의 축제라고 부를 정도로 즐겁게 보내지만 특정한 놀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나면 부녀자들이 상을 치우고 남성들은 모여서 못과 수로를 정비한다.

#### (4) 용못고사에 담긴 의미

용못고사는 주로 용림마을과 아랫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농사와 관련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마을 전체의 공동체신앙과 붓제(浹祭)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제를 올리는 시기가 음력 3월로 논에 물을 대는 시기와 비슷하며, 제를 지내고 못과 수로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용못고사를 지낸다고 하여 마을 공동체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마을이 안녕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제를 잘못 올려서 동티가 난 이야기를 통해 동제의 성격도 엿볼 수 있다. 보통 붓제의 경우 보의 물을 사용하는 몽리자(夢利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용강리는 마을 전체가 용못의 물을 농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공동체신앙으로 발전하여 붓제의 성격과 마을 전체의 공동체신앙의 성격이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 2. 강령포 당제

당제산



강령포 마을의 북쪽 끝 한강과 맞닿은 곳에 작은 산이 있다. 이곳을 주민들은 동노 곳이라 부르며 당집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집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당제를 올렸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당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고사 때 올린 음식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현재 강령포가 폐동이 되면서 주민들이 흩어지고, 동제를 지낸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예전의 당제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강령포주민모임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예전 전통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새롭게 당제를 올리고 있다.

### (1) 예전 당제의 모습

용강리 주민들은 강령포에서 정월대보름에 올리는 제를 ‘당제’라고 불렀다. 모시는 신의 성격은 파악되지 않지만 주민들은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의 안전과 풍어를 빌었다고 한다.

당제는 정월대보름 오전에 지내지만 정월 이튿날 시작하는 치군놀이에서부터 이미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치군놀이는 마을 주민들이 풍물을 치고 노는 것으로 주민들은 풍물을 치는 것을 ‘재비친다’라고 한다. 치군놀이는 선달부터 고깔을 만들거나 상모를 손질하는 등 준비를 시작한다. 치군놀이의 치배는 상쇠, 부쇠, 장구, 북, 태징(징), 호적(태평소), 제금(바라), 소고, 치군아이로 구성된다. 상쇠와 부쇠, 소고는 상모를 쓰는데, 상모보다 줄의 길이가 짧은 ‘꼬꼬메’를 쓰는 사람도 있다. 당시 상쇠는 현재는 돌아가신 여오진 어르신이 도맡아 했다고 한다. 치군아이는 여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아이들이 하는데 약 10명 정도의 치군아이들이 있었다. 치군아이들은 여장을 하고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논다. 치군놀이 중간에 힘센 장정이 치군아이를 무등 태우고, 그 위에 다시 치군아이를 무등을 태우는 묘기를 보이기도 한다. 간혹 힘이 좋은 사람은 치군아이 둘을 무등 태운 상태에서 양팔에 치군아이가 매달리는 ‘오등’을 태우기도 하였다. 강령포에 서는 추제 부근에 살던 사람이 오등을 태우기도 했다고 한다. 장구, 북, 태징, 호적, 제금을 치는 사람들은 고깔을 머리에 썼다.

치군놀이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집이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약기를 치면서 상쇠가 축원을 하거나 덕담을 한다. 집에 치군놀이패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고사반이라는 상을 차린다. 고사반은 고사상을 차리는 것과 비슷하게 차린다. 쌀을 그릇에 담아 올리고 북어를 쫓아 두거나 실타래를 건다. 가족 수대로 돈을 올리기도 한다. 놀이를 하면서 상쇠는 집주인이 한 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라고 축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잘되라고 빌어주는거지. 애기가 있는 집은 애기를 잘 자라게 해서 무슨 벼슬을 하고, 소를 먹이면 와우가 되고, 말을 먹이면 용마가 되고, 닭을 먹이면 봉이 되고, 개를 먹이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축원을 하는 거지.<sup>2)</sup>

치군놀이패가 집에 들어와 축원을 해야 하는 것을 주민들은 ‘굿 한 거보다 낫다’라고 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와 축원을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축원을 받은 집은 축원이 끝나고 치군놀이패들에게 음식을 대접 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괜찮은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강령포의 치군놀이는 인근에서도 유명하여 인근 마을의 사람들이 치군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마을에 오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정월 열흘경에는 면소재지에 가서 치군놀이를 하였다. 다른 마을의 풍물패들도 있었으나 강령포 주민들의 실력이 뛰어나 강령포 주민들이 노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치군놀이는 정월대보름에 당제를 지내면서 끝내게 된다. 주민들은 이를 ‘과접한다’라



2) 이억현(남, 84세)

고 한다. 당제를 지낼 때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제물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다. 정월대보름날 오전에 미리 당집에 상을 차려둔다. 그리고 치군놀이 패들은 악기를 치면서 마을을 돌아 당집에 올라간다. 그리고 당집 앞 당마당에서 악기를 치고 논다. 그리고 당제를 올리는데 상쇠가 제관이 된다. 당제의 자세한 절차는 기억하는 주민이 없어 파악이 어려웠다.

당제가 끝나고 나면 당마당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악기를 치면서 하루를 논다. 이날이 마지막 파접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고 한다. 정월대보름날 파접이 끝나고나면 더 이상 악기를 치지 않게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악기를 치고 노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를 ‘후보름 논다’라고 하여 정월 한 달을 즐기면서 보냈다.

## (2) 현재 당제의 모습

강령포 주민들이 소개(疏開)되어 마을을 떠나면서 마을이 폐동됨과 동시에 당제의 전승도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강령포주민모임을 만들면서 당제를 다시 지내게 되었다. 마송에 사는 권오민 씨와 먼지락에 사는 황형주 씨가 주도하여 강령포주민모임을 만들고 망향제(望鄕祭)처럼 당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 2011년 강령포주민모임 알림장

알려 드립니다.

2011 신묘년 새해 안녕하십니까? 선조님들께서 지내오던 강령포 당제를 예외 없이 금년에도 아래와 같이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올리시고 언니, 형님, 친지들의 설례이는 기쁜 마음으로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公私多忙하시더라도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습니다!

일시: 4월 3일 (일요일) 오전 11:00

제당장소: 용강리 강영포

회의장소: 마송 제일식당

당제를 지내는 날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4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예전처럼 정월대보름에 당제를 지내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당제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첫째 주에 한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 당제의 날짜를 4월 첫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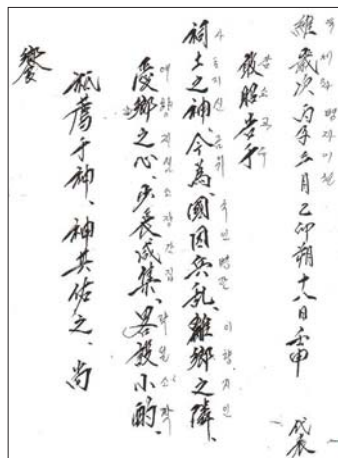


일요일로 고정하였다.

당제의 제물준비는 주로 권오민 씨가 담당하였다. 권오민 씨의 집이 용강리에서 많이 멀지 않은 마송에 있고, 식당을 하고 있어 제물을 준비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제물로 떡은 팔시루떡을 올리고 고기는 돼지머리를 삶아서 올린다. 과일은 사과, 배, 대추를 올린다. 그리고 유과를 올리고 술은 용림마을에 있는 농주를 사용한다. 술은 당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음복할 수 있도록 두 병 정도를 사용한다. 제물 준비를 위해 사용한 돈은 당제가 끝난 후 당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돈을 걷어 권오민 씨에게 준다.

예전 당제를 지내던 당마당이 현재 군부대 내에 있는 작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인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부대의 장교에게 양해를 구해 장소를 빌린다. 그래도 예전 당제를 지내던 곳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부대 내에 있는 연병장에서 제를 올린다.

당제를 지내는 형식은 예전과 달리 풍물을 치지 않고 유교식으로 제를 올린다. 제관은 따로 정하지 않고 주로 회장이 담당하고, 잔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잔을 올릴 수 있게 한다. 축문도 읽는데 축문은 두 번째 강령포주민모임을 개최할 때 처음 작성하였다. 당시 총무인 황형주 씨의 외사촌인 이원배 씨가 한학을 많이 하여 황형주 씨와 이원배 씨가 함께 축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사용한 축문을 보관해 두고 당제를 지낼 때는 이를 보고 그대로 축문을 작성한다. 당제를 지낼 때 읽은 축문은 불에 태운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당제에 사용한 음식과 술로 간단하게 음복을 한다.



강령포 당제 축문

### (3) 강령포 당제에 담긴 의미

강령포 당제는 강령포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제의로 어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 마을이 사라지면서 예전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당제를 지내기 전에 치군놀이를 하였으며 당제를 지낼 때도 풍물을 치면서 제당을 올랐다는 제보를 통해 풍물굿의 형태를 띄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령포 주민모임으로 새롭게 지내게 된 당제는 유교식으로 제의의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3. 가정고사

#### (1) 전채옥<sup>3)</sup>家の 사례



3) 전채옥(여, 80세) 제보

전채옥 씨는 민간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 시집 온 이후 현재 까지 가신을 모시고 있다. 과거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아랫말에서는 대감, 성주 등 다양한 가신의 신체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현관 앞 발코니에 대감독만이 자리하고 있다. 대감독은 본래 집 안 마루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새로 집을 지으면서 놓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 현재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 가. 상달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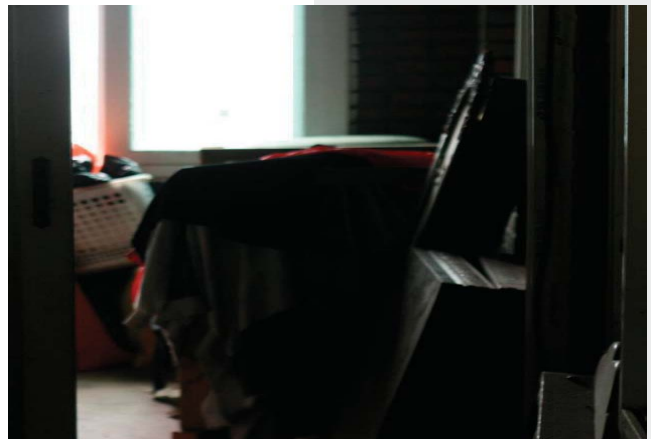


전채옥 家の 대감독

이 댁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상달이 되면 제일 처음 짬은 쌀을 대감독에 부어 놓고 고사를 지낸다. 대감독에 부어 놓은 쌀은 이듬해 여름에 꺼내 밥을 해 먹는다. 때문에 8 월경부터 고사를 지내는 10월까지 두어 달가량 대감독 안은 비어있게 된다.

집안에서 지내는 고사지만 가족들은 참여하지 않고 주부 단독으로 고사를 지낸다. 고사 때에는 직접 빗은 약주술과 떡, 북어, 돼지머리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직접 집에서 시루에 찐 떡을 마련했지만, 최근에는 인근 방앗간에서 시루떡을 해 온다. 고사는 음식을 진설하고 주부가 축원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된다.

고사 지내시면서 비는거? 아이들 잘 되라고 그러지 뭐. (웃음)  
일 년 열두 달 그저 가족 건강하라고, 일 년 열두 달 그냥 하루 같이 도와달라고 그러는거지 뭐. 절은 안 하고 그냥 비는거야.



대감독이 위치한 베란다 모습

방앗간에서 해 온 떡은 성주, 제석, 대감, 장독대, 농기계 등에 갖다 놓는다. 대감독을 제외한 가신들은 별도의 신체는 없다. 다만 마루 가운데를 성주, 안방 한구석을 제석이라 여기고 정화수 한 사발과 떡 한 조각을 갖다 놓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 나. 성주생일

상량을 올린 날을 성주생일이라 부르며 매년 성주생일이 되면 부녀자가 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낸다. 이 맥은 아랫말에 살던 당시에는 성주생일을 지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대청 기둥을 성주 기둥이라 그러잖아. 성주 기둥. 그러니까 이제 예전 집들은 집



대감독에 쌀을 넣었던 흔적



쌀을 꺼낸 후 대감독 내부 모습



지를 적에 상량한다고 글씨 쓰고 몇 월, 며칠 날짜 쓰고 시 쓰고 그래서 상량 올린다고. 집 이렇게 짓기 전에 상량 먼저 올리거든. 그 인제 상량한 날이 성주생일이야. 근데 인제 예전 집을 쪼꼬맻게 지은건 그런 게 없지만, 집을 잘 지은 집들은 성주가 따로 있어. 성주 기둥이. 성주 기둥이 대청 기둥이지. 말하자면 성주 기둥이 제일 먼저 세우는 기둥이야. 그래가지고 성주 거시기에다가 용마름 올리는 거시기에다가 그 날 성주 날. 시 쓰고, 상량시가 있거든. 몇 월, 며칠날 몇 시. 시 쓰고. 그 날이 성주생일이야. 그래가지고 따로 성주생일 따로 하는 집이 또 있어. 말하자면 고사지. 성주생일이.

## (2) 이영례<sup>4)</sup>家の 사례

이영례 씨는 과거 성주, 터주 등 가신을 모셨지만 자녀들을 따라 성당에 다니면서 현재는 신체를 모두 태워 없앴다. 예전에 가신을 위할 때의 얘기다.

옛날엔 다 있지. 집집마다 내 집의 지킴이라고 다 모셨는데, 지금 이 시국이 다 발달이 되고 지금 천주교들 그냥 예수덜 믿니까 그거 이제 다 없어지고……. 그 전엔 교회 나가는 걸 몰랐잖아. 그런데 지금은 다~ 하느님을 믿고 살잖아. 하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잖아. 비 안 오면 어디서 먹어. 그거 지금 하~나 알 필요도 없고, 지금 그거 하나 실천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실천을 하는 일을 해야지. 그저 그대로 현대를 따라 나가야지.

### 가. 상달고사



4) 이영례(여, 87세) 제보

매년 음력 10월 상달이 되면 좋은 날을 잡아 고사를 지낸다. 대개 아흐레, 열흘, 스무 날, 스무아흐레 날을 무탈하다고 여긴다. 고사 때에는 막걸리와 팔 시루떡을 제물로 준비한다. 준비한 제물은 성주, 대감, 제석, 장독 순으로 놓고 축원을 올린다.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흐레, 열흘, 스무 날, 스무아흐레.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일요일도 일요일이 왜 지금 일요일을 찾냐 하면은 일요일은 세상천지가 다 쉬

는 날이야. 쉬니깐 귀신도 다 쉰다고. 그래서 지금 일요일은 뭘 보지 않고 그냥 하는거지. 아흐레, 열흘, 스무 날, 스무아흐레 그 날은 아무 달이 없다. 그렇게 지내.

성주는 집지킴이 중에 으뜸가는 신으로 마루 벽에 종이로 만든 신체를 붙여 놓는다. 터주는 터를 지켜주는 신으로서 뜰 안에 모신다. 향아리에 짚으로 만든 고깔을 씌워 놓는데 이를 '터주가리'라고 한다. 향아리 안에 쌀을 넣어 놓는 집들도 있지만 이영례 씨는 향아리 안에 아무 것도 넣지 않았다고 한다. 제석은 자손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신으로서 '칠성'이라고도 한다. 신체는 좋은 창호지로 모양을 접어 마련하며 안방에 모신다. 마루에는 집 전체를 관장하는 대감이 자리한다. 대감은 나무 잎사귀로 만든 모자에 남색과 빨강색 천으로 만든 옷을 입혀 신체로 삼는다.

대감은 이제 봉태기(봉투)가 있어. 이런 모자가 있어. 대감은 모자가 있고, 대감의 옷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씩 사고, 모자하고 접어서 두는거야. 그래 났다가 이 다음에 흑신나 만신이 인제 와서 뭐 놀리거든 그때는 놀아 주는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우리네나 알지 지금 몰라. 이 근년에는 없거든. 이 근년 사람들은 몰라. 모자는, 그것도 맨드는 게 있더라고. 이를테면 무슨 낭구(나무)에서 나는 잎사귀로 하더라고. 중한 거니까. 옷은? 옷은 그냥 색깔만 다르게 만들지. 남하고, 빨강하고 두 가지 색깔을 하거든. 천. 근데 그렇게 되면 천이라는 건 옷점에서 만드느거야.

### (3) 이인희<sup>5)</sup>家の 사례

이인희 씨의 집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지은 것으로 올해로 62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몇 해 전 큰집이 이사를 간 후부터 살고 있는 것이어서 현재는 특별히 가신을 모시지는 않는다. 다만 일 년에 한 번 강화에서 '월남만신'이라 불리는 무당에게 신수를 보고 고사를 지낸다.

예전에도 여긴 무당 없어. (문수)산이 세서 무당이 잘 안 내린다나봐. 문수산이



5) 이인희(여, 72세) 제모

이인희 家의 상량



산이 세서 만신이 못 산다나 어떻다 그러든가. 강화에 점집은, 월남만신이라고 군인만신 있어. 옛날에 군인 나갔던 만신이라. 일 년에 한 번 신수 보러 가. 여자야. 군인만신. 일 년에 한 번 신수나 보러가지 믿지도 않고. 그런거 봐도 내 주판대로만 하면 되는거야. 우리네도 한 귀로 듣고 흘려야지 어떻게 하라는 대로 다 해. 다 들으면 못 써.

#### 가. 선달그믐 고사

과거에는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냈지만 단골무당이 선달그믐이 좋다고 하여 몇 해 전부터 선달그믐마다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시어머니가 하시던대로 성주에다 떡 시루와 술을 갖다 놓고 아이들 편안하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는 것이다. 성주는 상량을 성주라 여겨서 상량 밑 마루에다 제물을 놓는다. 이때 떡은 인근 방앗간에서 맞추고, 술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냉수로 대신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택일을 했지만 자녀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고사를 지내지 않았다.



#### (4) 김상례<sup>6)</sup>家の 사례

##### 가. 상달고사

음력 10월 상달이면 성주에 고사를 지내며 집안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고사 때에는 떡과 술을 제물로 준비한다. 성주에 났던 제물은 방, 뜰 안, 마루 등에 돌려놓는다.

상달에 고사는 해. 그냥 떡해서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거지. 성주에다. 성주에 났다가 그냥 돌려놔. 방에도 놓고, 뜰 안에도 놓고, 마루에도 놓고. 뭐가 있겠어? 그냥 그렇게 하는 전래니까 그냥 했지.

##### 나. 성주생일

상량을 올린 날을 '성주생일'이라 한다. 매년 음력 2월 스무이레 날은 이 맥의 성주생일로 직접 시루떡과 술을 마련해 고사를 지낸다. 이때에는 부녀자 외에도 가장이 함께 고사를 지내고 절을 올린다. 김상례 씨는 지난해 남편을 잃고 올해는 성주생일을 지내지 않았다. 상량을 올리면서 세우는 기둥을 성주 기둥이라 부른다. 때문에 대들보 아래가 성주의 위치가 되고, 편의상 제물은 상량 아래에 진설한다. 성주에 올리는 떡은 방마다 조금씩 덜어 놓는데, 김상례 씨의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특별히 신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성주생일 돌아오면 맨날 떡을 했어. 떡을 해다 거기다 갖다 놔. 상량 밑에다가. 시루떡. 그렇게해서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영감도 없고 그러니까 안 했어. 떡은 직접 해서 거기다 갖다 났다가 먹지. 성주에다 놓고 방에도 놓고, 건너방에도 놓고 돌려 놔. 방에 뭐 다른 건 없는데, 그냥 놓더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셔.



6) 김상례(여, 77세) 제보

## (5) 박춘옥<sup>7)</sup>家の 사례

개성에서 시집 온 박춘옥 씨의 시어머니는 성주와 터주 등 가신을 모셨다. 민간신앙에 대한 믿음이 깊어 외아들인 남편을 위해서 단골 무당집에 이름을 올리고 축원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삼우제와 함께 가신을 모두 없애고 현재는 가신을 모시지 않는다. 가신의 신체는 무당이 집을 방문하여 손수 처리하였다. 집 꼭대기 위에 모자와 같은 모양으로 모셔져 있던 성주와 터주가리는 불을 놓아 태웠다. 때문에 현재는 빈 터주항아리만 남아 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 없애버렸어. 이제 나도 그런 거 안 믿을려고. 시어머니가 미신을 믿었는데 무당 할머니도 노인네가 되서 안 하니까 다 저거 해버렸어. 터주항아리 그런 거 있었는데 무당이 와서 다 불질러 버려서 없어. 단지에 넣어 놔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덩그러니 항아리만 놔뒀어. 그 전에 모자 같은 거 다 있었어. 터주 저거 하는거. 그런데 다 태워서 없어. 성주대감 모셔놔든거 다 없앴어. 집터 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모셔놔드랬어. 2층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다 없애니까 다 태워버렸지. 무당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삼우(제)에 다 그냥 치웠어.

7) 박춘옥(여, 60세) 제보



## 제7장 마을사람들의 생애의례

1. 시어머니가 산파 : 출산례
2. 선도 못 보고 온 시집 : 혼례
3. 다함께 대처한 죽음 : 상례·장례
4. 조상의 은덕에 감사 : 제례





## 1. 시어머니가 산파 : 출산례

### (1) 출산

정기자<sup>1)</sup> 씨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4남매를 모두 집에서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았다. 출산은 방에 푸대종이와 짚을 깔고 진행된다. 아이가 태와 함께 나오면 가위를 이용해 탯줄을 자르는데 아기 배꼽에서 한 뼘 되는 지점을 실로 동여매고 태쪽도 실로 묶어 가운데를 자른다. 탯줄을 자르면 잘린 탯줄을 정리하여 아기 배꼽 위에 얹고 솜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탯줄이 떨어진다. 그리고 출산 당시 바닥에 깔았던 종이와 짚, 태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깨끗한 곳에다 불을 놓아 태운다.

애기 나오면 배꼽에 태가 달려 있어. 그거를 (아기 배꼽에서) 한 뼘을 재깎고 가운데를 실로다 묶어 매. 피 못 나오게. 사람한테서 피 나오면 안 되니까. 피 못 나오게 이쪽도 매고, 이쪽도 양쪽을 실로 창창 매깎고 가운데를 잘라. 그래서 사리사리해서 (아기) 배꼽에다 요렇게 얹어 놓고 솜으로 이렇게 얹어 놓으면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배꼽이 떨어져.

뭐 어떻게 낳아. 그냥 낳지. 저절로 그냥 낳지. 탯줄 그런 것도 시어머니가 잘르지. 한 뼘 놔두고. 배꼽에서 집게뽕 하나, 또 아이 배꼽에서 집게뽕 하나 이렇게 해서 잘랐나봐. 그것도 잘못 자르면 큰일 난대요.<sup>2)</sup>

전채옥<sup>3)</sup> 씨는 열아홉에 큰 아들을 출산한 것을 시작으로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5남매는 모두 집에서 출산하였는데, 해산관은 시어머니가 담당하였다. 손자를 직접 받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역국과 쌀밥을 지어 첫국밥을 지어주고, 이후에는 큰 동서가 산관을 해주었다.

1) 정기자(여, 77세) 제보

2) 이인희(여, 72세) 제보

3) 전채옥(여, 80세) 제보

집에서 다 낳았지. 저절로 애 생기면 낳았지. 배가 아픈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낳아요. 시어머니가 다 해산판 하시지. 시어머니가 다 했어. 그리고 난 어린애 나면 다 10월에 나요. 일 다하고, 김장 다하면 어린애를 낳아요. 그러면 웬 겨울에 첫 국밥만 시어머니가 해 주지, 우리 큰동서가 해요. 겨우내 밥 해줘. 그래서 먹기도 잘 먹지. 밤에 밤참까지 해 주지, 또 새벽밥도 해 주지. 그리고 아침 해 주지. 그래서 그 전에 무쇠 솥에다 밥하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미역국에다가 끓여다 주면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밥 잘 먹었어.

며느리들이 모두 타지에 살고,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다. 때문에 출산 소식을 들으면 병원에 가서 손자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관을 해 주기도 한다.

다 지들이 병원에 가서 낳았지. 우리 둘째 며느리만 산부인과 여기서 낳았지. 다들 나가서 있어서 지들이 가서 했지. 가서 밥 좀 조금 해 주고 그랬지. 삼포하고 그래서 원체 일이 많으니까 바빠서 못 가요. 저희들도 못 오려니 하는거지. 친정 어머니들이 와서 해 주고.

박춘옥<sup>4)</sup> 씨 역시 4남매를 모두 집에서 낳았지만 첫째를 출산할 때 강화 부민의원에서 의사를 불렀다.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지 못해 동네 할머니를 산파로 불러다 아이를 낳았다.

다 집에서 낳어. 첫 아이만 의사 불렀지.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강화에서 여기 불르면 와. 그전에는 전화가 없었어. 저 너머 이장집이라고 저 넘어 웅뚱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 전화가 있어.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전화. 거기 가서 전화해서 의사 불러다가 낳았지 뭐. 첫 애만 그렇게 하고 세 아이는 다 그냥 낳았어.

4) 박춘옥(여, 60세) 제보

## (2) 태몽

임신 중에 꾸는 꿈을 태몽이라 한다. 때문에 태몽의 내용에 따라 뱃속 아이의 성별과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한다. 전채옥<sup>5)</sup> 씨는 둘째 아들의 경우 커다란 대추를 따가지고 오는 꿈을 꾸고, 딸은 새빨간 연시를 따는 꿈을 꾸었다.

둘째 아들은 그냥 대추나무 큰~ 대추나무가 있는데, 여러 나문데. 대추가 그냥 밤만큼씩 굵다래. 그러니까 여섯 개를 따가지고 행주치마에다 해서 갔는데, 다른 여자는 자잘한 대추를 치마폭으로 하나 땀지 뭐야. 아유~ 나 이거 좀 따고 좀 더 따야겠다 하고는 여섯 개를 따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어. 그래 나는 아들 나면 여섯은 낳을 거야. 못 낳아도. (웃음) 대추를 여섯 개를 가져왔으니까. 큰 나무에 그렇게 대추가 열렸더라고. 그래 꿈을 나는 그렇게 잘 맞춰요. 시방 우리 딸내미는 감나무 옆에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탐스럽게 연시 하나가 이렇게 빨갈게 있지 뭐야. 새빨간 연시가 하나야. 근데 그거 하나를 얼른 따가지고 집으로 갔거든 그랬더니 딸 하나를 낳았지 뭐야. 근데 그게 퍼런걸 따야 하는데 연시를 따서 금세 죽었나보다 그러는 거야. 빨간 연시를 그냥 하나 땀으니까. 그래 딸 하나밖에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나 딸 있는 거 부러워.

김상례<sup>6)</sup> 씨의 경우 돼지꿈, 커다란 달걀을 골라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둘 낳았다.

둘째는 돼지 꿈 꾸고, 하나는 닭. 닭띠가 되서 그런지 어디 가니까 계란이 이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큰 거로만 골라왔어. 둘째가 또 돼지띠야.

5) 전채옥(여, 80세) 제보

6) 김상례(여, 77세) 제보



### (3) 배넷저고리

아이를 낳기 전에 배넷저고리를 만들어 두는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배넷저고리는 차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지니면 영험하다고 하여 보관하기도 한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저 대학교 가고 시험보고 그러면 그거 입혀서 보낸다고, 우리 저 시방 막내 여기서 사는 애 대학교 가는데 우리 큰아들이 화곡동 살았거든. 근데 그것들 대학교 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저기 장님이 있어. 거기 용하다고 가서 물어보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사 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물어봤더니 운이 좋긴 좋은데, 좀 운이 어떻대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 배넷저고리를 잠바 속에다가 해서 입혀서 보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배넷저고리를 다 없앴지. 누가 그런 생각이나 하나? 가서 우리 큰아들 손주 있는데 배넷저고리 있냐고 전화해 보니까 있다 그래. 그래서 화곡동에 내가 갔어. 가서 그걸 갖다가 내일 시험 보러 갈건데 오늘 저녁에 가서 그걸 내가 께매서 입혀서 잠바에다 께매놔어. 그런데 한잠 자고 나니까 그 전에 화장실이 저 바깥엔데, 재를 갖다 붓고 똥똥간이 있었더랬어. 창고 있는 데가 밭이 었더랬어. 근데 거기다 오이심고 그랬어. 아이들이 오이를 따서 한 다라 가지고 오길래 이노무 새끼들 왜 오이를 따냐고 오이를 뺏고서 쫓아 보내고서 그 화장실에 가니까 두 군데서 그냥 재에서 불이 환하게 나와. 불이 붙어. 불이 확~ 붙어서 화장실 재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잠을 잤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영범아, 너 무슨 꿈 꿔냐?” 그랬더니 “나 아무 꿈도 안 꿔어.” 그래. “애, 내가 꿈 잘 꿔서 틀림없이 대학교 붙는다. 두 군데 다 가도 다 붙겠다.” 그랬는데 동국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두 군데 했어. 그런데 고려대학교 좀 세대. 그래서 낮은 데 간다고 동국대 갔다고. 그런데 불이 두 군데서 붙었으니까 두 군데 가도 두 군데 다 가면 붙는건데, 그런데 그렇게 동국대 가서 붙었어.<sup>7)</sup>

7) 전채옥(여, 80세) 제보

## 2. 선도 못 보고 온 시집 : 혼례

### (1) 전채옥<sup>8)</sup> 씨의 사례

전채옥 씨는 열여덟 살(1949년)에 김포 통진 도사리에서 용강리로 시집을 왔다. 물이 마르지 않아 사시사철 모를 낸다는 용강리에 시집가면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시집을 온 것이다. 당시에는 스무 살이면 ‘과년(過年)’이라 하여 여자 나이 열일곱, 열여덟이면 혼례를 올렸다.

친정 동네에 살고 있던 시이모의 중매로 남편 이익현 씨를 만났다. 혼례 전에 신랑측에서 신랑의 사주와 저고릿감을 보내면, 신부측에서도 신부의 사주를 보낸다. 사주에는 신랑 신부의 생년월일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궁합을 보거나 택일을 한다.

혼례 날을 받으면 혼수 마련을 한다. 정월부터 친정어머니가 밤을 새워가며 빨간 물, 분홍 물, 노란 물 들인 치마저고리를 만드셨다. 특별한 혼수는 마련하지 않고, 시댁에서 입고 지낼 옷가지를 준비했다.

혼례는 신부 집에서 치러진다. 신부 집 마당에 초례청이 차려지고 초례상에는 쌀, 닭, 팔, 술 등이 올라간다. 초례상을 가운데 두고 신랑, 신부가 마주서서 절을 올리며 혼례가 진행된다. 이때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 족두리에 연지곤지를 찍는다.

신랑은 마송에서 말을 빌려 타고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부 집으로 온다. 당시 마송은 술집과 마방을 포함에 민가가 서너 집뿐인 작은 마을이었다. 신랑과 함께 집안 어른이 동행하는데, 그 사람을 ‘우수’라 한다.

신부가 시댁까지 타고 가는 가마 역시 가마꾼과 함께 빌려서 사용한다. 전채옥 씨의 경우 도사리에서 용강리까지 20리(10km) 거리를 가마를 타고 왔다.



8) 전채옥(여, 80세) 제보

선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하고 그렇게 시집왔어. 알지도 못 허고 어른들 말만 듣고 그냥 시집 다 오도록 가마타고 다 오도록 여기까지 올었어. 올면서 왔어. 나 시집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오기 싫다고. 우리 오촌 아저씨가 우수로 오신거야. 자전거타고 가마 뒤에 쫓아서. 그런데 내가 시집 안 간다고 올면서 그렇게 여기 다 오도록 올었다고. (웃음)

첫날밤은 시덥에서 치렀다.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문에 구멍을 뚫고 그 모습을 훑쳐보는데, 이는 귀신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더라고. 장난 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파주에 형님들이 장난 좀 하지. 장난 하는 사람도 없었어. 집도 드문드문 이렇게 있어서 누가 그렇게 오지도 않았어. 그전에는 그걸 귀신이 들여다본다고 구멍 뚫고 보는거래. 그전엔 그렇다고. 근데 인제 결혼할 때 죽두리 쓰고 그러잖아. 그걸 잘 때 그걸 다 남편이 벗겨. 그때 그걸 다 구멍 뚫고 들여다보는거야. 그러면 벗기는 게 우습다고 웃고,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뽐으라 그러고 그러더라고. (웃음)

혼례를 올리고 3일째 되는 날 신랑 혼자 처갓집에 인사를 간다. 그리고 혼례를 올린 그 해 가을에 추수를 모두 마치면 신부는 처음으로 친정에 인사를 간다. 이때 인절미를 마련해 시아버지와 동행한다.

봄에 시집가는데 가을에 인제 친정에 간거야. 일 다~ 하고, 추수 다~ 해놓고. 그러고서 친정에 가는거라고. 신랑하고도 안 가. 시아버지하고 가는거야. 그래서 그냥 좋아서 그 열여덟 살 먹어서도 두릅매기(두루마기)를 그냥 밤새워서 친정에 가는거 좋아서 밤새워서 했어. 해서 그래서 갔다 왔지.

## (2) 이영례<sup>9)</sup> 씨의 사례

이영례 씨는 월곶면 포내리에서 집안 어른의 소개로 용강리로 시집을 왔다. 당시 이영례 씨와 남편은 월곶면에 위치한 '연성소'에서 일본어 강습을 함께 받았지만 일 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혼례를 올렸다.

부끄러우니까 못 봤지. 애촌어머니가 중매했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고, 나도 넉넉하질 않았어. 여자들은 공부하면 못 쓴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일본글을 배우러 나오고, 우리 할아버지도 일본글을. 그때는 여기가 군하리를 걸어 다녔거든. 그래도 그걸 만나보질 못하고 일 년을 그냥.



9) 이영례(여, 87세) 제보



혼례식에 앞서 먼저 함이 온다. 함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이 적힌 '사주'가 들어있다. 이렇게 양가에 사주가 오고가면 이를 바탕으로 주변에 박식한 사람이 택일을 한다.

함은 이제 먼저 오지. 사주라고. 그게 사주야. 이름이 사주야. 그거는 먼저 오는 거야. 아무때 둘이 이렇게 만났다. 사주라는 건 먼저 가지. 그러면 날을 잡는 사람이 있지. 그거는 여기 공부 많이한 사람. 그 사람이 그건 그런 날을 잡지 아무나 못 하는거야. 신랑 집에서도 하고, 신부 집에서도 하고 그건 공부 많이하고 배운 사람이 하지 아무나 못 해.

남편은 포내리까지 말을 빌려 타고 와서 대례를 올렸다. 혼례 날 이영례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족두리를 썼다. 혼례가 끝나면 혼례복을 입은채로 가마에 올라타 시댁으로 온다. 이때 오빠나 삼촌이 신부를 따르는데 이를 '화왕'이라 한다. 또한 '한님'이라 부르는 할머니도 동행한다.

### (3) 정기자<sup>10)</sup> 씨의 사례

정기자 씨는 용강리가 친정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이태 후인 열여덟 살에 오촌 당숙모의 팔촌 동생을 소개받아 대궐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누가 소개했냐면 우리 당숙모가 어저께 앉았던 데 그 당숙모 며느님이 우리 육촌 오라버니댁이야. 오촌 당숙모가 거기로 소개 나갔다가. 그 노인네가 거기가 친정동네라. 심씨네가 친정이야. 그래가지고 그리 소개를 나갔다가 거기서 당신 팔촌 동생을 중매를 한거야. 나를.



10) 정기자(여, 77세) 제보

난리통에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어서 함도 없었고, 친정집에서 대례를 올리지도 못했다. 가마도, 차도 구하지 못 해 걸어서 20리 되는 시댁까지 육촌 오빠와 함께 가서 대례를 올렸다. 시댁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국수 잔치를 준비하였다. 대례를 마친 후 방에 앉아 새색시를 구경 온 손님들을 맞았다.

가니까 국수 잔치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색시 간다고 하니까 상 가운데다 놓고 닭도 놓고 그냥 막 신랑 색시 절 시키고 그러는거 아니야. 그렇게 했지 뭐. 그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있는거지. 색시 노릇 하느라고. 색시 구경 오는거지. 옛날엔 구식 잔치 그렇게 했으니까. 국수 삶아 놓고 대접하고.

#### (4) 이인희<sup>11)</sup> 씨의 사례

이인희 씨는 스물여섯에 용강리로 시집을 왔다. 친정인 대곶에서 이웃 할머니의 중매로 언니가 용강리 너머로 시집을 오고, 이인희 씨도 용강리로 시집을 온 것이다. 당시는 24~26살 처녀들이 한창 결혼을 많이 했다.

연줄로 왔지. 우리 언니가 저 너머로 시집왔는데, 그 중매한 할머니가 또 중매한거야. 그래가지고 여까지 왔네. 친정동네 아줌마 친정어머니가 용강에 있어. 그래서 연줄로 다 왔어. 그때 당시에는 다 스물넷, 스물둘 그때 다 왔지. 그때 다 한참인데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다 가능한 거야. 요즘보다 조금 빠르지.

중매를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교환해 미리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양가에서 호감이 있을 경우 남자쪽에서 중매쟁이를 대동하고 신붓감을 선보기 위해 방문한다.

그전엔 다 그랬어. 그때만해도 그 옛날이 아니지. 우리 큰언니들도 다 사진 봤는데? 옛~날에나 안 봤지 다 봐. 사진 먼저 보고, 보러 오지. 남자가 보러 오잖아. 색싯집으로.

혼담이 오고 가면 사주단자가 온다. 이인희 씨의 경우 중매쟁이와 남편이 사주단자를 가져왔다. 사주는 종이에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것인데 이때 치마, 저고리감이 예단으로 함께 왔다. 잘 하는 집에서는 양단 저고리, 비로드(벨벳) 치마, 반지, 시계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11) 이인희(여, 72세) 제보

사주는 무슨 쪽지에다 사주라고 써가지고 생일 날짜를 적고 그려나봐. 사주단자에다가 이렇게 저고리, 치마. 그게 예단이야. 옷감이 와. 잘 하는 집은 반지는 안 하고 옛날엔 시계지 뭐. 시계 그런거나 오지 안 와. 그전에는 그렇게 왔어. 그전에 또 저기한 사람들은 비로도 치마. 그전에 비로도 있잖아. 양단, 비로도면 제일이지 뭐. 저고리는 양단, 치마는 비로도.

신부측에서는 겨우내 본인이 입을 사철 옷가지를 혼수로 장만한다. 이인희 씨는 버선, 행주치마, 옥양목적삼, 모시적삼, 치마, 솜저고리, 속옷 등을 마련해 왔다. 옷감은 직접 짜지 않고 구입해서 이모와 친정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였다. 이인희 씨는 직접 옷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십자수를 놓아 베갯잇 등을 만들었다.

입으려고 해 온 건데 많으니까 안 입었지 뭐. 이것(행주치마)도 많은데 버리고 하나 둔거야. 걸치마 버리니까 이렇게 행주치마 입고 일하잖아. 저고리도 다 손으로 맹글었어. 다 버리고 이것만 둔거야. 아까워서. 이모아주머니가 해주신건데. 바느질을 잘 하시니까 그 아주머니가 손으로 다 하신건데. 모시 적삼도 있는데……. 옥양목적삼 10개, 치마 여너무 개, 행주치마 5개, 버선 30개. 치마, 저고……. 모시적삼 5개. 입고 두 개 남았는데, 내가 하나 뜯고 새거 하나 있는데 어디갔나 모르겠어. 겨울저고리도 해왔는데 솜저고리 그런 건 다 입어서 버렸지. 두고



광목으로 만든 행주치마



두고 입을 거 다 해와야지. 그러니까 시  
집 올라면 치마저고리하고 농하고 해오  
느라 혼나는거지. 돈이 들지 만드는 거  
는 똑딱 안 어려워. 우리는 이런거 짤 줄  
몰라. 감 끊어다가 이렇게 하는거야. 이  
모하고, 엄마하고 같이 한거야. 나 쓸 거  
지 뭐. 옛날에는 그래서 겨울이면 그런  
거 시집갈 준비한다 그러잖아. 지금들은  
시집에들 바리바리 해오잖아. 그런데 우  
리는 그런 거 몰라. 풍속이 시대에 따라  
다 다른가봐.



모시저고리  
(소매 부분이 떨어짐)

옥양목저고리





웃고름을 대신해 매듭을 단 모습



저고리 썬 부분에 '노'이라고 수를 놓아 상의임을 표시

이인희 씨는 정월 열여드렛 날 혼례를 올렸다. 혼례 날은 신랑측에서 택일하는 사람을 통해 잡은 것이다. 최근에는 신부의 월경주기를 따져 신부측에서 혼례 날을 잡기도 한다.

지금들은 색시 집에서 정한다며, 지금은 여자가 멘스(생리)하는 거 때문에 색시 집에서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엔 남자 집에서 잡았지 여자는 그런 것도 몰라.

대례는 신부 집 마당에서 치렀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바가지를 얹어 놓았다가 발로 깨뜨리는데, 잡귀를 쫓기 위함이라고 한다.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신랑은 사모관대를 예복으로 입었다. 초례상을 가운데 두고 신랑, 신부가 절을 하면서 예식이 진행되었다. 대례를 마치고 신랑이 말 대신 타고 온 트럭을 타고 시댁으로 신행을 갔다. 이 때 '후행'이라고 하여 집안 어른이 동행하는데, 이인희 씨의 경우 팔촌 아저씨가 함께 하였다.

우리 가마 타고는 안 왔어. 차 타고 왔지. 추력(트럭) 타고 왔지. 그때들은 추력을 많이 탔어. 우리 언니적에도 추력 탔는데. 말 타고 결혼하는 건 옛날이지 그땐 없을거야. 우리 사촌언니가 팔십……, 돌아가신 양반인데 그때나 말 탔지. 우리 큰언니도 추력 타고 갔는데.

시집은 지 3일째 되는 날 '삼일배끼 간다'고 하여 떡을 해서 친정집에 인사를 간다.

## (5) 김상례<sup>12)</sup> 씨의 사례

김상례 씨는 스물두 살에 강화 대산리에서 용강리로 시집을 왔다. 강화가 친정인 시어머니와 연줄이 닿아 중매로 결혼을 한 것이다. 당시에 중매를 하면 실제로 만나 선을 보기도 했지만, 김상례 씨는 얼굴도 모지 못한 채 혼례를 치렀다.

그때들 선들도 봤지. 선들도 봤는데, 우리는 안 봤어. 왜 안 봤냐 하면은 그때 돈이 없으니까는 그냥 땡겨도 그냥 땡겨?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왔어. (웃음)

중매가 성사되면 사주를 보낸다. 사주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화 친정집에서 대례를 지냈다. 대례 때 원삼족두리를 했는데,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대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신행을 갈 때는 가마가 아닌 군용 차량을 이용했다.

그땐 가마 타고 시집을 땡데 우리 시아주버니가 해군 대령이었던터랬어. 그래서 찌프차. 군인차 탔어. 그땐 차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걸어땡기고 그럴 때지. 그런데 우리 아주버님이 찌프차가 있어서 강화서 엠뽀도 타고 건너서 그 전에 배로 땡겼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왔지.

## (6) 박춘옥<sup>13)</sup> 씨의 사례

박춘옥 씨의 고향은 충청남도 예산이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해 연희동에서 처녀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중 옆집에 시댁 친척이 살고 있어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사촌에게 박춘옥 씨를 소개받은 남편은 서울과 김포를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다.

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진행했다. 결혼식에 앞서 약혼의 의미로 신촌에 위치한 사진관에서 약혼기념 사진을 촬영하였다. 약혼기념 사진 촬영 때 입은 한복은 시댁에서 장만해 준 것이다.



12) 김상례(여, 77세) 제보

13) 박춘옥(여, 60세) 제보



아저씨가 연세가 많잖아. 나하고 7살 터울이야. 빨리 결혼했지 그래서. 아들 하나라고 그냥 시아버지가 환갑 안에 빨리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그때가 아저씨 스물아홉이야. 장가를 가야 하잖아. 할아버지는 환갑이 다 되어 가고. 그래서 빨리 했대니까. 그래서 여기를 오는데 그 전에는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서 그래서 밤중에 오게 됐어. 근데 그때가 밤인데……. 그렇게 춤지는 않았어. 결혼은 양력 3월 31일에 했어. 그러니까 따듯했지.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인사하러 왔었지. 밤에 오는데 무슨 트럭을 타고 밤에 왔는데 참 무섭더라고. 그땐 가로등도 없어. 그냥 깜깜해서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버스도 안 땡기고. 언젠가는 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인가봐. 군하리까지 걸어갔어. 버선이 새카맣졌었어. 그 전엔 차가 없어서 아이들 예방주사 맞추러 갈래도 경운기 타고 다녔다니까.

결혼식 전에 사주와 함이 오갔다. 함에는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보낸 한복, 옷감, 반지, 시계, 화장품 등의 예물이 들어있었다. 이후 신부측에서는 예물로 금반지, 양복, 코트, 시계 등을 보냈다.



박춘옥-김영화 부부의  
약혼기념 사진

그럼. 잘 받았어. 그때만 해도 스타반지야. 반지가 스타반지. 백금에다가 보석 같은 거 빛나는 거 있어서. 금반지하고 그런 거 받았지. 지금은 14, 18K로 약세사리 받잖아. 그 전에는 그냥 금반지하고 시계하고 그런거야. 그게 최고였어. 스타반지.

1973년 당시만 하더라도 혼례는 대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박춘옥 씨는 마송 농협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는 당시 월곶면장이 담당하였다. 식장이었던 마송농협은 드레스나 신부 화장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인근 미용실을 이용했다.

그때도 빌려줬어. 그런데 예식장이 식당만 있지 신부 화장하고 그러는 데가 없 어가지고 이거 저기서 빌려왔나봐. 머리하는 데 가서 미장원 가서 신부 화장하 고 왔어. 예식장 옆에 미장원이 마송에 있어. 농협에는 그런 게 없고 예식만 해 줘 그냥. 음식도 딱 데 나가서 먹어야 하고.

예식을 마치고 피로연은 용강리 시댁 마당에서 국수잔치로 치렀다. 한바탕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새색시는 방에 앉아 구경 온 동네사람들을 맞아야 했다. 경우에 따라 가까운 강화 전등사 등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춘옥 씨는 가지 않았다.

저녁은 집에 와서 먹었어. 그래서 나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새색시 노릇하고 앉아있는거야. 밖에서는 국수잔치하고. 종일 앉아있어야 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그러잖아. 나는 신혼여행도 못 갔다니까. 보면 강화 전등사에도 갔 다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못 갔어.

결혼하고 3일이 지나면 인절미 등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 친정에 인사를 간다.

삼일배기 가잖아. 시집와가지고 3일 있다가 갔다가. 여기서도 지금 그러잖아. 그 전에는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면 2박 3일이잖아. 그러면 3일이면 오지? 지금은 외국으로 가니까 일주일이다 뭐 그러는데, 그때는 제주도로 가지 외국으로 안 갔잖아. 그래서 3일 동안에 여기서 3일 있다가 이바지 음식을 해가지고 친정에 가는거지. 그러면 거기서도 또 해가지고 오고.

하객으로 온 친구들과 함께







박춘옥-김영화 부부의 결혼사진

### 3. 다함께 대처한 죽음 : 상례·장례

과거 용강리에서는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계인 초상계에서 부고 돌리기, 일손 돕기, 음식 장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상계는 계장, 총무, 유사의 체계를 갖춘 조직이며, 마을주민이라면 누구라도 계금을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

그게 초상계. 계장도 있지. 총무 있고, 유사도 있고. 유사는 다 합의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어떻게하자. 사람이 죽으면 인제 부고는 누가 돌리고 어디는 누가 가져가고, 어디는 누가 가져가고 그런 걸 다 합의하는 사람이지. 계장은 동네 사람이 뽑는거지. 그냥 말로다가 뽑지. 계장은 그러니까 장사지내는 거에 대한 거 다 하고, 총무는 그거 다 기재하고, 누구누구는 누가 죽어서 부고는 누가 가져갔으니까. 지금은 누가 가라. 계원이니까 계금을 내는거지. 가입할 때. 가입은 아무라도 하지. 아무라도 죽을거니까. 아무라도 들어주는거지. 가족이 5명이면 다 가입할 수 있지. 나이는 없어. 애들은 안 하지. 누가 하나. 나이 먹고, 결혼할 나이쯤이면 하는거지.<sup>14)</sup>

또한 마을에는 초상계가 관리하는 상부간(상도간)이라고 부르는 상여를 보관하는 건물이 있다. 상부간은 주택이 없는 용림마을과 먼지락 사이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상부간 안에는 25년 전에 새로 구입한 상여와 함께 상례를 치를 때 쓰는 도구(삽, 곡괭이, 가래 등)와 상여소리를 할 때 사용했던 북이 보관되어 있다. 최근에는 장례업체를 통해 상례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상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삽, 곡괭이, 가래 등과 같은 연장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14) 이제웅(남, 86) 제보

15) 이제웅(남, 86) 제보

상부간 안에는 젊은 애들은 들어가기 싫어해. 냄새가 나고 캄캄하니까. 들어가기 무서워하고 그러지. 평소에는 안 가고, 일 년에 한두 번씩 꺼내다 별에다 말려. 일광소독을 하는거지. 요새 해도 되고, 날 잡아서 아무때나. 보통 봄에 많이 하지.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다 꺼내서. 가래, 곡괭이, 낫, 삽...<sup>15)</sup>

현재 건물 뒤에는 과거에 상부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허물어진 채로 남아있다. 상부간을 다시 지은 지는 15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상도간이라고 했지. 상여집이지. 마을에서는 상도간이라고 했어. 옛날에 허물고 인제 다시 지은거야. 한 15년 됐을걸. 지은 지? 한 20년 됐어. 그전에는 그 안에 있는 거 썼고, 상여도 있던거지. 뭐 상여는 옛날 거 없애고 새로 사왔어. 사온 지가 한 25년 됐어. 25년.<sup>16)</sup>



현재의 상여집



과거의 상여집

## (1) 상례절차

용강리에서 상례는 보통 3일장으로 하였다. 3일보다 더 오래 모시기도 하는데, 지관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운수를 따져서 정하는 기간을 정하기도 하였다.

3일장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지관이 다 봐가지고. 그 사람 운을 봐서 3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도 있고, 4일도 될 수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7일이 될 수 있고. 보통 3일은 무해무덕하게 3일은 덮어놓고 하는거지. 뭐.<sup>17)</sup>



16) 정해균(남, 74) 제보

17) 이제응(남, 86) 제보



### 가. 임종과 초혼부르기

사망이 가까워지면 자녀들은 부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곁에서 머물렀다. 만약 자손들이 멀리 나가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불러들였다. 임종이 가까워오면 안방에 머물게 하였다. 만약 객지에서 죽음을 당한 경우에는 안방에 모시지 않고 마당에 모셔진다.

방에 모시지. 그럼. 안방에. 돌아가실 때 안방으로 모셔서. 안방에서 돌아가시게 하는거지. 정신이 있을 적에는 자손들을 불러서 유언같은 거 있으면 유언하고 돌아가는거지. 멀리 나가 있는 자손들을 다 불러야지. 그럼. 객사는 객지에서 죽었다는거지. 그거는 밖에서 객사한 사람은 방에 안 들여놓는다는거지. 마당에 났다가 마당에서. 방에는 산사람이 사는 거니까. 죽은 사람을 방으로 불러 오지 않는다는거지.<sup>18)</sup>

운명이 확인되면 먼저 초혼을 한다. 집안이나 마을의 어른이 망자가 평소에 입던 옷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서 절구를 얹어놓고 올라서 망자의 혼을 부르는 것이다. ‘망자의 본관과 성씨’를 부른 뒤에 ‘복’이란 말을 세 번 크게 외친다. 망자의 혼을 불러 상례에 모시기 위해서 초혼을 한다고 한다.

돌아가시고나머는 초혼이라고 있어. 혼을 부른다는거지. 그러니까 거기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서 절구를 얹어놓구선 그 위에 올라가서 돌아간 분의 옷을 저고리를 흔들면서 전주 이씨면은 ‘전주 이씨 복’. 그리고 경주 정씨면 ‘경주 정씨 복’ 그렇게 세 번씩을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혼이 됐지 뭐야.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된거지. 그러니까는 부르는거지. 뭐. 장례치른다고 모시는거지. 그럼.<sup>19)</sup>

초혼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사자밥을 준비한다. 사자밥은 밥을 7그릇을 퍼서 키 위에 올려 마당에 둔다. 사자밥은 사자를 부르기 위한 것으로 상여가 나갈 때 따라 들고 나가서 한쪽에 버린다.

18) 이제응(남, 86) 제보

19) 이제응(남, 86) 제보

죽은 사람. 일곱 칠성이야. 밥이 일곱 개야. 그럼. 키에다 놓는거야. 키에다 접시가 있어. 사람이 죽었다하면 그걸 뭘 부르냐? 사자를 부르는데. 사자를 불러서 그걸 먹고 가라. 그래서 키에다가 밥을 놔다가 돌아가면 마당에서 상여 꾸미잖아? 그러면 나갈 적에 키가 쫓아나가는거야. 갖다 버리는거야. 조금 쫓아가다가. 어서가라 먹고 가라고.<sup>20)</sup>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면 상례절차에 능숙한 집안이나 마을의 어른이 수세를 한다. 수세는 손발을 곧게 펴는 절차이다. 시신의 전신을 곧게 펴고 양손을 가지런히 하여 배 위에 올리고 양손과 양발을 붙들어 맨다.

#### 나. 부고와 문상

부고는 초상계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초상계에는 부고를 돌리는 순서가 적힌 명단이 있는데, 마을에 초상이 나면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부고를 돌렸다.

알리는 거 부고라고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부고장에다 써서 알릴만한 집에 전부 돌아주는거지. 계가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초상계라고 계가 있어. 그러니까 계에서 계원들이 모여가지고 교대로다가. 이번엔 누가 나가고 다음엔 누가 나가고 교대로다가 총무가 다 이름을 적어놓고서는 이번엔 누구누구가 부고 돌려라. 이번엔 누구누구가 부고 차례다.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거지.<sup>21)</sup>

부고장에는 망자의 이름, 죽은 날짜와 시간 등이 적혀 있어서 받은 사람은 부고장을 보고 초상집으로 문상을 하러 왔다. 만약에 부고장을 받을 사람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대문의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어 분실을 방지하였다.

부고장에는 사람 죽었으니까. 저거 한다고 적혀있는거지. 지금 신문에 나는 거랑 같지. 언제 돌아갔는지. 누가 했는지. 걸어 댔는지. 차가 어딴거? 힘들었지.<sup>22)</sup>

20) 이영례(여, 87) 제보

21) 이제응(남, 86) 제보

22) 정해균(남, 74) 제보

과거에는 부고를 돌리는 사람은 걸어서 다녀야 했기 때문에 용강리 주변 지역에만 부고를 돌릴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편과 전화를 부고를 돌리는 데에 사용한다. 멀리 나가 살고 있는 자손과 친지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화를 주로 이용한다.

돌아가시면 알릴만한 사람들 땡기면서 부고를 내서 동네사람들이 인제 돌아가면서 하는거지. 친척한테 알려야지. 그전에는 전인이라고 다 사람이 땡기면서 했는데. 요 근방에나 했지. 뭐 먼 데 어떻게 부고를 해. 나중에 우편으로 하고, 전화가 어디에 있어? 그전에?<sup>23)</sup>

용강리에서는 초상집에 팔죽, 떡, 술 등을 부조하였다. 팔죽을 부조하는 이유는 상주가 하루종일 곡을 하여 목이 결끄럽기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옛날에는 그냥 가서 그냥 조상만 한거지. 가지고 가는 거라곤 자기 생각이지. 초상이 나면은 술 한 동이 부주하는 사람도 있고, 떡 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래 부주 받아서 집에다 놓구선 그전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뤘으니까.<sup>24)</sup>

왜냐면 상주들이 밥을 먹으면 목이 메여.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목이 메니까. 팔죽을 쑤다가 놓으면. 그래서 팔죽은 상주들 위해서 쑤는거야. 상주들이 목이 메니까. 거기서는 안 쑤고, 사람들이 쑤어다 줘. 요새는 돈이지. 지금은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목이 어디서 메어? 돈이나 주면 좋지. 예전엔 팔죽, 술 갖다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팔죽을 먹는거야. 목이 메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서. 집에서 팔 심은 걸로 하는건데 없으면 사다가 하는거야. 미리 사놓지는 않아. 사람은 언제 죽을지는 모르거든.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sup>25)</sup>

마을의 여자들은 망자가 입을 수의와 상주가 입을 상복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초상이 나면 시장에 나가 옷감을 끊어 와서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다. 또한 문상객들을 맞이할 때 쓸 두부, 부침개, 김치 등을 만드는 것도 마을의 여자들의 몫이었다.

23) 정해균(남, 74) 제보

24) 이제웅(남, 86) 제보

25) 이영례(여, 87) 제보



지금들은 인제 만든 옷을 사잖아. 우리 같은 경우도 바느질한 걸 사났거든. 그런데 예전에는 감을 끊어다가 그걸 저걸해요. 감을 끊어다가 맨들어 집에서. 돌아가신 양반 옷도 그렇고, 상주들 옷도 그렇고, 다 했어. 그전에. 그러고선 점심해 주고, 음식은 차리는 사람 있고, 아무나 가서 해야 해. 그래서 그전엔 어려웠지. 초상나면, 지금들은 다 해주잖아. 좋아. (음식은) 그 집에서 차리는대로 해야지. 그전엔 두부하고, 부침개질하고, 김치 같은 것도 때에 따라하고.<sup>26)</sup>

임신을 하거나 생리 중인 여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상갓집에 가지 않았다.

그런 거 가리는 사람이 있고, 안 가리는 사람이 있어. 애기가 났다던지. 동네 부인네들이 애기를 잉태했던지. 경도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걸 한다던지. 그런 사람은 안 오는거지. 본인이 안 가는거지. 부정하다고 해서. 내 시방 가리는 사람 없어. 사람 죽은 거에서 더 부정한 게 어딴어?<sup>27)</sup>

#### 다. 염습

염습은 죽은 사람을 씻긴 후 손발톱을 깎고 수의를 입혀 단단히 매는 것을 말한다. 염습은 보통 사망한 다음날 주로 집안의 어른을 통해 이루어졌다. 염습은 원래 한 집안에서 하는 것인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염습에 능숙한 어른이 담당한다.

소렴은 죽어서 바로 죽어서 시신판에 해서 씻는 게 소렴이고, 대렴은 염습하는 게 대렴이지. 시신판에 올려서 저거 하는 게 소렴. 염습하는 게 대렴이지. 소렴은 죽고 나서 바로 하는거고, 대렴은 때에 따라서 하는거야. 상가의 때에 따라서. 대개 하루 만에 하는거지. 하루 넘어야. 원래 가족이 하는거야. 원래 가족이 하는건데 가족이 못 하면 또 남들이 하고 그러는거지. 염습은 원래 가족이 하는거야. 집안에서 하는거야. 원래.<sup>28)</sup>

염습을 통해 자른 머리카락, 손톱, 발톱은 오랑에 넣어 차후에 입관할 때 시신과 같이 넣는다.



26) 이종휘(여, 74) 제보

27) 이제응(남, 86) 제보

28) 정해균(남, 74) 제보

오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머리털 잘라 넣고, 손톱 발톱도, 왼쪽 바른쪽 따로 해서, 왼쪽 건 이쪽에 넣고, 바른쪽은 이쪽에 넣고, 머리카락은 한 데 넣지, 여기 옆구리에 매다는거야. 목을 적에 그 틈에다가 넣는거지.<sup>29)</sup>

시신을 씻기는 일이 끝나면 수의를 입힌다. 수의는 보통 초상이 났을 때, 시장에서 옷감을 사와서 입힌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미리 사놓기도 하였다. 염습을 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여 수의로 갈아입혔는데, 바지부터 입히는 것이 관례이다.

돈 있는 사람은 미리 해놓고, 돈 없는 사람은 또 당한 년에 가서 사오고, 그러니까 인제 포점이 있어. 베 팔고 그러는 데, 새 옷도 해서 팔고 하는 데가 있어. 거가서 사오는거지. 옷감을 사와다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맞춰서 아예 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방은 다 맨들어오지 집에선 안 해.<sup>30)</sup>

옷도 절차가 있지. 사람 옷 입는 거야 똑같지. 바지부터 입혀야겠지. 그거 하는 사람이 갈아입히는거지. 인제 염습사가 있잖아. 염을 하는 사람이 염습이라고 하는거야. 염습.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랬지. 마을에서. 배우긴 뭘 배워. 땡기면서 배웠겠지만. 자기 재질로 어깨너머로 배워서 하는거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거지.<sup>31)</sup>

시신에 수의를 입힌 후에는 시신을 묶는 절차만 남았다. 시신을 묶기 직전에는 시신의 입에 쌀 세 숟가락을 넣어주며, ‘천 석이요, 만 석이요, 백만 석이요’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저승에서 먹을 양식을 의미한다.

묶기 전에 하는거야. 세 번 넣지 아마? ‘천 석이요, 만 석이요, 백만 석이요’하지 아마. 한 번씩 넣으면서 하는거지. 저승가서 먹으라고.<sup>32)</sup>

이후에는 시신을 일곱 매를 묶는 절차가 남았다. 이를 위해서 긴 베를 지그재그 7번을 접어 놓고 그 위에 홀이불을 펴서 시신을 올려놓는다.

29) 이제응(남, 86) 제보

30) 이제응(남, 86) 제보

31) 정해균(남, 74) 제보

32) 정해균(남, 74) 제보

7번, 7매. 발부터 묶는거지. 묶어서 위까지 묶는거야. 전체 7번. 7번으로 해. 꼭 7번. 칠포하는거야. 칠포.<sup>33)</sup>

사람이 기니까. 들 수도 없고, 양쪽에서 들면 구부러지니까 운반하기 좋으라고 묶는거지. 발목 묶고, 무릎팍 묶고, 그리고 올라와서 7매를 채워서 묶는거지. 일곱 번. 그러니까 일곱 매를 묶는거니까는 발끝에서부터 일곱 매를 묶는거야. 끈게 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염이라고 그래.<sup>34)</sup>

먼저 장매(홀이불)로 시신의 전체를 감싼다. 미리 지그재그로 놓았던 베를 서로 당겨가면서 일곱 매를 단단히 묶는다. 일곱 매는 세 번 쪼개서 매기 때문에 사실은 21매를 묶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곱 번을 단단히 매는 묶는 이유는 시신을 들 때 뺏뺏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순서는 장매라고 길다란 거 한 길 넘는 건데 6자인가 7자인가를 먼저 늘어놔. 베를 한 필을 일곱 개로다가 접어. 발끝에서부터 꼭대기까지. 7개로 접어서 자르는거야. 일곱 개가 되잖아? 베 토막 7개가 돼. 그걸 다시 세 토막으로 자르는거야. 그러고선 잡아서 묶을 적에 가운데 먼저 잡아 땡겨서 묶고. 양쪽꺼 묶고, 한 매에 매듭이 셋이지. 7매를 묶는데 매는 한 일곱 매인데 매듭이 셋이야. 한 매로다가 셋으로 찢어서 묶으니까. 장매는 베야. 길게 깔고 그 위에다가 매를 놓는거야. 매는 묶을 베. 그래가지고 장매로 이렇게 발끝 뒤집어씌우고, 머리 뒤집어씌우고 가운데다가 묶어. 그것도 세 가닥으로 찢어서 매듭이 셋이야. 장매도, 그리고 나서 발끝에서부터 묶고 올라오는 사람 있고 머리부터 묶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니까. 집안마다 다르고, 장매에다가 넓게 해서 옷을 입혀서 바지저고리 다 입혀서 누여. 그리고 장매부터 매고 그리고 가로 매는거지. 그걸로 홀이불이라는 데. 홀이불을 마주 여며서 이게 넓으니까 가운데로 접어서. 그래가지고 접어서. 발끝에서부터 묶는 사람이 있고, 머리부터 내리 묶는 사람도 있고.<sup>35)</sup>

염습이 끝나면 자손들도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때 집안의 어른이 상주들의 머리를 일일이 다 내려준다. 상복은 남자의 경우에는 베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여자는 무명옷을 입는다.

33) 정해균(남, 74) 제보

34) 이제응(남, 86) 제보

35) 이제응(남, 86) 제보



그리고 손주들 다 머리 풀고, 머리를 길게 푸는데, 어른이 다 내려주는거야. 마을의 어른도 상관없고, 집안의 어른도 상관없고, 다 풀어서 늘어뜨리는거지. 시방은 없지. 여자들이나 하고.<sup>36)</sup>

상주는 상복 입는거지. 상복. 베로다 만들어서 있는 상복. 남자는 베로 해 입고, 여자는 무명, 무명옷 입고, 흰색으로.<sup>37)</sup>

상주가 상복을 다 갈아입고 난 다음에는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제는 상례에서 가장 처음 드리는 제사로, 삼실과, 시루떡, 북어, 술, 고기적 등을 차려놓고 지낸다.

상주도 얹해 놓고, 성복제라고 있어. 성복제. 옷 입을 때가 완성되었다는거지. 성복이라는 것이. 그리고 새 옷 입고서는 곡하는거지. 제사를 지내는거야. 그게 성복제야. 맨 처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 자손들이 다 하는거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집안에 아랫사람 있으면 다 하는거지. 제사니까. 가정에 달렸지. 간단하게 삼색실과하고. 삼색실과는 집에서 심은 거 감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거든. 집에서 뜬 삼색실과 놓고 술 한 잔 부어놓고, 북어포 그거 하나 놓고, 그리고 적, 돼지고기나 소고기 사다가 적해서 제사 놓고, 떡도 하고. 그래서 제사에 쓰는 건 시루떡, 팔넛은 거. 그걸 가지고 편이라고 하지. 제일 간단한 게 밤, 대추, 감, 그게 간단하지. 그만하면 정성이 된다는거지.<sup>38)</sup>

#### 라. 발인 및 장례

삼일장이 모두 끝나면 시신이 모셔진 안방에서 마당의 상여까지 시신을 옮긴다. 운구는 시신의 좌우에 각 3명씩 총 6명이 담당한다.

운구는 여섯 명이 하는거지. 운구라는 건 장사에서 상여까지. 집에서 해체해서 상여까지 가는걸 운구라고 하는거야.<sup>39)</sup>

36) 이제응(남, 86) 제보

37) 정해균(남, 74) 제보

38) 이제응(남, 86) 제보

39) 정해균(남, 74) 제보

시신이 상여에 태워지면 발인제를 통해서 시신이 상여에 옮겨진 것을 알린다. 발인제는 성복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며, 참석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대접한다.

성복제는 방에서 하는거고, 발인제는 시신을 상여에다 태워 놓고, 상여에다가 음식을 차려서 상을 봐서 상주들이 거기다 절하고, 인제 마당에서 발인제라고 상여에 올라탈 때, 그때 또 제사지내는거야. 사람이 많으면 음식도 많이 하고 사람이 조출하면 적게 하고.<sup>40)</sup>

상여는 8~12명의 마을사람들이 담당하여 이동한다. 상여를 메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미리 발을 맞추는 필요는 없다고 한다.

발 맞추는거야. 동네에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거지. 그리고 상여를 나가는 건 나가는거지. 상여는 12명인가? 양쪽에 5명씩 열 명인가? 열 명이 해. 여기 상여는 열 명이야.<sup>41)</sup>

상여에 태우면 무덤 앞에도 상여를 내려놓는 거니까. 8명도 멜 수가 있고 10명도 멜 수가 있고 12명도 멜 수가 있고 그래. 양쪽에서 메야 하니까 둘씩둘씩 메야지.<sup>42)</sup>

상여가 맨 처음 상갓집을 나설 때 문 밖에 바가지를 놓아두고 선두에 선 사람이 깨뜨리고 나간다. 바가지가 깨지며 나는 요란한 소리는 망자와 가족의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신 들고 나갈 적에 바가지를 얹어놓고서 바가지를 탁 깨버려. 문 밖에다가 놓고. 들고 나가는 사람이 밟아. 앞에 나가는 사람이 먼저 밟고, 쪼가리가 깨졌더라도 그 뒷사람이 또 밟고 또 밟고. 인제 그거야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정 떼는 소리래. 그게. 깨지는 소리가 아작 소리가 나고 요란하잖아. 그게 남이 된다는 뜻이래.<sup>43)</sup>

40) 이제웅(남, 86) 제보

41) 정해균(남, 86) 제보

42) 이제웅(남, 86) 제보

43) 이제웅(남, 86) 제보

상여소리를 하는 사람이 상여행렬의 맨 앞에 선다. 그리고 상여, 상주, 가족, 집안, 마을 사람순으로 상여를 뒤따르게 된다.

맨 앞에는 상여소리 매기는 사람이 서지. 앞에 서고. 종이나 북 들지. 상여집에 북은 예전부터 쓰던 것. 종을 그전엔 많이 썼어. 지금은 북. 그 다음엔 상여가 가고. 그 뒤에는 상주들하고. 인제 상주들이지. 그리고 또 집안 다 늘어서서. 그 뒤는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sup>44)</sup>

상여행렬 중간에 편편하고 쉼만한 자리에서 노제를 지낸다. 노제는 일반 제사절차와 동일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마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장지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한 번이나 세 번을 지내는데, 상여꾼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기능도 하였다.

가다가 노제라고 있어. 한 번 지내는 사람이 있고, 세 번 지내는 사람이 있고. 간단하게 할려면 한 번 지내지. 짝은 안 맞춘다니까. 2번은 안 지내고 세 번 지내고. 그냥 가다가 아무데나 쉼만한 자리에서 그냥 길에서 지내는거지. 지나가다가 이런 앞에 편편한 데서 아무데나. 상은 놔야지.<sup>45)</sup>

가다가 힘들면 제사도 지내지 노제라고. 노제도 상가에서 지내는거야. 상가에서 지내고. 노제는 지내는 게 상가에서 지내고 죽은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도 여유 있으면 지내고. 노제는 누가 뚜렷이 지낸다고 그러는 건 없어. 음식은 제사하고 똑같아. 간소해도 제사하고 똑같이 해. 다 있어. 포하고 파일하고 다 있어. 떡도 있으면 놓고 하는거야. 가다가 노제 지내는 장소가 있나? 정거장이 있나? 그냥 힘들면 하는거지.<sup>46)</sup>

장지는 집안 소유의 산이 있을 경우에만 선산에 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의 산에 좋은 자리를 정하여 묻었다. 일제시대에는 단속이 심해 공동묘지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장지를 결정할 때는 근처 마을에서 지관을 불러다가 좋은 장소를 결정하였다.

44) 이제웅(남, 86) 제보

45) 이제웅(남, 86) 제보

46) 정해균(남, 74) 제보

무덤은 내 산이 있으면 내 산에 묻고 그리고 왜정 때는 내 산이 있어도 못 묻었



어. 공동묘지가 따로 있어가지고는 거기다 묻었다고, 내 산이 있어도 못 묻어. 내 산이 있으면은 허가를 내가지고서 인제 묘지 설정이라고 정부에다가 면에다 신청해서 허가를 내. 허가를 내서 허가된 산에는 아무데나 써서.<sup>47)</sup>

묘는 산 있는 사람은 제 산에 쓰고, 산 없는 사람은 여기 산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썼지. 묘는 좋은 자리. 지관도 불러다가 보지. 어디 지관이 있는거야. 이 동네는 지관이 없으니까. 있는 곳에서 불러다 하는거지.<sup>48)</sup>

지관을 통해서 미리 정해진 시간인 하관시에 맞추어 시신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땅을 편평하게 만들어 단단하게 다진 뒤, 가래질을 통해서 봉분을 볼록하게 모은다. 이것으로 상례 절차는 전부 마무리 되었다.

산에까지 올라가면 하관시라고 시간이 있어. 몇시에 하관이다. 그 시에 시신을 땅에다 묻고. 쓸어 매고서는 평토제라고 있어. 평토제. 판판하게 이제 오목하지도 않고 볼르지도 않게 평토제라고 하는데, 달구질로 다져서 다져놓고서 단단하게 다져놓고서 여럿이서 가래질을 해서 봉분을 그러모으는거지. 시방도 비석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헌 사람도 있고 그렇지.<sup>49)</sup>

이후 하관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면 망자가 쓰던 옷과 물품들을 전부 태워버리는 것으로 상례의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옷이고 뭐고 모자고 신발이고 다 태워버리는거지. 이런 마당 같은 데 불 놓구선 태우는거지. 사람이 죽었으니까 입을 사람이 없으니까 태우는거지.<sup>50)</sup>

47) 이제응(남, 86) 제보

48) 정해균(남, 74) 제보

49) 이제응(남, 86) 제보

50) 이제응(남, 86) 제보



문수산 자락의 경주 정씨 묘소

## 마. 삼우제

상례절차를 마치고 삼일 후에 삼우제를 지낸다. 삼우제를 지내는 절차와 음식은 일반 제사와 같고, 이날 처음으로 성묘를 한다.

삼일 지나서 장사날 고 이튿날 고 이튿날. 오늘 장사 지냈으면 내일 모레가 삼우제야. 삼우제는 집에서 지내는거지. 방에서. 음식 차려놓고, 가족들 다 모여서.<sup>51)</sup>

삼우제. 3일 만에 하는거야. 아침에 여기 저 영정 모셔놓고 거기서 하는거지. 음식은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고. 삼오날 집에서 삼우제 지내고 묘에 가서 제일 처음에 성묘하는거야.<sup>52)</sup>

## (2) 최근의 변화

최근에는 상례절차 전부가 전문 장례식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과거처럼 공동의 노동을 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병원에 문상을 가는 것만을 하게 되었다.

요새는 병원에서 다 해서 그전에는 병원에 있다가도 죽게 되면 집으로 왔거든. 병원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객사하면 안 된다고 집으로 모셔다가 집에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인제는 죽을 때 되면 병원으로 가는걸. 가면 인제 술이나 먹고 혈 일도 없지 뭐.

상부간이라고 하지. 옛날부터 있었지. 옛날부터 그런 걸로 했어. 근데 시방은 가래도 필요 없고, 포크레인 하나 갖다놓으면 다 하는걸.<sup>53)</sup>

51) 이제웅(남, 86) 제보

52) 정해균(남, 74) 제보

53) 이제웅(남, 86) 제보

## 4. 조상의 은덕에 감사 : 제례

현재 용강리에는 경주 정씨, 파평 윤씨, 전주 이씨가 오래전부터 거주해오고 있다. 경주 정씨와 파평 윤씨는 용강리에 7~8대에 걸쳐 대대로 거주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대대로 용강리에 모여서 집안의 어른과 조상들을 모시고 살아왔다. 서로 도우며 살면서 ‘차례’, ‘기제사’, ‘시제’ 등을 모시면서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였다. 제례는 동네 아이들에게는 기다려지는 행사로, 제례가 끝나기를 기다려 제사음식을 먹으려고 서로 다투었다고 한다.

누가 제사집이 저기 제사지내는 집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3년상이니 2년이니 해서 나잖아. 그러면 그거 제사 사탕 얻어먹으려고 얼음판에 가서 떡이고 그 집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은 쥐, 그거를 돌린다고 나란히 세워놓고 이렇게 한 움큼씩 움켜쥐서 준다고. 그래서 받아 먹으려고 가서 지키고 있다가 받아도 먹고 그랬다고.<sup>54)</sup>

### (1) 차례

용강리에서는 주로 설날과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 한식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고 조상의 묘를 수리, 관리할 뿐이다. 차례는 명절 아침에 지내며 기제사에서 모시는 4대 조까지 모두 모신다. 5대부터는 시제에서 모시게 된다. 경주 정씨 가문의 경우, 과거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차례를 다 지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각자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차례는) 명절 때만 추석하고 음력 정월 초하루하고 그렇게. 보통 4대 (모시지), 5대 되면 시제 봉사로 넘어가지. 우리가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카네가. 거기 가서 지내. 이번 추석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안 지냈어. 전례가 집안에 우환이 있고 그러면 안 지내.<sup>55)</sup>

54) 이종휘(여, 74) 제보

55) 정해일(남, 74) 제보



차례에서 조상을 모실 때에는 가장 윗대부터 순서대로 지방을 바꾸어가며 지낸다. 우선 제일 먼저 고조부의 지방을 모시고 차례음식을 올려놓고 절을 한다. 그 다음에는 증조부, 조부, 부모의 지방을 바꾸어 가며 절을 하는 것이다. 지방을 바꿀 때마다 적과 포, 또한 주가 되는 음식(진지)을 간다.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모시는 조상의 지방에 따라서 바꾼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삼색 과일은 갈지 않고, 적이나 진지 같은 거는 갈아요. 인제 지방만 각각 써서 제사 지낸다고. 제일 웃대 할아버지 지내고 차례차례로 내려오면서 지내는거지. 설날 때 지방을 각각 써가지고 웃대 할아버지 지내고 고다음 할아버지 지내고, 고다음 할아버지 지내고. 인제 지방만 각각 써서 각각 갈아 붙이고, 삼색(나물)은 인제 그냥 놓고 지내고, 적하고 포하고. 정월 초하루에는 떡국 끓이면 떡국만 갈고, 추석에는 메를 안 하니까는 뭐 송편만 해놓고 지내잖아? 인제 떡만 갈아놓고 포하고 적하고 삼색 과일은 그냥 놔두고.<sup>56)</sup>

차례 때는 기제사 때와 달리 술을 한 잔만 올리며 축은 읽지 않는다.

추석 땐 단잔이야. 한 잔만 올리는거야. 차사잖아. 한 잔만 올리는거야. 기제사는 초헌, 아헌, 종헌이 한 잔씩 석 잔 올리고, 추석 때는 한 잔만 올리는거야.<sup>57)</sup>

용강리의 차례음식은 기제사 때와 같으며, 설에는 메 대신 떡국이 올라가고 추석에는 송편이 올라간다. 떡국은 소고기로 국물을 내서 끓이고 고기가 고명으로 올라간다. 송편은 팔과 계피를 고물로 넣는다.

떡국에는 고깃국 국물 고아서 거기다 끓이고, 위에다는 고기 고명 얹고 지내요. 제사 지내고 쏟아놓고 또 아래 할아버지 지낼 때 갈아, 다시. 추석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떡만 갈고, 적하고 포하고. 떡, 제사 지내는 고물은 팔 해서 놓는데, 지금은 뭐 그런거 가려? 다 사다놓고 제사지내고 그러지. 지금 사는 건 다 깨도 넣고 그렇지만 제사 지내는 건 대개 팔, 계피해서 넣고, 구정 때

56) 정해일(남, 74) 제보

57) 정해균(남, 74) 제보

인절미 하면 팔, 계피로다가 제사 지내는 걸 했는데, 지금은 사다하니까 콩고 물도 있고 다 그렇겠지.<sup>58)</sup>

기타 제물은 적과 나물, 삼색 과일, 탕을 올린다. 적은 육적과 어적을 올리는데, 어적으로는 숭어와 조기를 쓰고, 육적으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쓴다. 나물은 녹두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은 최소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소고기로 제일로 치잖아. 소고기로 해놓는 사람이 있고, 여의치 않으면 돼지고기 한 가지로만 해 놓고, 나물도 저거한 집에는 숙주나물, 녹두나물 그거 한 가지로만 해 놓는 집도 있고. 좀 저거한 집은 녹두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세 가지 해 놓고 그러지.<sup>59)</sup>

## (2) 기제사

용강리에 거주하는 경주 정씨 집안에서는 4대조까지 기제사를 지낸다. 제물의 종류는 대체로 비슷하며, 술과 밥, 삼색 과일, 삼색 나물, 삼탕, 적과 전, 떡, 밥, 포, 식혜 등을 기본으로 올리고 과거에는 산자나 다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제물을 진설하는 방법은 '홍동백서'와 '조율이시'를 기본으로 한다.

예전엔 다식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 다식. 옛도 많이 고아가지고 강냉이도 묻히고 여러 가지 묻혀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제상에 산자. 쌀 튀겨가지고 그것도 해서 이렇게 피어놓고 했어요.<sup>60)</sup>

제사 음식은 중요하지. 우리는 그거야. 조율이시로 하고, 홍동백서가 있고 그런 거야. 우리는 조율이시아. 추석 차례상이랑 똑같아. 제사 차리는 진설법이 똑 같애. 음식은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는거고, 기제사 때는 밥을 올리고 그러는거야. 추석 때는 떡을 올리고, 설날 때는 떡국. 나머지는 추석 때랑 같아. 설에는 떡국올리고.<sup>61)</sup>

58) 정해일(남, 74) 제보

59) 정해일(남, 74) 제보

60) 이종휘(여, 74) 제보

61) 정해균(남, 74) 제보

기제사 때는 차례와 달리 지방과 함께 축을 함께 쓴다. 지방과 축은 제사를 지내기 직전에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 쓴다.

지방이랑 축은 제사 전에 쓰는거지. 제사 전에 써서 올려. 그럼 내가 다 쓰지 뭐. 인제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썼었지. 내가 물려받은거지. 아무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는건데. 장남이 제사를 모시니까. 장남이 주관이 되는거지 뭐.

지방이라는 건 신위, 말하자면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신주고, 축은 말하자면 내가 제사를 지내는 고사지. 고사. 내가 고하는거지. 이렇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아버님 할아버님 제사를 지냅니다. 하는 말하자면 고사지 고사. 그렇지. 때는 어느때 유세차라고 하잖아. 때는 어느때에 몇 대손 자손이 감히 고향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누구 써서 올리는거지. 기제사 다르고 시제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지. 기제사는 다 똑같고, 시제축이니. 기제축이니 축문의 내용은 다 다르지 내용은.<sup>62)</sup>

기제사는 자시(23시~1시)인 자정에 보통 지낸다. 지금은 일찍 지내기도 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기제사를 지내고 저녁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제사는 마루에서 지내며, 참여하는 사람은 보통 집안의 남자들이며,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기제사는 차례와 달리 술을 세 잔 올린다. 기제사는 지방과 제상을 차리고 향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절을 다같이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초헌관이 잔과 육적을 올린 후에 절을 한다. 이후 참여자 모두가 꿇으면 초헌관이 축문을 읽는다. 그 다음에 다같이 2번 절을 하고,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술을 올린다.

아헌관이 술을 올리고 나서 탕을 숭늉으로 바꾼다. 아헌관은 술을 반 잔만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종헌관이 나머지 반 잔을 채운 후 올린다.

62) 정해균(남, 74) 제보



### (3) 시제

용강리에 거주하는 경주 정씨 집안은 보통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음력 10월 중에 좋은 날을 잡아서 했다. 지금은 외지에 나가서 사는 자손들이 쉽게 모이기 위해 음력 10월 중 토요일, 일요일로 날을 정해서 지내고 있다. 또한 시제에 올리는 제물은 기제사와 동일하다.

시제 음력 10월달에. 이 달에 해. 이 달에 해. 날짜는 다 집집마다 달라. 옛날에는 10월달에 꼭 어느 날인지 정해져있는데, 10월 보름 정도에.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이야. 잔치 결혼식 하듯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잡아서 하는거야. 오기 편하라고.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디 나가살지도 않고 종기종기 다한 동네가 옛날에는 나가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한 집에서 살다가 옆집에 마땅한 데 초가집 시간내고 시간내고 그렇게 다 8촌까지 고대로 다 살았으니까는 옛날에는 날 잡으면 일요일 토요일이 뭐있어? 지금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게 토요일 일요일이 쉬니까 노는 날 잡아서 하는거지. 옛날에는 일요일이 나타나 좋은 날을 잡아서 지냈지. 자손들이 동네 사니까 그 집안 자손들이 동네 사니까 아무 날이나 지냈지.<sup>63)</sup>

용강리에 거주하는 경주 정씨의 선산은 가까운 조상의 경우에는 용강리의 뒤에 있는 문수산에 있으며, 먼 조상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강화, 전라도 등지로 흩어져 있다.

지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야. 이번엔 오늘 했어. 오늘 지냈어. 산소가 문수산 꼭대기에 가있어. 우리 6대조 할아버지가. 비가 아침에 오잖아. 비가 와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저기가 악산이에요. 꼭대기에 가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정해균 씨네 거기서 그냥 시제 모셨다니까. 한 10시쯤 지냈어. 나가 사는 사람 많은데 먹고 살기 바빠서 안 와. 오는 사람 오고 못 오는 사람은 안 오고.<sup>64)</sup>

올해에는 11월 6일에 시제를 지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선산에는 올라가지

63) 정해일(남, 74) 제보

64) 정해일(남, 74) 제보

않고 용림마을에 사는 정해균 씨 댁에서 시제를 모셨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외지에 사는 자손이 오지 않아 10명 정도가 모였다. 평소에는 20명 정도의 자손들이 모인다고 한다. 최근에는 자손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 시제의 참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에는 '위답'이라는 논이 있어, 그곳에서 나오는 쌀로 시제 비용을 충당하였다. 위답의 관리는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이 담당하였는데, 농사를 지어서 일정의 도지를 경주 정씨 집안에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답 관리를 서로 맡아서 하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남의 조상'이라고 해서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 (4) 사진으로 보는 제례

2011년 9월 11일부터 12일  
까지 용림마을에 거주하는  
정해균 씨 댁의 추석 풍경



추석 전일 음식 준비



메밀로 만드는 누르미



한복 입은 아이들



지방 쓰는 정해균 씨



차레상 음식 준비



차례상 차리기



송편과 고기적



차려진 차례상





분향하는 모습



초헌하는 모습



절하는 모습



복  
미



지방태우기



한과 먹으려는 아이들





## 제8장 마을사람들의 일상생활

1. 집집마다 술 익는 향기 : 식생활
2. 불 파마하고 오면 침을 뿜뿜뿜 : 의생활
3. 안방이 제일 중요한 곳 : 주생활



## 1. 집집마다 술 익는 향기 : 식생활

### (1) 술 담그기

용강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술 익는 향기가 가득할 정도로 술을 많이 빚는다. 만드는 방법과 재료는 대동소이하지만 가정마다 만든 술의 이름을 약주, 농주, 막걸리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전채옥<sup>1)</sup> 씨는 가족이 많아 큰 살림을 하는 시어머니와 형님으로부터 술 빚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7년 전부터는 집에서 약주를 만들어 팔고 있다. 알음알음 입소문으로 찾아온 손님들은 인천, 김포, 서울 등지에서 전화로 주문을 하고 직접 술을 찾아간다. 한참 주문이 많을 때에는 여름에도 지하실에 에어컨을 켜고 술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주류회사들이 잇따라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추세여서 찾는 이가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직접 만든 술은 1리터 페트병에 담아 5천 원에 판매한다.



1) 전채옥(여, 80세) 제보

전채옥 씨가 빚은 약주





시방은 양조장에서 술들을 많이 만들어 팔잖아. 막걸리. 그거 맛있더라고 심심한 거. 그런 것들을 해서 파니까 잘 안 사먹더라고.

집에서 만든 약주는 집안 제사 때나 상달 고사 때 제주로 사용된다.

우리 쓴다고 한 거 있어요. 우리 벌초도 하고 하면 쓸려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해야 할 건데 우리 큰댁이가 셋째 아드님 손주가 날 잡았대. 잔칫날. 그러면 제사 안 지낸대요. 그래서 안 써.

술을 빚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루에 쌀을 열넉 되 정도 찐다. 다 찌진 쌀은 퍼서 식히고 이스트를 넣어 버무린다. 이스트에 버무린 쌀은 고무대야에 담아 따뜻하게 불을 넣은 방에 청국장을 띄우듯이 이불을 덮어 놓는다. 이틀 정도가 지나 밥알이 부풀기 시작하면 물을 한 양동이 정도 뿌리고 다시 한 번 버무려 둔다. 이렇게 사흘 정도가 지나면 술밥이 빵튀기처럼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약 넣고 튀긴다'라고 한다. 이처럼 이스트를 넣어 쌀을 튀기는 이유는 밥만 넣어 술을 한 것보다 술의 양이 많이 나고 맛이 좋기 때문이다.

1차로 튀긴 쌀을 일주일정도 방치하면 노란 곰팡이가 피는데, 이를 '강아지 앉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쌀에 강아지가 앉으면 쌀을 처음과 같이 찌내 누룩을 넣고 함께 버무린다. 이때 쌀은 멥쌀이어도 무방하나 찰쌀이 있으면 찰쌀을 섞어 밥을 하는 것이 맛이 좋다.

그렇게 해서 놔두면, 하얗게 튀겨서 한 일주일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노~랗게 부서지면 강아지가 앉아요. 그럼 술밥을 또 찌. 찰쌀 있으면 찰쌀하고 멥쌀하고 섞어서 찌요. 또 그만큼 열넉 되를 또 찌.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지하실에 가지고 다니고 계단 올라다니니까 아주 힘들어.



전채옥 씨 댁 가마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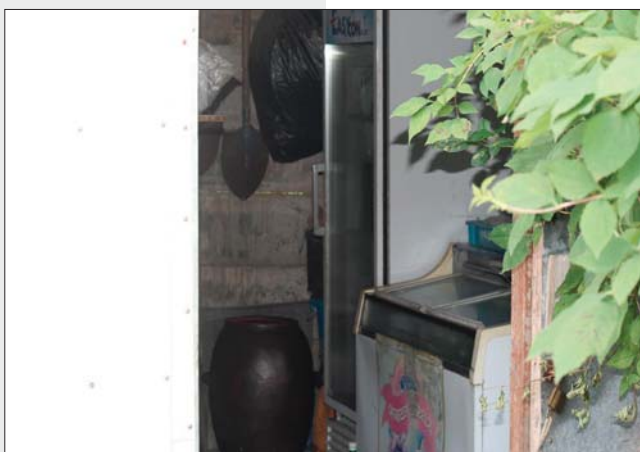


이인희 씨 댁 - 숙성 중인 술

버무린 재료들은 고무통에 담아  
지하실에서 숙성과정을 거친다.



한 데 버무린 재료들은 자루에 싸서 고무통에 넣고 사랑방 지하실에서 숙성시킨다. 이렇게 두면 제조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물이 생겨 술이 고이고, 대개는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술 맛이 가장 좋다. 술이 덜 익으면 술이 쓰고 풍미가 덜하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 동안 숙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발효가 끝난 술은 과거에는 용수를 박아 댔지만, 요즘에는 자루째 짜서 병에 담는다. 때문에 이 술에서는 밥알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완성된 술은 냉장고에서 보관한다.



완성된 약주를 보관하는 냉장고

며칠 놔두면 한 일주일 되면 누룩이 튀는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났다가 일주일 넣고 한 열흘 되면은 폭 가라앉아요. 다 익어서. 그래서 훌렁 뒤집어서 그냥 놔두면은 한 20일 되면 술이 된다고. 그래서 자루에다 짜면 되는거야. 술은 그 전엔 용수 박아서 했는데, 용수 박지 않고 그냥 꼭 짜서. 자루에다 짜서. 누룩 버무려서 한 달 돼야 제 맛이나요. 그리고 금새한 건 써. 쓰기만 하고, 발효가 돼야 맛있지 금새한 건 쓰다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약주

정기자<sup>2)</sup> 씨는 결혼 전 친정어머니가 술 빚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술을 담그며 제조법을 익혔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소비하기 위해 술을 담갔는데 한때 이를 법으로 금지하여 비밀리에 술을 만들곤 하였다.

옛날엔 그래서 그냥 갖다가 나뭇가지에도 감추고 짚가리에도 감추고 그랬죠. 벼 단 짚가리.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쌀이 흔하니까.

몇 해 전부터는 판매용으로만 술을 빚고 있는데 입소문을 듣고 서울, 인천 등에서 사람들이 술을 사러 온다.

파는거지. 오늘도 10병 사러 온다 그랬어. 인천서. 아니 접때 술 사러 온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드리(급히) 했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야. 꽤 많이 팔았어. 저 사람이 와서 또 10병 가져가면 몇 병 남지. 그러면 또 해 놓은 게 다 익으니까 그거 또 며칠 있으면 또 팔고. 어떻게들 알고 사러 오냐고? 단골이 됐지. 벌써 한참 됐으니까 알고 사러 오는거야. 소문났어. 술 맛 좋다고.



2) 정기자(여, 77세) 제보



방앗간을 운영할 당시 사용하던  
기계로 밀 등을 빻는 데사용한다



막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재료는 쌀과 누룩이다. 누룩은 밀로 만드는데, 정기자씨의 경우 인근 시장에서 구입한 밀을 군하리 방앗간에서 빻아 사용한다. 빻아 온 밀가루에 물을 넣고 버무린 후 보자기에 담아 발로 밟아 반죽을 한다. 잘 뭉쳐진 밀반죽은 보자기에서 꺼내 쭉과 함께 방에서 띄운다. 이렇게 이틀쯤 지나면 열을 내며 반죽이 뜬다. 잘 발효된 누룩은 비닐하우스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열흘쯤 말리면 완성이 된다.

본격적인 술 빚기는 쌀을 담가 가마솥에서 술밥을 찌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루에 찐 술밥은 미리 준비해 둔 누룩 가루와 이스트를 넣어 버무린다. 이때 쌀이 한 말이면 누



쭉과 함께 누룩을 띄우는 모습



방 안에서 누룩을 띄우는 모습



룩을 한 되, 물은 여섯 되를 넣는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함께 버무려 자루에 넣은 채로 통에 담아 놓으면 여름철의 경우 15일, 겨울철의 경우 20일 정도가 경과하면 술이 익는다.

술을 익힐 때 자루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다 익은 술의 건더기는 자연히 자루 속에 남고 맑은 술만 피게 된다. 이를 페트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건더기가 없이 술을 하는 건 최근에 생긴 유행이다. 과거에는 삭은 밥알이 포함된 걸쭉한 형태의 술을 마셨지만, 술을 구입해 가는 손님들이 맑은 술을 선호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것이다.

막걸리 먹었지. 옛날엔, 이렇게 말갈게 안 했지. 지금은 말간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옛날엔 물을 타서 먹었지. 이거는 물을 안 타고 바로 발효된 걸 먹는거지. 옛날엔 물을 타서 걸렀지.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가라앉히질 않았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라앉혀서 저렇게 하지. 그걸 좋아해. 지금들은. 옛날엔 그냥 해가지고 떠서 익으면 그냥 떠서 체에다 걸러서 마셨지. 뿌연 거.



술 만드는 도구를 수납하는 서랍장



서랍장에 담긴 보자기들



술밥 찌는 데 사용되는 자루를 보관하는 서랍



술밥을 찌는 가마솥



술밥과 누룩 등을 버무려 고무통에서 숙성시키는 모습



발효 중인 막걸리



만들어 놓은 막걸리를 보관하는 냉장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막걸리

## (2) 장 담그기

장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바로 메주다. 전채옥<sup>3)</sup> 씨의 경우 직접 채배한 메주콩을 사용하여 메주를 만드는데, 수확량이 대개 두 가마 정도씩 된다. 메주는 가을에 썬서 비닐하우스에 매달아 말려 둔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인근 마송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주문을 받아 간장을 담가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판매는 하지 않는다.

### 가. 간장

간장은 대개 음력 2월에 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월 그믐께에 담기도 한다. 음력 2월이 지나 장을 담게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 미처 발효되지 않은 장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주, 물, 소금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소금의 비율이다. 전채옥<sup>4)</sup> 씨는 물 한 동이에 소금 두 되를 넣어 간을 맞춘다. 그러나 요즘에는



3) 전채옥(여, 80세) 제보

4) 전채옥(여, 80세) 제보

장독대에서 손수 담근 장을  
설명하는 전채옥 씨



물동이기가 없기 때문에 세 양동이를 두 동이로 계산하여 소금 닢 되를 넣는 것으로 대중을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장을 담는 시기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필요하다. 조금 이른 정월에 장을 담을 때는 뒷박을 깎아 정확히 닢 되의 소금을 넣고, 2월에는 수북하게 닢 되를 넣어 준다. 소금을 넣고 농도가 적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익히지 않은 달걀이 사용된다. 소금물에 계란이 잘 뜨면 간이 맞는 것이고, 계란이 가라앉으면 싱거운 것이므로 소금을 더 친다. 이렇게 간을 맞추면 메주를 넣는데, 물 두 동이에 메주 석 장을 넣는다.

간장은 물 한 땡(동)이 잡으면은 소금 두 되. 그런데 인제 동이가 시방 어디 있어? 빠개쓰로다가 세 빠개쓰를 두 땡이로 쳐. 두 땡이. 두 땡이 이제 담으면은 소금을 닢 되를 넣어. 근데 정월 장은 딱 굵어서 닢 되하고, 늦게 2월에 담으면 봉긋봉긋하게 닢 되하고 그래요. 그러면 인제 계란 있잖아? 계란을 넣으면 동실동실 떠요. 그러면 간이 맞고, 가라앉으면 싱거운거야. 그래서 두 땡이 잡으려면 메주 세 땡어리 넣고. 그러면 맛있지 뭐.

간장이 거의 익으면 ‘메밀꽃’이라 불리는 일종의 곰팡이가 핀다. 메밀꽃이 피면 간장이 다 익어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메주를 건져내고, 간장을 달여 항아리에 부어 놓고 먹는다.



전채옥 家의 간장



## 나. 된장

다 익은 간장에서 건져 낸 메주에 소금, 물을 부어 된장을 만든다. 이때 된장이 너무 짹짹하지 않도록 물을 잡고, 소금을 넣어가며 간을 맞춘다. 간장을 조금 넣는 것도 된장의 맛을 좋게 하는 방법이다.

메주를 떠서 또 그걸 떠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치고 된장에다 물을 또 한 빠개쓰를 퍼다 부어요. 쪼끔이면 쪼끔 붓지만 많으면은 한 빠개쓰 붓고 멀겁게 해가지고 휘둘러서 해가지고 소금 넣고 해가지고 간봐서 된장을 담가. 물을 좀 넣고 간장도 좀 넣어야지 메주만 하면은 되고 짹짹하다고. 그렇게 하면 된장이 맛이 있다고. 된장이 많으면 소금 더 넣고, 적으면 덜 넣고 간봐서.<sup>5)</sup>



전채옥 家의 된장

정기자<sup>6)</sup> 씨의 경우 간장에서 건져 낸 메주, 소금 외에도 고추씨 빵은 것과 콩과 보리쌀 삶은 것을 더한다. 메주가 한 말이면, 메주콩과 보리를 한 되씩 삶아서 식혀 넣는다. 과거에는 콩이나 보리를 더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된장의 맛을 더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된장이 완성되면 항아리에 담고 된장 위에 굵은 소금을 두껍게 올린다. 이는 된장의 변질을 막고, 벌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방부제가 포함된 시판용 된장을 덜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놔두고 된장 거기 위에다가 소금을 많이 놔 뒀. 그러면 변질도 안 하지만 갓이, 벌러지(벌레)가 안 나요. 그래도 아무케도 벌러지가 나거든. 갓이 나거든. 그러면 저 사는 된장. 사는 된장을 가져다가 위에다 싹~ 덮으면 안 나. 방부제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먹고 하면되지<sup>7)</sup>

5) 전채옥(여, 80세) 제보

6) 정기자(여, 77세) 제보

7) 전채옥(여, 80세) 제보

## 다. 고추장

고추장은 직접 만든 쌀엿,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을 버무려 만든다. 이때 쌀엿은 쌀 열두 되를 찌서 엿기름으로 삭힌 후 다려서 만든다.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 총 스물넉 되를 조청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넣는다.

고추장은 또 엿을 파 나는. 엿을 쌀을 열두 되씩 그것도 엿 고는 것처럼 삭혀 가지고 인제 밥을 해서 찌가지고 방에다가 삭혀. 삭혀가지고 그것도 다려가지고 엿을 고아. 그럼 조청 거진 못 돼.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파. 그럼 스물넉 되야. 그러면 마치 이런 고무다라로 큰 고무다라 한 가마들이로 하나야. 고춧가루 넣고, 메주가루 넣고 그렇게 고추장 담그면. 메주가루를 넣어야 돼. 그렇게 고추장을 담그면 곰팡이도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곰팡 난다고 야단인데 우리는 곰팡도 안 나. 엿 넣고, 고춧가루 넣고, 메주가루 넣고, 소금 간 짹짹하게 해서 간하면 곰팡도 안 나. 고추장 하고 그릇 부시는 건 간장 퍼서 부셔서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sup>8)</sup>



전채옥 家의 고추장

고추장은 그냥 쌀로다 엿을 고아가지고 하면 곰팡이도 안 나고 맛있어. 조청이니까. 엿은, 엿기름을 쳐 놓고 삭으면 달이잖아. 쌀을 찌서 엿기름을 치면 삭아. 말갈게 삭으면 짜서 달이는거야. 달이면 이제 엿이 돼. 그러면 다시 물처럼 멀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춧가루하고, 메주가루하고, 소금하고 쳐서 버무리는거야. 그러면 고추장이 맛있어. 조청으로 하면 변하지도 않아.<sup>9)</sup>

반면, 정기자<sup>10)</sup> 씨의 경우 고추장을 만들 때 쌀이나 보리를 넣는다. 쌀을 뽕아다 풀을 쭈거나 보리를 타서 찐 뒤 아궁에서 며칠 띄워 사용한다. 여기에 고춧가루, 소금, 개복숭아 엑기스를 넣으면 고추장이 되는 것이다.

8) 전채옥(여, 80세) 제보

## 라. 청국장<sup>11)</sup>

청국장은 직접 만들어진 않지만 암 예방에 좋다고 하여 종종 먹는다.

청국장이 암에도 약이래. 텔레비전에서 저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의산데, 산부인과 의사래. 육십넷 먹었대. 근데 의산데 그냥 자기 건강한 거로 생각하고 어디 가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했는데, 배가 좀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하고 뭐하고 병이 두 개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음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다 비위에 맞질 않더라. 그래서 왜 청국장이 먹고 싶더라. 그래서 청국장을 좀 해서 달라 그랬대. 그랬더니 좀 주더라. 그런데 그게 구미가 당기더라지 뭐야. 다른 건 다 음식이 못 먹겠더라. 근데 그 청국장이 구미가 당기더라.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 청국장을 자기 의견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토마토에도 해서 넣고, 밥이고 뭐고 다 청국장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 병이 그 암이 없어졌대잖아. 그랬다 그러더라고. 우리 에미는 일본에서 가져와. 그런데 냄새 안 나더라고. 별나게 이런 데 넣어서 가져왔는데. 우리 에미가 일본서 있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아는 이가 이렇게 해서 붙여. 청국장이 그게 약이래.

## (3) 김치 담그기<sup>12)</sup>

김장은 양력 11월 7일경 맞이하는 절기인 입동을 전후하여 한다. 전채옥 씨는 김장 때 배추김치, 순무김치, 알타리김치, 찐지, 동치미 등을 담근다.

### 가. 찐김치

무에 소금을 많이 넣고 짜게 하는 김치를 ‘찐김치’라 한다. 만드는 방법은 동치미와 동일하다. 하지만 동치미는 싱겁게 담아 겨울에 먹는 반면, 찐김치는 짜게 담아 봄에 먹는다는 차이가 있다. 찐김치는 무를 건져 채를 썰고 물과 파를 넣어 봄에 시원하게 즐긴다.



9) 김상례(여, 77세) 제보

10) 정기자(여, 77세) 제보

11) 전채옥(여, 80세) 제보

12) 전채옥(여, 80세) 제보

짬금치는 소금에다 봄에 먹는 걸 동치미 담그듯 짜게 담가요. 무를. 그랬다가 봄에 먹지. 동치미는 싱겁게 담그고 겨울에 먹고, 짬금치는 짜게 담가서 봄에 먹고 그러는거지. 싱거우면 쉬거든. 그래서 짜게 담가서 짬금치지. 그래서 썰어서 먹으면 봄에 시원하고 좋아요. 파 새로 나온 거 썰어서 넣어 먹으면 맛있어.

## 나. 배추김치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여서 무채를 썰어 만든 소를 버무려 넣어 만든다. 소가 되는 무채는 소금, 파, 마늘, 생강, 갓, 액젓을 넣어 양념을 한다. 하지만 이때 젓갈을 많이 넣으면 김치가 물러지기 때문에 젓갈을 조금만 넣는다.

젓갈 많이 안 넣어. 우리 에미 친정이 저기 전라돈데, 젓갈을 많이 가져와. 그래서 액젓도 많이 가져와서 그런 게 많길래 많이 넣었더니 김치가 물러요. 젓갈을 많이 넣었더니. 그래서 올해는 안 넣었더니 김치가 아작아작한 게 좋잖아. 젓갈을 많이 넣으면 안 좋아. 배추를 절여서 속은 무채치고 소금 넣고 파 이런 거 넣고, 마늘 넣고, 생강 넣고, 갓 넣고 그렇게. 그냥 새우젓만 넣고, 액젓만 찹큼 넣고. 그러면 아주 깨끗해. 액젓을 많이 넣으면 아주 그냥 물러서 순무김치고 알타리김치고 다 그냥 물러. 그래서 안 넣었어. 그래서 작년엔 안 넣고 했더니 김치가 아작아작한 게 좋아.

## 다. 순무김치

순무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총각김치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지만 순무김치는 다른 김치와 달리 단맛을 더 내고, 국물을 잡아 주어야 맛이 좋다. 국물이 넉넉하지 않으면 순무 맛이 강하게 나서 맛이 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념에 액젓, 새우젓 외에도 '감미'라 부르는 단맛을 내는 화학조미료를 약간 넣어준다.

순무김치는 총각김치 하듯 하는데, 그건 좀 달게 하고 국물이 많아야 해. 순무김치는. 되고 뽀뽀하면 순무 냄새나고 뽀뽀해. 국물이 좀 많아야 돼. 그냥 액젓 좀 넣고, 새우젓 넣고, 단 것 좀 넣고. 감미. 그런 것 좀 넣고서 그냥 멀쩡게 해서 간



맞춰서 하면 돼. 순무김치는 그렇게 하는거야. 국물이 있어야 된다고. 순무김치는. 순무는 그 전에는 나 잘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요. 노랑내 나서 싫어. 다른 사람들은 구수하고 그렇다는데……. 우리도 그 전엔 잘 먹고 그랬는데, 이가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순무김치를 봄에 이렇게 찌다가 땅에 묻었다가 해먹으니까 더 낫더라고. 금세 해서 먹은 게 싱싱하고 좋지, 찌다 먹으면 군내나고 맛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먹자고 그러더라고.



이인희 씨의 김치 담그는 모습



장아찌(무생채) 만드는 모습



완성된 깍두기

#### (4) 계절음식<sup>13)</sup>

##### 가. 엿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엿은 겨우내 좋은 간식이 되었다. 전채옥 씨의 경우 쌀엿 외에도 고구마엿, 밀엿 등을 만들어 먹었는데 고구마엿은 쓴 맛이 강하고, 밀엿은 젤리 같아 잘 달라붙지 않는 특징이 있다.

고구마엿을 안 고았나, 밀엿을 안 고았나. 그전에 어려우니까 그런 거 다 고았다고. 고구마엿도 그냥 그전에 고구마도 많이 심궜가지고 많으니까 엿을 파서 그냥 하면 엿이 써. 강냉이를 튀겨서 건넌방에다가 하나를 넣고선 그전엔 삼포 받을 했어요. 우리. 이엿 엿으러 다녔지. 그래 이엿 엿으러 갔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아이들 하고 다 갖다 먹었어. 그걸. 강냉이 엿에다 묻혀 놓은 거를. 그걸 다 먹었냐고 그 쓴 걸. 그전 애들은 먹을 게 귀했잖아. 그리고 밀도 또 갈아서 엿 고구. 그럼 그건 또 젤리 같어. (입)천장에 들러붙지도 않고. 엿도 그런 것도 했지 뭐.

엿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리 담가 놓은 쌀을 시루에 찐다. 찐 쌀에 보리로 만든 엿기름가루를 쌀 한 되에 한 움큼으로 대충하여 넣는다. 엿기름가루를 넣고 버무린 쌀은 고무대야에 담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뜨거운 방에 놓는다. 아침에 버무려 놓은 쌀은 저녁이면 말갱게 삭는다. 이것을 솥에 넣고 끓인 다음 짜낸다. 짜낸 국물을 잘 저어가며 솥에서 달이면 엿이 된다.

##### 나. 만두

만두는 고기를 다져 소를 만드는 고기만두와, 김치로 소를 만드는 김치만두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름철에 애호박을 채쳐서 볶아 만드는 호박만두도 별미 중의 하나다.

13) 전채옥(여, 80세) 제보

## (5) 식재료

### 가. 개복숭아 엑기스

정기자 씨의 경우 단맛을 내기 위해 화학조미료 대신 개복숭아로 만든 엑기스를 넣는다. 이때 사용되는 엑기스는 봄에 채 익지 않은 개복숭아를 따서 흑설탕과 1대 1의 비율로 재워 만든다. 이렇게 재운 개복숭아는 100일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는 엑기스가 되는데 이를 걸러 유리병에 담아둔다. 개복숭아 엑기스는 김치, 고추장 등을 만들 때에 설탕 대신 쓰이기도 하고, 물에 타 음료수 대용으로 마시기도 한다.<sup>14)</sup>

### 나. 산나물

산 속에 자리한 입지 때문에 용강리에는 나물이 많이 났다. 근방에서 채취하는 나물의 종류는 고비, 노랑노비, 참고비, 삼추썩, 버섯취 등 종류도 다양했다. 하지만 근래에는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나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사리를 심어서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봄에 산나물? 뜯었지. 고비니, 노랑고비니, 참고비니. 삼추썩, 버섯취. 취도 이런 데서 난 거는 향이 덜 나는데, 산에서 뜯어온 건 향내가 나고 좋아요. 그런데 허질 못하니까 하는데 향이 적어. 그전에는 여기 나물 많았어. 그런데 나무 너무 커서 없어. 그전엔 내가 고사리를 한 가마씩 뜯어. 산으로 그냥~ 다니면서. 이젠 고사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사다 심켰어. 15만 원 주고 사다가 저기 밖에 심켰어. 이제 내년엔 따야지.<sup>15)</sup>

산 밑이어도 나무가 많아서 없어. 그래서 고사리도 못 꺾어. 그전에 빨간 산이 어야 고사리가 있지, 지금은 고사리도 심어 먹어. 산에 가면 있긴 있는데, 일삼아 누가 그까짓거 조금 뜯으러 가. 안 가지.<sup>16)</sup>

### 다. 두부<sup>17)</sup>

두부는 메주콩이 주재료이다. 과거에는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 사용했지만, 방앗간

14) 정기자(여, 77세) 제보

15) 전채옥(여, 80세) 제보



16) 이인희(여, 72세) 제보

17) 정기자(여, 77세) 제보

을 운영했던 정기자 씨의 경우 집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콩을 간다. 간 콩에다 물을 붓고 가마솥에 끓이는데 끓다가 넘으면 찬물을 조금 부어주고, 뒤이어 간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응고되는 정도를 살핀다. 적당히 엉기면 보자기를 칸 틀에 끓인 콩물을 붓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모양을 잡아준다.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간수는 천일염 자루에서 빠지는 간수를 받아 모은 것을 사용한다.

#### 라. 도토리 묵<sup>18)</sup>

과거에는 마을에 도토리나무가 많아 도토리묵을 많이 쥘어 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이 커서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도토리 가루나, 녹말 가루를 장사꾼들에게 사서 먹는다.

도토리도 여기 많았는데 시방은 도토리 안 돼. 시방은 사서 먹어요. 도토리 그 전에는 몇 가마씩 하지.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커서 안 열려. 그전엔 나무가 쪼고매서 도토리가 많이 열렸는데, 나무가 커서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다 녹말도 다 사고. 녹말 장수들이 와. 불망댕이 녹말 뭐 이런 거. 시방은 사서 하고 안 해.

### (6) 보양음식

#### 가. 돼지족발<sup>19)</sup>

전채옥 씨의 남편 이익현 씨는 올해 감기로 병원 신세를 졌다. 퇴원 후 식욕이 없고 기력이 쇠했을 때 조리된 돼지족발과 돼지뼈를 고아먹고 기력을 회복하였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정정했더랬거든. 그런데 올해 감기로 우리 할아버지도 한 달 가까이 입원했드랬지, 나도 다리 아파서 입원했지. 아주 일을 못해서……. 고추밭도 붙들어 매질 못해서 죄 노루가 뜯어먹고, 도라지도 한 천 평 심겼는데 접때 가보니까 풀이 이렇게 커서 요새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열흘을 땀

18) 전채옥(여, 80세) 제보

19) 전채옥(여, 80세) 제보



기면서 고추밭하고서 도라지 발 다 낮으로 깎고 매고 다 했어. 그래서 앓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도 밥도 못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돼지족발 그걸 먹었음 좋겠다 그래. 그래서 그거 사다가 먹지 뭐해. 그래서 그걸 계속 사다 먹었더니 지방 정정해졌어. 그리고 당뇨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잘 먹지 못해서 병원에서 더 앓았대. 콩나물이고 뭐고 그냥 삶아서 준대. 맹탕을. 그래서 집에 와서 돼지 발목 사서 먹고, 뽕다구 파서 먹고 지금 저렇게 일 해. 여태까지 그래서 근력 찾은 거라고.

## (7) 일상식 - 정기자 씨 맥의 점심 상차림<sup>20)</sup>



점심 상차림



점심식사 준비

20) 정기자(여, 77세) 제보



짬지

#### 가. 짬지

가을이면 짬지를 담근다. 짬지는 항아리에 깨끗이 씻은 무를 넣고 소금을 넉넉히 넣어 그대로 익혀 만든다. 이름 그대로 짹짹하게 익은 무는 봄부터 여름까지 물에 우려 반찬으로 요긴하게 먹는다.



뽕잎 나물

#### 나. 뽕잎 나물 무침

봄에 뽕나무의 어린 새순을 따서 삶아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조금씩 꺼내 소금, 참기름을 넣고 무쳐 먹는다.



오이김치

#### 다. 오이김치

여름철에 많이 나는 오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밥상에 오른다. 이 택에서는 오이를 먹기 좋게 썰어 무치거나 통째로 토막 낸 오이를 십(十)자로 갈라 속을 채워 김치를 담갔다. 한편 늙은 오이를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해 무친 것은 '오양치'라 부른다.

늙은 오이는 오양치 해 먹고, 젊은 오이는 김치 해 먹고. 그렇게 해 먹는 거지 뭐. 시골 식으로. 도시사람들은 다르잖아. 먹는 게.

## (8) 시장

마을 사람들은 식료품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마송장이나 강화장을 이용한다. 마송장은 3·8일에 서고, 강화장은 2·7일에 선다. 규모나 거리 면에서 두 장이 비슷하지만 용강리에서 마송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마송장을 더 선호한다. 이 외에도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군하리장이 5·10일에 서지만 물건이 다양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이용이 많지는 않다.



오양치(늙은오이) 무침

여기는 마송장이나 강화장에 다녀. 강화장에 가나 마송장에 가나 돈은 마찬가지여. 그런데 마송장에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새마을버스가 있어서 그거 타고 마송까지 가면 900원이면 가거든. 마송장이 3일하고 8일하고. 마송장이나 강화장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마송장에도 없는 거 없지. 농협 있고 그래서 괜찮지. 마송장에 많이 다니지. 차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강화장에 가면 돈도 더 들지. 그런데 여기서 새마을버스 타고 그냥 마송까지 가면 900원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에는? 그때는 다 손으로 모내고 그랬잖아요. 사람 한 30명씩 되면 배추는 강화장에서 사 와. 그러면 이고선 여기 들어올려면 무 이런거 배추 이런거 좀 무거워? 그걸 이고서 어디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 해요. 그냥 이고 와. 그러면 별이 뱅뱅뱅. 아유~ 그렇게 살았다고.<sup>21)</sup>

마송. 마송도 가고, 강화도 가고 그래. 마송은 3일, 8일. 강화는 2일, 7일. 군하리는 5일, 10일. 군하리가 제일 가까운데 장사도 얼마 없고 시원찮아. 강화장에 갈 때, 군하리장에 갈 때는 예전에 걸어 땀뻘어요. 근데 지금은 버스가 있으니까. 마송도 버스 타고 가고. 마송이나 강화나 똑같아.<sup>22)</sup>

21) 전채옥(여, 80세) 제보

22) 김상례(여, 77세) 제보

## 2. 불 파마하고 오면 침을 튕튀튀 : 의생활

### (1) 의생활

70~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용강리 사람들은 직접 옷을 사 입기 보다는 자식들이 사다 준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은 대개 생신 때나 계절이 바뀔 때 새옷을 선물한다. 이 중 값이 비싸고 깨끗한 옷들은 잔칫집을 가거나 장에 갈 때 입는 외출복이 되고, 오래된 옷은 밭에서 일할 때 허드레로 입는 것이다.

밭에서 일하는 부녀자들은 대개 몸빼 바지에 긴소매 남방 등을 입고 밀짚모자를 쓴다. 남자들 역시 비슷한 차림으로 들일을 하는데 밀짚모자를 쓴 부녀자들과 달리 농약사에서 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밭에서 일할 때는 밀짚모자 쓰지. 그래도 뭐 다 타는걸 뭐. 얼굴이 시커멓고 늙어서 검버섯이 다 생긴걸 뭐.<sup>23)</sup>



23) 김상례(여, 77세) 제보

고추선별 작업 중인  
박춘옥-김영화씨 부부





‘팔콘’이란 제품명이 적힌 모자



이영례 씨 - 빨래건기

농협이나 농약방에서 주는 모자 쓰지 몰 사서 쓰나? 그런데 가서 뭐 사면 주고 그러잖아. 여자들만 밀짚모자 사서 쓰지.<sup>24)</sup>

## (2) 파마

전채옥<sup>25)</sup> 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불 파마’라는 것을 하였다. 당시에도 양곡<sup>26)</sup>에는 지금의 미용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가느다란 숯을 달궈 머리카락을 말고 집게로 집어 파마를 하는 방식이었다. 직접 불에 달군 숯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카락이 타서 머리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였다.



김상례 씨 - 밭일

나는 양곡 가서 했어. 마송엔 그때 뭐 있었더라? 양곡 가서 했지. 불 파마 이렇게 해서 어쩔 땐 잘못하면 한 군데가 동그랗게 될 때도 있어. 그거 똥똥 말아 놓은 거에 머리가 없어져요. 타서. 그래서 한 군데가 없어져요. 땀통이 되지.

또 당시 이웃에 살던 할아버지가 파마하고 온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24) 박춘옥(여, 60세) 제보

25) 전채옥(여, 80세) 제보

2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불 파마 하는데, 시방 뚱뚱한 그 할머니 시아버지가 사나워. 저 아래 살다가 우리가 일로 나왔는데, 그 옆에 자기네 집인데. 친정에 갔다가 불 파마하고 오면 그 할아버지가 ‘튀튀튀튀’ 하고 나한테 침을 뱉었어. 머리 파마하고 왔다고. 건방지다고. (웃음) 그전에는 자기 며느리는 그때만 해도 쪽졌거든. 근데 내가 불 파마하고 오면 침을 ‘튀튀튀튀’ 뱉었어. 건방지다고. 그런 세상이었어. 옛날 얘기지 정말. (웃음)

이인희<sup>27)</sup> 씨의 경우 처녀적부터 대곶에서 파마를 하였다.

27) 이인희(여, 72세) 제보

### 3. 안방이 제일 중요한 곳 : 주생활

가옥을 이루고 있는 여러 공간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행위에 주목한다. 주생활의 변화는 사회문화적, 가족형태, 경제적,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이념과 생활방식 등의 요인이 맞물려 있다. 용강리 마을의 집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 (1) 용강리 마을 주생활의 변화

용강리에서는 강령포구에 형성된 마을과 아랫말, 용림말에 주로 가옥들이 위치하였다. 강령포구는 “한강의 5포에 드는 큰 포구”였으며, 아랫말과 용림말은 문수산을 등지고 앞에 넓은 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용못으로 인해 가뭄이 들지 않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용강리는 김포 내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나 있었다.

용강리에서는 한국전쟁으로 강령포와 아랫말 주민들이 소개되어 마을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변화하게 되었다. 용림말 주민들은 이주하지 않고 예전부터 살던 곳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아랫말과 강령포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 타지로 떠나거나 먼지락에 새롭게 집을 건축하여 살게 되었다. 기존의 먼지락에는 4가구 정도만 살고 있었으나 아랫말과 강령포 주민들이 이주해오면서 용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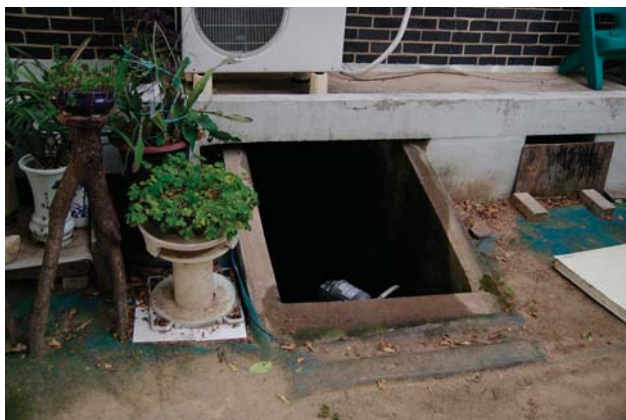
1970년대 소개된 주민들 가옥1



1970년대 소개된 주민들 가옥2



새마을 가옥 건축 사진



새마을 가옥에 있는 방공호

다. 이러한 이유로 먼지락은 새롭게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며 고가를 찾기 어렵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지붕개량과 가옥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가집의 경우 대부분 슬레이트와 함석지붕으로 바뀌었다. 주로 슬레이트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으며, 함석지붕은 슬레이트 지붕보다 좀 더 고급의 지붕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문수산 기슭에 있던 가구들이 소개되어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에는 외파로 떨어진 집들을 간첩들이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소개였다. 대신 소개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먼지락에 단체로 이주할 집들을 만들어 주었다.

1980년에는 먼지락과 용림말 사이의 고개에 새마을이 만들어졌다. 새마을은 당시 '적 가지지역'으로 불리며 북한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양육을 고급스럽게 지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집 내부에 방공호를 함께 설치하였다. 당시 새마을에는 용강리에 살던 주민들이 주로 들어와 살았으며, 이로 인해 마을 내 주민들이 연쇄적으로 마을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용강리에는 다른 농촌 마을과는 달리 마을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마을의 건립은 용강리의 많은 가옥들이 양육으로 변환하거나 입식형태로 구조를 변경하게끔 유도하기도 하였다. 개축으로 인한 현재 용강리의 가옥구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용강리 가옥구조 현황

가옥		층수		가구 수	비율
지붕양식	벽체양식	1층	2층		
양옥		37	8	45	56.96%
조립식		4		4	5.06%
슬레이트	시멘트벽	4		4	5.06%
	흙벽	1		1	1.26%
	벽돌				
함석지붕	시멘트벽	14		14	17.72%
	흙벽	2		2	2.53%
	벽돌	2		2	2.53%
기와	흙벽				
	시멘트	2		2	2.53%
	벽돌	5		5	6.33%
계		71	8	79	100%

## (2) 용강리 주민의 주생활 변화 사례

### 가. 이영례<sup>28)</sup> 씨 가옥

이영례 씨는 용림말로 시집을 온 이후 평생을 한 집에서 살고 있다. 혼인 후 시부모님과 시동생, 이영례 씨 부부가 현재의 가옥에서 함께 살았다. 이영례 씨의 남편이 만이였기 때문에 집을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영례 씨가 살고 있는 가옥은 시부모님이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에 건축하였다.

우리 영감이 나랑 동갑이었거든. 그런데 영감이 3살 때 이 집을 지었다고 했어. 시아버님이 둘째였거든. 그래서 살림 나온다고 이 집을 지은거야.<sup>29)</sup>

이영례 씨의 시아버지가 처음 가옥을 지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나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큰 나무가 떠밀려와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집을 지었다. 예전에는 상량에 상량문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다.



28) 이영례(여, 8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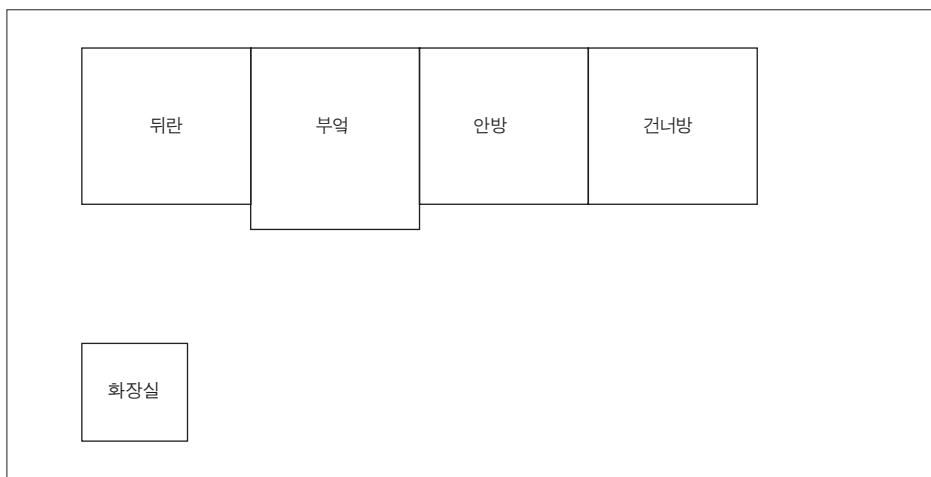
29) 이영례(여, 85세)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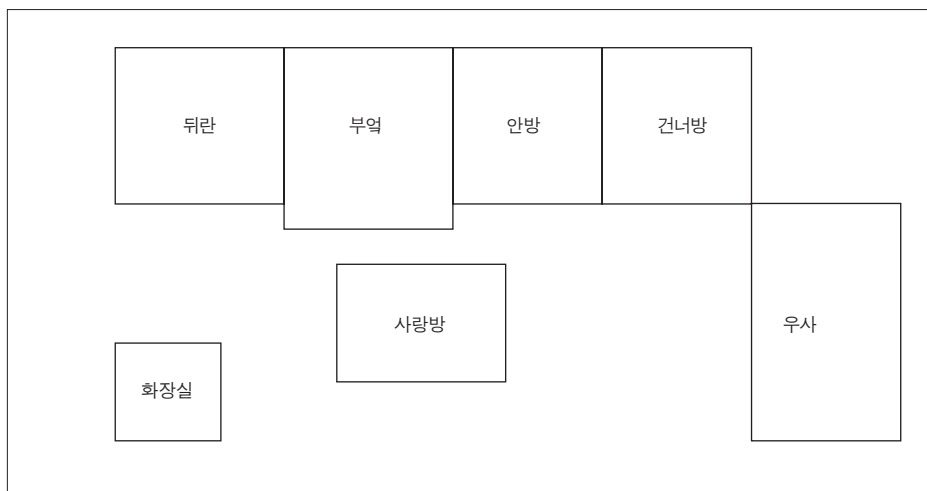
이영례 씨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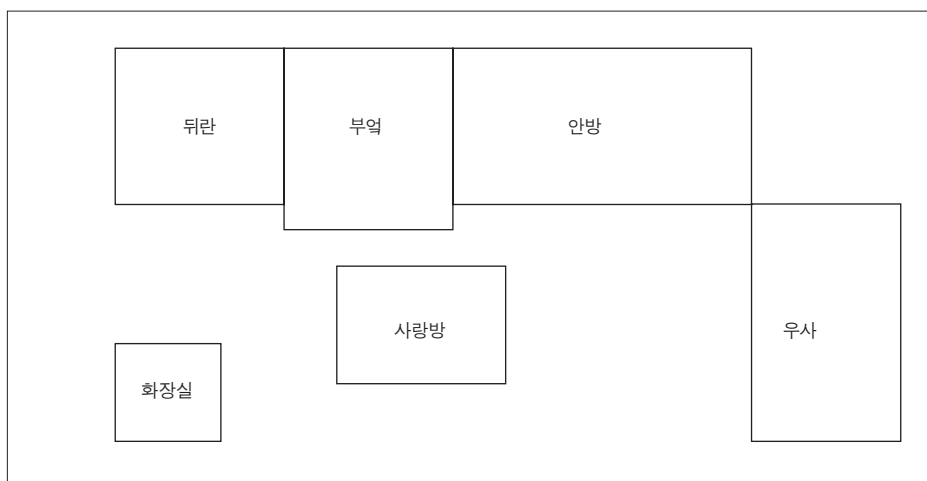
1940년대 이영례 씨 댁  
가옥구조



이영례 씨가 시집을 당시에 가옥은 ㄱ자 형태였다. 안방과 건너방이 가로로 위치해 있었으며, 부엌이 세로로 길게 내려와 있는 형태였다. 이영례 씨는 처음 건너방에서 거주 하였으며, 안방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이 함께 살았다.



1950년대 이영례 씨 댁  
가옥구조



현재 이영례 씨 댁 가옥구조

이영례 씨가 혼인 후 자녀들을 낳으면서 점점 집이 좁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영례 씨가 남의 밭을 매어주고 품값을 받은 것을 모아 송아지를 사게 되었다. 그래서 집의 거주공간도 넓히고 가축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게 되면서 1950년대에 사랑방과 우사를 짓게 되었다. 가옥을 확장하기 위해 사랑방과 우사를 지으면서 집의 구조가 현재와 같은 ㅁ자 형태가 되었다. 가옥을 확장한 이후에는 사랑방에 주로 시아버지가, 안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게 되었다. 시동생들은 사랑방과 안방에 나누어 살았으며, 이영례 씨 부부는 건넌방에 계속 거주하였다.

시동생들이 모두 혼인으로 출가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영례 씨 부부는 안방에 거주하게 되었다. 건넌방은 자녀들의 방으로 사용하였으나, 자녀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면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영례 씨 가옥 바닥 보일러 공사



이영례 씨 가옥 바닥 보일러 공사

1990년대에 들어서 이영례 씨는 가옥을 입식으로 변경하였다. 아궁이를 모두 없애고 기존 부엌의 공간을 나누어 입식부엌과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안방과 건너방을 가르던 벽을 허물어 방을 1개로 만들고 기름보일러를 들여왔다. 가옥을 입식으로 변경한 것은 자녀들이 이영례 씨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주로 사랑방에서 머물고 있다. 이영례 씨의 가옥공간 이용에서 안방은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었다.

아이구, 그럼. 안방이 쟈 중요하지. 뭇 한거는 안방에서 다 하니까. 안방이 쟈로 중요하지.<sup>30)</sup>

예전부터 제사나 고사를 지낼 때 모두 안방에서 지낸다. 집안에 상이 났을 때도 시신은 안방에 두고 상을 치렀다. 자녀가 태어나도 안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너방은 자녀가 결혼했을 때 내어주는 방으로 사용한다. 이영례 씨의 가옥은 처음에는 사랑방이 없었으나 사랑방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시아버지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아 가장 어른이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이영례 씨도 사랑방에 주로 거주하는데, 마을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외부인과의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0) 이영례(여, 85세) 제보



## 나. 이제응<sup>31)</sup>씨 가옥

이제응 씨는 용강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용강리에서 살아온 토박이이다. 원래는 샘골 인근에 살았으나 한국전쟁으로 소개되어 나와 먼지락에 살고 있다. 먼지락에서 집을 지을 때 샘골에 살던 가옥구조와 동일하게 지었다. 전체적인 모습은 ㅁ자 형태로 건너방과 안방 사이에 마루를 두고, 안방의 끝에 부엌이 있었다. 사랑방과 헛간이 각각 독채로 있었다.

샘골에서 거주할 때는 안방에서 모든 식구가 함께 살았다. 이제응 씨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방에서 이제응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이 함께 거주하였다. 건너방은 나무를 쌓아두거나 창고로 사용하였다. 사랑방은 ‘말꾼들 방’이라고 하여 마을사람이나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 사용하였다. 이제응 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19세에 결혼하였다. 결혼 후 이제응 씨 부부가 건너방을 사용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소개되어 먼지락으로 이주하면서 집을 새로 지었으나 가옥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을 뿐 샘골의 가옥구조와 동일하게 지었다. 자녀들은 이제응 씨와 함께 건너방에서 거주하였으며, 어머니와 동생들이 안방에서 거주하였다. 동생들이 모두 결혼한 이후에는 어머니 혼자 안방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응 씨가 안방을 사용하였다. 자녀들도 함께 안방을 사용하였으나 딸들은 간혹 건너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면서 타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건너방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974년에는 기존의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집을 새롭게 지었다. 이전의 건물이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이라 비가 많이 오면 집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어 블록으로 집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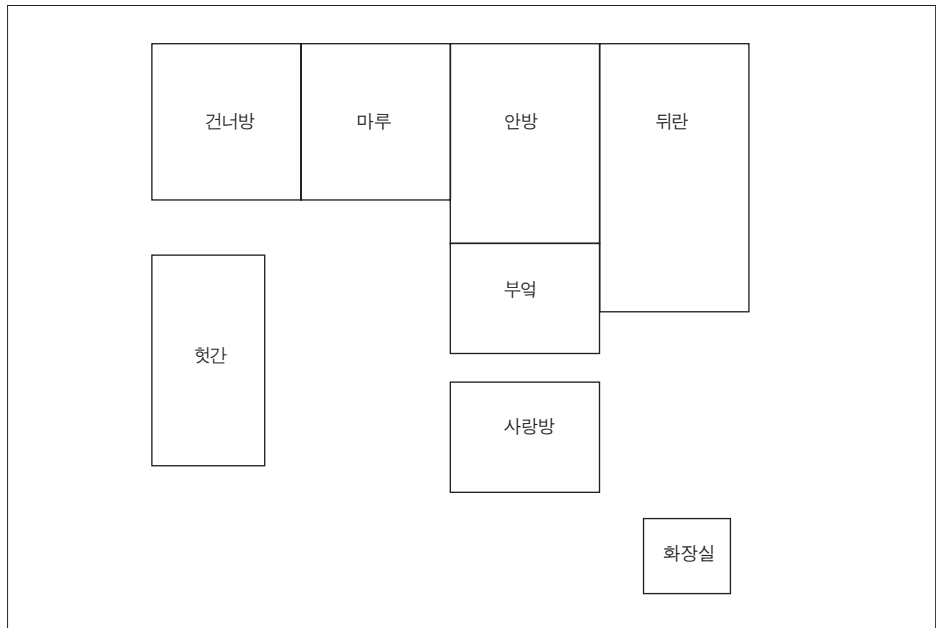


이제응 씨 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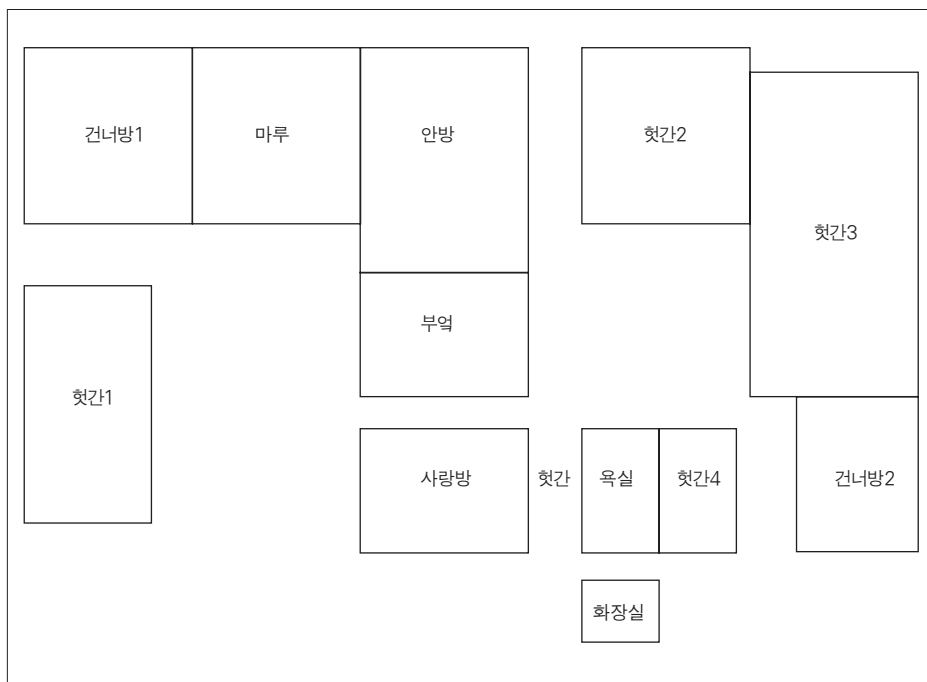
31) 이제응(남, 86세)

처음 먼지락에 지은 가옥구조



지붕은 슬레이트로 했으며, 부엌은 아궁이가 있는 옛날 형태와 동일한 부엌이었다. 가옥의 크기는 좀 더 커졌으나 예전에 살던 건물과 구조는 거의 비슷하였다. 대신 뒤란이 있던 곳에 헛간과 욕실을 짓고 건너방을 한 채 더 지었다. 헛간 2에는 주로 벼 가마니나 곡식 가마니를 보관하였다. 그리고 절구를 헛간 2에 두어 필요할 때 곡식을 찧어먹었다. 헛간 3에는 목수일을 하던 이제웅 씨가 사용하던 연장들을 주로 보관하였다. 헛간 4는 방의 형태로 지었으나 여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건너방 2도 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물품을 보관하였다. 욕실에는 변기가 없어 용변은 밖의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대신 세면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욕실을 이용하였다.

집을 새로 지은 해에 이제웅 씨의 아들이 혼인을 하여 건너방 1에 살게 되었다. 1년 정도 함께 살고 아들이 세상을 나갔는데, 이때부터 건너방 1도 사용하지 않고 그릇이나 잡다한 기물을 두는 광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고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보일러는 사랑방에는 설치하지 않고 안방과 건너방 1에만 설치하였다. 이제웅 씨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기존의 가옥구조에서 생활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2003년에는 헛간 한 채를 없애고 그 자리에 조립식 양옥 건물을 지었다.



1974년 새롭게 지은 가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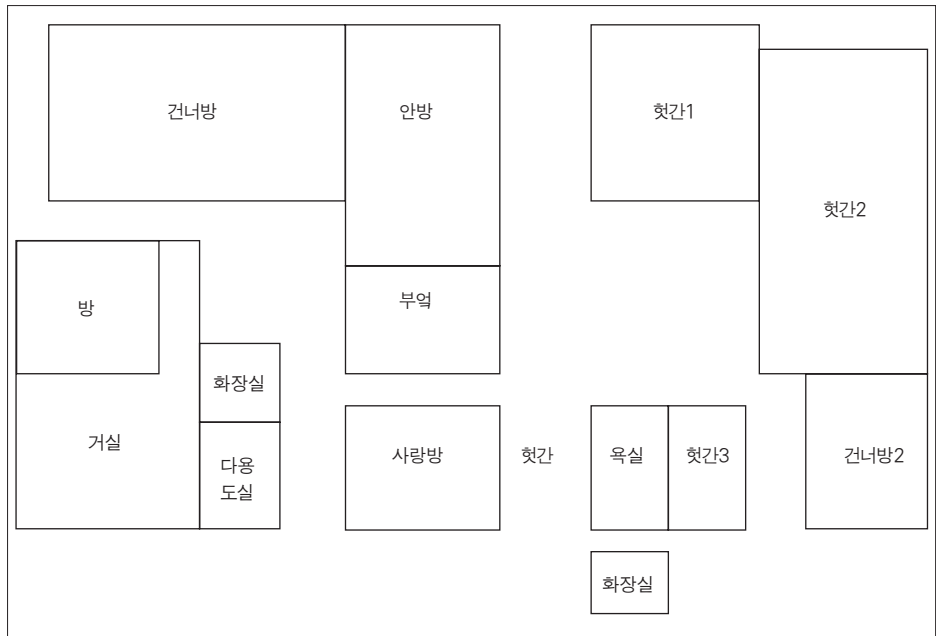


욕실쪽에서 바라본 헛간 2, 3



헛간 3에서 바라본 욕실과 부엌

현재 이제응 씨 가옥구조



조립식 건물은 방 1칸과 거실 1칸, 화장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다. 거실과 방이 연결된 복도에는 예전 건물과 연결된 문이 있다. 현재 이제응 씨는 조립식 양옥건물에서 대부분 생활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거실에서 침구류를 두고 생활을 하며, 겨울에는 방에서 생활을 한다. 특히 화장실이 건물 안에 설치되어 야외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조립식 집수리〉

2003년 5월 시작, 6월 30일 입주  
건축비 총 2,000만원에 계약

#### 〈자부담〉

상량 10만원, 신발장 25만원, 욕조 30만원, 전기가설 25만원, 행마무리 10만원,  
가스설치 15만원, 보일러공 10만원

총계: 125만원 (도합 2,125만원)

책임자 김성권

인부 오상빈

2003년 조립식  
양옥건물 건축비용



이제옹 씨의 가옥공간에서 제의와 관련된 것은 안방과 마루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안방에서 지내며 제사상을 아랫목쪽에 둔다. 그리고 안방과 마루 사이에는 성주기둥이 있었다. 성주기둥은 상량보를 말하는데 상량을 올릴 때 이곳에 북머리를 매달아 두었다. 성주기둥에는 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마루에는 큰 독을 두고 쌀을 담아두었는데 이것을 '진동독'이라고 불렀다. 평소에 먹는 쌀은 헛간에 보관하며 진동독의 쌀은 제사나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다. 대부분 가족은 안방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자녀가 혼인하였을 때 부부가 건너방을 사용하게 하였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다시 안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방은 '말꾼들 방'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집에 들렀을 때 사용하는 방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 (3) 마을에 남아있는 옛 집들

#### 가. 용림말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101-28번지)

101-28번지 가옥은 용림말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지어진 지 100년이 지났다고 한다. 101-28번지 가옥은 정해철 씨 소유로 되어 있다. 정해철 씨는 외지로 나가면서 집을 팔고 나갔으나 다시 구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에 살지는 않고 가끔씩 들러 쉬어가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정해철 씨가 잘 오지 않아 현재 집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지금은 빈집이 되어 집이 볼품이 없고 많이 허물어졌으나 과거에는 주변의 집들보다 크고 잘 지어진 집이었다고 한다. 특히 예전부터 양반이 살던 집이라고 소문이 났으며, 이 집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공직자와 경찰이 되었다고 한다.



101-28번지 가옥



101-28번지 가옥

## 나. 먼지락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

먼지락의 가옥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 연대가 오래된 집들이 드물다. 먼지락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도 한국전쟁 이후 지어진 것이다. 이 가옥은 먼지락의 가장 북쪽에서 두 번째 가옥으로 윤자춘 씨가 지었다고 한다. 윤자춘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외지에 나가있어 현재 빈집인 상태이다.



먼지락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

#### 다. 12번지 일대 가옥

면지락의 12번지 일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지어진 집들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2번지 이재목 씨 가옥은 이재목 씨가 최근까지 거주하였다. 현재는 이재목 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외지에 머물면서 가끔 집에 오고 있다고 한다. 12-1번지 김옥희 씨 가옥은 황병주 씨가 처음 지은 집이라고 한다. 이후 가옥을 입식으로 개축한 이후 1990년대에 김옥희 씨가 이사를 왔다. 12-2번지 강창순 씨 가옥은 이인용 씨가 처음 지은 집이라고 한다. 강창순 씨는 외지에서 마을로 들어왔으며, 가옥은 현재 입식으로 개축한 상태이다.



12번지 이재목 씨 가옥



12-1번지 김옥희 씨 가옥



12-2번지 강창순 씨 가옥



아흔아홉 골과 논에 이름이 있는 마을





## 제9장 마을사람들의 여가생활

1.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들
2. “어디 넘쳐 어허요” : 노랫소리
3. “치군놀이” 구경 : 민속놀이



## 1.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들

기록물로 남겨진 글이나 책은 역사적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 그러나 기록물로서의 글이나 책을 통해 민중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책보다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노랫소리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절실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용강리에도 이러한 이야기와 노랫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몇 분의 기억 속에서 찾아내었다.

### (1)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

#### 가. 용아가리 이야기

용아가리는 예전 아랫마을 앞 넓은 논 건너편에 길게 늘어선 산의 형국을 이르는 명칭이다. 산의 모양이 마치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모습과 같다고 하여 용아가리라고 부른다. 이 용아가리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한다.

여기는 용아가리.

용아가리요?

그래, 용아가리. 여기에 험곡이 있는데 이게 용의 혈이고, 용의 혈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의 입모양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용아가리라고 부르는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형국이 지금 군인 고지가 있는 곳이 개구리형이야. 그래서 용이 개구리를 잡아 먹으러 가는 형국인데, 여기에 다리를 놓으면 여기가 망한다고 했어. 그래 지금 다리를 놓고 다 망했어. 6.25때 다리를 놓으면서 싹 다 망했지.

그게 무슨 말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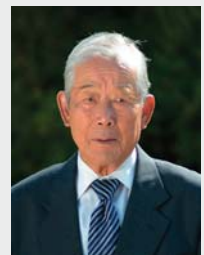
그러니까 예전 전설이 이게 용의 아가리인데, 여긴 개구리형이야. 용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데 여기 다리를 놓으면 여기가 망한다고 했어. 그런데 6.25 나면서 군인이 다리를 놓고 그러면서 이 동네가 싹 피란 나가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망한거지. 옛날 도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한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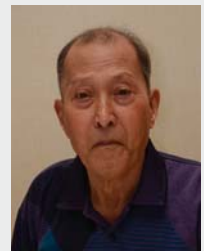
그래서 용의 아가리에다가 강화 최서방네서 산소를 썼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한번씩 왔다 갈 때마다 사람 하나씩 죽어. 실지로. 그래서 지금 안 와. 집안에서 거기 산소 쓰고 난 이후로 거기 안 와. 이건 실제 있는 이야기야. 요기 중간에 보면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 거기 해마다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거기 절을 지으면 사고가 안 날거다라고 해서 지금 절이 하나 있어요. 호국사라고. 그거 우리가 관리해. 거기는 그거 있고 사고가 안 나요. 여기가 신기한 동네야.<sup>1)</sup>

강령포가 시방은 다 논되고 밭되서 집이 하나도 없지만 삼백여 호가 살았대. 그 전 할아버지 시절 아버지 시절에. 그렇게 살았는데 강령포 사람들이 옛날부터 돈을 잘 버니까는, 배에 다니니까 뱃사람들 돈을 잘 벌잖아. 그러니까 부락에서 유리하게 개굴창을 이리 돌리자. 돌리구선 앞으로 부락 앞으로 개굴창 난 것을 쏘어 메우면 거기 집도 짓고 마당으로 쓰고 다 쓰잖아. 그래 그걸 한다고 강령포 사람들이 용의 아가리를 깨뜨린거지. 곡괭이, 징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깨뜨린거여 용의 아가리를. 물 내려가라고 터 놓는거지. 그런데 거기서 피가 나더라니 뭐야. 그래서 그냥 포춘사람들이 배에만 나가면 배를 뒤집어엎고 그냥 풍랑만나서 배 파산하고 죄 물에 빠져 죽고. 되는 거 없이 그런거지. 그래 용의 아가리라서 그런건데, 그 용의 혈이래. 저 앞산 저게. 용의 혈인데 거기가 용의 아가리라는거야. 그래 용의 입을 찢어서 그렇게 피가 나고 그래서 동네가 망했다고 여태까지 그런거야. 그리고 용의 아가리에다가, 아가리 속에다가 산소를 하나 썼거든. 그게 물 건너 풍덕사람이 쓴거래. 그런데 산소 터는 참 좋은거래. 그런데 산소를 오지를 못 해. 왔다 간 집은 사람이 죽어. 그래 용이 잡아먹는 형국이다 이 말이야.

용의 아가리에다가 묘를 써 놓고 묘 쓴 사람이 자식들이 가기만 하면 죽는거야.<sup>2)</sup>



1) 이익현(남, 84세) 제보



2) 이제웅(남, 86세) 제보

## 나. 도깨비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용강리에서 전해지는 도깨비 이야기는 도깨비를 실제로 겪은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이 저지른 일을 도깨비의 소행으로 오해한 이야기가 함께 전한다.

그리고 옛날에 여기 고개 넘어 갔다가 도깨비 만나 씨름했던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다 하는 소리야.

들어 보신 거 있으세요?

우리 큰댁 아주버님도 한 번 문턱고리라고 있어요.

문턱고리요?

거기가 친정인데, 우리 형님 저쪽 넘어 살고, 우리 형님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데, 도깨비가 달려들지머야.

여자한테?

그 아주머니한테.

밤에요?

밤에, 도깨비를 잡아 패서 쓸어 넘어뜨려 놓은거야. 쓸어 넘어뜨려 놓고서는 채 놓고가 나무에다 붙들어 댔단 말이야. 그 이튿날 자고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냐고 가서 보니까는 빗자루 몽덩이들이 있어.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sup>3)</sup>

도깨비라는 게 없다는거야. 예전에 이 아래 포촌이 지금은 시방 다 논되고 밭 됐지만 거기 300여 호가 사는 대촌이었어. 포촌, 뱃사람들이 사는 데, 그렇게 뱃사람들이 많이 살았지워야. 그런데 불이 자주 나는거야. 저녁마다 그냥, 매일, 그래 이게 도깨비불이다. 사람이 놓을 까닭은 없구. 원수진 사람도 없구. 불 낼

3) 이제웅(남, 86세) 제보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래 도깨비불이라고 했는데. 그래 노인네들이 이게 도깨비장난이지 사람이 왜 이렇게 남의 집에 불을 놓냐. 그래 도깨비라 그랬거든. 시방은 주임이라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주재소에 뭐라 그래. 그 사람이 세상에 도깨비란 게 없다, 사람의 짓이지. 그래 나와서 잠복을 한거야, 불나는 곳에. 그래 밤새 잠복을 하니깐 웬 처녀가 집에서 나오더니 남의 집에도 불을 놓더라니 뭐야. 그래서 잡은거지. 잡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남의 집에 불을 놓냐.”라고 했더니 불을 놓으면은 아줌마들이 죄 물동이 이고 나와서 물 길어 나르고 하는 게 불만 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너는 어떻게 했냐니깐 나도 같이 길어 날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깨비라는 것이 없다는거야. 그래 도깨비란 것이 마음이 허한 사람, 오장이 찬 사람이 있거든.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속이 허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자꾸 꿈에 뭐가 보이고 밤에도 깜깜하면 뭐가 보이고 그걸 가지고 도깨비라 그러는데 도깨비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서는 감옥에 갇다 가봤는데 그전에는 잠도 안 재우고, 잠 잘 시간을 안 준거야. 감옥에도 잠 잘 시간을 주는데, 남의 집에 그렇게 한 죄는 살인죄가 되어서 잠 잘 시간이 없대. 큰 죄가 되어서.

남의 집에 불 지른 죄인은 잠 잘 시간을 안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앉아서 잠도 못 자고, 앉아서 감옥 속에서 죽었어요.<sup>4)</sup>

4) 이익현(남, 84세) 제보

## 다. 소 이야기

소는 예전에 집안에서 큰 재산 가운데 하나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축이었다. 용강리에서도 소를 많이 키웠던 만큼 소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예전에 유도에 논이 3000평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 아버지가 배를 부리니까, 거기 샘이 있어도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장맛비가 많이 와야지 거기는 모를 내거든. 비가 갑자기 오면 그럼 갑자기 이 부락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모를 내요. 그런데 거기 두 가구가 살았었어. 강령포에서 아버지가 배타고 가고 그랬는데 이 아침에 가서 소를 끌고 가놓고선 모를 내고 해가 저물었는데 소를 찾으니까 소가 없어.

소를 잃어버린거네요?

풀이 많으니까 그냥 놔둔거야 붙들어 매지도 않고, 애가 들끓는거지. 소 한 마리 잃어버리면, 예전에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이거든.

그렇죠. 소가 큰 재산인데.

찾다가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내일 아침에 찾자고 왔어. 건너왔어. 근데 집에 오니까 이 소가 외양간에 와 있는거야. 소가 거기서 헤엄쳐서 건너 온거야.

소가 헤엄쳐서 혼자서 나온거네요?

소도 그렇게 자기 집을 알아. 그런데 그게 6.25전에 그 논을 우리가 팔았지. 그래서 더 농사는 못 짓고 그런데, 지금은 농사도 못 짓고 그러고 있지.<sup>5)</sup>

할아버지, 그러면 옛날에 여기 소 많이 키웠다고 하던데, 소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게, 소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거야.

소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요?

5) 황형주(남, 73세) 제보

그래. 옛날에 소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 그래 주인이 어떤 사람이 으쓱한 산골짜기로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앞발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두 팔로 안는 시늉을 하며) 안더라지 뭐야. 소가 이렇게 자꾸 안으니까 그래 땅바닥으로 엎드렸대. 엎드리니까 여기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 있고(품에 안는 시늉을 하며) 숨어있는거지. 그래 이제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람을 물려고 그런데 소가 받는거야. 그래 한 번 받아서 한 번 올라가니깐 밑으로 떨어지지지를 앓더라. 그냥 내려오면 비추고 있고 또 들이받으니까. 그래 호랑이가 만신창이가 돼서 호랑이가 죽더라. 그래서 호랑이보다도 소가 더 무섭다고.

아, 소가 호랑이를 계속 들이받아서, 떨어지기 전에 또 받고 그렇게 한거네요? 무슨 만화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지. 그렇게 소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거야.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옛날 할아버지들한테 들은거지.<sup>6)</sup>

소 먹이면, 예전에는 소를 가지고 밭 갈고 논갈고 했잖아. 소를 먹이면 여기 황소들이 전부 다 사나워서 사람을 박고 그랬다고.

황소가요?

응. 그게 여기 물이 세서 그렇다던데. 여기 물이 철분이 많아서, 여기 물을 먹으면 황소가 그렇게 사납대. 그런데 이제 농사 지을 때 소를 안 먹이지.<sup>7)</sup>

6) 이제응(남, 86세) 제보



7) 정해은(남, 73세) 제보

## 라. 산적 이야기

용강리는 마을 뒤편으로 문수산이 험준하게 서 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 용강리에 들어오는 길이 도로도 넓고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산세가 험하여 산적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 문수산에 산적이 있었어요.

산적이요.?

여기 당고개라고. 예지원 있는데.

예지원은 뭐예요?

왜 마을 들어오다 보면 가게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다 밤나무 밭이거든. 다 밤나무가 서 있으니깐 도둑놈이 숨어 있다가 소 팔아가지고 오는 놈 있으면 나와서 돈 뺏고 그랬대. 예전에는 거기가 그냥 숲이지. 나무가 꼭 찻지. 거기 집 있고 그런지 오래지 않아. 6.25때 이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가 왜놈들의 땅인데 거기서 이북의 피난민들이 거기 밭을 만들어 살았지. 도구도 없으니깐 큰 가래를 하나 만들어서 가래 하나에 10명이 모여서 땅을 만들었지.<sup>8)</sup>

8) 이제응(남, 86세) 제보



## 2. “어디 넘쳐 어허요” : 노랫소리

### 가. 상여소리

용강리에서는 상포계가 활발했던 만큼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상여소리도 잘 전해지고 있다. 용강리 선소리꾼으로 인근에 알려진 이제응 씨가 생존해 있다. 이제응 씨의 상여소리는 회심곡을 기본으로 하며, 상여가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부르기 때문에 노래를 끝이 없이 계속해 이어 부른다. 그리고 달구질 할 때도 소리를 하는데, 상여소리와 달구질 할 때 부르는 소리가 거의 같다. 그러나 상여소리는 매기는 소리를 4박자로 부르고 받는 소리를 4박자로 부르지만 달구질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는 같은 가사를 매기는 소리 2박자로 부르고 받는 소리를 2박자로 부른다. 받는 소리 사설도 상여소리의 경우에는 ‘어허 어허요 어디 넘쳐 어허요’라고 하며, 달구질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의 사설은 ‘어허리 달구’이다.

#### 이제응 씨의 상여소리<sup>9)</sup>

우리인생 태어날 때 뉘덕으로 태어났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어머님전 살을 빌고 아버님전 뼈를 빌어,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십삭만에 탄생하여 거역접에 떨어지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진자리에 어머니 눕고 마른자리에 골라 뉘며,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애지중지 기르신 공 어느새에 다 갚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한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공 못 다 갚고,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잔약하고 약한 몸의 태산같은 병이 드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부르느니 어머니요 찾는 이는 애비로다,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무녀들이 곁을 한들 곁 덕인들 있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장이늘어 경을 읽은들 경 덕인들 있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삼신상 불사약도 백약이 무효로다,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일촉사자 손을 걸고 월척사자 등을 밀며,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어서가자 재촉하니 원통하고 슬프도다,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여보시오 사대입네 이 내말씀 들어보소,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9) 이제응 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만 채록이 가능하였다.

신발이나 골라신고 허리끈 좀 졸라매고,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주저앉아 애걸한들 어느 사자 들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천둥같이 울러메며 육척장금 번쩍들고,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십리만큼 물러설 때 오리만큼 다가서며,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천둥같이 호령하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화살같이 달려가서 저승문을 당도하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저승사자 묻는 말이 무슨 공덕 하였느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밥이 없어 굶은 사람 밥을 쥐서 공덕했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옷이 없어 벗은 사람 옷을 주어 공덕했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반대걸구 모은 재산 먹고간들 쓰고 가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sup>10)</sup>

#### 나. 장가 못 간 총각이 부르는 노래

그게 총각이 인제 노래를 부른거야. 장가를 들게 해다오 그러는데, 그 노래는 그 사람이 뭐로다 했나 하면은, 그 사람이 장가를 못 들고, 들래야 들 수가 없어. 돈이 없고, 늙었고 그러니까 노래를 산촌에서 한번 부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항해도 봉산 구월산 밑에 약초 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이는 어느 메길래 해가 저도 아니가나  
 나의 집이는 실실실 실안개 속에 초가삼간이 나의 집이니  
 맘에 있걸랑 날 따라 오고 맘에 없걸랑 미끄러져라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아  
 창창한 하늘에 찬별도나 많고요  
 요 내 나 가슴엔 좋다 수심도나 많구나

이게 장가 못 간 총각이 지은 노래야. 그런 노래야. 옛날 역사야.

이런 노래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다 말다 하면서 나도 이게 귀가 보배라. 나 그러고 보면 이거 들은 지도 몇십 년인데. 나 정신도 〈좋아〉.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어디서 한번 부르니까. 아니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장가 못 든 놈이 하나 〈그 속에〉 들었어. 저 바짝 달겨 들더니 할머니, 그 노래 어디서 누가 했냐고 그래. “아니 누가 한 건 알아 뭐해? 벌써 목적지가 보면 알잖아. 그 노래가 목적지가 있잖아. 그래 누가

10) 이제웅(남, 86세) 제보

불렀을 것 같애? 구월산 밑에 약초캐는 저 처녀가 오죽해야 그걸 불렀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 정신도 좋아.” (그러더라고). 그것도 다 역사여.<sup>11)</sup>

#### 다.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이 높으신 사랑 사회와 같이 도나 깊은 사랑  
칠 년 대하 감으신 날에 깃발같이 도나 반긴 사랑  
창명하에 양극이요 이도령에는 춘향이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 하리로다<sup>12)</sup>



11) 이영래(여, 85세) 제보



12) 윤수희(여, 80세) 제보

### 3. “치군놀이” 구경 : 민속놀이

과거 마을 주민들의 큰 여가생활은 치군놀이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매해 정월대보름에 강령포에서 치군놀이를 행했는데, 특히 강령포의 치군놀이는 3단까지 무동을 업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현재 치군놀이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주민은 없으나 모두 치군놀이를 구경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겨울에도 놀 시간이 없어. 소여물 쥐야지. 여물 썰어야지. 일이 많아. 놀 때가 없어. 설 보름에 노는 게 다야. 겨울에 부지런히 많이 해서 쌓아놔야 보름 동안(치군놀이 보면서) 놀아. 보름 지나면 다시 또 일 해야 해. 초등학교는 11살 먹어서 들어갔어. 군하리에 아직도 초등학교 있거든. 거길 걸어 당겼어. 새벽밥 먹고 걸어가야지. 부지런히 가야 한 시간이 더 걸려. 학교 갔다 오면 일해야지. 학교 다닐 때도 별로 놀 새가 없어.<sup>13)</sup>

옛날에 놀이라고 한 게 없어. 일하느라 놀 시간이 없었지. 치군놀이는 봤었어. 여기 강령포가 치군놀이가 유명해. 무동을 3명까지 태웠거든. 근데 나는 구경만 했어. 치군놀이 구경만 했지. 치군놀이 본 기억밖에 안 나.<sup>14)</sup>

놀이보다 모여서 밀거적을 깔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1950년대 어른들은 논두렁 씨름, 팔씨름, 뽕치기, 화투를 주로 했으며 이 놀이로 국수나 담배, 성냥 내기를 하였다.

자치기랑 비석치길 많이 했어. 자치기는 구멍 파놓고 막대기를 놔. 그걸 다른 막대기를 들고 쳐올려서 쳐. 그걸 잡아서 한 바퀴를 돌았던가... 그건 기억이 가물거려. 자치기랑 비석치길 좋아해서 많이 했어. 제기도 했었고. 전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밀거적 퍼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 밀거적 알아? 멍석은 곡식 펄 때 까는 거고 밀거적은 사람들 앉을 때 쓰는 거야. 거기서 귀신이야기도 하고 옛날이야기도 하고. 더 어렸을 적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야기하고 즐기던 기억이 나.<sup>15)</sup>

13) 이제웅(남, 84세)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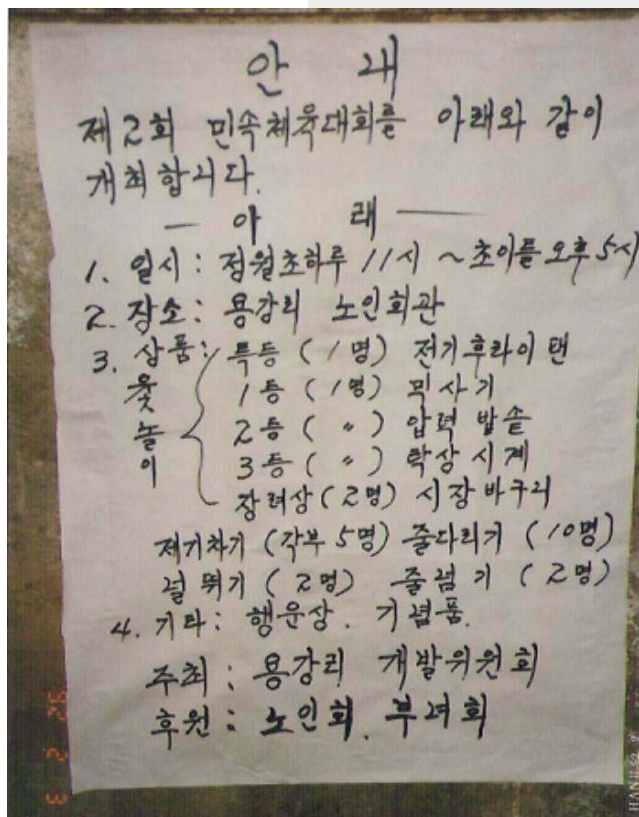
14) 권태순(여, 75세) 제보



지금은 날이 꺾으면 노인회관에 모여서 동전내기 화투를 친다.

비 오면? 저기 (노인)회관에 가. 거기서 풀전내기를 해. 10원 내기. 화투치지. 그러다 50원 내기도 되고.<sup>16)</sup>

1990년대 초반에는 용강리 마을과 월곶면에서 민속놀이 대회를 한 자료가 남아있다. 1992년에 용강리에서 행한 민속체육대회는 정월 초하루부터 그 이튿날까지 마을 노인회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옷놀이와 제기차기, 널뛰기, 줄넘기를 진행하였다. 특히 옷놀이는 순위별로 상품을 주었다.



1992년 용강리 제2회 민속체육대회 안내문



옷놀이 하는 마을 주민들 (1992년/정해곤 소장)

15) 정해곤(남, 63세) 제보

16) 민옥년(여, 81세) 제보

웃놀이 하는 마을 주민들  
(1992년/정해곤 소장)



웃놀이 하는 마을 주민들  
(1992년/ 정해곤 소장)





널뛰기를 하는 마을 아이들  
(1992년/ 정해곤 소장)



제기차기(1992년/정해곤 소장)



제기차기(1992년/  
정해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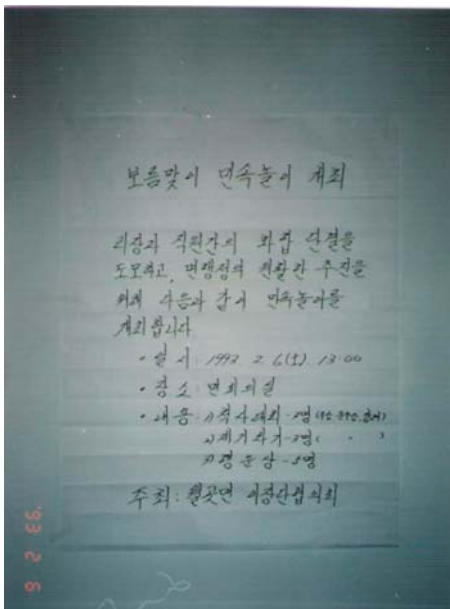
민속체육대회 날 풍악놀이  
준비(정해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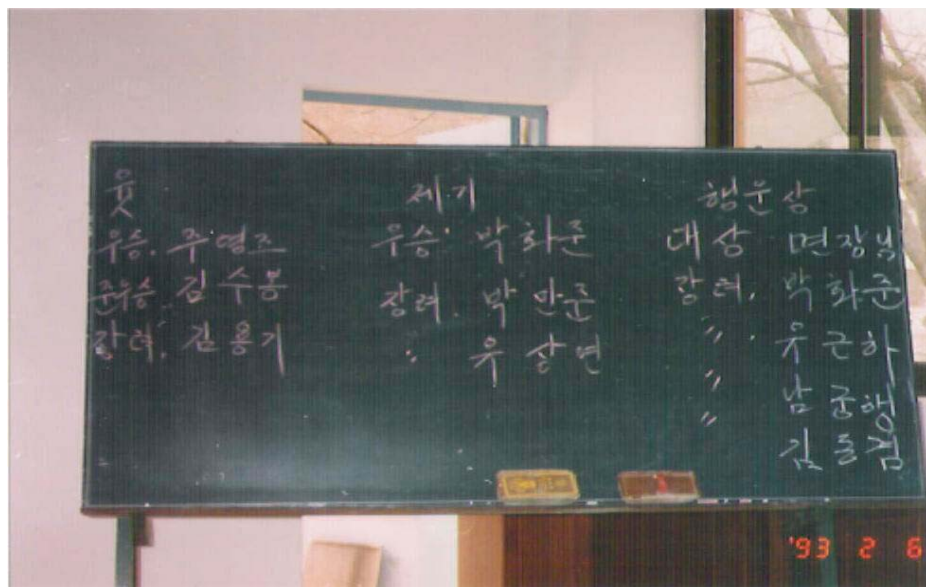


민속체육대회 날 풍악놀이  
준비 (정해곤 소장)



보름맞이 민속놀이 개최 안내문  
(1993년 / 정해곤 소장)

보름맞이 민속놀이  
수상자 명단  
(1993년 / 정해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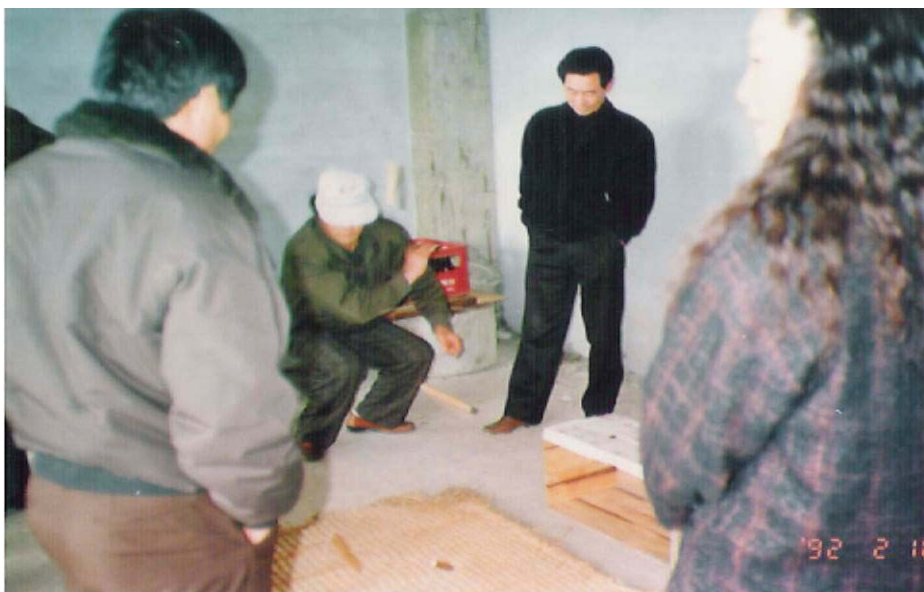


제기차기  
(1993년 / 정해곤 소장)





줄다리기



웃놀이

웃놀이



이듬해에는 월곶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월곶면사무소에서 보름맞이 민속놀이를 진행하였다. 척사대회(웃놀이)와 제기차기에서 3명의 승자와 그 외 5명에게는 행운상을 수여하였다. 민속놀이대회 이외에도 마을 경로잔치 등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드리거나 웃놀이를 하였다.





## 제10장 내 살아온 내력과 마을이야기

1. 내 살아온 내력
2. 내가 쓰는 우리 마을이야기 (정유현/신상숙)



## 1. 내 살아 온 내력

### (1) 김옥희<sup>1)</sup> 씨의 생애

#### 김옥희 씨의 생애 연표

1934년( 1세) 1남 2녀 중 막내로 개성에서 출생  
1939년( 6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삼촌, 오빠와 함께 김포로 이주  
1941년( 8세) 조강리에 거주하며 월곡국민학교 입학  
1944년(11세) 용강리로 이사하여 문수국민학교에 3학년으로 전학  
1945년(12세) 국민학교 4학년 때 해방  
1946년(13세) 오빠가 있는 여주로 옮겨 백사국민학교 25회 졸업  
1947년(14세) 서울 풍문고녀 입학시험에 낙방하고 수원에 있는  
양재학원 입학  
1950년(17세)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유성으로 피난  
1951년(18세) 유성에서 겨울을 나고 여주로 되돌아 올  
1956년(23세) 용강리에서 반찬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이웃  
에 살던 남편과 혼인  
1958년(25세) 첫 아이 출산  
2011년(78세) 남편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남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 마실을 나온 김옥희 씨를 집 앞에서 만났다. 그녀는 귀가 다소 어두운 듯 했지만 이내 지나 온 세월을 하나씩 풀어 보였다. 뒷마루에 걸터앉아 비교적 오랜 시간 힘든 내색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지난 일들을 나이와 함께 짚어가며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밝은 표정으로 과거를 회상했지만 올해 초에 사별한 남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1) 김옥희(여, 78세) 제보

## 가. 친정식구

### 출생지가 개성이지

나 친정 개성. 쫓고매서 왔지. 와가지고선 여기 와서 학교 다녔지. 출생지가 개성이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 그래서 이리 왔어. 여기 또 한 집안이 있으니까. 나 여섯 살에 왔다는걸 뭐. 그러니까는 모르지. 우리 아버지가 개성서 돌아가시니까는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언니는 거기서 시집보내고, 우리 엄니.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살다가. 처음에는 이리 나왔대나봐.

### 우리 친정은 농사 많았지

우리 친정은 농사 많았지. 우리 친정에는 일꾼도 센 일꾼 두고, 할아버지, 소 죽워서 먹이는 할아버지 두고, 또 남자 아이는 풀 베어오고 짐승을 많이 길러. 그렇게 셋이야. 일꾼이. 우리 친정에는 안에는 기와집이야. 안에는 농사짓는 집 같지 않아. 사랑에서 바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안에는 농사짓는 집 같지 않지. 밥해서 먹이는 것만 하지, 들에 가는 걸 몰랐어. 우리 어머니는 들일 하셔. 근데 나나 올케들은(안 했지).



여주 친정집 앞에서 사촌동생들과



여주 친정집 마당에서  
누에치는 모습



####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농대 나오셨대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농대 나오셨대요. 그래서 아주 농업에 대해서 기술자야. 파수원, 무슨 씨앗종자 받는 거. 그런 거 아주 선생님이지. 말하자면,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셨대. 아파서 죽었잖지 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삼촌이 인저…….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도 기술자로 땡기기 때매 농사도 우리 삼촌이 짓고 그랬대나 봐.

#### 우리 엄마가 나 데리고 공부 가르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지. 우리들, 나 데리고 공부 가르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그러다 우리 어머니 일흔넛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는 아주 앓지도 앓고 저녁 잘 잡수시고 아침 잡수시라고 들어갔더니 말씀을 못하더라. 우리 올케가. 진지 잡수시라니까. 그래서 그때는 서울 살았어. 우리 오빠가 그때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서울로 올라와서 집을 샀어. 땅을 좀 팔아갖고 서울서 사는 데, 우리 어머니도 서울로 모시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아침 잡수라고 들어가니 까는 말을 못하더라. 그래 서울 성가병원이 가까워. 친정에서. 그래서 거기 의사 데려다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심장마비로 오전 11시에 돌아가셨대.

#### 친정어머이 돌아가니까 친정도 멀어지고 그래

우리 영감은 남매고, 우리는 삼남매. 우리 오빠 하나고, 우리 언니는 개성서 못 나왔어. 안 나왔어. 거기서 시집가서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



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고. 옛날 사람들이니까 다 돌아갔지. 우리 오빠는 시방 충청북도 거기 가 살아요. 나이가 많지. 정년퇴직하고 거기서 살고. 다 그래. 늙었으니까 뭐. 아휴~ 형제간도 친정어머니 돌아가니까 친정도 멀어지고 가기도 싫고 그래.

## 나. 학창시절

### 왜정 때는 일본 말 배웠지

그래 저기 조강리라는 데 거기서 살다가 월곳 거기(국민학교) 왜정 때 다녔어. 왜정 때는 일본말 배웠지. 4학년 마치고 해방됐잖아. 그래가지고 12살에 해방됐지. 일본글 배우다가 한국말을 배우는데, 대답이 “네”가 안나오고 “하이” 그랬어. (웃음) 그렇게들 많이 했지. 근데 그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나는 어리지. 전부 3살, 4살 (많았어). 졸업할 때 스물한 살, 스물두 살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 국민학교 졸업할 적에. 그전엔 연령이 똑같지 않았어. 왜정 때 땡기다가 또 이렇게 땡기고, 늦게들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정상으로 들어갔는데, 딴 사람들은 늦게들 들어간거야. 처녀들도 머리끈을 총총 따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땡겼지. 정상으로 우리는 학교를 다녔지. 까만 치마 하얀 저고리 입고 다녔지. 그때도 아주 그냥 농촌에 아주 그냥 저기한 집들은 학교를 안 보냈지. 그런데 우리 또래들은 그렇게 안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보다 한, 두 살 많은 사람들은 학교 못 땡긴 사람들이 많아. 여기도 시방 우리 또래들도 공부 안 한 사람 많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 얼마 안 돼. 우리는 사는 게 괜찮았다고.

### 난 아주 학교 어디가든 그냥 위함을 받아

8살에 학교 들어가서. 운동회도 하고 다 했지. 운동회고 뛰고 별거 다 했지. 학교 다 똑같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뭘도 잘 뛰고, 무용도 잘 하고……. 뭐 빠지질 않았어. 그리고 나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위하는지 난 아주 학교 어디가든 그냥 위함을 받아.

문수국민학교가 3학년까지만 있었어. 그러다가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문수국민학교가 3학년까지만 없어. 그 위로는 없어. 1학년부터 3학년까지야. 근데 우리는 4학년인데 도로 3학년을 배운거지. 그래 수학은 땡이야. 내가 제일 잘 해. (웃음) 다 배운 거니까.

백사국민학교 졸업 기념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  
과 친구들



아흔아홉 골과 눈에 이름이 있는 마을

그래서 여기서 6학년 2학기 때 우리 오빠가 (여주로)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2학기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간거지.

#### 풍문고녀 떨어져서 수원에 양재학원 간거지

국민학교는 여기서 6학년 2학기 때 나 학교 보낸다고 여기(여주)로 데려갔어. 국민학교는 백사. 현방리의 백사국민학교 나왔어. 백사국민학교 25원가 봐. 그래서 거기 가서 2학기 마저 배고서 이제 풍문고녀를 시험을 봤어. 우리 딸들은 다 풍문학교야. 그래서 거기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안 갈 수 있어? 다들 가는데. 그래서 수원 가서 그리 간거지. 수원 학교 이름이 무슨 양재학원이더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천 양정고녀 간다고 그러다가 그 학교 안 간다고 내가 서울 가서 떨어졌는데. 무얼 거기 시골 가냐고 안 간다고 싫다 그랬지. 거기도 많이 양정고녀 다녔어. 나도 서울 안 가고 그리 갔으면 붙었지. 그런데 서울 간거야...... 뭐가 틀렸던가? 뭐가 한 가지 잘못 되가지고 그랬는데....., 나하고 동갑짜리가 셋이야. 우리 집안에. 그런데 개네 둘은 붙었어. 그런데 나만 떨어졌어.



양재학원 시절 친구들과

양재학원 시절 친구들과  
사진관에서 기념촬영



양재학원 제9회 졸업기념





그래서 구박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막 야단을 하는거야. 네가 공부 부족해서 떨어졌지 왜 떨어졌냐고 그러는거야. 그래도 또 거기(양재학원) 같이 가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거기 수원 같이 간거지. 수원 고등동에서 방 얻어줬어. 우리 오빠가 고등동에서 방 얻어줘서……. 그래가지고 양재학원이 가깝더라고. 나 혼자 방 얻어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야. 손주딸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줘서 3년 살았어. 난 양재학원 나왔으니까 아이들 옷도 다 만들어 입혔지. 양복 만들어 입혔지.

## 다. 한국전쟁과 용강리

대전도 못 미쳐서 유성에서 겨울을 났어

우리는 피난을 미리 갔어. 우리 고모부가 군의관이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군인 가족은 고모부여도 친척이니까 미리 가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리 갔어. 미리 소에다 마차에다가 그냥 짐을 싣고, 먹을 거 싣고 다 이고 가다가 수원으로 기차 타러 가는데 철도가 끊어진거야.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대전까지 걸어갔어. 열사흘을 걸어갔어. 우리 할머니, 나, 우리 고모……. 그러다가 우리 삼촌 각각, 우리 올케, 오빠 각각. 각각 식구가 다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다가 만약에 헤어지면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돈들을 다 노나(나눠)주더라고. 꼭 여기 다 해 줘. 그래가지고서 이걸 아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식구가 헤어지면은 돈 있어야지. (아니면) 죽잖아. 뭐 못 먹잖아. 그래가지고서 우리 삼촌댁하고 올케하고 같이 가고, 우리 삼촌 따로, 오빠 따로. 난 또 우리 고모할머니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대전도 못미쳐서 유성. 거기서 겨울을 났어. 그래서 거기서 겨우~내 있다가. 소를 끌고 갔으니 소를 먹여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해? 그래도 탕기면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소를 팔았어. 어떻게 맥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주로) 도로 들어 왔지. 들어와서 토지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지었지. 전쟁이 내가 열일곱 살 땐데.

여기는 다 각지 사람들이지 뭘

양재학원 나왔는데 우리 오빠가 취직을 못하게 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용강리 살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왔지. 우리 어머니가 반찬 장사 했어.

저 아래서. 여기는 집이 피난 올라왔지. 해변가에 저~ 아래가 친정집이었어 그런데 여기는 소개시켜서 여기 올라와서 그렇게들 지은 것들이지. 여기는 다 각지 사람들이지 뭘. 여기 그때랑 다 달라졌지. 지금은 여기 여러 동네가 모여 사는건데. 시방 같이 살던 사람들이 저~ 나가서도 살지. 동네가 여러 동네 아니야? 우리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저기 동막 가서도 살고 다 헤어졌지. 그래서 다 각각 헤어져서 살아. 그냥 한동네 다 같이 모여 산 사람이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와가지고서 산거야. 우리 시집은 저기 아랫말이지. 옛날에 거기 그렇게 집이 많진 않았어도 열 집은 넘었어. 이렇게 둥그렇게 한 마을, 또 저쪽에 너머로 또 한 마을 그렇게. 시골에들은 그렇잖아.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 그래도 열 집은 넘었나봐. 그래서 한 동네로 시집온거야. 연애했지. 나 연애를 어려서 했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 (웃음)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무척 위했어. 구여워 했어. 귀엽다고 그냥…….



미용사 친구와 함께

## 라. 혼인

나랑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아홉 살 차이야

우리집 넷째 집이 시집이었어. 가운데 세 집이 있어. 우리는 해변가 제일 끝이고, 우리 시집은 넷째 집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선비마냥 자기 아버지가 일도 안 시키고, 외아들이라고. 맨날 낚시질만 하고 그랬어. 그래서 나 공부 가르쳐 준다고 그랬다고. 나랑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아홉 살 차이야. 그래도 그렇게 차이진 거 같지 않아. 다 늙어 가니까 그렇게 차이진 거 같지 않아.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늙게 생기지 않았어. 우리 할아버지는 한문을 많이 배웠어. 융통성이 없어. 주변이 없어. 착하기만 하지 융통성이 없어.



결혼기념 사진

호사시킨다고 말 타고, 가마 타고 다 돌아다니고 그랬어

구식으로 결혼했어. 폐백 받을 때 왜 연지곤지 찍잖아. 그 식으로 채일(차일) 치고 상에다가는 다 뭐 차려놓고, 양쪽으로 절 시키고……. 닭도 붙잡아다 놓고 그렇게 허는거지 뭐. 빨간 실, 파란 실 청실홍실이라 그러잖아? 또 술 한 잔 따라서 남자 주고, 남자가 또……. 거기서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여자가 따라서 남자 주고, 남자가 따라서 여자 주고. 그렇게 하고 절하고. 옛날 하는 법이 그래. 동네

다 모여서 하는거지. 가까이 살았어도 호사시킨다고 말 타고, 가마 타고 다 돌아다니고. 그게 호사시키는 거라고. 옛날엔 남자는 말 타고, 여자는 가마타고 그랬잖아. 그런데 한 동네니까 그렇게 했지. 가마랑 말은 다 허는 데가 있어. 어디서 가져오는 데가 있어. 함도 시방이랑 똑같아. 함은 지고 땡기는 사람이 있잖아. 시방은 친구 찾지만 그 전에는 친구가 그런 거 하는거 아니잖아. 그 전에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미(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 우리 시아버지가 처가살이 들어와서 살았대

시집살이는 많이 안 했지. 그래도 하긴 했지.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등치도 크고 그냥……. 우리 시아버지는 쪼그만해. 시어머니는 크고. 우리 시어머니가 친절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처가살이 들어와서 살았대. 옛날엔 그랬대.

### 마. 자녀 기르기

#### 딸 하나, 아들은 셋이야

딸 하나. 아들은 셋. 하난 군인. 막내아들은 군인. 직업군인. 또 둘째는 우체국. 큰 아이는 기사. 저~ 부천서 시내버스. 자랄 때 운전만 배웠대. 그래서 왜 위험하게 운전을 할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만 하겠대. 그래서 내가 사주를 다 봤어. 팔자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하고……. (사주에) 그렇대.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 자식들이 아주 잘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로다 농사일을 해서 안 좋다 그러더라고 (속삭이며). 우리 할아버지가 운전 못 해. 경운기도 못 부려. 할아버지 경운기도 못 부려. 그냥 외아들로 우~ 귀엽게만 길러가지고 일을 안 하고 살아서 아버지 돌아가고서 이제 늦게 일을 하니까 힘들지. 그런데 뭐 돌아간걸(울먹이며).





큰딸 결혼사진

첫 아이 낳고 까무러칠 뻔 했어  
 애들 다 집에서 낳았어. 나 죽을 뻔 했  
 지. 못 낳아서 아주 혼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셋, 딸 하나. 동네 할머니  
 도 받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와서 하나 받  
 고 그랬지. 고생했지 뭘. 아파서 그냥 그러  
 다 낳았지. 아유~ 난 아이 낳은 생각만  
 하면 아주기가 막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지……. 아유~ 옛날에는 그냥 자궁을 찢  
 었어. 글썄. 그래가지고 난 내장이 막 빠  
 져나와서 죽을 뻔 했다니까. 아유~ 그  
 할머니가 글썄 그 자궁을……. 아이 낳으  
 면 이렇게 옆을 병원에서는 이렇게 찢는  
 대요. 그런데 여길 (반대로) 찢어가지고  
 그~냥 나 까무러칠 뻔 했어. 나 첫 아이  
 낳고선. 찢어서. 아유~ 난 그냥 생각



큰아들 3살 때 모습



만 해도 끔찍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그냥 아이 생전 안 낳을 것 같지. 잊어부리니까 낳았지. (웃음)

큰아이, 남편과 함께

#### 우리 막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 해요

우리 애들은 속은 안 썩었어. 근데 우리 딸이 공부를 잘 하는데, 밑에서 사내아 이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개를 대학 가르칠 수가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만 가르치고 우리 막내 하나만 대학 가르쳤어. 누구든지 합격하는 아이는 가르친다 그랬는데, 우리 막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 해요. 개는 그냥 아주 지가 다 벌어서 배운 셈이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아이들 가르쳤어.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면 나오질 못 한대. 그럼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방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면 그렇게 아이들이 수석으로 붙는대. 그러면 학부형들이 좋아서 그렇게 돈을 준대. 그래서 외려 돈이 남았대. 우리 아들은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그 아이들 몇 명에서 사이클? 그 자전거 있잖아? 그거 사가지고 강원도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뭐 얼마를 갔다더라. 일주를 한 거야. 시방 막내가 마흔두 살인가? 한 살인가? 그래. 장교야. 큰아들은 오십이 넘었지. 막내아들은 시방 파주 있어. 근데 그 아들이 또 공부를 잘 해요. 공부도 잘 하고 운동도 잘 하고. 우리 아들도 공부도 잘 하고, 운동도 잘 했는데 또 우리 손주도 공부도 잘 하고 운동도 잘 해서, 축구를

잘 차서 시방 중학교 2학년인데 독일을 세 번이나 갔다 왔대. 운동을 잘해서 그 쪽으로. 아직 어리니까 아마 독일서 데려가나 봐. 개는 공부를 세 나라 공부를 한대. 미국, 독일, 뭐 어디라더라? 정신도 좋아. 개는 세 살서부터 영어를 배웠어. 세 살서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개는 아주 말을 일찍부터 잘 했어.



막내아들 대학 졸업식에서

#### 술장사도 했어

평생 농사지었어. 논농사 지었지. 논도 많지 않았어. 그냥 먹고살 만큼만 하고……. 애들 가르치고 뭐 그까짓거 옛날에는 비료 같은 것도 많지 않았잖아. 시방은 이렇게 살기가 좋지만 그때만 해도. 그리고 술장사도 했어. 술도 6년을 또 내가 술장사를 했어. 맨들면 그렇게 술이 독하고 맛있대. 그래가지고 그거는 띄우길 잘 해야 하고, 누룩도 좋아야 하고, 시간이 걸려야 며칠 오래 되야 맛있고 독하지. 골이 안 아프지. 쌀 찌서 그 띄우는 약이 있어. 그거에다 뒤편(튀)겨. 이렇게 싹싹 문질러서 뜨뜻한 데 갖다 덮어 놔두면 하룻밤 지나면 허~열게 튀겨져. 그러면 거기다 마르니까 물을 좀 쳐서 싹싹 비벼서 그렇게 놔두면 그게 펄~펄~ 끓으면서 그냥 하얗게 튀겨져. 강냉이 튀긴 것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냥 헤쳐서 식혀. 이렇게 폭~ 덮어 놓으면 그게 노릇 노릇하게 그렇게 돼. 그래야 잘 뜨는거야. 그러면 쌀이 말랑말랑해. 잘 튀겨지면. 후~딱 식기 전에 또 다른 쌀을 찌서 그것도 섞어서 누룩치고 거기다 막걸리 약을 넣지. 그렇게 해서 물 얼마큼 넣어서 해서 놔두면 되지. 물을 부어야 그게 불어갓고선 펄럭펄럭펄럭 해가지고 술이 되는거지. 그리고 다 되면 말~갈게 술이 되지. 근데 말간 술을 떠가지고 다 가라앉혀 가지고 그걸 떠내고, 그 찌꺼기는 또 눌러. 눌러서 짜면 또 얼마나 힘든대. 못 해. 기운 많아야 허지 기운 없는 사람은 허지도 못 해. 아 유~ 아주 그냥 힘들어. 술장사는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라.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 가니까 그런거 신경 쓰고 힘든 거 하면 쓰러진다고 못하게 해서 그만 댔지. 내가 술이 맛있어서 어떻게 잘 팔리는지. 그걸 하면 돈은 잘 생기는데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거야. 그래서 그만 댔지. 그래서 여태까지도 가끔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술 시방 하시냐고. 그럼 “안 한다고” 그러지. 힘들어. 술 안 한 지 몇 해 났지. 여태 했으면 돈 많이 불(벌)었을텐데. 우리 할아버지 병나고 그래서…….

#### 군복 바느질도 내가 15년을 했어요

군복 바느질도 했지. 군복 바느질도 내가 15년을 했어요. 그래야 아이들 가르치잖아. 군복 바느질은 젊어서 했지. 아이들 꿰고됐을 적에. 그거하면 돈이 안 떨어져. 그전에는 군인들이 (군복을) 죄 기워서 입고, 죄 줄여 입고 그랬어. 나는 양재학원 나왔으니까 그런건 잘 허잖아. 그게 영락없이 저기 모낼 때 하고, 김장할 때하고 보급물이 나와. 그래서 아~주 바빠. 여기 군인 얼~마나 많았는데. 여기 있지, 저기 있지, 여기, 여기……. 아~주 군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냥 좀 (수선을) 몸에 맞게 잘 한다 소문이 나면……. 빨래도 세탁도 했어.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언제 바느질하고 빨아서 풀을 대(다)려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하다가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조카딸이 있었어. 그래서 개 허라 그랬지. 그리고 벌어서 시집갔지.



## 바. 집

### 여기가 입식을 꾸며가지고 우리가 사 왔지

우리는 저 아래서 소개 나와서 저쪽에 살다가 거기가 좋아서 이거 우리가 사 왔어. 이 집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이사 온 지 한 20년 돼지. 지은 건 오라지(오래됐지). 난리 나서 지은 거니까. 우리 저쪽 집은 그냥 입식을 안 꾸몄지. 그땐 다 입식을 안 꾸몄으니까. 근데 그걸 입식을 꾸밀려다가 여기가 입식을 꾸며가지고 팔아서 우리가 사 왔지. 이 집이 주소가 새로 내 앞으로 있어. 이게 원래 살 적에 내 앞으로다 산거야. 근데 이게 터가 넓어. 터 값이지 뭐. 집은 이까짓게 뭐……. 100평이 넘어.

## 사. 남편의 죽음

### 내 앞을 떠난 지가 딱 일 년이야

삼 년 만에 돌아갔어. 한 해는 그냥 있다가 이태를 그냥 오줌, 똥 싸고 그냥 아휴~ 그러다가 내가 점점점점 몸이 약해지니까는 우리 아들딸들이 왔었거든.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데 어떻게 요양원을 보내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떡할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양원을 보냈어. 그러니까는 작년 10월 9일날 보냈어. 10월 9일날 요양원을 보냈는데, 석 달 열이를 만에 돌아갔어. (울먹이며) 그런 데 보내면 얼른 돌아간대. 그래서 10월 9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 그래서 일 년이야. 내 앞을 떠난 지가 딱 일 년이야. 이제 8일만 있으면.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서 얼른 돌아간 거 같고 죄지은 것 같애. 그래서 더 내 마음이 안 좋고, 불쌍하고……. 돌아가는 것도 못 봤지 뭐. 별안간 돌아갔어. 그래서 불쌍하고……. 돌아가는 것도 못 보고…….

### 할아버지하고 싸움을 한 번 안 해봤어

김포 사우동 거기서 돌아갔는데, 김포 우리병원에 와서 거기서 또 뭐 또 하나 봐. 그래서 마송 하나병원 있어. 장례식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있다가 여기 벽젠가? 거기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대. 그래가지고 인천 가는데 거 어디야. 거 가서 했어. 그~냥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 죽으니까는 뭐……. (눈물을 흘리며) 불쌍하고, 보고 싶고……. 우리는 싸움을 안 해봤어. 할아버지하고

싸움을 한 번 안 해봤어. 이년 소리 한 번 안 들어봤어. 아휴~

#### 하성에 유공자 모시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 모셨어

내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네 분 상은 지냈는데. 그래 1년에 네 번 지내고, 추석 지내고, 정월 지내고 여섯 번을 지냈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3년 만에 돌아갔어. 그래서 3년은 제사 안 지냈어. 환자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대. 그래가지고서 제사는 올해도 안 지냈어. 할아버지 돌아가고 1년이 안 지났으니까는……. 올해는 안 지냈어. 추석에도 우리 할아버지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산소에 가서 유공자라 유공자만 묻는 데 가서. 하성. 거기에 있어. 그래서 거기다 모셨어. 우리 막내아들이 군인이라 할아버지가 유공자니까 알아보니까 거기 있대. 그런데 대전에도 있대. 그 전에 할아버지 살아서도 거기 써야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멀리를 어떻게 가냐 그랬는데 우리 막내아들이 알아보니까 하성 거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모셨어.

####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어딴어

고사도 안 지내 나는. 그까짓거 뭐 하러 지내. 아유. 난 제사지내는 것도 그거 헛(헛)거라 그래. 그거 뭐 종잇장 갖다 놓고 무슨 제사를 지내냐 그러는거야. (웃음) 그래 믿어지지 않아. 그렇잖아~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어딴어. 그렇잖아? 영혼이 진짜로 있다면 자손이 다 잘 되게 도와주지. 안 그래? 무슨 일이 생길래도 도와주지 그냥 뭐? 그렇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뭐든지 믿어지지 않아.

#### 아. 요즘 사는 거

#####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 혼자 있어

날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서 김장이 저렇게 얼으니 언제 먹어. 저거 알타린 데. 우리 보다 한 달을 먼저 심었는데 거름을 안 하고 맨땅에다 심으니 뭐가 돼. 우리는 그냥 저거보다 더 좋아. 늦게 심었는데도.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다 하던건데, 할아버지가 돌아갔으니 내가 하는데. 힘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1월 달에 돌아갔어. 올해. 그래서 나 혼자 있어. 그래서 일요일날이면 아들이 와. 바쁘지 않을 때면 와. 그래서 사는지, 마는지……. 취미가 없어. 혼자 사니까 다~ 먹고, 자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맛도 없고, 하기도 싫고, 나 먹자고

하기도 싫고. 우리 딸이 그냥 자꾸 먹을걸 사오는데. 반찬이며 뭐 먹을걸 사오는데. “얘, 이거 누가 먹는다고 자꾸 사오냐. 먹지도 않는걸.” (그러면) 왜 안 먹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늙으면 고기 비쩍지근한 것만 찾는데, 엄마는 별나게 안 먹는다고……. (웃음) 자꾸만 사와서 싸 놓기만 한다고.

## (2) 정해일<sup>2)</sup> 씨의 생애

### 정해일 씨의 생애 연표

1936년( 1세) 3남 5녀 중 다섯째로 용강리에서 출생  
1943년( 8세) 보구곶리 소재의 문수국민학교 입학  
1945년(10세)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  
1948년(13세) 국민학교 졸업 후 서당에서 한문 공부  
1950년(15세) 한국전쟁 발발했으나 피난가지 않았음  
1951년(16세) 미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고 아버지가 돌아가심  
이때부터 농사일에 전념  
1958년(23세) 입대하여 전남 광주에서 군생활  
1961년(26세) 중매로 통진면에 사는 부인과 혼인  
2009년(74세) 동네주민의 권유로 성당에 나가기 시작함

### 가. 어릴적 살던 마을

#### 요 넘어 동네 거기서 살았어요

그전에 요 넘어, 요 넘어 동네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동네가 다 아래 전방 저 쪽으로 (있던거) 올라와서 사는거야. 6.25 나고 소개시켜가지고, 6.25 나고 후에 전부 이 아래 동네가 산 밑에 쪽 드문드문 있었는데 (거기 있던 집) 다 몰아서 생긴 부락이야, 이쪽 부락(먼지락)이. 6.25전쟁하고 몇 해 후에 여기로 소개시켰지. 산비탈에 있던 사람은 다 여기 밀려와서 여기 집을 짓고 살고,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 살고 노인네들만 지키고 있지.

#### 요만한 논두렁으로 건너다니면서 초가집 짓고 살았더랬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살았지). 그전에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더랬겠지. 요 넘어 동네서, 요 넘어 조 산 넘어, 요 등배기 말고 (지금) 저 넘어 버스 오는 길. 산 넘어 동네였어. 여기는 6.25 나기까지는 집이 5채밖에 없었어. 5채밖에 없었는데 저 아래서 다 올라온 사람들이야. 이 아래 산 밑으로 집이 (있었어). 보통 옛날에 산 밑으로 쪽쪽쪽 집 짓고 살았잖아? 농로도 없고, 요만한 논두렁으로 건너다니면서 초가집 짓고 살았더랬어.

2) 정해일(남, 76세) 제보



### 강령포 저기 집이 무척 많았지

6.25 전에 강령포 저기 집이 무척 많았지. 근데 어촌에 사는 사람은 배 부리고 살잖아? 그 사람들은 인천 서울로 도시로 다 나가버리고. (뱃사람들이) 거기서 가끔 조기도 잡아오고 뭐도 잡아오고 생선을 배들이 잡아오고, 운반은 배로다 실어서 서울 마포 나루터에 다 뱃길로 다 올라갔지. 그때는 운반수단이 다 배야, 배.

### 저기 산에서 나무해서 팔아서 (돈을 벌었어)

여기 산이 많잖아? 산이 많으니까 농사도 짓지만, 저기 산에서 나무해서 팔아서 배에 싣고 서울 사람 다 갖다 줘. 우리는 (안 했지). 부모네들이 했지 그런 건 안 해봤어. 그리고 6.25 나고 나서 정부에서 나무를 못 베게(하고) 연탄 때라(고) 그러고 그랬잖아? 나무 비면 벌금 물고 붙들어가고 그랬잖아? 그때 난 나무들이 이렇게 전부 고목이 다 된거야. 그때는 산에 나무가 저렇게 굵은 나무가 하나가 없었어. 나무해서 장작해서 집집마다 산임자가 다 따로 있잖아. 나무 길러서 장작 캐 팔고. 땀감.

## 나. 가족

### 자식들하고 엄마, 아버지 같이 자고 그러지

우리 형제는 아들 셋에 딸이 다섯, 팔 남매. 옛날엔 다 (그렇게) 낳았어. 지금은 맘대로 하잖아. 옛날에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먹고 살기 그런데(도) 자식들만 쪽 낳아놓는 거야. 옛날에는 무식했어. 지금은 돌도 많다고 그러잖아. 돌도 많아서 하나만 낳고 그러잖아. 나 내가 우리 큰형님도 있고, 고다음에 내가 다섯(째야). 내 밑으로 둘 있고. (팔 남매가) 한 집에 살았어. 그때는 이불이나 있어? 나무 해 다 불만 쳐 때고 깔 거(는) 포대기가 어딴거? 불 때면 뜨듯하면 거기 그냥 서로 다 같이 자고. 이불 서로 끌어다 덮고 자고. 지금은 그런 게 어디있어? 대개가 옛날에 그냥 방 둘 겨우 둘 있으면 자식들하고 엄마아버지 같이 자고 그러지. 지금은 아이를 하나 낳아도 세 네 살 먹으면 따로 떼어두고 방 따로 쓰잖아. 지금은...

### 어릴 때 6.25 나고 돌아가셨어...벌써 얼굴도 잊어먹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농사지었지. 농사 짓고. 그때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그때 6.25 나고 저거 있더랬잖아. 1.4 후퇴 또 한번 겪었잖아. 근데 저 너머 강계가 고기, 장어가 많이 잡혔어. 그래서 그거 하러 갔다가 산

너머에서 돌아가셨잖아. 지뢰탄. 지뢰 매설한 거. 인민군들이 한 게 아니라 미군들이 묻어놓은거지. 허허허 어릴 때, 어릴 때 6.25 나고 돌아가셨어. 뭐가 뭔지 모르겠었어. 벌써 얼굴도 잊어먹고...

#### 다. 학창 시절

옛날에 국민학교밖에 더 나왔나?

옛날에 뭐 배웠어야지. 옛날에 국민학교밖에 더 나왔나? 우리 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면 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국민학교 겨우 나왔어. 우리 나이 대에 다 국민학교이지, 뭐. 특별한 사람이나 돈 많고 그런 사람이나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나왔지.

입학이 8살 때 했나? 그때는 입학도 10살에 가는 아이 있고. 중구난방으로 갔어. 그때 시대엔 그랬어. 꼭 나이가 저거, 지금은 연령별로다가 다 행정기관에서 입학장이 나오잖아.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 국민학교도 못 다닌 사람도 있었어. 지금 내 나이에 회사고 공직자고 다 뭐 교장이니 뭐니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배웠지. 배운 사람들이 없었어. 지금은 보통 인제 다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가는거고 대학은 자기 실력 있으면 없는 사람도 다 가잖아. 어떻게 해든지 가르치지.

(학교) 걸어다니면 옛날에 힘들었지

뭐 하고 놀기는 뭐 그때 뭐 놀긴? 학교 가서 (노는 거지) 보구꽃이라고 있어. 이리해서 강령포로 해서 걸어 다녔다고, 5리를. 문수국민학교. 여기는 다 거기로 갔어. (걸어서) 5리라니까 2키로 더 되는거지. 걸어 다니면 옛날에 힘들었지. 옛날에 학교 땀 났을 땐 신발이나 있나? 짚새기, 그때도 짚새기를 부모님들이 삼으면 그거 신고 다니고. 짚으로다가 짚새기 삼아 (신고) 금세 뚫어지지 뭐. 그리고 옛날에는 공구리가 아니고 전부 비포장도로고 자갈이나 갖다 깔았나? 저런 흙에 비오면 퍼럭퍼럭 빠지고, 비오면 퍼럭퍼럭 빠지고. 봄에 봄이면 해토할 때 되면 퍼럭퍼럭 빠지는 길로 왔다갔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

### 방게, 젓도 담가먹고 볶아먹고

옛날에 갯벌나가서 저기 방게. 방게라고 알아? 요만한 거 살살 기어 다니는 거. 그런 거 붙들었다. 방게. 젓도 담가먹고, 볶아먹고. 옛날에. 헤헤헤 옛날에 배고프니까 맛있지. 지금은 먹지 못해서 굶어죽는 사람은 없잖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제 병원에 갖다 줄 돈 그런 게 다 걱정이 되서 그러는거지. 못 먹어서 저거 하는 노인네는 없어.

### 그때 서당 선생님이 피난 나온 사람이었더랬어

(서당) 응, 있었지. 응, 다녔지.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 맞고, 졸업하고 (다녔어). 졸업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개가 인제 서당에 국민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대부분 다 못 갔지 뭐. 동네에 서당이 있었어. 서당이 그냥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너머에 있었는데. 그때 서당 선생님이 피난 나온 사람이었더랬어. 그게 뭐 일 년에 벼를 얼마를 갚다주고 (한 가마니) 그 정도나 될까? 그때(도) 없는 사람은 못 다니고. 국민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배운 건) 순 한문이지 뭐. 천자책 (보면서), 글씨 연습도 썼지. 붓글씨로. 종이 귀했지. 창호지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 라. 한국 전쟁

### 인민군이 이리로 건너왔어

강령포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6.25 나고선 거기 집이 다 없어진거지. 포탄도 떨어지고. 거가 다 어촌이었거든. 어촌이었는데 전쟁 나고 나서 휴전되고 나서 배가 다 없어졌지. 배가 다 못 건너다니지. 저기서, 6.25 때 이리로 건너왔어, 인민군이. 이리 건너왔어. 그럼 철모르고 찌꼬만했을 땐데. (구경을) 가보기도 하고 그런걸. 안 무서웠어. 용감한 게 아니고 무서운 줄 몰랐어.

###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 저 산골짜기로 갔어

그때 6.25 날 때. 6.25 나던 날. 이리로 북한군이 강령포라는 데로 건너왔는데.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 저 산골짜기로 갔어. 전쟁하는데 산골짜기로 갔으니까. 포가 막 뽕뽕 떨어지는데, 그때는 만세 부르고 나가면 안 죽인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냥 ‘만세, 만세, 만세’ 그러고 산 속에서 이러니까. 벌써 인민군이 다 와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첨에 와서 뭐 민간인한테 해코지 안 하

고 ‘저희는 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저거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6.25를 여기서 겪었다니까. 피난을 뒷동산으로 갔더랬다니까. 뒷동산 갔다가 그냥 나왔지.

#### 어디서 비 오느라고 천둥 온다고 그랬어

피난을 안 갔지. 피난을 갈 새가 (어딴). 뭐가 뭔지 알았어? 천둥 오는 줄 알았지. 어디서 천둥 오고 (비가 오는 줄 알았어). 그때 비가 안 와서 모를 못 냈어. 그때 6.25 나던 해(에) 비가 안 와서 (모를 못 냈어). 지금은 다 수리조합이 있어서 보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다 농사짓게 다 저거 하잖아. 그때는 하늘만 바라보는거야. 벼 심는 것도, 모도 못 내고 피난이라는 게 뭔지? 뭐이가 뭔지 알아? 별안간 저기서 어디서 포 소리 나는걸 천둥 온다고 그랬어. 어디서 비 오느라. 6.25 나던 해.

#### 전쟁하고 총알 깎지 줏으러 댕겼다니까

지금 76살이니까. 15살. 14살? 전쟁하고 총알 깎지 줏으러 댕겼다니까. 총알 깎지 있잖아. 쪼꼬만 했을 때 무서울 줄 모르고 전쟁에서 인민군한테 서울쪽에 탈환해서 갈 때 저 앞산에 시체(가 있었어). 우리 아군이 죽은 거 있어. 그거 총알 깎지 줏으러 댕겼다고 철모르고 저런 데 돌아다녔다고. 총알 깎지 있잖아 늦으로 된 거. 그거 옛날에는 구리 그거 귀했잖아. 그거 줏으러 다녔다고. 그래서 송장도 만나보고 아군 죽은 거. 아군 죽은 거 여기는.

#### 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구루마에다 무기 싣고 (건너왔어)

여기 아군이 들어와서 저기서 건너오는 거를 맞대응하려고 온건데 늦었어. 늦었는데 여기서 아군이 들어왔다는데 막대기총 갖고 경비섰다는걸 뭐. (아군이) 다 죽은 건 몰라도 더러 죽었어. 아군이 무기가 뭐 있어? 제대로 그때 (없었어). (인민군은) 말마차. 전부 말마차야. 배로다가 강령포 포구에다가 다 저기서 개풍군서 개성. 저 건너가 개풍군 개성 아니야? 그래서 인민군들이 배 타고 말. 그냥 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구루마에다 무기 싣고 (건너왔어). 말, 기마병도 있고. 여기뿐이 아니라 파주 저쪽으로도 들어왔겠지?

#### 전방에서 휴전되기도 그때도 포가 날아왔어

휴전되니까. 휴전이 딱 됐잖아? 여기? 휴전이 딱 되니까. 이게 전방에서 휴전되기도 그때도 포가 날아왔어. 이게 뽕뽕 떨어졌어. 여기도 떨어지고. 또 여기 집



들은, 밭들은 미국 땡크 부대가 있어갖고서는 거서 쏘고, 거기서 포가 넘어오고, 여기도 뽀뽀 떨어졌어. 여기도 떨어졌어. 산에도, 집근처에도 떨어졌어. 전쟁 끝 내놓고도 갈라놓고도 몇 해 (그게) 있다가 없어졌지. 포탄 날아와도 농사졌어. 위험해도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지. (죽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고, 다친 사람은 더러 있어. 난 안 다쳤어.

#### 마. 청년시절(농사일, 군대)

##### 집에서 농사 짓던 거 그냥 지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뭐 할 거 하고, 집에서 농사짓던 거 그냥 지었지. 농사 그냥 했지. 그때는 소로 갈고, 지금은 다 기계로 하잖아. 소로 갈고 그랬지. 옛날에는 다 힘들어도 먹고 살려니까 억지로 하고 살았지. 지금 사람들은 힘들면 안 하잖아. 지금 젊은 사람들 직장도 편한 직장만 가지려고 그러고 안 하잖아. 노동 이런 거 안 하잖아. 지금은 먹고 노는 사람들 노동일 힘들어서 안 하고 편안한 일만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 일 년 농사지은 거 겨울양식도 안 되지

그때만 해도 뭐 양식이 넉넉한가? 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지 뭐. 한 20세까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그때 시절에는 먹을 게 없고.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게 없어. 그때만 해도 지주가 따로 있잖아. 일해서 지주 주고 남는 거 그냥 겨울양식도 안 되지, 일 년 농사지은 거. 그렇게 살았다고.

##### 농사꾼들 안 하면 채소고 뭐고 농사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는거지. 힘들지. 힘드나마나 농촌에 농사를 지어도 힘들게 뼈빠지게 해도 안 해. 힘들기야 힘들지. 채소 같은 거 가꿔도 못하는 사람 있고, 흙 한 사발 떠도 허리아파서 도시 사람들은 앓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럭저럭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농사꾼들 안 하면 채소고 뭐고 농사가 어디서 나와? 힘들지 뭘. 지금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기계 부리는 사람들도 힘들어. 기계로 하는 데도 힘들어.

##### 제대하고 오니까 스물여섯 됐더랬나

군대는 갔다 왔지. 난 전라남도 광주에 있더랬어. 원래가...난 저거 했어. 삼십 몇

개월 했지. 6.25 나고 나서 군대 간 사람은 6, 7년씩 했더라고. 3년, 3년 했을 거야. 33개월 했나봐. 나? 제대하고 오니까 스물여섯 됐더랬나? (용강리에서 군대 말고 나가서 산 적은) 없어.

## 바. 혼인

### 중매하면 그냥 그대로 잔치날 잡아갖고

할머니는. 옛날에 그냥 중매하는거지, 어른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중매하면 신도 그냥 (못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거야. 서로 보지도 못하고. 중매하면 그냥 그대로 잔치날 잡아갖고 결혼식하고 그러는거야. 뭐 어때? 생각도 안 나. 그러는거니까 그냥 그랬지. (할머니 고향은) 여기 가까운 데야. 통진면이라고 통진면이야, 거기.

### 트럭 타고 가서 데려오는거야

나 26에 했나봐. 군대 갔다와서 바로. 할머니는 나보다 3살 아래니까 23. 예그 집에서. 그때는 결혼식장이 어디 있어? 없어. 그때는 가서 데려오는거야. 통진면 거기서. 그때, 그때는 인제 택시도 없어. 그때 나 장가들 시절에는 택시도 없고, 요 넘어 동네에 트럭이 있었어. 월곶면 전체에 트럭이 몇 대밖에 없었던 트럭이 있어서. 그 트럭 타고 가서 옛날 결혼 할 때 입는 옷 있잖아? 그거 입고 데려오는거야. 태워가지고 오는거야. (거기서) 혼례를 지낸거야. 몰라, 다 잊어버렸어. 부모네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지. 지금 사람들은 서로 사귀고 그냥 따지고 맘에 안 맞으면 고만두고 그러잖아. 지금은 결혼식하고도 갔다가 안 맞으면...그럼 안 되는데...

### 예쁘나마나 그때는 얼굴도 못 보고 장가들어

할머니도 한복 입고 족두리 쓰고 (했지) 예쁘나마나 그때는 얼굴도 못 보고 장가들어. 장가드는 날에 가서 보는거야.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사람들은 그냥 다 장가들기 전에 손도 잡고 그러다가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떨어지고 그러잖아.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큰 흠이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기 결혼식, 결혼하려면 몇 년을 두고 서로 그냥 말만 건네고 하다가 결단내잖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거 따지잖아. 옛날에는 무조건 신랑집에 재산 많으면 딸을 줄려고 그랬어. 지금은 안 그러잖아. 자기 맘에 안 맞으면 안 하잖아. 자기 성격, 자기의 맞는 저거만 따지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돈 많

으면 남자가 만나니짓해도 억지로 주고 그랬어.

#### 여기는 바로 데려와

저기선 자고 온다는데 저 아랫넛에서는 자고 온다는데. 여기는 바로 데려와. 경기도는 바로 데려와. 경상도 전라도서는 장가들라면 처갓집에서 자고 데려온다는데. 여기는 바로 데려와. 고장마다 풍습이 다 달라.

#### 밭술 하나 밥그릇 두 개, 숟갈 두 개 이런거 그렇게 갖고 세간내는거야

(맨처음 살았던 집은) 이 집이 아니야. 옛날에는 부모 사는 집에 가서, 옛날에는 한 집에 아들이 셋 있으면 거의 다 같이 살다가. 하나가 시간(세간) 내고 또 몇 해 살다가 분가내고 그래. 나 (훈인) 할 때는 아버지 돌아가고 없었어. 그때 그냥 일 년도 살다 시간 내는 사람도 있고, 2, 3년 살다가 시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큰아들 머느리 있어도 거기서 살다가. 나는 한 1년 살았나? 지금은 시간 내면 뭐 전세를 얻든지해서 내보내잖아. 그전에는 술 하나, 밭술 하나 밥그릇 두 개, 숟갈 두 개 이런거 그렇게 갖고 세간내는거야. 밥 해먹을 것만...지금은 벌써 결혼하면 방 얻어야 하고, 가구 해야 하고.

#### 불 때서 밥 해먹는 집이었어

(세간내고 나서) 요 윗집에 살다가 초가집 다 쓰러지는 데 살다 여기 (왔어). 이것도 초가집인데 살만한 집이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세 번 지은거야. 살다가 다시 고쳤지. 보일러 깔고...새로 수리한 지가 20년 됐을거야. 옛날에는 기와 올리고 지었는데. 부엌에서 불 때서 밥 해먹는 집이었어.

#### 나무 하는 거, 일과가 그거야

나무 하는 거 힘들지. 나무 하는 거 아침 먹으면 한 짐 해오고, 저녁 먹으면 한 짐 해오고, 일과가 그거야. 겨울에는...아유. 지금 사람들은 못 해. 어떻게 그렇게 해? 지금은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놀러가고 먹으러가고 다 괜히 지금은 저기 지금은 살기 어려운 것이 쓸데없이 낭비해서 먹구 살아서 그래.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타고 다 나가서 먹으니 월급 2, 3백 타서 두 식구, 세 식구해서 몇 만 원 먹잖아. 그런 데 찾아가서 돈 다 쓰고.

### 일하다 힘들면 떠들고 그러지

(할머니와는) 좋으나마나지 뭐 같이 사는거지. 같이 일하다 힘들면 떠들고 그러지. 떠들면서 살고 그러는거지. (아이네) 사 남매. 딸 셋 아들 하나. 아들은 마송 통진면 살고, 딸들은 서울도 살고, 인천도 살고, 김포도 살고, 자주 와. (이제) 김장을 하려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같이 해야지. 해서 지 먹을 거 가져가는거지. 도와주긴 뭐 도와줘. 해서 지네들 가져가는거지. 이번 주말정도 해야지. 지금은 도시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 다 사다 먹잖아. 다 사다먹고 허는 사람은 다 하고. 사다 먹으면 비싼데.

### 사. 천주교

#### 몸이 한군데 성한 데가 없어

농사? 벼농사 짓다가 올해부터 못 짓고. 조금만 짓는다고 조금만 지었지.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어디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한군데 성한 데가 없어. 다 그렇지. 병원에 가도 다 이상이 없고. 어디가 한군데 딱 아프다고 그래야지 그게 치료가 되는데 무릎 아프지, 다리 아프지, 골치 아프지. 그냥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네들이 병원에 다니는 거. 병원에서 그냥 달래라고 치료해주는거지. 나으라고 치료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노인네들 비우(비위) 맞춰주는거지. 원인 치료는 안 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지금. 병원에...약봉지가 저기 수십 가지 (있어). 신경안정제, 다리 아픈 데, 허리 아픈 데 잠 안 올 때. 그래서 (먹을 것만 해) 올해부터...

#### 집에서는 잊어버리고 순서를 깜빡하고 그러는데

(천주교 나간 지가) 한 2년 됐어. 그냥 왜 갔냐면 신경 쓰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나 한번 나가볼까하고 그런 거를 믿는 데가 없으면 맨날 교회 나와 달라고 선교하는 사람이 다니잖아. 그래서 천주교 나가면 그냥 그 사람들은 인제 교회 믿는 사람들은 술도 삼가 하잖아. 그런 것도 안 먹고 마귀라고 그러잖아.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기나 다녀볼까 하고 갔는데, 가면은 젊었으면 기도문 이런 거 다 외우고 어느 정도 하는데 다 가서 거기서 하면 따라는 하게 돼. 집에서는 잊어버리고 순서를 깜빡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폭 빠지고 그러는 건 없어

통진성당에 나가. 매주 가야지. 오늘은 못 갔어. 좋으나마나 아직도 별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없어. 내가 그냥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피로운 데가 많아서 나 가는데. 그게 또 다니다가 고만 둔다는 것도 체통머리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마음 속으로 죽는 날까지 (간다고 하는거야). 거기 가면은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가는거야. 동네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것도 동네 사람이 권해서 같이 갔는데. 천주교에서 좋은 말만하고, 없는 사람도 돕고, 남에게 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좋은 말만 하지. 나쁘게 선도 하는 건 없어. 그래서 그냥 일요일에 같이 가고 그러는거지. 거기에 폭 빠지고 그러는 건 없어.

터주가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없었어

할머니는 안 가. 같이 가재도 죽어라고 안 가. 차멀미를 해. 차멀미를 해서 굳하리만 갔다 와도 차멀미를 해서 안 가. 절에도 안 가고 그냥 옛날에 저거 미신 믿었지. 미신. 왜 궁금하면 만신네도 가고 그러잖아. 무당네도 가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나 나가고 나서 그런 데는 가지는 않고. 할머니들 있잖아. 터주가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없었어. 천주교 나가기 전까지는 있드랬어.

(할머니가) 옛날에는 그 전에는 만신네 무당집에 가서 부적해오고 그거 갖다



정해일 씨



노인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몇 십만 원씩 해서 해왔는데,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하고.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천주교) 나가니까 안 되는 일니까 다 포기하는거지. (할머니가) 자기는 (안 가도) 시간 되면 빨리빨리 가라 그러고, 시간되면 가라고 뒷바라지 해줘.

## 2. 내가 쓰는 우리 마을이야기

### 나는 용강리 밀렵감시단장

정유현<sup>3)</sup>

나는 1943년 4월 8일(음) 용강리 50번지(먼지락)에서 태어났다. 그때 당시 먼지락에는 집이 6가구밖에 없었으며, 내 나이 또래의 친구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가끔 일이 없으실 때에는 내 손을 잡고 마실을 데리고 가셨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가 이웃집들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는 한강 하류 앞산 넘어 한두망 바닷가에서 뱀장어, 송어, 농어를 잡아 회로 또는 구워먹던 자연환경 속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이 그림기만 하다.

밤이 되면 집 울타리 밖에서 여우들이 울어대던 무서운 밤의 기억과 초등학교 시절 책보를 어깨에 메고 걸어서 학교를 오가며 싱아와 짚레, 풀뿌리, 머루다래, 소나무 껍질 송기를 벗겨 먹으며 배고픔의 시절, 옛 추억을 지금도 그 산길을 걸을 때는 그 추억을 생각하게 된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6.25로 인한 고통, 고난의 시절이다. 당시 나는 8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다. 아버지께서는 6.25사변 전 이 지역이 공산체제를 선호했던 시기에 인민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부여받아 활동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살려면 빨리 월북을 하라하여 월북을 하셨다. 그 후 남은 우리 식구들은 가끔 순경들이 들이닥쳐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온 몸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면서 아버지가 숨어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다. 얼마 후에는 과출소로 끌고 가 폭행과 불, 물고문까지 가하여 의식을 잃고 피명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귀가를 시킨 후에는 식량과 가재도구들은 몽땅 몰수해 갔다. 그 해 우리 식구들은 주야로 감시를 받으며 벼농사까지 다른 사람에게 수확을 하게하고 우리는 벼 1가마니만 받게 하여 1년간을 4식구가 초근, 목재로 연명을 하였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발농사로 지은 감자와 산도토리를 주워 마루 밑창을 뜯고 마루 밑바닥에 감추어놓고 감시를 피해 몰래 꺼내어 먹어가며 연명을 해 기아의 선상에서 기적의 생명을 유지시켜 살아왔다. 그 고통의 고난역경을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오싹해 진다. 어디에 다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당시 학교는 휴교가 되었고, 1년 후 개교되어 초등학교는 겨우 다닐 수 있었지만 먹고



3) 용강리 주민이며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밀렵감시단장이다. 마을과 자연환경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일로 이름이 나 있다. 마을의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만큼 마을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다.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본인은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였다. 그 후 2년간 동네 사랑방에서 서당공부를 한 것이 다이다. 여건상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나이 시절부터 논, 밭갈이, 쟁기질까지 해가며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남의 집 머슴살이까지 해야 했다. 나이가 들자 군에 입대를 하였다. 그러나 군에서도 부친의 신분 관계로 부대 배치와 직책에 많은 제한을 받아야만 되는 불리한 신분이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남들보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중하였다.

남들은 군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다고 했지만, 고난에 단련된 본인은 군 생활이 오히려 힘이 덜 들고 배고픔도 덜하고 편할 정도였다. 이렇게 하여 제1군 하사관 학교까지 나와 군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임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다른 부대로 전출도 다녀보지를 못하고 꼭 붙잡혀 한 부대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며 인간적으로 많은 대우를 받았다. 월남 파병에도 신분상 파병을 갈 수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책임을 진다며 데리고 갔다. 파병된 후 최전방에서만 붙잡혀 2년간의 그 많은 전투마다 승전 전과를 올려 기자들이 고정배치 되기도 하고 수차례 훈장을 받았다. 기적의 생명으로 신문, 방송에까지 나가 많은 펜팔이 이어졌으며 에피소드도 많았다. 모셨던 지휘관님들과 부하들까지 상명하애로 좋은 인연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 이 벽촌집까지 자주 찾아오는 보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국의 정신이 충원되어 보탬이 되고자 남은 인생은 사회봉사 위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자 한다.

이렇게 24년간의 군 생활로 외지에서 살다 27년 만에(1991년)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고향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니 나날이 생태,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의 우선순위는 미래지향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제일 큰 유산은 자연, 생태 환경 보전이라는 것으로 결심이 섰다. 그래서 1994년부터 앞에 나서서 환경 지킴이로 환경 파괴자들과의 싸움을 시작하였다.

이곳은 외지인들이 산자락 땅은 거의 다 매입하여 개인 영토 위주로 지목 변경을 시켜가며 환경영향평가는 외면한 채 무조건 맹지라도 공장 및 주택단지, 불법단지로 까내리는 중장비들의 소음이 끊이지를 않았다. 처음에는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해 봤지만 '네 까짓 촌놈'이라는 무시 하에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였고 자기네들은 전·현직 공무원들이고 또 고위층과의 인연 관계가 있다는 품을 잡으며 우리 같은 촌뜨기는 사람 취급을 완전 무시하며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까불어대느냐는 식의,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였다.

그래도 본인은 순차대로 면, 군, 도, 국방부, 환경부, 감사원,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 시정 건의를 한 후 신문, 방송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때서야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시하더니 바로 본인을 찾아와 사과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대부분 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를 하게 시정이 되어 지금의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위장된 곳도 있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멸종된 생태를 되살리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만 아무리 건의를 해도 여러 가지 핑계로 말로



는 참고를 해보겠다고 한다. 생태 공생의 환경 문제 쪽은 너무나 외면된 채 정부의 탁상 공론 정책현실이다.

우선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점들은 첫째, 수로의 시멘트 포장으로 어류, 파충류, 곤충 생태계 파괴 및 멸종. 둘째, 대형 관정으로 주위 웅덩이, 습지의 건조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수시설을 갖추어 해결할 것. 셋째, 외지인들의 불법 호화 묘 단지 등 불법 묘지 산림 원상복구. 넷째, 산림의 영구 보존에 대한 정부대책 필요라는 것이다. 특히 용강리 마을은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화마름 등 중요한 자연 생태가 남아있는 곳이므로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다.

## 감사의 우물에서 퍼 올리는 행복

신상숙<sup>4)</sup>

외환위기의 거센 파도가 밀려왔다.

이 일을 핑계 삼아 남편의 직장에서도 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직원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있을 때여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안정된 직장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면 제일 큰 걱정이 아이들의 학비다. 하지만 피하지 못할 일이라면 마음 편하게 먹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터전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북한과 인접해 있는 민통선 마을 이기울에서 말이다.

외지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에는 군사 검문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편 없이 생활한다. 또한 개발이 자유롭지 않아서 자연 보호가 잘되고, 검문소 덕분에 도선생 걱정도 하지 않는다. 더구나 병사들의 깡뚫한 경례를 받아가며 출입 할 때에는 여간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다.

이른 봄, 샛노란 개나리에 이어 붉게 타오르는 진달래꽃이 문수산을 활활 태우고, 동네 한가운데로 흐르는 개울가엔 오동나무 꽃향기 가득하다. 농부들이 씨레질하는 주변에는 머리털이 황토색인 어린 백로 떼가 어미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면서 자맥질한다. 닭의 벼슬을 단 것 같은 후투티, 나무기둥을 요란스럽게 쪼아대는 딱따구리, 겨울나기를 마친 기러기 떼가 봄 하늘을 가득 메운다. 환경오염으로 거의 사라져가던 반딧불이도 집주변에서 반짝인다.

마당가에는 잔설 위에 피는 노루귀꽃을 시작으로 깽깽이, 둥굴레 등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야생화가 가득하다. 붉은 담장을 가득 메운 큰 으아리 꽃은 모시두루마기를 걸쳐 놓은 것처럼 희고 고결하다. 화류계 여인의 치맛자락 인양 여름이 다가도록 담장 위를 덮고 있던 능소화도, 팔월의 더위가 꼬리를 내리자 불품없이 낙화한다.

작은 유실수 묘목을 심어 놓고 자라나는 모습에 많은 나날들이 행복하다. 거기에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집주변이 온통 꽃밭이다. 여름이면 주렁주렁 농익은 자두와 천도복숭아가 우리식구들이 먹고도 넘쳐서 지나가는 길손들의 똬도 있다. 지인에게 받아다 심은 포도나무도 잘 자라서 남의 농지와 경계선으로 안정맞춤이다. 늦은 여름

4)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이 글을 쓴 신상숙은 마을주민이자 수필가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우체국에 근무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1996년 도시 생활을 접고 민통선 마을 이기울에 동지를 틀었다. 2009년에 한국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신인상을 받고 예술세계에서 수필로 등단하였다. 한국농촌문학상 시부문 수상(2008년), 동서커피문학상 시부문 작품상 수상(2010년), 현재 김포문인협회 회원, 예술시대 작가회원이며 수필집으로 <상속이의 팔뚝 치마>(2009)가 있다.

검붉게 익어가는 포도송이가 달콤한 향기를 더해서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모심기하는 날에는 결두리(새참 전에 먹는 음식) 새참 등 일하는 사람들의 먹을거리 장만해서 밥 광주리 머리에 이고 먼 들녘까지 나가야했다. 고달프던 아낙들의 삶이 이젠 먼 옛날 일이어서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한다. 요즘은 여자들이 농사일에만 매달리기보다 외지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가정 경제에는 많은 보탬이 되겠지만, 남자들에게는 예전에 누렸던 영화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 힘든 농사일을 혼자 하면서도 아침저녁 식사도 스스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차에는 빵이나 음료수, 소주병, 마른안주와 같은 먹을거리가 항상 실려 있다. 일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 논두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마른안주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나 농사정보도 교환하며 정담을 나누기도 한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다. 몇 해 전 김포, 강화 지역에 대홍수로 남편과 처음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이 떠내려가고 농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 밭을 덮쳤다. 돌무더기 풀더미가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에 눈앞이 캄캄하고 망연자실하다. 망가진 농경지 바라보면서 한숨뿐인 우리에게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위로 전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린 가슴을 달랬다. 가을걷이로 땅 속에 묻혀서 화를 면한 고구마 한 박스와 밭 귀퉁이에 조금 남은 들깨를 겨우 한 말을 수확하고도 감사했다.

수해 복구를 마치고 논과 밭 한편에 관정을 파놓으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있어서 좋고, 가뭄이 들어 밭곡식이 비들비들 마를 때에는 밭고랑에 온종일 물을 틀어 놓으면 가뭄해갈도 된다. 논배미에는 가뭄이 들어도 물마를 날이 없으니 남들과 물싸움 할 일도 없어서 편하다. 옛날 사람들은 물싸움 하다가 감정이 격해서 논 구석으로 처박히고 몸까지 상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하니 말이다.

어른들 말씀에 돈벌이가 전혀 없을 시절 농사일을 마무리 하고나면, 품팔이로 들어오는 수입원도 끝나기 때문에 섭섭했다고 한다. 농촌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살아오신 세월에 비할 수 있을까 싶다. 우리는 들일을 할 때나 가을걷이로 수확의 기쁨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농터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분들의 검소한 생활을 생각한다. 알뜰살뜰 모아서 당신들은 쓸 줄도 모르고, 자식 공부 가르치고 땅 사서 물려주고 죽어라 일만 하시다가 한세상 마치신 부모님이시다.

이제야 부모님께 감사함을 깨달음에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 중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 못한 일이며,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죄책

감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나마 잘한 일은 이곳에 정착하여 부모님께서 마련하신 터전에 농사 짓는 일이다. 남편의 퇴직과 함께 내 삶의 저녁나절이 다되어서 시작한 농사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 된 마음으로 남의 논과 밭을 열심히 살피가면서, 모르는 것은 무조건 물어본다. 또 농민신문이나 정보지에서 얻은 정보대로 열심히 가꾸고 보살핀 덕분에, 우리전장의 농작물도 이제는 남의 농경지가 부럽지 않다.

예전 같으면 다섯 명이 종일 모를 심어야 할 9백 평의 논배미이다. 전날 남편과 함께 모판을 날라다 놓은 덕분에 승용 이앙기로 겨우 두 시간 걸려서 딱딱 심었다. 새참으로 냉커피와 소주 한 병을 자동차로 싣고 나가면서, 목이 움츠러 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새참 광주리 머리에 이고 갈 때, 굽은 허리에 물주전자 들고 따라 오시던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새참 광주리 머리에 이는 데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밥 광주리 머리에 이고 가는 일이 서툴러서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농촌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어도, 이기울의 논과 밭을 지키며 농사일 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리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서쪽 하늘에 붉게 떠오르는 저녁노을과 온 산을 뒤덮은 알록달록 무지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소나무, 온 산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 올 때 행복하다. 논과 밭을 가득 채우고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우물에서 행복을 퍼 올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날갯짓을 아름다운 글로 담아내기로 했다. 자연과 벗하면서 벌 떼처럼 몰려오는 사유의 날개들이 꼭 잠긴 마음의 빗장을 풀어 줄 땐, 아이처럼 가슴 설레고 기쁘다.

강령포가 있을 때에는 용강리에 가는 것을 이기울 간다고 했다. 그것은 고려시대 말에 풍류에 능하고 아름다운 “이계월”이라는 기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계월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기울이 된 것이다. 이계월은 고려가 망하면서 개성에서 강령포로 이주하여 몰락한 선비를 그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게다가 동네엔 재미나는 지명이 참 많아서 웃음을 자아낸다.

도둑이 절에서 훔친 부처상이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달아났다는 부처골을 비롯해 서 생골, 소골, 궁골, 응골, 자바골, 홍니골, 북실이 골, 박골, 동백골, 용못골, 골짜기가 논배미 같아서 붙여졌다는 배미골 등이 있다. 왕의 침전을 강녕전이라 한다. 어부들에게 물살 센 바다를 두려워 하지마라는 뜻으로 명명하였을 성 싶은 강령포와 유도(머머리 섬) 가까이 근접한 문수산 사이에 ‘십삼만여’ 평의 농지와 들판이 형성되었다. 1950년 6.25 전까지는 반농 반어촌으로 수로와 육로의 교통이 발달된 곳이다. 고려시대



에는 300여 호의 촌락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강포와 함께 큰 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등지를 틀고 농사일 하면서 취미로 틈틈이 글을 쓰는 나의 직업은 농부의 아내이면서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며. 내가 심고 가꾼 농산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이기울을 사랑하는 소박한 여인이다.

## 이기울의 겨울 이야기

갑자기 쏟아진 폭설이 산과들을 깨끗하게 덮어버렸다. 겨울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다하지만, 쌓인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방에만 박혀 있으려니 보통 지루한 것이 아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겹도록 나를 괴롭히던 잡풀들이 생각나고, 매화마름 겹겹이 넘실대던 무논배미가 시야를 아른거린다. 게다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문수산 소나무들이 가지가 꺾여 얼어 죽지나 않을까 별의 별 걱정이 다 드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매화마름 생각이 가장 널리 깊이 맴돈다. 매화꽃잎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일 것 같은 매화마름, 모내기 날이면 새참을 이고 남의 무논배미를 지나가야 한다. 무논배미에 넘실대는 하얗고 자잘한 꽃들이 신기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매화마름이라고 했다.

저수 시설이 따로 없는 이기울에는 가을걷이가 끝나자마자 모내기철을 대비해서 용연못에 흐르는 물을 논배미마다 담수하기 시작한다. 지난 봄 연못물이 가득 찬 논배미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범정보호식물” 매화마름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이기울에서 십여 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많은 매화마름은 처음 보는 장관이다.

아니! 그 옛날 출가할 딸이 있는 가정에서 필력이던 무명자락이 이기울 논배미에서 필력이다니.....논두렁을 서성이던 시선이 매화마름 황홀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었다. 제 작년에는 고니 두 쌍이 날아와서 가슴 설레게 하더니, 지난해는 매화마름이 군락을 이루어 세간에 관심을 끌어들인 것이다.

모내기 하던 날 새참을 먹고 나서 비어있는 그릇을 자동차에 밀어 넣자마자 차를 급하게 몰았다. 카메라를 들고 숨 가쁘게 다시 찾아왔지만, 사진 찍는 기술이 부족한 나는 저녁노을에 얼굴 붉히는 꽃들과 눈 맞추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길손의 발길이 머물고 자동차들의 질주가 멈추었다. 이들 모두가 매화마름의 꽃 잔치를 구경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감탄사를 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매화마름이 강령포

에 지천으로 깔려있고,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되어 환경부까지 나서서 보호를 하고 있으니, 우리 마을에서 매화마름이 사라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트랙터 굉음과 함께 매화마름이 땅 속으로 파묻히고, 두꺼운 층들은 썩어가면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땅에서 소출한 쌀은 차지고 밥맛도 좋아서 타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번 겨울이 아무리 춥다한들 김장독엔 맛깔난 김치 포기가 내 손길을 기다리고, 곳간엔 추청 쌀이 두둑이 쌓여 있으니 난 먹고 사는 걱정이야 진즉에 붙들어 놓은 셈이다.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서 책장을 넘기다보면 지루함도 사라지고, 추운 겨울도 금세 지나가버릴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온 산을 뒤덮은 눈 때문에 산짐승들의 먹이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새들도 눈 속에서 먹이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게다. 배고픔에 견디다 못한 고라니와 새 떼가 앞마당까지 내려와서 먹이를 찾는다. 심지어 고라니는 내가 애지중지 가꾸는 어린 소나무와 사철나무까지 모조리 먹어치우는 바람에 나무 이파리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산짐승들이 우리 집 앞마당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꼴이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양상한 줄기만 남은 어린 소나무 때문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다. 하지만 살아 있는 짐승들의 겨울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리들 할까 싶어 마음 한구석이 짠하다.

여름 내내 소중한 내 새끼처럼 아끼고 가꾸는 밭작물을 막무가내로 덤벼들어 모조리 뜯어먹지를 았나,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파, 마늘하며 봄 작물도 남아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려가며 고추 모종을 해놓아도 놈들의 푸짐한 만찬일 뿐이다.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았는 녀석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서, 차우차우<sup>4)</sup>를 보초로 세워보았지만, 고라니를 같은 종으로 알았는지 개들도 짖지를 았는 것이다.

천적이 따로 았는 고라니들의 피해를 견디다 못한 이웃집에서 녀석들이 드나드는 길목에다 “고라니 출입금지”라는 우스꽝스러운 팻말까지 세워놓았다. 콩밭 여기저기에 녀석들의 흔적을 보고는 “아니! 저놈들 도대체 언문도 모르나, 올해는 저 꼬락서니들 학교에 보내서 한글을 가르치던지 아님, 서당이라도 보내야겠다.” 라는 내 푸념에 이웃집 아저씨가 “아주머니가 고라니에게 한글 좀 가르치시지요.” 한다. 그 말에 “예! 아저씨가 고라니를 잡아만 오시지요, 제가 한글을 가르치겠습니다.”하고 깔깔 웃어제끼는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지난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일을 까맣게 았은 채, 녀석들의 먹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들도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창조자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수많은 생명체들이 눈 속에서도 봄맞이 준비를 할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이 쏘아내는 푸름으로 산과 들이 풍요로워지고, 야생동물들도 제가 머물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이기울 마을의 녀넌한 미소가 들녘으로 널리 퍼져나갈 것이니, 어른 아이 모두 모여 자진가락 울리며 농악을 울린다면 이 아니 좋으랴, 추청 쌀로 빛은 농주

4) 애완견 차우차우종

한 사발씩 돌려가며 “갠지갠 갠지갠 갠지갠 갠지갠, 개갠지 개갠지 객갠 객갠, 갠지갠 객갠 갠지갠 개갠, 개갠지 개갠 개갠지~~~.”<sup>5)</sup> 흥겨운 가락에 맞춰 팽과리 두들기리라.

이기울 사람들과 잘 살아 보세나, 그물을 손질하던 강령포 어부여! 먼지락과 용립 말에 고향을 둔 젊은이여! 이기울을 떠나 타동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착한 이웃들이여! 그리운 얼굴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고향으로 얼른 얼른 돌아오소! 쌀값이 폭락해서 심기 불편한 농부들도 강령포로 모두 나오시어, 이기울이 떠나가듯 지신밟기하면서 매화마름 황홀 속에 풍덩 빠져봅시다. 풍덩 빠지고 나면 나는 매화마름 꽃이 되어 강령포 무논을 하얗게 수놓게 되리라.

멀건 대낮 구들장 신세지면서 방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따끈따끈하여 나의 시린 등짝을 비벼본다. 하지만 아직도 이기울의 겨울산은 달마시안 무늬처럼 흰점이 희뾰뾰 남아 있다.

5) 이기울 구전 농요가락

## 이기울에 오시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아카시 꽃 터널을 뚫고  
달구지 덜렁이는 오솔길 돌아서  
이기울 들녘으로 발길을 돌리세요  
그곳에는  
햇볕에 그을리어 검게 탄  
사내들의 가슴에서  
기관차 맥박이 웅쑹음치네요  
가슴이 허전한 사람들  
백로 떼가 자맥질하는 이기울로 오세요  
그곳에서  
농부들의 구릿빛 미소도 만나시고  
이름 모를 들꽃의  
잔잔한 행복을 담아 가세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용의 눈물을 먹고 자라난  
매화마름이 출렁이는 이기울로 오세요  
그곳에서  
헬 수 없이 많은 목숨들  
저마다 목청껏 노래하는  
그들과 윤 창 한 번 하십시오.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들  
큰 고니 떼 찾아오는  
머머리섬으로 오세요  
그곳에서  
수많은 철새들을 만나시면  
마음의 날개가 돋고  
욕심의 부리가 무뎌져  
깃털같이 가벼운 몸으로  
하늘높이 자유로 날아 갈수 있지요





‘매화미르’는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매화마름꽃의 ‘매화’와  
용못에서 딴 용의 순 한글어인 ‘미르’를 합성한 말이다. 용강리 마을의 문  
화자원을 기록하고 새로운 용강리 마을의 문화콘텐츠를 제안한다.

## 1. 용강리 마을의 이런저런 자원들

문화자원은 자연문화자원, 사회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문화  
자원은 군락지, 연못 등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며 사회문화자원은 건축물, 조형물, 마을  
의 산물 등이다. 역사문화자원에는 역사적으로 마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등이 포함된다.

### (1) 자연문화자원

#### 가. 매화마름 군락지

매화마름은 4~5월에 흰색 꽃이 피어 한 달간 지속되는 식물로 1998년 멸종위기 야생  
식물 2급으로 지정되었다. 매화마름은 주로 논이나 논 주변 습지에 분포하며 보통 10월경  
발아하여 이듬해 4월~5월 초순에 꽃이 핀 뒤 5월 중하순에 열매를 맺고 휴면에 들어간다.

용강리 마을의 매화마름 군락지는 2008년 5월 16일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윤순영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국내에서 강화에 이어 두 번째로 확인된 것으로  
용강리 매화마름 군락지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군락지의 위치는 용강리 마을 입구에서  
용강로를 따라 한강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오른편에 있으며 평지논과 장승백이논 옆이고  
하선달방죽논, 갈가마논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용강리 매화마름 군락지> 안내  
표지판이 있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매화마름은 모내기철에 꽃이 핀다. 논농사를 위해서는 이 꽃이 지기 전에 논을 갈아  
야 하기 때문에 매화마름 군락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모내기 시기를 1주일 정도 늦추고 있  
다. 현재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매화마름의 개체 및 군락지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매화마을 군락지 안내 표지판

## 나. 용못

이 못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다하여 ‘용못’이라 부른다. 가뭄이나 장마에도 항상 수위가 같으며 연평균 18도를 유지한다. 마을 주민들은 용못의 물을 농업용수 및 빨래, 목욕, 김장 등의 생활용수로 쓰고 있으며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용못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 마을 사람들이 용못에서 용못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용못 설화

용강리 마을의 뒷산인 문수산에 지금은 터만 남은 용호사(龍虎寺)가 있었다. 1000년경 고려 초, 마을 앞에 물오리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루는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더니 못(淵)이 넓어지고 그 곳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로 올라갔더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후 용연(龍淵), 용못이라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들면 통진부사가 용못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용못에서 물놀이하는 마을 주민들  
(1990년/정해곤 소장)



용못에서 빨래하는 마을 주민들  
(1990년/정해곤 소장)



용못에 대한 설화가 적힌 안내판



용못 전경

용못에서 용이 승천한 이야기는 여러 곳에 있으나 이 마을의 경우처럼 용이 용못에 계속 있다가 승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여기서 용이 승천했는데, 여기서 용이 500년을 살았던 거예요. 전설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여기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용못) 500년을 살다가 다른 곳에서 200~300년을 살다보니까 여기(용못)가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와서 승천한거예요. 천 년을 묵어야 용이 승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





1차 정비 이후 용못 전경  
(1994년/ 정해곤 소장) (바깥쪽)

용못 정비 이후 세운 머릿돌  
(1992년/ 정해곤 소장) (안쪽)



용못 정비 이후 수문 (1992년/정해곤 소장)



현재 용못 수문

래서 여기서 이무기가 승천한거예요.<sup>1)</sup>

용못은 1990년대 초반 1차 정비가 이루어졌다. 수문과 함께 머릿돌을 세웠고, 용못 주변을 시멘트로 다듬었다.

이후 2007년 농촌노인 건강증진 공원사업 기간에 현재 용못의 모습으로 재정비 하였다. 2차 정비 때에는 용못에 자갈을 깔고, 용못으로 물이 유입되는 곳에 용의 머리 형상을 조각하여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였고 그밖에 물레방아 등 용못 주변 환



1) 김종환(남, 54세) 제보



용못 옆에 설치된 물레방아



용못을 바라보고 설치된 그네

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물 유입시설에 용의 형상을 활용한 것은 용못에 용에 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다. 연꽃 군락지

용못과 체험관 중간에 연꽃 군락지가 있다. 과거 논을 메워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구 농기계 창고 및 마을회관)을 지었고, 연꽃 군락지 역시 예전에는 논이었는데 체험관 건립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자연스레 연꽃 군락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연꽃 군락지



연꽃 군락지



## 라. 생태수로



생태수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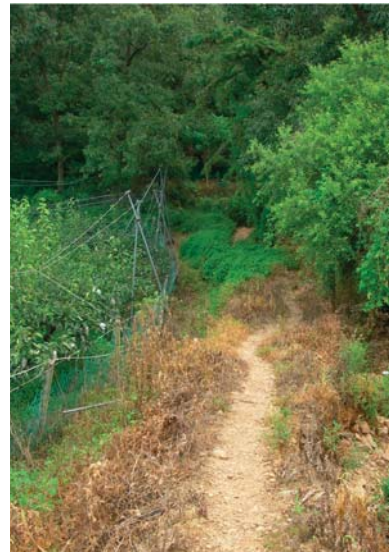
용강리 마을 입구부터 용꼬리, 용아가리를 지나 한강까지 연결되는 물길을 수로로 조성하였다.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인근의 용강로에서 상돌나들이, 장승백이 옆을 지나 용아가리까지를 생태수로라 칭한다.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뒤 지원금 일부로 13명 정원의 고무보트 2대를 구입하여 생태수로에서 래프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로의 폭은 15m이며 길이는 1.2km 정도이다. 이는 고무보트 두 대가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폭이며 생태수로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 데는 20~30분 정도 걸린다.



생태수로에서 래프팅 시 사용하는 고무보트

### 마. 계곡

용강리 마을 내 새마을을 지나 용강리 마을 입구 쪽으로 배 과수원 옆길을 따라 내려가면 계곡이 나온다.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인근부터 새마을을 지나 계곡에 이르기까지 전봇대에 계곡 가는 길 안내 및 방향을 표시하였다. 차량으로 새마을까지 이동할 수는 있으나 배 과수원을 옆에 두고 계곡까지 내려가는 길은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보로 가야한다. 계곡의 수위는 높지 않으며 의자나 평상,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물놀이 또는 쉬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계곡 내려가는 길목

## (2) 사회문화자원

### 가.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원래 매화미르마을 체험관은 2층은 마을회관, 1층은 농기계 보관 등을 목적으로 1994년에 건축되었다. 농촌전통체험마을로 선정된 후 지원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현재 체험관 건물은 김포시 소유이다



건축 직후 모습 (1994년,정해곤 소장)



건축 직후 모습 (1994년/정해곤 소장)



체험관 1층은 단체 숙소 겸 다목적 공간으로 사무실과 연향주 제조장을 꾸몄고 2층은 단체 식당 및 숙소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각각의 공간 모두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 숙소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구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체험관 건물 뒤편에는 가마솥 2구가 있다. 이는 단체 손님이 방문하여 2층의 단체 식당에서 음식 조리가 어려울 경우 이용하거나 떡메치기, 두부 만들기, 연향주 제조 등의 매화미르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사용한다.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위한 지원금 중 일부로 스크린, 빔 프로젝트, 마이크, 앰프 등 행사 진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여 1층 다목적 공간에 비치하였다.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입구 현판



체험관 건물 옆에 마련된 가마솥



체험관 1층에 조성된 연향주 체험장 입구

#### 나. 연자돌 및 평상

연자돌은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건물의 2층 연결 계단쪽의 공터 나무 밑에 있다. 연자돌은 연자방아가 없어지고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체험관 건립 이전에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과거 체험관 건물 건축 전에는 연자돌을 상(床)으로 삼고 주위에 자리를 두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다.



연자돌 주변에 모여 앉은 아이들 (1992년/정해곤 소장)



연자돌 주위에 모인 사람들 (1992년/정해곤 소장)

연자돌이 있는 나무는 현재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바로 옆에 있다. 또한 체험관 맞은편에 쌀을 탈곡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 추수철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연자돌 근처에 트랙이나 트랙터를 둔다. 연자돌 주위에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체험관 건물이 건축되고 도로가 포장된 이후에 체험관 건물 2층 연결 계단 쪽에 있는 나무 밑에 평상을 짜 놓았다. 나무 밑에 큰 원형의 평상을 두고 나무 기둥 부분을 잘라낸 모양으로, 나무 기둥을 평상이 감싸고 있는 형태다. 나무 바로 아래에 평상이 있어 나무 그늘에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또한 매화미르마을 캠프장에 사람이 많은 경우 평상 옆에 텐트를 치고 평상에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자돌



체험관 뒤편에 마련된 평상

## 다. 평화의 소

1996년 홍수로 떠내려 와 앞 발목을 부상당해 유도(留島)에 고립되었던 황소를 ‘평화의 소’라 한다. 당시 김포군수가 유도에서 구출된 평화의 소와 제주도 우도의 통일염원의 소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다. 평화의 소는 2006년 자연사하여 소각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 현재 용뚝 주변과 유도가 보이는 길목 등 총 2곳에 평화의 소 모형을 설치하였다.



유도에 발목지뢰가 많아. 밟으면 발목을 다치게 해서 부상을 입힌

다고 발목지뢰야. 그 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어. 소가 북에서 한강까지 떠내려 오다가 유도까지 간거야. 사실 떠내려 온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거든. 한 마리는 물에 쓸려 내려오면서 다리를 다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말이야. 근데 다른 두 마리는 섬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발목지뢰를 여럿 밟아서 죽었어. 움직이지 않고 살아남은 소가 평화의 소야.<sup>2)</sup>

유도가 보이는 길목에 설치된 평화의 소 모형

## 라. 매화미르열차

매화미르열차는 트랙터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객차를 연결한 것이다. 방문객들이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앞에서 탑승하여 용강로를 따라 이동하는 수단으로 매화마름 군락지를 지나 유도가 보이는 길목까지 운행한다. 내부에는 용강리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구경을 할 수 있게 벤치와 같이 좌석을 만들었다. 열차 측면에는 매화미르마을임을 알리는 문구를 부착하였다.

2) 김중환 (남, 54세) 제보





매화미르열차



매화미르열차 객차 내부

#### 마. 북녘 땅 전망대

용림말 문수산 줄기에 북녘 땅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북녘 땅 전망대'라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 날씨가 좋으면 여기에서 조강과 북녘 땅을 조망할 수 있다. 여기서 보는 유도너머 강화만으로 떨어지는 노을빛은 일품이다.



용림말에서 바라본  
북녘 땅 전망대

#### 바. 미르주와 연향주

연향주는 마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담그는 농주와 제조과정은 같으나, 중간에 연(蓮)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을 추가하는 것이 연향주이다. 체험관 1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연향주 체험이 가능하며 연향주의 제조부터 발효까지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연향주는 고슬고슬하게 찌서 알맞게 식은 술밥 위에 누룩과 연(蓮) 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비빈 후 발효통(술통)에 넣어 보름을 묵히면 된다. 마을 주민이 만드는 동동주를 미르주라는 이름으로 맛볼 수 있다. "물이 좋아 술맛도 일품"이다.

#### 사. 용강리 쌀

용못의 물을 농업용수로 하여 농사지는 쌀이다. 김포 쌀 중에서도 용강리의 쌀은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방앗간에 쌀을 맷기면 김포 다른 지역 쌀과 섞여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요즘은 탈곡기를 구입하여 마을에서 직접 수확한 쌀을 탈곡하고 관리한다.



## 2. 농촌전통테마마을 - 매화미르 마을

### (1) 조성과정 및 운영 현황

용강리 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선정되기에 앞서 2007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원한 ‘농촌노인 건강증진 공원’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다. 선정 후 지원금으로 용못 주변 정비를 비롯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는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기 위한 기초단계였다.

농촌전통테마마을 되기 전에 연못을 한거지. 전통테마마을 하기 전에 마을 증진 공원이라고 있어. 노인들 위한. 공원을 꾸며놔야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줘. 지원금 5,000만 원을 줬는데, 원래는 저 산 위에(북녘 땅 전망대 근처) 공원을 하려고 했어. 원래는 산을 돌아내려오면서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하려고. 산 주 2~3명에게 동의까지 다 얻었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받은건데, 시청 녹지과에서 산에 공원 만드는 허가를 받는데 지원금 반 이상을 달래. 지원금으로 공원 만들기도 뽁뽁한데... 안 돼서 용못으로 돌렸지.<sup>3)</sup>



3) 김중환 (남, 54세) 제보

정비된 용못 주변 및 용못 캠핑장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정  
표지판 (왼쪽)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농촌마을 지정 표지판  
(오른쪽)



매화미르마을 안내표지판

이후 2008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다.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 원으로 기존의 농기계 창고 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체험관 건물로 리모델링하였다.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면서 매화미르 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며, '용의 정기로 생명을 일구는 매화미르 마을'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주중에는 워크샵 목적의 단체 손님들, 주말에는 캠핑 목적의 가족 손님들 신청 받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 (2)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 가. 체험 콘텐츠

#### 마을 테마체험 프로그램

마을의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단체체험코스, 가족체험코스, 용못 캠핑장,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화미르 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마을 테마체험 프로그램이다.

	단체체험코스	가족체험코스	용못 캠핑장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세부내용	- 미르열차로 생태수로길 이동 - 북녘땅 조경 - 래프팅 - 미꾸라지 잡기 - 황토체험	- 미꾸라지잡기 - 황토체험 - 샤워 후 점심 - 계곡 물놀이 가능	- 용못 앞 캠핑장 에서 캠핑 - 미꾸라지 잡기 - 황토체험	- 전통방식으로 두부 만들기	- 참쌀반죽을 떡 메 쳐서 인절미 만들기
비고	20인 이상 예약			20인 이상 예약	20인 이상 예약
소요시간	48시간	2시간	48시간	30분	1시간
가격	10,000원	5,000원	25,000원	10,000원	5,000원

\* 매화미르 마을 홈페이지 자료 참고

미꾸라지 잡기 체험은 캠핑장과 용강로 사이의 논 옆에서, 황토체험은 캠핑장 북쪽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풀장 안에서 운영한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과 황토체험은 각각 진행 위치에 현수막 또는 팻말로 체험 장소임을 알리고 있다. 비닐하우스에는 황토체험용 풀장과 함께 샤워장이 있다. 특히 미꾸라지잡기 체험과 황토체험은 무료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즐기고 있다.



미꾸라지 잡기 장소



캠핑장에 마련된 황토체험장

매화미르마을 열차는 방문객을 태우고 주로 용강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용강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주로 용못과 용산(龍山)<sup>4)</sup>, 매화마름 군락지, 평화의 소 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생태수로에서 래프팅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화마름 군락지를 지나 고무보트에 탑승하게 한다. 매화미르열차는 생태수로 옆길을 따라 다시 체험관으로 돌아온다.

4) 용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생태수로 바로 옆에 있으며, 조강리쪽에 위치한다.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며 용의 꼬리는 내륙을 향해있다.





생태수로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생태수로에서 진행되는 래프팅의 경우 한 번 타는 데 20~40분 정도 소요된다. 또한 10명 이상의 방문객이 래프팅 체험을 원하는 경우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고무 보트에 태운 뒤 생태수를 따라 이동한다. 노를 저으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팀이 경쟁 혹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래프팅은 두 대의 보트가 같이 출발하여 같이 도착하는 단방향과 두 보트가 각각 반대에서 출발하여 중간지점에서 만난 뒤 이동하는 양방향으로 운영 가능하다.

두부 만들기과 떡메 치기, 연향주 만들기 등의 마을 테마체험 프로그램은 관련 프로그램을 예약한 경우 용강리 마을 주민에게 부탁하여 진행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준 마을 주민에게는 일정금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 숙박 프로그램

숙박은 크게 캠핑과 민박, 체험관에서의 숙박으로 나눌 수 있다. 용못 캠핑장은 용못 주변에 마련되어 있으며 방문한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지낼 수 있다. 민박은 체험관 인근 주민의 집을 이용한다.

#### 나. 축제 콘텐츠

##### 매화마을 생태체험 축제

2011년 5월 20일(금) ~ 21일(토)에 <제1회 매화마을 생태체험 축제>가 '민통선 넘어 때문지 않은 용강리 자연을 품다'란 부제를 가지고 진행 되었다. 축제의 주최는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은 김포시관광농업연구회이며 녹색김포실천협의회와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 협력하였다.

축제 프로그램은 크게 매화마을 생태체험, 생태수로 탐방, 연향주 제조 체험, 봄나물 채취·시식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었다. 매화미르열차로 매화마을 군락지를 방문하였고 생태수로에서 고무보트 체험이 가능하였다. 그밖에 떡메치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이 있었다.



용못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 민통선 오작교 예술제

〈민통선 오작교 예술제〉는 2011년 8월 20일(토) 오후 2시 30분 매화미르마을 체험관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12월 〈제1회 민통선 아동 평화통일시 낭송 음악회〉로 시작하였고, 이후 〈민통선 아동평화통일 한마당〉이라 명칭을 변경하여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다. 2011년에는 민통선 아동 위주로 진행하던 시낭송 음악회를 아동 및 예술인의 행사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민통선 오작교 예술제〉로 명칭을 다시 한 번 변경하였다.



〈민통선 오작교 예술제〉 진행 모습



민통선 오작교 예술제 현수막

〈민통선 오작교 예술제〉는 행사의 변, 시낭송 음악제, 초청 명사의 시낭송회, 민통선 아동잔치와 오작교 선언의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체험관 건물 입구에 고사상이 마련되어 행사 전·후에 고사를 지내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이 행사에서는 마을 주민보다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 (3) 매화미르마을 홍보



매화미르마을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mir.go2vil.org/index.html>)와 포털사이트의 카페(<http://cafe.naver.com/mirvill>)를 통해서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마을소개, 마을테마체험, 주변볼거리, 마을민박, 마을장터, 마을사랑방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을장터 메뉴에서는 특산물인 연향주와 용강금쌀, 해풍채소를 소개하며 말린 연근과 용강금쌀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매화미르마을을 방문한 체험자들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카페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다.

〈민통선 오작교 예술제〉 종료 후 고사 지내는 모습



농촌전문테마마을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 010-9816-9007 | 관리자에게  
RPA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제작한 홈페이지입니다.  
2009년 12월 이후 46227번째 방문

매화미르마을 홈페이지 (2011.10.17)

아흔아홉 골과 논에 이름이 있는 마을

### 3. 용강리 마을의 문화콘텐츠 활용

#### (1)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용강리 마을의 문화콘텐츠 개선 및 개발의 제1목표는 용강리 마을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직접 관여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인을 위한 문화콘텐츠가 아니라 마을 내부의 사람들을 위한 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하드웨어(시설)와 소프트웨어(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휴먼웨어(사람)를 모두 고려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시설은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사람은 용강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뜻한다. 용강리 마을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용강리 마을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마을의 문화자원을 단순히 체험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용강리 마을의 특수함을 담아야 한다. 다른 마을에서도 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프로그램이 아닌 용강리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용강리 마을의 문화자원과 결합하여 용강리 마을만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용강리 마을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주요 대상은 자동차로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초등학교 및 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다. 이들은 현재 캠핑을 목적으로 용강리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휴식 및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마을에 들어오며, 마을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험 콘텐츠/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을에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재방문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기도 하다.

## (2) 문화콘텐츠 활용의 이모저모

### 가. 용강리 쌀에 더하는 스토리텔링

용강리 마을의 물은 용못과 함께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오염이 적고 물맛이 좋다. 용강리의 물로 농사지은 쌀은 김포 내 다른 지역의 쌀보다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용강리 마을의 물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용못에는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마을의 물에 적용한다. 주제는 용강리 물을 통한 소원성취이다. 이를 용강리 쌀에 적용한다.

#### 용강리 쌀 포대 안내글



용강리 쌀 포대

#### 김포 : (금) 쌀

##### 김포쌀의 특징

- 임금님께 진상하였던 5000년 전통의 쌀입니다.
- 김포평야의 반도성 기후는 쌀의 결실을 좋게하여 밥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 김포쌀사랑회에서 친환경 농업과 건조, 가공 등 품종별로 관리 하였습니다.
- 가공자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 용강리 327-4
- 용강쌀작목반 전화: 031)987-3197

기존 쌀 안내글은 역사와 쌀의 특징, 가공자와 함께 쌀 가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포 전체의 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강리 쌀의 특징과 특색을 살리지 못한다. 용강리 쌀은 용못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여기에 용못의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용강리 쌀 포대는 용못의 물로 벼농사를 짓는 사실과 용못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스토리텔링의 주제를 엮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용강리 쌀의 특징을 보이고 정보전달 및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 용강리 쌀의 특징

- 임금님께 진상하였던 5000년 전통의 쌀입니다.
- 겨울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용강리 마을 내 용못의 물로 재배한 쌀입니다.
- 용못은 용이 승천한 곳으로, 떠났던 용도 다시 돌아올 만큼 용못의 물은 밥맛과 영양을 뛰어나게 합니다.
- 용못에서 용의 염원인 승천이 이루어졌듯이 용못의 물로 재배한 용강리 쌀을 먹으면 오랫동안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 가공자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 용강리 327-4  
용강쌀작목반 전화: 031)987-3197

#### 나. 용강리 마을 민속놀이 대회

1990년대 초반 정월초하루부터 그 이튿날까지 용강리 마을에서 민속놀이 대회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널뛰기, 줄넘기 등을 진행하고 순위별로 소정의 상품을 주었다. 이를 용강리 마을 겨루기 대회로 놀이내용을 개선하여 운영한다.

1년에 2회 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노인회관이나 매화미르체험관에서 진행한다. 대회 입장시 표를 구입해야하는데, 표는 3~5회 정도의 대회 항목 참가권으로 사용된다. 즉, 겨루기 대회 입장 시 구입한 표로 일정 수의 겨루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겨루는 항목은 윷놀이, 제기 등의 민속놀이 항목을 포함하여 마을의 지명 유래 및 일반 상식 퀴즈 등 마을의 정보도 함께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마을을 알아가고, 마주치기 힘들었던 마을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을 주민들도 즐기는 동시에 연령, 배경 등을 떠나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다. 용강리 마을기록관 운영

용강리 마을의 과거를 보여주고 기록해가는 공간을 조성한다. 용강리 마을은 과거 강령포 또는 아랫말에서 소개되어 용림말 또는 먼지락에 살게 된 사람이나,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용강리에서 거주한 기간은 길지 모르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보낸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인통제구역

안쪽에 위치하고 군사분계선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군부대가 들어오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외부로 이주해 나가기도 하며, 편의에 의해 마을의 물길을 바꾸는 등 마을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변화 양상이 크지 않고 과거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 관련 자료가 많지 않고 변화 전 과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마을의 몇몇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전의 마을 모습과 거주했던 사람들이 담긴 지도를 직접 그려서 보관하거나 과거 마을 행사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을 내에서 조금씩 마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의식이 생기고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마을의 기억과 추억을 남겨야 한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과거 용강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마을의 역사가 구전으로만 전승되어 훗날 왜곡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마을 주민과 공유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용강리 마을은 과거 어떤 모습이었고, 소개 전 삶은 어떠하였으며 주민들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을의 기록관이 필요하다.

먼저 용강리 기록관은 용강리 마을 전체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주민들이 마을의 문화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용강리 마을의 기록관은 마을에 비어있는 집을 활용한다. 과거 마을 주민이었던 사람의 삶이 담긴 빈 집에 마을의 역사를 누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 건물을 지어 현재 용강리 마을과 이질적인 감정을 생기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집, 나아가서는 용강리의 또 다른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스레 마을과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료는 주민에게 기증을 받는다. 기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져야한다. 사진, 사용했던 생활용품, 이야기, 추억 등 마을과 관계된 것이라면 가능하다.

또한 가능하신 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기록관에서 마을의 방문객 또는 아이들에게 마을 설명을 비롯하여 과거의 추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어르신들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삶의 지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삶의 활기를 부여할 수 있다.

용강리 기록관은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추억을 수집함과 동시에 이들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마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해오던 다양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분해야하는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의 삶과 그들의 지혜를 전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 보거나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라. 용강리 마을농장 운영

용강리 농장은 마을에서 공동의 명의로 논과 밭을 매입 및 관리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체험을 하고, 농장의 산물을 수확할 때 일정 무게당 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용강리 농장이 자리를 잡으면 추후 마을의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주말 농장은 사람들이 땅을 임대하여 '나의 땅'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파종부터 재배, 수확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용강리 농장은 '품앗이' 개념으로 일을 도와주고 추후 혜택을 받는 것이다. 용강리 농장에 등록을 마친 방문객은 용강리 농장의 재배일정에 맞춰 방문을 예약하고, 파종부터 재배, 그리고 수확의 전 과정 중 원하는 때에 참여할 수 있다. 농장의 품앗이에 참여한 내역은 마을에서 기록 및 관리하여 수확 이후 그 해 마을 농장에 참여한 만큼 농장 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참여 빈도 수가 높을수록 구입 시 할인율이 높아진다.

마을의 공동 사업을 농장에 국한시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텐트 대여를 시작으로 빈 집의 일부를 펜션으로 리모델링하여 캠핑과 민박뿐 아니라 확장된 범위의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 용강리 농장은 용강리 마을에서 휴식과 마을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스토리텔링의 원천 자료

#### 가. 이계월 이야기

이계월은 고려시대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여기서 기생을 강조하기보다는 풍류와 지조를 택하여 이와 관련한 테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외의 특별한 역사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다만 문수산성을 테마로 할 경우 보다 다양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은 교육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는 조선 고종 병인양요 때 프랑스 로즈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에 침입하여 이곳 문수산성까지 쳐들어왔다가 초관 한성근에 의해 격퇴당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콘텐츠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추후에 검토할 만하다.

## 나. 용강리 길에 담고 이야기 판을 벌일 수 있는 전설

마을 설화를 주제로 한 접근에서도 단순히 설화만으로는 존재 가치를 얻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서 자연과의 결합을 취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지명유래에서 채록된 흥미로운 지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용이거리** : 마을 앞 들판 맞은 편에 형성된 협곡의 형상

**기숫개** : 물이 너무 좋아 물이 들어간 한자, 계(溪)와 수(水)를 사용한 계곡

**선유재** :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공간

**고래굴** : 배니굴에 있는 조그만 동굴로 호랑이가 살았다는 굴

**송대장과 백대장 묘** : 송대장과 백대장이 이곳에 살면서 서로 힘과 지혜를 겨뤘다.

이러한 지명 유래를 지닌 공간들을 ‘용강리의 전설코스(가제)’라는 명칭으로 탐방로를 개척할 수 있겠다. 용강리의 경우 여타 마을에 비해 자연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용이하다.

그 중에서도 주목될 만한 것은 매화마름 군락지와 다양한 계곡뿐만 아니라 상여바위와 같은 지명유래도 도보여행 길에 접목시키기에 좋다. 용강리 마을의 걷기 프로그램은 단순히 흥니골에서 공골까지의 걷기로만 제시된다면 여느 길과 다름이 없다.

용못골에서 도깨비가 출현했다는 이야기는 단순 지명의 단계를 벗어나 이곳에서 도깨비가 왜 출현했는지 등을 설명하여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부처골에 돌부처가 있었다는 내용은 현재 사라진 돌부처를 재현하여 배치하고 이를 등산코스로 연결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또한, 용강리 마을에서만 전해지고 있는 지명유래담은 단순히 지명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서사구조를 온전하게 찾아내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회관이나 용강리 마을역사기록관에서 이들 이야기를 구연하는 storyteller, 즉 이야기꾼이 있는 ‘이야기 판마당’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이야기꾼의 활용은 동네 입담이 좋은 노인들 적극 활용하는 것이기에 상생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통 민속마을에서 이야기꾼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작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강리의 전설, 이야기 등의 채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마을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설 등을 충실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용강리의 문화자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쓰임새를 지닐 것이다.



#### 다. 마을 축제의 원천 소재

마을에서 전승되는 기우제와 달리 정월 보름에 행하는 마을신앙을 마을 축제일로 활용한다. 예컨대 문수산신을 마을신으로 모시는 산신제나 장승제, 당제, 강령포가 번성했을 때 정월 보름날 성행했던 취군놀이는 매우 의미 있는 마을 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지역 내에서도 다른 마을처럼 정월 보름이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강령포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장승백이가 있었다는 점은 용강리 장승제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데 유효하며, 이것은 용강리의 신앙적 특징을 재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김포시민들의 민간 신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그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다.

정월 보름날의 마을제의를 산신제에서 시작하여 낮에 하는 장승제, 그리고 밤에 불을 피우는 달집태우기까지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축제분위기는 김포문화원을 통해서 김포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경우 그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의 경우 토마토라는 작물을 상품으로 내세우



경기도 광주 엄미리 장승제 모습



경기도 광주 정지1리 달집태우기 모습

는데,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정월 보름 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공사례가 있다.

이 마을의 용뭇고사 역시 보다 극적인 문화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고사의 방식이 아니라 극사실적인 내용을 갖춘 문화제로서 자리매김을 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용뭇의 관리체계, 혹은 용뭇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 용뭇의 물을 이용한 양조방식, 용뭇의 물로 물맛이를 할 경우 신체적인 효험 등까지도 두루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용강리는 민통선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해병대이다. 행사를 할 때 해병대 사령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병사들의 가족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위문행사로 확장할 수 있다. 달집태우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면 축제 분위기의 고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용강리는 너른 논이 있기에 이 행사를 하는 데 안성마춤인 마을이기도 하다.



## 부록

# 먼지락, 새마을, 용림말의 세 마을로 이루어진 용강리

군사접경마을인 용강리는 세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용못을 중심으로 한 용림말,

검문소를 지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으로 마을회관이 있는 먼지락,

그리고 가장 나중에 조성된 새마을이 그것이다.











## 마을회관과 먼지락 풍경

검문소를 지나 용강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마을이  
먼지락이라 불리는 동네이다.  
용강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동네는 용못가에 형성된 용림말로, 이 마을 사람들이  
언덕너머 먼곳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먼지락이라 불렀다.  
요즈음에 와서는 이 마을이 외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까닭에  
마을회관도 위치해 있으며, 가옥 수도 가장 많다.







## 용림말

용강리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용못이 마을 가운데 있으며, 이 용못 주위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 새마을

1980년에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다. 주변지역보다 지대가 높아 북한의 시야에 보이는 적 가시지역이다. 그래서 마을을 조성할 당시 건물들을 고급 양옥으로 지어 용강리 다른 마을 가옥보다 신식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 용못과 전통체험마을

용이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연못으로 용강리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곳이다.  
문수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샘처럼 솟아나는 연못으로 가뭄이 심하여도  
마르지않아 용강리 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용강리는 2008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었다.

용못 주위에 체험관을 건립하여 체험객을 받고 있으며,  
용못 주위에 야영장을 설치하여 체험객들이 야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 용강리의 자연

문수산 자락이 북쪽으로 뻗어내려 한강과 맞닿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용강리.  
앞은 한강으로 열려있고 양 옆과 뒤쪽은 산으로 둘러싸인 채  
꽤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다.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유전 (원장)

강진갑 (경기학연구실장)

김지옥 (경기학연구실 연구원)

- 김포문화원

강보희 (원장)

류지만 (향토사연구소장)

이명재 (사무국장)

김종훈 (향토사연구소 전문위원)

- 조사·집필 <가나다순>

김종대 (중앙대학교 교수·민속학)

김지옥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실 연구원·민속학)

노현식 (중앙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연구원·민속학)

류지만 (김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지역사)

이승훈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민속학)

최보영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민속학)

한정민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콘텐츠학)

- 진행·교정 및 교열

김지옥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실 연구원)

이명재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김종훈 (김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전문위원)



경기도마을기록사업 ❶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마을지

## 아흔아홉 골과 논에 이름이 있는 마을

용못이 돌보는 생태마을 용강리

---

발행일 : 2012. 2.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실

031-231-8578



김포문화원  
Gimpo Culture Center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

031-982-1110

편집·디자인: 삼성광고기획공사

031-996-3141

---

본 책은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업비와 김포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